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책임자 정해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자은 (인디여성연구소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학업중단 청소년이 2010년 현재 61,91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지 않은 미진학자와 학교에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학업을 그만 둔 잠재적 학업중단자를 포함할 경우 많게는 그 10배에 달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한편, 학업중단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교육정책과 청소년정책차원에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학업중단에 이르는 과정이나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를 둘러싼 생태학적 지형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다르며,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 또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필요한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수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들의 생활세계를 조명하고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향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연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서 현장 전문가 집담회와 자문회의에 참여해주신 청소년지원기관 활동가 및 학교 상담선생님,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최 금 숙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학업을 중단한 십대 여성청소년들의 생활세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 청소년의 위기경험의 성별 차이와 학업중단 청소년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및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규모 및 특성 파악
- ☐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과 학업중단 이후 생활세계를 분석하는 한편,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여성청소년에게 미친 긍정적 효과와 지원 서비스의 한계 및 지원 요구 파악.
- ☐ 청소년지원기관의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젠더 분석을 통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게 제공되고 있는 지원 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 파악
-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3. 연구방법

- ☐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학업중단 및 위기경험에서의 성별 특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으며,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규모와 성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통계연보」의 지난 5년간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통계자료를 분석하였음.

☐ 심층인터뷰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학업중단에 이르게 된 요인과 학업중단 이후 생활 세계 및 지원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41명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음. 심층면접 대상자는 대안학교, 청소년지원 기관 및 시설의 협조를 얻거나 길거리 청소년 현장 발굴 및 이들의 친구를 소개받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방식을 병행하였음.

☐ 청소년지원기관 설문 조사 및 사례연구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성별 배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총 99개 기관(미인가 대안학교 12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개, 청소년보호시설 56개, 청소년자활지원관 14개)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주요 서비스 영역인 학업지원, 자립·자활지원,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 미혼모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각 1개씩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음.

☐ 현장 전문가 집담회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개발을 위해 현장 전문가 집담회를 진행하였음. 현장 전문가 집담회에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주체인 여러 청소년 지원기관의 사업담당자와 중등학교 상담교사가 참여하였으며, 총 3회에 걸쳐 실시되었음.

☐ 전문가 자문회의

연구 방향 설정 및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와 청소년지원기관 실태조사 설계과정에서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도구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각 1회씩 실시하였음.

4. 연구결과

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규모 및 특성

- ☐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의 학업중단 청소년 추이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

소년의 전체적인 규모(2010년, 여성 26,401명, 남성 35,509명)면에서는 여성 청소년이 남성 청소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학교급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규모를 보면, 중학교단계에서 학업중단한 청소년 중 여성청소년구성비가 고등학교단계에서 여성청소년구성비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런 경향은 2004년 이후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음. 이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규모가 남성청소년보다 적으나,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남성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중학교 단계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 학업중단이 일어나나 상대적으로 2,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음.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업중단은 지난 5년간 고등학교 계열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1학년 시기에 집중적 발생하고 있음. 2010년의 경우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절반이상(일반계 57.2%, 전문계 57.1%)이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으며, 남성청소년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임.
- 고등학교 계열별 학업중단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상업계 다음으로 많은 여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공업계의 경우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2010년 5.18%로 남성(3.89%)보다 높으며, 이런 양상은 2005년 이후 지속됨. 이처럼 공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성청소년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전 학교급에 걸쳐 매우 예외적인 현상임. 농업계 또한 2009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공업계와 마찬가지로 여성 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더 높음. 공업계와 농업계는 전통적으로 남성적 직업훈련분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업계와 농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성 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지원 요구

1)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배경요인

-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41명의 학업중단 시점을 보면, 중학교 시기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각 학년 별로 5~7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발생한 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

여, 우리나라 전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년별 학업중단 분포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냄.

- ☐ 가족환경의 경우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부모가 없는 가족 등 가족의 구조가 해체 및 재구성된 사례가 전체의 약 61%로,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토대가 취약한 가족환경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여성청소년이 많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어 있거나 부양자의 부재로 인한 ‘작은 엄마’ 노릇 속에서 과중한 역할부담을 견디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이 가출을 선택하게 되며, 이후 반복되는 가출은 결석일수 및 학업결손 증가, 일탈에 대한 낙인으로 연결됨으로써 학업중단에 이르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 결핍된 가정환경, 문화자본 속에서 성장하는 여성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문화자본을 축적한 또래들에 비해 학교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여기에 잦은 결석으로 인한 학업결손이 누적되면서 성적에 의한 서열화 문화가 존재하는 학교공간에서도 차별받고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됨. 이는 결국 학교생활을 지속해야 할 동기부여 부재로 연결되면서 학업중단으로 까지 이어지게 됨.
- ☐ 관계의 친밀성을 중시하며 또래집단의 문화에 큰 영향을 받는 여성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 상태에 있는 친구들과의 놀이 문화,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집단문화 등도 이들의 학업중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 이러한 요인들이 오랜 기간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중단 결정으로 이어졌으나, 대부분 힘든 상황을 일단 피하고자 급하게 학업중단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음. 따라서 여성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에 대한 계획은 거의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는 학업중단 이후의 가출 및 일탈행위 등의 반복, 심화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2)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 및 생애인식

- ☐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의 주요 경험은 크게 검정고시 및 대안학교와 같은 학업지속 노력이나 아르바이트 경험 등으로 나타남. 검정고시는 정규학교로의 복교나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청소년 이외의 모든

학업중단자들이 학업단절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임. 대안학교에 재학하여 학업 및 검정고시 준비를 지속하는 청소년들은 비교적 경제·문화적 자본이 축적된 환경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음. 대안학교 선택 외에 학교 복교 노력, 자체 검정고시 준비 등을 통해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으나 복교의 경우 학교부적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다시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었음. 또한 자체 검정고시 준비의 경우 혼자 학업 지속 노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탐색 관련 정보나 지도 등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됨으로 인해 미래를 구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볼 수 있음.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겪은 성차별적 경험은 아르바이트 구직과정 및 근로환경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남. 우리나라의 성인중심 노동시장의 성별화된 직종 및 채용문화와 그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생계를 책임지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성산업에 발을 들이게 함. 여성청소년들은 키스방, 노래방 도우미 등을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런 여성청소년을 둘러싼 노동환경은 그 특성상 여성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성매매로 유입될 수 있으며, 감금, 협박, 폭력, 성폭력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줌.
-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많은 여성청소년들은 자괴감, 무력감, 우울감, 자살충동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다양한 경험’ 등으로 긍정적으로 의미부여되는 반면, 여성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은 ‘실패’, ‘실패자/문제아’로 규정되는 경향이 됨.

3)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서비스 접근 경험과 지원 요구

- 여성청소년들 중에는 여러 계기로 접하게 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통해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과 보살핌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등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음. 사회적 지원을 통한 긍정적 경험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 ☐ 그러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은 많지 않고, 대부분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한 재정 및 인력 확충, 청소년지원사업 활동가들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재교육 등이 필요함을 보여줌. 또한 대안학교 학력인정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학력인정 자격취득과정의 압박감을 감소하려는 노력이나 청소년자활지원사업 분야의 다양화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서비스의 한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이 밖에도 학업중단 이후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맞춤형 학업지원, 직업체험과 같은 진로 개발 지원,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의 제공, 경제적·의료적 지원, 정서적 지지자와의 연계 등에 대한 지원 요구를 갖고 있음.

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젠더 분석

1) 청소년 지원기관 실태조사 분석

가) 프로그램 운영 및 이용 현황

- ☐ 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보호시설 등은 대체로 학업지원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기관들은 각 프로그램별 전담인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교육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됨.
- ☐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대체로 검정고시 대비 과정으로 최소 6개월, 최대 9개월 정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최소 4.8개월에서 최대 9.9개월에 달하여 진행되고 있음.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은 대체로 5~6개월, 여성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평균 8개월 정도에 걸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지원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약 17%,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25%,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은 25%, 성 관련

프로그램은 68%로,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음. 정부지원 이외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비중은 약 29%에 불과하며, 대체로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이 후원금으로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비율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 수는 남성청소년이 평균 962.1명, 여성청소년은 평균 1,031.5명으로 각 기관에 대한 접근성의 성별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학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는 여성청소년(평균 118.1명)이 남성청소년(평균 50.3명)보다 월등히 높음. 진로지원 프로그램과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에서도 다소간의 차이는 발견되지만 대체로 여성청소년이 남성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여성청소년 참여자 수 평균이 52명으로 또래 남성(17명)에 비해 월등히 높음.
- ☐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경우 약 50%는 학생들이 이전에 다니던 교사 소개로 참여, 19% 가량은 친구들의 소개, 17%는 인터넷 등 사이버 정보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의 경우는 64.1%가 경찰의 소개로 학업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 ☐ 여성청소년보호시설과 여자대안학교를 제외하고 여성청소년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었으며 이들기관들에서도 여성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유에 대해서 94.4%가 단지 그곳이 여성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이라고 답해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들이 여전히 성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나) 기관 담당자 현황

- ☐ 기관 운영인원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61.2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상담인력과 멘토, 자원봉사인력 위주이며, 교사인력은 남녀공학 대안학교가 가장 많았는데, 상근직 교사 5.56명, 비상근 교사 5.78명, 상담인력은 2.56명 내외임. 여자대안학교는 상근직 교사 3.33명, 비상근 교사 10.67명, 상담인력 4.33명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상근직 교사가 1.57명이고 비상근 교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대체로 멘

토·자원봉사인력이 9.21명인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은 상근직 교사 2.29명,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은 1.95명이며 비상근 교사는 1명 내외이며 상근교사 인력보다는 멘토·자원봉사인력이 7~8명으로 가장 많음.

-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교사 연수는 대체로 해당프로그램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로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58.6%), 특별한 교육이 없는 경우도 25.3%에 달함.

다) 프로그램별 실태와 문제점

- ☐ 학업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학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60.5%를 차지함. 그 주요 이유와 관련하여 프로그램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자원 부족(92.3%), 운영예산 부족(96.2%),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 부족(75%), 공간 부족(57.7%) 등의 항목에 대한 동의정도가 높았음.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 인프라에 대한 문제보다는 참여자의 참여의지 부족(90.4%), 기본적 학습능력 부족(92.3%), 가족 등의 주위환경의 지지 부족(83.3%) 등 참여자의 자질과 관련한 문제로 인해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결손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단 몇 개월 간의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장기적인 지원 및 충실한 사례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 ☐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 가능하다고 응답한 정도가 84%로 청소년들의 참여기회는 열려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여자 수준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34.8%)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인 것으로 드러났음. 대표적인 운영상의 애로점으로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 실무 담당 및 사례관리 인력의 부족, 전문지식 부족 및 지원금·지원처 확보의 어려움 등을 호소함.
- ☐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학업지원과 비교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사의 전문성이 더 요구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라 일반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그냥 쓰거나, 아니면 각자의 환경에 맞는 진로설계에 대한 학습을 하는 수준이라 해석할 수 있음. 특히 진로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외부 지원을 받아서 학습하기 어려운 상황(54%)으로 확인되어, 외부와의 자원연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줌.

- ☐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남녀의 특성이 반영되어 설계·운영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는데 담당자들이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임. 특히 청소년지원기관 활동가들의 성역할의식을 보면 청소년의 직업 및 사회생활 등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남.
- ☐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현장실습처의 다양화(55.4%),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확보(50.8%),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사례관리 도입(30.8%) 등을 필요사항으로 꼽고 있다.
- ☐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2.5%가 현재 프로그램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그 이유로는 운영예산의 부족(92.9%), 다양한 지역자원 부족(83.3%)과 참여자의 문제와 기관 내에서 사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목적달성의 한계를 들고 있음.
- ☐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정 상의 어려움으로는 여타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지원 인력확보의 어려움(54.3%), 많은 청소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40.7%) 등으로 나타남.
- ☐ 성 교육 프로그램은 대체로 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을 실시하거나,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0%가 프로그램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데 불충분하게 제작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다양한 지역자원 부족, 강사 등 투입인력의 전문성 부족, 참여 청소년 의지 부족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함. 프로그램 내용의 단계별·수준별 차별화 제공 비율은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남.

- ☐ 프로그램 운영 상 어려운 점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만한 프로그램 부족(53.5%), 자료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38%), 인력 부족(22.5%) 등을 들고 있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로그램 다양화와 외부자원 연계 등을 통한 개선(70%)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타 프로그램들에 비해 성별 특성 반영비율은 65.7%로 높은 편이나 청소년보호시설을 제외한 타 기관들에서는 성별 특성 반영 비율이 낮게 나타남.

2) 청소년 지원기관 사례분석

-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지원 서비스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업지원 사업, 자립·자활지원사업, 성매매 피해 청소년지원 사업, 미혼모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1개씩 선정하여 분석하였음.
- ☐ 분석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대체로 불안정한 가정환경 속에 성장하고 있으며 가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런 환경적 열악함과 그에 따른 심리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여서 일시적 지원만으로는 가출, 학업중단 등의 문제 상황이 반복되어 나타나게 됨. 여성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 상태가 오래 지속될수록 성매매 등에 의한 피해여성이 될 소지가 높고, 거리에 머무는 시간이 짧을수록 비행에 노출될 위험이 적으며 건강한 사회인으로 편입되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따라서 여성청소년의 유해환경 유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 바로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남.
- ☐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성장배경과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전문 상담가 및 지원자가 필요하지만 인건비 등의 문제로 개별 기관 차원에서 이런 전문가를 섭외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프로그램별 전문 지원인력 확충 방안이 요청됨.
- ☐ 성매매·성폭력 피해 등에 노출된 여성청소년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했을 때 사회안전망 확보에 보다 취약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유프로그램과 학

업·직업교육 프로그램이 융합 또는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확보되어야 함. 현재 기관의 운영비 구성비를 보면 정부부처와 지자체 지원액이 50% 정도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외에도 다양한 채널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됨.

5.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1)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여성청소년을 위한 학교지원 체계 구축

- ☐ 여성청소년들이 주변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 역할부담 등을 학교,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 학교 내에서 교사들이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강화

2) 학교 상담 체계화를 통한 학교 상담 강화

- ☐ 가정폭력이나 부모와의 갈등, 가출,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대폭 확충 및 학교 상담을 체계화 등을 통한 학교 상담 강화 필요

3) 학업중단 숙려제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도입

- ☐ 자퇴형식을 통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는 학생에게 자퇴, 전학 등 관련 문제를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숙려제 도입 및 여성청소년이 학업중단을 선택할 경우 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나. 지역사회 중심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서비스 강화

1)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 현재 학업중단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거리청소년은 늘고 있는 실정이나 이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줄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자를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확대해야 함. 이를 위해 학업중단 및 가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거리이동상담 활성화 필요
- ☐ 또한 온라인 상에서 성매매·가출 청소년이 자주 찾으며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아가 청소년 보호시설 등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방식의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 확대 필요

2)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 ☐ 학업중단은 또래 남성에게 비해 여성청소년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작동하기에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여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적절한 개입이나 프로그램 지원을 고민해야 함. 이를 위해 위기경험 여성청소년을 초기 지원·개입하게 되는 경찰 및 청소년상담원 등 지원인력의 젠더의식 제고를 위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강화 필요

3)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학업 지원

- ☐ 미인가 대안학교 졸업자에 대한 학력 인정제도 도입 : 학교제도권 밖 청소년들의 진로 및 자립역량 제고를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함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진로 및 자립지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이수할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 강구
- ☐ 미혼모를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신으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해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제 정비 필요

-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지원 : 미인가 대안 학교 운영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 운영공간 확보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유휴공간 활용 방법 강구 등 제도적 지원 필요

4)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

- ☐ 여성청소년의 역량 및 성인지적 진로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 학업중단 청소년지원기관 및 종사자의 성인지적 관점 부족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성매적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역량 및 성인지적 진로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하여 청소년 지원기관에 보급·실시 지원
-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꿈나래’(가칭)사업 실시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게 학업과 직업훈련, 사회·정서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청소년에게 더욱 폐쇄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유해산업 등으로 유입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는 국비지원 ‘꿈나래’사업 실시
- ☐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대상 자활지원 사업 확대 및 여성청소년 지원기능 강화 : 성인중심의 자활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을 특화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지침 수립·청소년층 자활지원사업 제도화 및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의 특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 강화
- ☐ 성매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내 자활작업장 운영 지원
-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제도 도입 : 가정폭력 등 정신적·육체적 학대나 방임·가출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안전과 돌봄,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대일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과 정서적 지지 제공 및 생애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1(청소년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조항 신설

5)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체계를 통한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 대부분 우울감 및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고, 산부인과 질환 등으로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가 요청됨. 보건소 및 정신건강센터의 친 청소년, 친 여성적인 의료서비스환경 조성을 통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접근성 강화와 진료서비스 확충

6)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화 및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3
나. 연구의 목적	7
다. 용어의 정의	8
2. 연구 내용	8
가.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성별 현황 분석	8
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 분석 및 지원 요구	9
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9
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9
3. 연구방법	10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10
나. 심층인터뷰	10
다. 청소년지원기관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	15
라. 현장 전문가 집담회	17
마. 전문가 자문회의	18
II.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19
1. 청소년의 위기경험과 젠더	21
2. 위기경험으로서의 학업중단	27
가. 학업중단의 원인 및 과정	27
나.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31

Ⅲ.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현황과 특성	43
1. 학업중단 규모 및 변화 추이	45
가. 학교급별 현황	48
나. 지역별 현황	51
다. 고등학교 계열별 현황	53
2. 성별 학업중단 사유	55
 Ⅳ.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지원 요구	 61
1.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63
가. 학업중단시기 및 중단기간	67
나. 현재 가족관계 및 주거상태	68
다. 가출경험	70
라. 현재 하고 있는 일	71
2.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배경요인	72
가. 가족배경	73
나. 학교배경	81
다. 또래집단 배경	88
3.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 및 생애인식	95
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방식	96
나. 학업중단 지속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110
4.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서비스 접근 경험과 지원 요구	131
가. 사회적 지원 서비스와 긍정적 변화 가능성	131
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한계	143
다. 학업 중단 여성청소년의 지원 요구	155
5. 소결	163

V.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서비스에 대한 젠더 분석	169
1.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171
가. 사회적 지원	172
나. 취업 지원	178
2.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결과	181
가. 조사 응답기관 특성	181
나. 프로그램 현황	182
다. 기관 및 종사자 현황	194
라. 프로그램별 운영 실태	202
3. 청소년 지원기관 사례분석	245
가. 기관의 특성과 현황	246
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욕구와 특성	248
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	251
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애로점	253
4. 소결	260
VI.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269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272
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여성청소년을 위한 학교지원 체계 구축	272
나. 학교 상담 체계화를 통한 학교 상담 강화	276
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도입	277
2. 지역사회 중심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서비스 강화	278
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278
나.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280
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학업 지원	281
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	286

마.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292
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293
참고문헌	295
부 록	299
1. 부표	301
2.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표	303
Abstract	321

표 목 차

<표 I-1>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4
<표 I-2> 학업중단 청소년유형별 심층면접 대상자 집단의 구성	11
<표 I-3> 심층면접 대상자 발굴처별 심층면접	13
<표 I-4>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심층면접 내용	14
<표 I-5>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기관 실태조사 현황	15
<표 I-6>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설문항목	16
<표 I-7>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기관 사례연구 내용	17
<표 I-8> 전문가 집담회 추진 현황	18
<표 II-1> 위기요소 및 위기수준에서의 성별 차이	22
<표 II-2> 위기스크리닝 척도별 성별 응답률(2009)	23
<표 II-3> 학업중단 청소년유형별 특징 및 진로지도 내용	34
<표 II-4> 학업중단 청소년유형별 성별 분포	37
<표 II-5>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성별 분포	38
<표 II-6> 지금까지 일했던 업소의 성별 분포(중복응답)	38
<표 II-7> 일을 하게 된 성별 동기	39
<표 II-8>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별 만족도	40
<표 II-9> 성별에 따른 직종과 임금 차이	41
<표 III-1>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율(2004~2010년)	46
<표 III-2>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자수(2004~2010년)	47
<표 III-3>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자의 학년별 분포	50
<표 III-4> 학교급·지역·성별 학업중단율	51
<표 III-5> 지역·성별 학업중단자의 학교급별 분포	52
<표 III-6> 고등학교 계열별 학업중단자 규모 및 학업중단율	53
<표 III-7> 전문계 고등학교 전공별 학업중단자 규모 및 학업중단율	54
<표 III-8> 고등학교 계열·성별 학업중단자의 학년별 분포	55
<표 III-9>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성별 학업중단 사유	56
<표 III-10>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성·지역별 학업중단 사유	57

<표 III-11>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성·계열별 학업중단 사유	58
<표 IV-1>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정보	63
<표 IV-2> 심층면접 대상자의 학업중단기간	68
<표 IV-3>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의 아르바이트 종류	108
<표 V-1>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171
<표 V-2> 대안학교 현황	172
<표 V-3> CYS-Net 운영지역 및 서비스 이용 인원	173
<표 V-4>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173
<표 V-5> CYS-Net 이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주 호소문제유형별 성별 현황	174
<표 V-6>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	175
<표 V-7> 두드림존 현황	176
<표 V-8>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주요실적	177
<표 V-9> 청소년 동반자 현황	177
<표 V-10> 청년 뉴스타트 민간위탁기관 현황(2009년 10월 기준)	178
<표 V-11> 청년층 뉴스타트 현황	179
<표 V-12>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 유형별 특성	179
<표 V-13>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동기	180
<표 V-14>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1순위)	180
<표 V-15> 응답기관 특성	182
<표 V-16>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형(복수응답)	183
<표 V-17> 프로그램 총 운영기간	184
<표 V-18> 프로그램 총 시수	185
<표 V-19>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수	185
<표 V-20> 프로그램 정부지원예산 규모	186
<표 V-21> 정부지원 이외 후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유무	187
<표 V-22> 기관이용 청소년의 성별 분포	188
<표 V-23> 학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성별 분포	189
<표 V-24> 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성별 분포	189
<표 V-25>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성별 분포	190
<표 V-26>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190

<표 V-27> 기타 프로그램 참여인원	191
<표 V-28> 프로그램 참여 경로(1순위)	191
<표 V-29> 프로그램 참여 경로(복수응답)	192
<표 V-30>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사항(복수응답) ..	193
<표 V-31>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이유(복수응답) ..	194
<표 V-32> 기관 운영인력규모	195
<표 V-33>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전문강사 확보 여부	196
<표 V-3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연수 실시 여부(복수응답)	197
<표 V-35> 프로그램 운영 예산 충분성 여부	197
<표 V-36>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부족한 부문(1순위)	198
<표 V-37> 청소년 취업 연계 관련 구체적 역할 수행 여부	199
<표 V-38> 청소년 취업 연계 관련 구체적 역할 수행 사항(복수응답)	200
<표 V-39> 성역할과 관련한 주관적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201
<표 V-40> 사용하고 있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처(복수응답)	203
<표 V-41> 학업지원 프로그램 목적 적합성	203
<표 V-42> 학업지원프로그램 목적달성 불충분 이유(동의를)	204
<표 V-43> 학업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복수응답)	206
<표 V-44> 학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정도	206
<표 V-45> 학업지원 프로그램 단계적 수준 개발 여부	207
<표 V-46> 학업지원 프로그램 단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	207
<표 V-47>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208
<표 V-48>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미반영 이유	210
<표 V-49> 학업지원 프로그램 전후 남녀 반응의 차이(복수응답)	211
<표 V-50>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필요 여부	211
<표 V-51>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사항(복수응답)	212
<표 V-52> 운영 중인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의 개발처	213
<표 V-53>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목적 적합성	214
<표 V-54>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215
<표 V-55>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주요 내용(복수응답)	216
<표 V-56>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정도	217
<표 V-57>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단계적 수준 개발 여부	217

<표 V-58>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단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	218
<표 V-59>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219
<표 V-60>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미반영 이유	220
<표 V-61>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에 여성청소년 특화 내용 포함 여부 ..	221
<표 V-62>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에 포함된 여성청소년 특화내용 (복수응답)	221
<표 V-63> 진로·직업 찾기 교육전후 남녀 반응 차이 여부	222
<표 V-64> 진로·직업 찾기 교육 전후 남녀 반응의 차이(복수응답)	222
<표 V-65>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개선 필요 여부	223
<표 V-66>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개선 사항(복수응답)	224
<표 V-67>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여부(복수응답)	225
<표 V-68>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목적 적합성	225
<표 V-69>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목적달성 불충분 이유(동의율) ..	226
<표 V-70>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복수응답)	227
<표 V-71>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정도	228
<표 V-72>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단계적 수준 개발 여부	229
<표 V-73>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단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 ..	229
<표 V-74>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230
<표 V-75>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미반영 이유 ..	232
<표 V-76>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여성청소년 특화내용 (복수응답)	232
<표 V-77> 사회·정서 프로그램 교육후 남녀반응 차이(복수응답)	233
<표 V-78>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선 필요 여부	234
<표 V-79>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선 사항(복수응답)	234
<표 V-80> 운영 중인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처(복수응답)	235
<표 V-81>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적합성	236
<표 V-82>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목적달성 불충분 이유(동의율)	236
<표 V-83>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주요 내용(복수응답)	238
<표 V-84>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정도	239
<표 V-85>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단계적 수준 개발 여부	239
<표 V-86>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240

<표 V-87>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미반영 이유	242
<표 V-88>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 포함 여부	242
<표 V-89>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중 여성청소년 특화내용(복수응답)	243
<표 V-90>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후 남녀 반응 차이(복수응답)	244
<표 V-91>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선 필요 여부	244
<표 V-92>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사항	245
<표 V-93> 청소년 지원기관 특성과 현황	246
<표 V-94> 기관 주요 프로그램 구성	247
<표 V-95>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프로그램	254
<표 V-96> 꿈틀학교 교과과정	255
<표 V-97> 새날을 여는 청소년 센터 프로그램	257
<표 V-98> 나래대안학교 교과과정	258
<표 VI-1>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주체	271

그림 목 차

[그림 III-1] 학교급별 학업중단을 추이	46
[그림 III-2]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교급별 분포	48
[그림 III-3] 학업중단 남성청소년의 학교급별 분포	49
[그림 V-1] 두드림존 프로그램 소개	176
[그림 V-2]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율	209
[그림 V-3]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율	220
[그림 V-4]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율	231
[그림 V-5] 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율	241

부 표 목 차

<부표 III-1>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지역·계열별 학업중단 사유	301
<부표 V-1> 성역할 태도에서의 성별 차이	302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8
3. 연구방법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12월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교육복지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져 계층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구조를 타개하지 않으면¹⁾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과 경쟁’에 바탕을 둔 교육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정책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부적응 및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학업중단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대안학교 설립관련 규제 완화, 대안교육 위탁기관 설립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2009년에는 ‘학교부적응 및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2009. 4. 14)에 따라, 기존의 정책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5만 명에서 7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2005년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에 73,434명으로 가장 많은 학생이 학교를 떠났으며, 이후 점차 학업중단 청소년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은 61,910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을 고등학생(55.8%)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단계에서의 학업중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200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반해 2010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1) 최근 10년간 중산층 가구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96년 68.5% → '07년 58.0%), 빈곤층은 크게 증가하는('96년 11.3% → '07년 18.3%) 등 소득 상하위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상대적 빈곤율도 14.6%로 OECD 평균 10.8%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2008. 12, 교육과학기술부).

4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표 I-1〉 초·중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2005	16,793(0.42)	14,165(0.70)	24,037(1.36)	54,995(0.71)
2006	18,403(0.46)	15,669(0.78)	23,076(1.31)	57,148(0.73)
2007	23,898(0.61)	18,968(0.91)	27,930(1.57)	70,796(0.90)
2008	20,450(0.55)	20,101(0.98)	32,943(1.73)	73,494(0.96)
2009	17,644(0.51)	19,675(0.98)	34,450(1.75)	71,769(0.96)
2010	11,634(0.35)	15,736(0.80)	34,540(1.76)	61,910(0.86)

자료: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는 각급학교 전체학생대비 비율

정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롯, 가출 등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Wee Project(교육과학기술부), CYS-Net(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 부적응 등의 문제를 노출하고 있으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Wee 클래스, Wee 센터 등 이들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내 상담을 활성화하는 한편, 잠재 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ADHD 선별검사 등 전문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여성가족부는 학교를 그만두고 사회에 나와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 CYS-Net 등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두드림존」 운영, 직업훈련 및 취업기획 확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1년에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롯한 취약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11. 2, 한국청소년상담원 내부자료). 이는 학업중단, 가출, 시설보호, 다문화 등 성인기로의 자립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청소년이 매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²⁾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약청소년들은 심각한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자립역량 부족 등으로 자립 이행

2) 자립지원 필요 청소년(2009) : 전체 118,290명, 학업중단 71,769명, 가출 15,118명, 다문화 14,216명, 시설보호 4,767명, 가정위탁 2,947명, 보호관찰 8,840명, 북한이탈 633명(2011. 2, 한국청소년상담원)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의 복지수요자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아 취약청소년들에게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역량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 지원을 목표로 한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이처럼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위기청소년 또는 취약 청소년집단의 주요 정책대상의 하나로, 이들의 건강한 성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이나, 학업중단 청소년유형 등에 따른 보다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기는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 생태학적 지형과 이를 내면화하는 과정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책과 제의 성인지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청소년 정책이 청소년기에 있는 여성과 남성이 겪고 있는 위기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청소년 일반을 대상으로 한 성 중립적(gender-neutral)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정해숙 외, 2010). Carol Gillian이 청소년기 여성의 발달과정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이래,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급격한 신체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투사하며, 그 결과 여성청소년은 남성청소년보다 스트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우울증과 식사장애와 같은 심리적 문제에 많이 노출되며, 자아존중감 등 정서적, 학업적 위기에 처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Rosemary C. Salomone, 2003; Sadker, Myra and Sadker, David, 1994; AAUW, 1991). 이는 청소년기의 발달이 생물학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심리·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성별 특정적(gender specific) 개입이 요구된다. 초기 청소년기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며 사춘기에 일어나는 변화를 싫어하는데,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발생률이 증가하는 우울증의 경우 청소년기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장애로, 남성보다 여성청소년에게서 발생비율이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nkin Abramson, Moffitt, Silva, McGee &

6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Angell, 1998, C. W. LeCroy, 2006 재인용).

이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69,754명을 대상으로 한 위기상황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위기요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강석영 외, 2009). 여성청소년은 심리적, 개인적, 지역사회 위기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남성청소년은 학교 및 또래 위기요인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명호 등(2009)에 의한 위기학생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위험행동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례로 고의적 수업결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하는데 비해 공부에 대한 무관심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는 여성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여성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정책은 여성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학업을 중단한 여성청소년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정책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청소년들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생활세계를 지배하는 사회문화적, 생태학적 환경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례로 2010년에 학교를 그만둔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학생의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부적응(44.2%)이 가장 많은 가운데, 남학생은 학교 부적응(46.9%)이 여학생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여학생은 기타(26.7%)와 가사(24.9%) 때문에 학업을 그만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은 학습부진 및 학업기피, 엄격한 학교규칙에의 부적응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더 많은 반면, 여학생은 가정의 경제사정, 가정불화 등의 사유로 그만 두는 사례가 더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는 구본용 등(2002)의 연구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학교급과 함께 학생의 성별에 따라서도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학력에 대한 좌절이, 여학생은 부모-자녀관계와 학년 변화와 같은 과도기의 부적응 등의 관계변인이 학업중단을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하여 조성연 등(2009)은 학교급과 학생의 성별에 따라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다는 것은 청소년의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학교급별이나 성별 등의 하위집단별 접근을 시도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소비문화와 향락문화가 만연한 우리사회에서 십대 여성청소년의 성이 거래가능한 상품으로 인식되는(김은실 외, 1999) 현실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생태학적 환경이 남성청소년과는 같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청소년들에게 특화된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업중단 청소년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맞춤형 대책을 수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여 세부 사유별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연구(윤철경 외, 2010; 김성기 외, 2009)를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남성청소년과는 다른 생태학적 환경에 놓여 있는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개발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있다.

나.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을 중단한 십대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는 한편, 이들이 현실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나 장애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여 정책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향락산업 및 성매매로의 유입과 미혼모 발생 등의 사회문제 발생을 차단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가져옴으로써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교육통계연보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질병, 학교부적응, 가사,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한 휴학, 자퇴, 제적, 퇴학 등에 의해 정규 학교교육을 중도에 이탈한 초·중고등학교 학령기 청소년을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해외유학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학업중단’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용어 사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학교를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해서 배움 즉, 학업을 그만둔 것은 아니며, 검정고시, 대안교육 등의 참여를 통해 학업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이라는 용어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고(서정아 외, 2006), ‘등교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하기도 한다(김성기, 2009).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 또한 ‘학업중단’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정규 학교’만을 학교로 규정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안학교는 학교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등교중단’이라는 용어 또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만을 보여줄 뿐, 정규 학교교육에서 벗어난 청소년이 처한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윤철경 외,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이라는 용어가 비록 개념상의 한계가 있으나 이를 대체할만한 적절한 용어가 없고, ‘학업중단’이 공식적인 정책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³⁾.

2. 연구 내용

가. 학업중단 청소년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성별 현황 분석

문헌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위기행동과 위기경험에서의 성별 차이와 관련

3) ‘학업중단’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학교밖, 등교중단 이외에도 학교중단, 중도탈락, 중퇴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다. 선행연구 고찰 등 기존연구를 소개 또는 인용할 때에는 문헌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한편, 위기경험으로서의 학업중단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통해 학업중단의 원인과 과정,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교육통계연보 분석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규모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 분석 및 지원 요구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주변환경 및 학업중단과정을 파악하고,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와 생애 인식을 살펴보았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험 분석을 통해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여성청소년에게 미친 긍정적 효과와 지원 서비스의 한계 및 지원 요구를 파악하였다.

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서비스 운영 실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학업지원 프로그램, 진로 및 직업지원 프로그램, 사회 및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성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주요 서비스 지원과정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정책요구를 진단하기 위해 주요 서비스 영역별로 기관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 제언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 청소년지원 서비스 조사 및 사례 연구, 현장전문가 집담회, 선행연구 등을 토대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및 자료수집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지원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 학업중단 및 위기경험에서의 성별 특성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였으며,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규모와 성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교육통계연보』를 분석하였다.

나. 심층인터뷰

1) 심층면접 목적

이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이르게 된 요인과 학업중단 이후 생활세계를 분석하기 위해 자발적 혹은 타의로 학교를 나와 현재 학업 중단 상태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을 만나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여성청소년이 학업중단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친 가정·학교 환경 등 여성청소년이 처해 있는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학업중단과정에서 여성청소년이 경험하게 되는 차별적 상황을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지지 자원의 차이에 따라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여성청소년이기 때문에 경험했던 차별적 상황을 포착하기 위해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 일상생활 등 생활실태에 주목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이 학업 중단 이후 자신의 진로 개발 및 생애 설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지, 어떤 지원 요구를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심층면접 대상

이 연구의 주 관심집단은 학업을 중단한 중·고등학교 학령기의 여성청

소년이다. 심층면접 대상자의 선정을 위해 먼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성 관련 위기경험에 노출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성 관련 위기경험에의 노출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위기경험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별도의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생활실태와 요구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현재 주로 하고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세 가지 유형⁴⁾ 즉, 학습형, 아르바이트형, NEET형이 적절히 안배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유형의 학업중단 청소년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걸쳐있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2〉 학업중단 청소년유형별 심층면접 대상자 집단의 구성

	여성청소년			남성청소년	전체
	일반	미혼모/성매매	계		
학습형	13	2	15	1	16(36.4)
아르바이트형	7	1	8	1	9(20.4)
NEET형	14	4	18	1	19(43.2)
계	34	7	41	3	44(100.0)

또한 심층면접 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연령이다. 여

- 4) 학습형은 대안교육을 받고 있거나, 검정고시 준비, 학원수강, 직업기술훈련 등 주로 학업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이며, 아르바이트형은 시간제 취업 등 주로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 NEET형은 학습이나 아르바이트 등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참고〉 학업중단 청소년유형별 여성청소년 분포

단위 : %

연구명 등 (연도)*		학습형	취업형	NEET-은둔형	NEET-배회형	NEET-소일형
윤철경 등 (2010)*	여성	44.1	9.5	15.8	25.3	5.3
	전체	41.5	11.7	12.7	21.0	13.2
김성기 등 (2009)**		학습형	취업형	취업준비	그냥 놀	기타
	여성	61.5	5.2	6.8	18.5	8.1
	전체	59.6	4.0	7.0	21.8	7.5

* 조사대상 : 만 13~22세, ** 조사대상 : 만 10~26세

12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성청소년 쉼터 및 대안학교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1차 현장 전문가 집담회에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했을 때의 학교급보다는 현재의 연령이 청소년들의 사고나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학업중단 당시의 학교급보다 현재 연령을 중심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 밖에 학업중단 기간에 따른 생활 및 정서, 생애 준비도의 차이를 살피고자 장기간의 학업중단 상태인 여성청소년 뿐 아니라 학업중단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여성청소년도 연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단, 이 연구에서는 비행으로 인해 법적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등에 있는 여성청소년은 연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다양한 청소년 지원 기관을 통해 연결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미 보호관찰, 소년원 입소 등을 경험했던 사례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의 경험은 분석에 포함하였다.

학업중단 남성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은 여성청소년과의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유형별로 1명씩 예비인터뷰과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결과는 분석에 사용되지 않았다.

3) 심층면접 대상자의 발굴

심층면접 대상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기관 및 시설의 협조를 얻거나 길거리 청소년 현장 발굴 및 이들의 친구를 소개받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 방식을 병행하였다. 대안학교, 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 상담, 교육, 자립 및 자활 지원기관, 여성지원기관 등 총 18개 기관의 협조와 더불어, 직접 거리 청소년을 만나기 위해 연구진은 청소년지원기관 거리상담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2명은 심층면접 대상자의 직접적 연결을 통해 만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6월부터 8월까지 총 4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대상자와의 라포 형성 정도 및 면접 내용에 대한 추가적 심층 파악 등 필요에 따라 1~2회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5) 만 18세에 달하면, 취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는데 비해, 만 15세 정도 까지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탐색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경향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표 I-3〉 심층면접 대상자 발굴처별 심층면접

연령(만)	대안학교			보호시설				상담 지원 센터	자활 지원 관	위기 교육 센터	여성 지원 기관	길거 리	전체
	일반	미혼 모	계	일반	미혼 모	성매 매	계						
13~15세	5	1	6	-	-	1	1	-	-	-	-	2(1)	9(1)
16~18세	7(1)	-	7(1)	2	1	2	5	5(1)	2	3	3	4	29(2)
19세 이상	1	-	1	-	-	-	-	-	1	-	1	-	3
계	13(1)	1	14(1)	2	1	3	6	5(1)	3	3	4	6(1)	41(3)

주: ()는 남자청소년

본 연구의 주요 대상자는 여성청소년이지만 연구설계 및 진행 과정에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경험하는 성별 특이성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남성청소년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성격의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41명의 여성청소년과 3명의 남성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고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는 일정한 사례를 지급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 발굴처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성 관련 위기경험 여부 및 연령별 분포를 고려한 심층면접 대상자 연결 현황은 <표 I-3>과 같다.

4) 심층면접 주요 내용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심층면접 내용은 <표 I-4>와 같다. 개인 신상 정보를 제외하고 크게 세 영역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첫 번째로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학업중단 전 가족 및 학교 환경과 학업중단 당시의 경험을 질문하였고 두 번째로는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에 대한 물음, 세 번째로는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서비스 지원 경험과 여성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물음으로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표 I-4〉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심층면접 내용

	항목	세부질문
개인 및 가족사항	인적사항	• 연령, 성별, 학교를 그만 둔 시점 및 기간
	주거상황 및 동거인	• 가족관계 및 현 주거상황과 동거인
학업중단 당시상황	학업중단사유	• 학교를 그만 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 • 학업 중단은 누가 결정했나? 자신의 의견은 반영되었는가?
	당시 학교생활	• 전반적인 학교생활은 어땠나? - 학교를 다니면서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 - 언제부터 학교에 다니기 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나?
	당시 가족생활	• 가족의 경제적 사정은 어떠한 편이었나? • 가족 부양 역할(가사노동, 돌봄노동, 생계비 벌기 등)을 한 적이 있는가?
	학업중단 이후에 대한 전망	• 학교를 그만 둘 때 기분이 어땠었는가? • 학교를 그만 둔 당시, 학업중단이후에 대해 계획이 있었는가?
학업중단 이후생활	학업중단에 대한 인식	•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이었나? • 학교를 그만둔 후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어떻게 변했나?
	학업중단 이후 주요변화	• 학업중단 이후 중요하게 바뀐 것들이 무엇인가? - 가족관계 / 친구관계 / 진로관련
	현재 하루일과	• 요즘 일상적인 하루일과는 어떠한가?
	현재 하고 있는 일	• 최근 주로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 학업 / 경제활동 / 직업훈련 등
	자신에 대한 미래 전망	•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은가? 5년후 자신의 모습은 어떠할까? •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 하고 있는 노력이나 어려움들은 무엇인가? •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주위에 자신이 닮고 싶은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사례가 있나?
사회적 서비스 이용경험 및 욕구	학업중단 후 경험한 어려움	• 학업중단 이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을 경험하고 있나?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의 어려움	• 학업중단 이후 생활하면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험했던 어려움들이 있었나?
	학업중단 이후 이용경험이 있는 사회적 서비스	•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해 본적이 있는 지원서비스는 어떤 것인가? 어떤 전문가/기관인가? 그 사람/곳을 어떻게 알게 되었나? • 그러한 지원이 자신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나?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었나? -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학업중단 청소년 필요 사회적 서비스	• 자신에게 현재 어떤 도움이 가장 필요한가? 장래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싶은 내용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필요 서비스	• 특히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인가?

다. 청소년지원기관 설문조사 및 사례연구

학업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성별 수혜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기관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정에 성별 특성이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 프로그램 운영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병행하였다.

1) 청소년지원기관 설문조사

청소년지원기관 설문조사는 청소년지원기관들을 크게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자활지원관 등으로 범주화하여 전체 238개 기관 중 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조사 대상 기관의 분포는 <표 I-5>와 같다.

〈표 I-5〉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기관 실태조사 현황

청소년 지원 기관		모집단	표본
대안학교	도시형	21	1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시·도	15	10
	지역 (시범두드림존)	20	7
청소년보호시설	쉼터*	혼합	2(2)
		단기	19(22) / 1**
		중기	4(1)
		장기	15(11)
	성매매		13
	미혼모		28
청소년자활지원관(프로그램)		28	14
계		238	99

주: * ()는 남성청소년, ** 남성 및 여성청소년 공용

설문조사를 통해 각 기관의 설립목적과 사업 내용,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기간 등 사업 성격과 이용자의 성별 분포, 현재 학

16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업중단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및 서비스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성과 등을 분석하였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 학업지원, 진로·직업 찾기, 사회·정서적 지원, 성 관련 프로그램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 프로그램별 개발 및 활용 방식, 성별 특성 반영 여부 및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설문항목은 <표 I-6>과 같다.

〈표 I-6〉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설문항목

설문범주		설문내용
프로그램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운영 프로그램 유형 · 총 운영기간, 총 시수, 운영 담당자 수, 정부지원예산규모 · 후원금 운영프로그램 · 성별 기관 이용 청소년 수 · 성별 프로그램 참여인원
프로그램 제공 절차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참여경로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 · 여성청소년 대상 학업중단 프로그램 운영여부, 프로그램 명, 프로그램 운영 이유
기관 및 담당자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현황 · 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육연수 여부 · 프로그램 예산 충분 여부, 불충분 이유 · 프로그램 운영 전문 강사 확보여부, 취업연계 수행 역할 · 응답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
프로그램 별 실태 현황	학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별 개발/사용 방법
	진로·직업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별 목적 적합성, 불충분한 이유 ·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 · 프로그램별 참여기회 정도
	사회·정서 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별 단계적 수준 개발여부, 운영방법 · 프로그램별 운영 시 애로사항
	성 관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별 운영 시 성별특성 반영 여부, 미반영 이유,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내용과 포함 여부 · 프로그램별 교육 전후 남녀반응차이, 반응차이의 구체적 내용 · 프로그램별 개선 필요 여부, 개선사항

2) 청소년지원기관 사례연구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지원하는 4개 기관을 선정하여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과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서비스 제공상의 어려움과 제도적인 문제 등을 파악하고

자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기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사업의 구성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 별로 추구하는 목적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였다.

둘째, 해당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 할 당시 시점에서 정책적인 방향 또는 기관이 당면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셋째,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했던 어려움이나 애로점에 대해서 확인하고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게 미쳤던 효과를 파악하였다.

넷째, 향후 필요한 정부정책이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표 I-7〉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기관 사례연구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기관의 일반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설립 목적 · 주요 사업 개관
기관 이용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이용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현황, 특성, 욕구 · 남성청소년과의 차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또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과 기획의도 및 세부 내용, 기관이 지향하는 바 · 시작당시 정책적 기류나 환경 등 여건 · 구체적 사업 내용 및 운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들의 특성, 프로그램 목적과 방향 - 해당 프로그램 운영과정 및 운영상 특이사항
프로그램 또는 사업의 효과 및 애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 사업이 여성청소년에게 미친 긍정적 효과 (학업, 진로, 직업, 정서, 성에 대한 가치관 및 태도 등) · 프로그램 ·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및 문제점
프로그램 또는 사업의 개선 · 발전 위한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정책적 측면(법령 개정 등) ·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측면 · 해당 기관에서의 개선 사항 등: 예산 확보 등

라. 현장 전문가 집담회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 연구 목적에 맞는 적절한 연구 대상자 연결, 청소년 지원기관 사업수행상의 애로점 파악,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

원체계 확대와 관련한 정책적 대응 방안 개발을 위하여 3차에 걸친 현장 전문가 집담회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담회는 청소년 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체인 다양한 청소년 지원기관(대안학교, 청소년 보호시설, 자립지원기관 등)의 사업 담당자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고충을 듣고 적절한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학교 상담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전문가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였다.

〈표 I-8〉 전문가 집담회 추진 현황

	참석자	일시	주요 논의 내용
제1차 전문가 집담회	청소년 지원기관 사업 담당자	4. 22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현황 및 성별 특징과 현 지원 체계의 한계점 논의
제2차 전문가 집담회	중·고교 상담교사	9. 8	· 학교 내 여성청소년 학업중단 과정과 학교의 개입 과정 등 학내 현황에 대한 이해 ·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 차원의 대안 모색
제3차 전문가 집담회	청소년 지원기관 사업 담당자 (사례연구 대상기관)	10. 15	· 각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파악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대안 모색

마. 전문가 자문회의

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내용 및 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청소년지원기관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도구를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가 각 1회씩 개최되었다. 청소년지원기관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은 설문에 실제 응답하게 되는 주체인 각 청소년지원기관들의 분야별 사업담당자로 구성하여 설문내용의 타당성과 현실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조사결과 분석에의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 | | |
|------------------|----|
| 1. 청소년의 위기경험과 젠더 | 21 |
| 2. 위기경험으로서의 학업중단 | 27 |

1. 청소년의 위기경험과 젠더

위기에 처한 청소년(Youth at risk)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교육 수월성 추구를 위한 국가위원회 보고서(1993)가 중도에 학업을 그만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면서 널리 사용하게 되었다(이봉주, 2008).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비행이나 이탈, 문제행동으로 개념화되던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나 가출, 음주, 폭행, 성문제 등이 위기행동 또는 위기경험으로 재개념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동일한 행동을 비행이나 이탈로 규정하는가 아니면 위기행동 또는 위기경험으로 규정하는가는 이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를 반영한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이나 가출, 음주 등을 비행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행동의 원인이 일차적으로 청소년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그 당사자인 청소년은 선도나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 행동이 위기경험으로 인식될 때에는 청소년 개인과 더불어 그를 둘러싼 가족체계, 학교체계, 사회체계 등 생태체계 전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청소년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은 행위당사자인 청소년의 개인적 요인의 문제도 관계되지만, 이와 함께 청소년을 둘러싼 생태체계의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청소년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유용한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무엇을 위기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고, ‘위기’라는 용어가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윤철경 외, 2006),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을 가족, 학교, 지역사회요인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물려있음을 통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기청소년이라는 개념의 사용은 긍정적이다.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을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기대와 가치질서 속에서 성장한다는 점에 주목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 비행 또는 위기경험과 관련하여 성별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우선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위기경험의 종류와

22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발생빈도에서의 성별 차이의 문제로, 이는 청소년대상 위기경험 실태조사(강석영 외, 2009; 차명호 외, 2009),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이용자의 위기진단을 위한 위기 스크리닝 척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II-1〉 위기요소 및 위기수준에서의 성별 차이

단위: %(명)

	성별	1수준 (보통)	2수준 (잠재적 위험군)	3수준 (고위험군)	2+3수준 (위험군)	전체
전체위기 요소	여성	83.7	13.8	2.5	16.3	100.0(25,249)
	남성	85.2	12.5	2.2	14.7	100.0(29,018)
정서·심리 적위गी요인	여성	79.9	17.4	2.7	20.1	100.0(31,704)
	남성	84.8	13.1	2.1	15.2	100.0(35,734)
개인 위गी요인	여성	81.6	16.2	2.2	18.4	100.0(32,134)
	남성	84.2	13.9	1.9	15.8	100.0(36,146)
가정 위गी요인	여성	84.5	11.2	4.3	15.5	100.0(27,008)
	남성	83.9	11.1	4.9	16.0	100.0(31,135)
학교 위गी요인	여성	85.4	12.4	2.1	14.5	100.0(32,302)
	남성	83.2	13.6	3.1	16.7	100.0(36,411)
또래 위गी요인	여성	87.6	8.9	3.5	12.4	100.0(32,604)
	남성	82.2	12.4	5.4	17.8	100.0(36,704)
지역사회 위गी요인	여성	80.2	16.4	3.4	19.8	100.0(32,589)
	남성	83.6	13.2	3.2	16.4	100.0(36,694)

자료: 강석영 외(2009), 118-122쪽 재정리.

전국 16개 시·도의 중·고등학생 69,754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위기상황을 조사한 결과(표 II-1), 여성청소년(16.3%)이 남성청소년(14.7%)보다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비율이 더 높을 뿐 아니라, 여성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위गी요인과 남성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위गी요인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청소년은 정서·심리적 위गी요인(여성 20.1%, 남성 15.2%), 개인위गी요인(여성 18.4%, 남성 15.8%), 지역사회 위गी요인(여성 19.8%, 남성 16.4%)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반면, 남성청소년은 학교위गी요인(남성

16.7%, 여성 14.5%)와 또래위기로인(남성 17.8%, 여성 12.4%)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2〉 위기스크리닝 척도별 성별 응답률(2009)

단위: %, 명

		여성/남성	여성	남성	전체
자살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다.	228.5	3,905	1,709	5,614
가출	현재 가출한 상태이다.	103.5	4,344	4,197	8,541
약물사용	최근 개월 이내에 환각제나 가스, 본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한 적이 있다.	76.4	275	360	635
성문제	성매매를 한다.	547.9	515	94	609
성문제	성폭력을 당하거나 한 적이 있다.	350.9	1,186	338	1,524
성문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상태이다.	212.6	185	87	272
가정폭력	내가 가족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80.3	1,209	1,506	2,715
가정폭력	부모님이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한다.	104.4	2,839	2,720	5,559
학교폭력	나는 친구 또는 선후배를 종종 폭행한다.	56.6	1,437	2,538	3,975
학교폭력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종종 폭행을 당한다.	61.1	1,217	1,993	3,210
학업중단	학교를 그만 둔 상태이며, 아무 계획이 없다.	91.6	2,892	3,157	6,049
인터넷 중독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 아무런 일상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다.	32.7	604	1,846	2,450

자료: 정해숙 외(2010), 124쪽.

이러한 차이는 2009년 1년 동안 CYS-Net을 통해 지원서비스를 받은 청소년 중 위기진단을 받은 청소년들의 위기경험에서의 성별 차이에서도 확인된다(표 Ⅱ-2). 위기청소년들의 위기경험을 보면, ‘가출’이 8,54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학업중단’(6,049명), ‘자살’(5,614명), ‘가정폭력-피해’(5,559명), ‘학교폭력-가해’(3,975명), ‘학교폭력-피해’(3,21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청소년의 경우 ‘자살시도’(3,905명)가 가출 다음으로 가장 많이 호소한 위기경험으로 남성청소년(1,709명)의 228%로 2배가 넘는 다. ‘성문제-성폭력’ 위기에 노출된 여성청소년(1,186명)도 남성청소년의 3.5배에 달한다. 반면 남성청소년은 상대적으로 ‘인터넷 중독’과 ‘학교폭력-가

해,’ ‘학교폭력-피해’에 노출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과 남성의 위기경험이 상당히 다를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청소년 위기행동에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여성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전의 여성청소년 비행에 관한 연구들은 청소년 비행은 주로 남성들에 의해 행해진다는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여성청소년의 비행을 신장과 체형, 호르몬, 성 발달단계에서의 부적응 등 생물학적 혹은 심리적 결함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이성식·전신현, 2001). 여성청소년비행이 증가하면서, 남성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기 위한 긴장이론, 사회통제이론, 차별접촉이론, 억제이론 등으로 여성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수행되었다(정익중,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모니터링, 부모와의 애착, 학교애착심, 학업성취, 비행또래집단과의 접촉, 공격성 등 남성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요인들이 여성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Moffitt, Caspi, Rutter & Silver, 2001; Fergusson & Horwood, 2002; Liu & Kaplan, 1999, 정익중, 2005: 38 재인용). 그러나 Chesney-Lind(1989)는 기존 대부분의 청소년 비행이론들에 내재한 남성중심적 편견들을 재검토하고, 기존 청소년 비행이론들로는 여성청소년의 비행을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청소년이 처한 위기상황을 성차별적 가치체계가 지배하는 가부장적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청소년의 위기행동에서의 성별 차이와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을 가부장적 가족, 즉 가족 내 불평등한 권력관계, 가정폭력, 성적 학대, 성역할 고정관념, 불평등한 성역할 등 불평등한 젠더구조에 관심을 갖게 한다(정해숙 외, 2010).

2003년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는 청소년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정익중(2005)은 연구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청소년에게는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반해 남성청소년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었으며, 여성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비행을 유발한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정익중(2005)은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청소년에게 불필요한 내적 갈등을

낮아서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비행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여성청소년을 위한 교정 및 비행예방프로그램에서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문제제기를 하는 양성평등교육이 시급히 요청되며, 성인 지적 자기주장 훈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2학년 여자고등학생 518명을 대상으로 여자청소년 비행에 대한 성평등가설과 성불평등가설을 검증한 이성식·전신현(2001)의 연구에 따르면, 가부장적 가정의 여성청소년이 남녀평등적 가정의 여성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비행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여성청소년의 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출과 특히, 비행친구와의 접촉이지만, 이 또한 가정의 문제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하며, 가정에서의 남녀평등이 여성청소년의 비행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

여성청소년의 비행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출은 여성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경험하는 폭력이나 성적 학대, 가사노동 부담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부모의 폭력 등 가정에서의 학대경험이 여성청소년 비행경험에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이라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으며(김성경, 2003; 유성경, 2002; Chesney-Lind, 1989; 김준호·김은경, 1995), 여성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대는 대부분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어린 시절 학대를 받으며 성장할 경우 부정적인 자아개념이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성적 학대는 여성청소년에게 가정이 더 이상 돌봄과 교육, 안전을 제공하는 공간이 아님을 보여준다. 1998년 외환위기로 한국사회에 확대되고 있는 신빈곤층 가족 십대여성을 심층면접 조사한 민가영(2007)은 신빈곤층 가족의 십대여성은 돈 벌러 나간 어머니를 대신해서 물리적 가사노동, 육아, 엄마 부재 시 아빠에 대한 감정노동 등 ‘작은 엄마’노릇을 해야 하는 성역할에 시달리고 있음을 기술하고 이러한 요인이 여성청소년의 장기 가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의붓아버지, 의붓형제들에 의한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변혜정·민가영, 2007; 민가영,

2007). 가족이 더 이상 여성청소년에게 보살핌과 교육을 제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성청소년을 보호하는 안전망으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하게 될 때, 여성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의 피신을 생각하게 된다.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가진 것이 없는 여성청소년은 ‘영계’인 자체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한국사회 환경 속에서 자신이 가진 성적 매력과 몸을 활용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변혜정·민가영(2007)은 경제적 빈곤계층 여성청소년들의 가출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특정 여성의 몸이 자원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여성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역할 사이의 경합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아무런 경제적, 사회적 자원도 갖지 않은 여성청소년에게 사회 또한 안전한 곳이 아니다. 여성청소년은 노동시장에서도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김혜진, 2009; 전경숙, 2006; 문혜진, 2002). 여성청소년의 경우 남성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를 할 기회가 더 적을 뿐 아니라, 남성청소년에 비해 임금도 적게 받으며, 남녀차별적 발언이나 성희롱, 욕설, 구타 등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에 노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성 산업과 거리가 먼 일반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에 근무하면서도 성희롱이나 심지어 성폭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경숙, 2006). 이러한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은 십대 여성청소년에게 특별한 기술이나 연령 등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오히려 어린 여성일수록 선호하며, 고소득 보장이라는 점을 내세워 성 산업으로 들어오도록 유혹한다(김은실, 1999). Cheseny-Lind(1989)의 지적처럼, 여성청소년이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가출과 성매매는 오롯이 비행 내지는 위기경험으로만 보여 질 뿐 이들의 가부장적 가족환경 내 피해자로서의 위기경험은 은폐된다.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양육과 안전망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은 가부장적 사회문화 속에서 위기경험에 노출되는 청소년층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민가영, 2007). 따라서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경험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역할을 보완할 수 있는 조력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회적 가족’의 형태를 갖춘 장기적 시설의 확충과 삶의 미래 전망을 상실한 이들에게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 및 직업교

육을 확대하는 한편, 상실된 가족관계망을 보완해줄 수 있는 멘토 시스템의 확대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위기경험으로서의 학업중단

OECD(1995)는 위기청소년을 ‘학교에서 실패하고 성공적으로 직업이나 독립적인 성인의 삶으로 이행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 그 결과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중단은 청소년들이 봉착하게 되는 전형적인 위기경험이다. 이로 인해 학업중단은 주요한 학문적 관심사로 적지 않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 학업중단 문제를 젠더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가. 학업중단의 원인 및 과정

청소년 학업중단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점차 증가하는 청소년 학업중단 실태와 관련해 대안 마련 및 예방 차원에서 학업중단의 실태와 함께 원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박래영(2005), 금명자(2005) 등은 학업중단의 원인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광복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학업중단의 원인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있는 박래영(200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학업중단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시기는 광복이후부터 1970년대 이전으로 학업중단은 주로 경제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으며, 정부 정책은 문맹퇴치와 교육받은 산업인력의 필요에 따른 교육의 양적공급에 치중되었다. 둘째 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1995년 이전으로, 이 시기는 근대화의 진전에 따른 가족기능의 약화,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향락문화의 번창으로 인해 학업중단의 비자발적·경제적 요인은 감소하고, 자발적·학교요인이 증가한다. 셋째 시기는 교육부가 ‘학교중도탈락자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했던 1996년 이후로, 포스트모

더니즘으로 대표되는 다양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학업중단의 새로운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통계연보 상으로도 종래 3가지로 분류해오던 중퇴원인은 1996년 이후 5가지로 세분화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금명자(2005) 또한 학업중단의 원인이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데 특히, IMF이후 안정된 사회구조가 흔들림에 따라 사회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적응 현상과 학교체제의 유연성 부족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학업중단은 그 시기의 시대적 특성을 유념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대에 따라 청소년 학업중단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 차이를 보이지만 지금까지 학업중단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들은 대체로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교우관계 요인 등으로 학업중단의 개별 요인들을 범주화 해 설명하고 있다(구본용·유제민, 2003; 조아미, 2002; 구본용·신현숙 외, 2002).

이와 같은 범주화에 기반해 조아미(2002)는 ‘학업중단 상태인 청소년’ 이외에도 중퇴의도를 갖고 있는 청소년을 상대로 ‘잠재적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학업중단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대안 마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강남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중퇴 의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경제적 배경, 지역적 환경,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 등에 따라 학교중퇴 의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주요 원인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학업중단 의도, 원인, 비율, 학업중단 이후 하고 싶은 일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마련과 관련한 연구가 학교 급별로 차별화되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구본용·신현숙 등(2002)은 청소년의 중퇴예방 및 선도·보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집단을 중퇴생, 중퇴-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개인의 심리적·행동적 변인들, 가족 변인, 또래 변인, 학교체제 변인들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요인들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상 청소년 집단의 특징과 요구에 맞는 차별화된 학교중퇴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구본용·유제민(2003)은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에서 중퇴관련 158개의 위험 변인들을 기존의 개인, 가족, 또래, 학교 범주에 기반해 20개의 변인으로 분류화한 후, 이를 다시 중퇴 가능성을 높여주는 위험요인과 중퇴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중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고 그 영향을 살펴본 결과 보호요인보다는 위험요인이 중퇴의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중퇴예방에 있어 보호요인 개발보다 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배영태(2003)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위의 개인, 가족, 학교, 교우관계라는 네 가지 범주와 더불어 ‘지역사회 요인’까지 포함한 다섯 가지로 범주화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역사회 요인을 학업중단의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보는 것은 학업중단이 단순히 청소년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 또는 지지체계 분포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사회현상임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작업을 토대로 학업중단의 근접변인, 원격변인을 파악한 결과 공격성, 결석·유급, 부정적 교사태도, 중탈가족수, 가정 결손 정도, 부적절한 이성관계, 불량 교우관계, 또래 동조, 건전한 지역 환경 등이 학업중단 청소년과 재학생을 가장 잘 변별해 주는 변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서우석 등(2007)과 정연순·이민경(2008)은 ‘학교교육’ 문제에 집중해 청소년 학업중단의 원인을 살피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모색한 서우석 등(2007)은 기존의 연구들을 토대로 중도탈락을 유발하는 요인을 개인적 측면, 학교체제 측면, 사회체제 측면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의 중도탈락 관련 요인은 가정환경 요인, 학교 안·밖에서의 행동 및 태도 관련 요인, 심리적 특성 관련 요인 등을 포함하며, 학교체제 측면의 요인들에는 학교의 구조적 특성, 교칙의 운영과정, 교육과정, 학교의 조직풍토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체제 측면에 속하는 요인에는 지역사회 풍토, 또래집단, 지역사회 지원체제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원인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청소년들은 다음의 여섯 단계를 거쳐 중도탈락의 경로를 겪게 된다고 설명한다. 1

단계는 가정 및 학교 내 성인(즉, 교사)과의 유대감의 결손이 나타나는 단계로 성인들의 가치를 내면화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반항심을 갖게 되는 단계이며, 2단계는 1단계에서 내면화되었던 것들이 지각이나 수업태만과 같은 형태로 표면화되는 단계이다. 이후 가정이나 학교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정·학교 밖의 또래 혹은 성인들과의 유대관계에서 경험하면서 또래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게 되고, 나름대로 학교 밖에서 재미와 자신감을 성취하는 3번째 단계를 거쳐, 갈등이 고조되어 무단결석, 가출, 폭력 등의 문제 행동이 표출되는 4단계로 이르게 된다. 이 과정에서 고조된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결국 청소년이 학교를 떠나게 되는 5단계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6단계는 학교와의 결별 후 생활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정연순·이민경(2008) 또한 지속적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증가는 비행이나 문제 행동으로 인한 특정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의미를 상실한 많은 청소년의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학업중단을 자체가 보여주는 문제 상황 이상으로, “결석일수 세기”, “줄타기” 등을 지속하며 학교 안·밖을 오가기를 반복하거나 학교 안에서 “의미 없이 버티기”의 상태로 남아있는 청소년들의 ‘잠재적 학업중단 상태의 지속’ 또한 심각한 청소년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무너진 학교 교육의 의미를 되살려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관심을 환기해 학교교육이 실질적 학업 및 진로설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학내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금명자(2008)는 학업중단의 원인을 밝힌 국내·외 다양한 연구들을 토대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조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학업중단으로까지 이어지는지를 생태학적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생태학적 모형은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론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역사적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는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다니기를 그만두는 것이 보다 거시적인 체계 중 하나인 ‘사회역사적 변화’에서 촉발되었음을 강조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사회,

경제, 역사적 환경이 청소년의 직접 체계인 가정과 학교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개인의 심리적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에 주목하는 생태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개입 지점과 방법을 연구·도출하는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조망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의 비행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한 탈선 등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 없는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복합적인 영향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적 요인의 이면에 젠더문제가 밀접히 연계되어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성맹적(gender-blind)이라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구분용·신현숙 등(2002)은 학교 중도탈락 현상이 학교급은 물론 성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인식 하에 남학생집단과 여학생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중퇴모형에 있어서 성차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남학생들의 중퇴에는 자신의 교육적 기대수준이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자신 및 주변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게 작용하는데 비해, 여학생들은 가족관계나 과도기적 혼란, 그리고 부정적 정서의 내면화로 인해 중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고, 동시에 무기력과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부적응상태에 있는 여학생의 경우 학교중도탈락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는 여성이 주위의 타자와 밀접하면서도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어 보다 관계지향적인 특징을 보이며,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적응과정에서 부정적 신체이미지와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는 여성청소년이 많아진다는 점(Sadker, Myra and Sadker, David, 1994)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의 생활실태를 고찰한 연구들 중에는 학업중단 이후의 청소년들의 생활에 따라 집단별로 이들을 유형화한 연구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윤철경, 2010; 장석민, 2002; 박창남 외, 2001; 이숙영·남상

인, 1997). 이숙영·남상인(1997)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크게 적응형과 부적응형으로 나눈 후, 다시 적응형의 유형을 복교하거나 검정고시학원을 다니거나 대안학교에서 수학하는 등의 진학형과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정착하는 취업형, 사설 기숙학원·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는 취업준비형으로 세분화하고, 부적응형의 유형을 다시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된 청소년(소년원 수용, 보호관찰중, 요양중), 보호 및 관리체제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방치된 비행청소년, 유흥업소 취업 청소년, 가출 청소년, 방치된 정신질환 청소년)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박창남 등(2001)은 이숙영의 분류를 수정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을 크게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구분한 후 정착형을 진학형(대안학교 입학, 검정고시, 복교), 취업형, 취업훈련형으로 세분화하고 비정착형을 시설수용형(소년원 직업교육, 소년원 진학교육), 방치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이처럼 생활영역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를 읽을 수 있게 하고, 이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지원서비스 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이숙영·남상인(1997), 박창남 등(2001), 장석민(2002)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을 생활영역을 대범주화하여 적응형과 부적응형 또는 정착형과 비정착형으로 유형화하는 것은 ‘적응’ 또는 ‘정착’이 의미하는 바와 적응과 부적응 또는 정착과 비정착으로 분류하는 기준의 모호성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윤철경 등(2010)은 기존의 학업중단 청소년유형화 방식에서 벗어나 이 같은 문제를 피해가고 있다. 윤철경 등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주된 분류기준은 ‘현재 하고 있는 일’로, 이를 중심으로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검정고시 준비, 학원수강, 기술훈련, 대안교육시설 등에서 학습을 지속하는 등 현재 어떤 형태로든 공부하고 있는 ‘학습형’, 지속적으로 아르바이트만 하는 ‘취업·알바형’, 학습도, 일도 하지 않고 있는 ‘NEET⁶⁾형’으로 분류하고, NEET형 청소년 집단을 다시 세 가지로

6)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교육이나 직업훈련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세분화하는데, 이는 따로 하는 일 없이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며 노는 ‘NEET-배회형’, 집 또는 방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NEET-은둔형’, 부모 일을 돕거나 가끔 일도하면서 주로 놀거나 기타일로 소일하는 ‘NEET-소일형’으로 구분된다. 윤철경은 기존연구에서 부적응형 또는 비정착형의 범주에 속하던 비행경험과 관련된 학업중단 청소년을 별도로 범주화하지 않는 대신, ‘비행경험 유무’라는 두 번째 분류기준을 학업중단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비행경험 여부를 파악하는⁷⁾ 한편, 장애유무를 제 3의 분류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2) 학업 및 진로문제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별다른 준비 없이 학업을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지원할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업중단 이후 1년 이내에 비행, 부적절한 성행동과 같은 사회 부적응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금명자 외 2004; 윤여각 외, 2002). 이들의 학업중단 이후의 욕구와 당면한 어려움 등의 실태를 드러내고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한 문제들이 적지 않다.

구본용(2002)은 학업중퇴 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수용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밀려나 결국 이 밀어내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중퇴를 결정한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는 학업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음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들은 학업이나 복학 등에 대한 두려움이 여전하기 때문에 갈등적인 상태에 있으며, 그로인해 자신의 학업 욕구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런 학업중퇴 청소년의 심리상태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해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취업상담’, ‘복학상담’ 등의 소통 창구를 마련할 것 등을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7) 윤철경 등의 조사결과(2010)에 따르면, 학업중단 청소년이 약 40%가 비행경험을 갖고 있고 학습형이 비행경험률이 다소 낮을 뿐 5개 유형 모두에서 비행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민(2002)은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 따라 구분한 유형에 따라 각각의 청소년집단이 어떤 욕구와 특징을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각 청소년 유형별로 욕구와 특징들을 파악하고, 각각의 집단에 맞는 차별화된 진로 지도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표 II-3).

〈표 II-3〉 학업중단 청소년유형별 특징 및 진로지도 내용

유형		특징	진로지도 내용
정착형	진학형	복교, 검정고시학원, 대안학교에서 수학 학습의욕 상실 및 기술의 부족으로 부적응하기도 함 대인관계문제, 생활적응상의 어려움	대안학교 복교 후 상담관리
	취업형	일정한 교육훈련 후 취업하여 생활 정착 진학준비를 병행하기도 함 대인관계, 생활적응상의 문제	취업알선 상담 및 진로지도
	직업 훈련형	사설기술학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취업준비 일부는 적응상의 어려움	직업훈련기관 소개 학력인정 자격증 연계 상담 및 진로지도
비정착형	시설 수용형	범죄연루 후 소년원 수용 반사회적 성격 부기능적 가족 출신 정신질환, 신체질환으로 병원 및 요양기관에 수용됨 진학, 진로지도가 부재함	학력인정 자격증 연계 상담 및 진로지도 가족지원
	방치형	다양한 비행행동, 폭력 단란주점, 술집 등에 취업 중 가출하여 소재가 불분명함 무기력증, 의욕상실로 무위도식함	청소년 쉼터 학력인정 자격증 연계 상담 및 진로지도

자료: 장석민(2002),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지도 대책”,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한국청소년상담원. 61쪽(이숙영), 74쪽(박창남) 표 재구성.

금명자 등(2005)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새로이 선택한 진로영역에서 잘 적응하는데 요구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직업학교, 아르바이트 등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심층면접하여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 방해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정상궤도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궤도를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비해 우선 학습능력, 두 번째는 부모 및 다른

가족의 관심 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를 향한 높은 에너지-때로는 분노감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고 나태하지 않으며 적응력이 뛰어난 개인적 특질, 마지막으로 가족 외에 직업세계나 다른 종류의 학교선생님들과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학교밖 청소년들도 적절한 개입만 이루어진다면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경우 성공적인 사회적응 요인으로 개인적 자질에 비중을 두으로써 사회적 개입 방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찾기 어렵게 하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생 252명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 178명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 지각된 진로장애, 진로결정의 수준에 있어서 차이를 살펴보고,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에서 진로장애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황선미·신현숙(2007)의 연구결과,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수준에 있어서 재학생 집단과 중퇴청소년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나머지 진로장애 측정변수들(불명확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정보부족, 미래에 대한 불안, 능력부족)에 있어서는 중퇴청소년이 재학생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 모두에서, 진로준비행동을 많이 할수록 진로장애를 적게 지각하며, 진로장애를 적게 지각할수록 진로결정수준이 높았다. 또한 두 집단의 완전매개모형에서 진로장애는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결정의 관계를 매개하는 유의한 변수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중퇴청소년을 위한 조력활동이 복교 프로그램에 제한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재적응 및 진로적응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중퇴청소년과 고등학교 재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에 대한 확신과 결정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진로장애의 극복을 조력하는 개입활동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으로 개념화한 서정아 등(2006)은 대안학교, 직업전문학교, 소년선도보호시설 등 소속을 갖고 있는 집단과 이와는 대비되는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거리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중단 이후 어려움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속한 생활영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겪고 있는 경험과 어려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공통적 어려움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차가운 시선, 학교중단으로 인한 선생님·친구로부터의 관계의 단절, 부모님·가족·친척 관계의 어려움,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생 아닌 청소년’으로서 다양한 혜택으로부터의 소외, 방향성 상실로 인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불안감, 사회 지지 부족으로 나타났다. 생활영역별 어려움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안학교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어려움, 자퇴에 대한 후회와 복교에 대한 두려움, 검정고시 준비여부에 따른 2차적 차별을 호소하였으며, 직업전문학교 청소년은 진로와 관련된 학력 장벽, 직업훈련 시스템의 한계, 환경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시설 청소년은 비행에 대한 유혹, 비행 후 조사 과정에서의 비인격적·비인권적 처우, 정기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부재, 복학 후 학교를 다시 중단하게 되는 문제, 학교생활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였고, 거리 청소년은 학교 중단에 대한 문제의식 부재, 전반적 생활영역에서의 사회적 편견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23명의 학교중단 청소년을 심층면접한 최동선·이상준(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중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개발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짧은 근무기간과 잦은 이직의 문제를 안고 있고, 학교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으나 학교 졸업장에 대한 집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며, 특정분야로의 진로포부 편식, 진로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결여, 진로탐색 및 진로개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제한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과정에 부딪히는 학업 및 진로 등의 문제나 어려움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차이나 특정 성의 고유경험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없다. 여성청소년은 연구대상자로서 남성청소년과 인구학적 특성이 다른 성별 집단으로만 인식될 뿐, 학업을 중단한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이 처한 사회문화적 환경이 같지 않음을 간과하고 있다.

3) 취업·노동시장에서의 어려움과 차별

‘아르바이트’로 명명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취업 실태나 노동시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다룬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먼저, 학업중단 청소년유형별 분포를 통해 학업중단 후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는 청소년의 비중을 살펴보면(윤철경 외, 2010), 학습형이 41.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여기저기 다니며 노는 NEET-배회형이 20.1%를 차지하는 반면, 취업·알바형은 11.8%에 불과하고, 부모 일을 돕거나 가끔 일도 하면서 주로 놀거나 기타일로 소일하는 NEET-소일형도 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4).

〈표 II-4〉 학업중단 청소년유형별 성별 분포

단위: 명(%)

	학습형	취업·알바형	NEET-은둔형	NEET-배회형	NEET-소일형	계
남성	43(39.4)	15(13.8)	11(10.1)	18(16.5)	22(20.2)	109(100.0)
여성	42(44.1)	9(9.5)	15(15.8)	24(25.3)	5(5.3)	95(100.0)
전체	85(41.7)	24(11.8)	26(12.7)	42(20.1)	27(13.2)	204(100.0)

자료: 윤철경 외(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연구. 56쪽 재구성.

이를 성별로 보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경우 일을 하는 비율(취업·알바형, NEET-소일형)이 14.8%에 불과해 남성청소년(34.0%)에 비해 월등히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본 조사가 학업중단 청소년지원기관이나 시설을 통해 실시되어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별 분포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경숙·노재봉(2003)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학업중단 청소년 97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여성청소년의 68.5%가 아르바이트 기회가 적다고 응답해 남성청소년(57.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들은 여성청소년의 적은 아르바이트 종류와 기회가 성 산업으로의 유입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표 II-5〉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성별 분포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매장관리	2(8.7)	-	2(5.6)
서빙	2(8.7)	6(46.2)	8(22.2)
주방	1(4.3)	-	1(2.8)
주유, 세차	4(17.4)	-	4(11.1)
배달	6(26.1)	-	6(16.7)
퀵서비스, 택배	3(13.0)	1(7.7)	4(11.1)
기타	5(21.7)	6(46.2)	11(30.6)
계	23(100.0)	13(100.0)	36(100.0)

자료: 윤철경 외(2010). 원자료 재분석

전경숙·노재봉의 이러한 지적은 윤철경 등의 연구(2010)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종류를 보면(표 II-5), 남성청소년들은 배달(26.1%), 주유·세차(17.4%), 퀵서비스·택배(13.0%) 등 비교적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 비해 여성청소년은 서빙(46.2%)이 주를 이루고 있을 뿐 남성청소년에 비해 일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다.

〈표 II-6〉 지금까지 일했던 업소의 성별 분포(중복응답)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합법적 업소	주유소	13(54.2)	6(42.9)	19(50.0)
	슈퍼, 편의점	8(33.3)	5(35.7)	13(34.2)
	음식점	15(62.5)	13(92.9)	28(73.7)
	PC방	7(29.2)	7(50.0)	14(36.8)
	택배회사	3(12.5)	2(14.3)	5(13.2)
	공장	5(20.8)	4(28.6)	9(23.7)
	건설현장	5(20.8)	1(7.1)	6(15.8)
	소계	61(83.6)	41(77.4)	102(81.0)
비합법적 업소	다방, 카페	2(8.3)	-	2(5.3)
	만화방	1(4.2)	-	1(2.6)
	호프집, 소주방	2(8.3)	8(57.1)	10(26.3)
	노래방	6(25.0)	2(14.3)	8(21.1)
	단란주점	1(4.2)	2(14.3)	3(7.9)
	소계	12(16.4)	12(22.6)	24(19.0)
기타		5(20.8)	3(21.4)	8(21.1)
응답자		24	14	38

자료: 윤철경 외(2010). 원자료 재분석

또한 이들이 그 동안 해온 일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한 장소를 살펴보면(표 Ⅱ-6), 음식점(73.7%)에서 일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주유소(50.0%), PC방(36.8%), 슈퍼·편의점(3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의 거의 대부분이 음식점(92.9%)에서 일한 적이 있으며, 호프집·소주방에서 일한 적이 있는 비율도 57.1%에 달했다. 여성청소년(22.6%)은 남성청소년(16.4%)에 비해 호프집·소주방을 비롯해 노래방, 단란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19세미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Ⅱ-7〉 일을 하게 된 성별 동기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11(45.8)	11(78.6)	22(57.9)
용돈이 부족해서	11(45.8)	2(14.3)	13(34.2)
여가시간을 활용하려고	1(4.2)	1(7.1)	2(5.3)
기타	1(4.2)	-	1(2.6)
합계	24(100.0)	14(100.0)	38(100.0)

자료: 윤철경 외(2010). 원자료 재분석.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일을 하게 된 동기를 보면(표 Ⅱ-7), 여성청소년의 경우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가 78.6%로 남학생(45.8%)에 비해 월등히 높고, 남학생은 상대적으로 용돈이 부족해서(45.8%)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청소년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남성청소년은 용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비율이 더 높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경상·박창남(2006)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 역시 여성청소년(23.1%)이 남성청소년(4.2%)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대부분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과 비합법적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Ⅱ-8〉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성별 만족도

단위: 명(%)

	남성	여성	전체
매우 만족	6(25.0)	3(23.1)	9(24.3)
다소 만족	8(33.3)	4(30.8)	12(32.4)
보통	9(37.5)	3(23.1)	12(32.4)
다소 불만족	-	1(7.7)	1(2.7)
매우 불만족	1(4.2)	2(15.4)	3(8.1)
합계	24(100.0)	13(100.0)	37(100.0)

자료: 윤철경 외(2010). 원자료 재분석.

전경숙(2006)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는 청소년 근로의 특성상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팔 수 있는 교환가치는 육체적인 힘을 이용한 ‘육체노동력’과 자신이 가진 몸을 ‘상품화’ 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남성청소년들의 경우 여성청소년보다 육체적인 노동력의 쓰임이 많기 때문에, 육체노동의 경우 남성청소년의 임금수준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 똑같은 식당 배달일의 경우도 남성청소년의 경우는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일이고,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직접 손으로 들고 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남성청소년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온라인게임 상에서 사용하는 각종 ‘무기들’을 사고파는 형태의 일자리로 게임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아르바이트 중 하나였다. 반대로 임금수준이 높아지는 일은 여성청소년의 몸을 스스로 혹은 남성청소년이나 성인을 매개로 하여 상품화하는 것들로, 이 경우 임금수준이 제일 높았다. 여성청소년들의 경우는 PC방, 전화방 등에서 진행되는 ‘채팅’과 ‘전화팅’을 통해 ‘원조교제 형식의 성매매’(연령에 관계없이 대가성 성행위 모두 포함)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가장 손쉽고, 얼마이지 않는 고액의 수입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였다. 남성청소년의 경우 여성청소년들을 집단으로 팔아넘기는 식인 ‘여자알선(탕치기, 납치 등)’을 통해 돈을 벌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9〉 성별에 따른 직종과 임금 차이

남성	임금	↓ ↓ ↓ ↓ ↓ ↓ ↓ ↓ ↓ ↓	↓ ↓ ↓ ↓ ↓ ↓ ↓ ↓ ↓ ↓	여성	임금
전단지	장당 25원			전단지	장당 20~25원
신문배달	월 15~40만원			신문배달	월 15~30만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시급 2,500원 내외 월 30~50만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시급 2,500원 내외 월 30~50만원
PC방	월 50~60만원			PC방	월 40~50만원
각종 막노동, 공장노동	월 70~80만원			미용보조원 등 보조노동	월 50~60만원
주유소	시급 3,500원			주유소	시급 3,000원
식당주방일	월 80~90만원			식당배달·서빙	월 50~70만원
온라인게임	월 100만원 내외			식당주방일	월 80만원 내외
식당배달일	월 120만원 내외			커피숍·노래방	월 100만원 내외
나이트웨이터	월 200만원 이상	임 금 수 준 상 승	몸 의 교 환 가 치 상 승	티켓다방	월 150만원 내외
호스트바	월 200만원+a			단란주점	월 200~300만원
보도방	성과급제			원조교제	건당 5~50만원

자료: 전경숙(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12쪽.

실제로 상당히 많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경상·박창남(2006)의 연구에 따르면, 카페나 주점 서빙(14.2%), 유흥업소 고객, 서빙 및 접대(11.0%) 등 주점, 비디오방, 전화방, 게임방 등에서 서빙을 하는 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조사대상자 155명 중 40.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상·박창남, 2006).

한편,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욕설·비하 발언, 임금체불, 상해, 성희롱 등으로, 특히, 여성청소년들의 경우 윤락 등 업소경험과는 거리가 먼 일반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성희롱과 심지어는 성폭력 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경숙, 2006; 전경숙·노재봉, 2003).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경숙·노재봉(2003)은 여성청소년을 위한 업종 개발을 제안하는 등 학업중

단 청소년의 성별 생활실태를 토대로 각 집단의 요구에 맞는 지원 방안을 고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별분석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국한되어 있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전반적인 생활세계를 포착하고 그에 맞는 지원방안을 고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Ⅲ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현황과 특성

- | | |
|--------------------|----|
| 1. 학업중단 규모 및 변화 추이 | 45 |
| 2. 성별 학업중단 사유 | 55 |

학업중단 청소년의 규모와 학업중단율에서의 성별 특성을 『교육통계연보』의 학교급별 학생 변동 상황을 토대로 살펴본다. 교육통계연보에서 학생변동 상황의 조사항목이 시기에 따라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4년부터 교육통계연보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자’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하위항목으로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로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⁸⁾ 2004년을 기점으로 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업중단자는 학업중단사유의 하위항목 없이 유예자와 면제자로만 분류되어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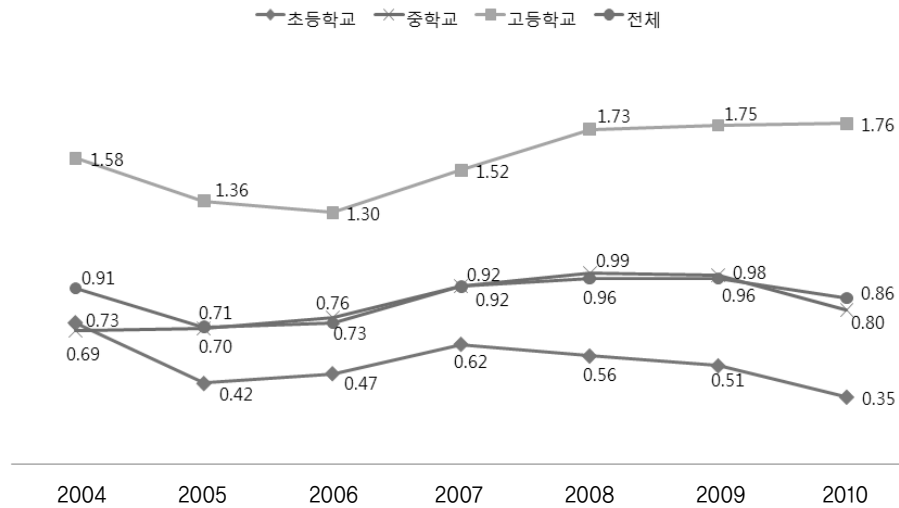
1. 학업중단 규모 및 변화 추이

먼저, 2004년 이후 학업중단율의 변화추이를 보면(그림 III-1), 초·중등학교를 떠난 청소년비율이 2004년 0.91%에서 2005년 0.71%로 0.2% 포인트 낮아진 이래 2009년 0.96%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으나 2010년 0.08% 포인트 낮은 0.86%로 나타났다. [그림 I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업중단율도 높아지는 추세에는 변함이 없는 가운데, 초등학교는 2007년(0.62%)을 정점으로, 중학교는 2008년(0.99%)을 기점으로 학업중단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고등학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1.76%에 달하고 있다. 2010년 초등학교 0.35%, 중학교 0.80%의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있다.

8) 교육통계연보에서의 학업중단 청소년 조사 항목

	유예	면제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초등학교	0	0					
중학교	0	0					
고등학교			0	0	0	0	0

9) 유예자: 보호자신청, 학교장 직권, 정원의 관리, 기타에 의해 의무교육을 유예한 자
면제자: 보호자 신청, 학교장 직권, 기타에 의해 의무교육을 면제받은 자



주: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수 / 재적학생수 × 100

[그림 Ⅲ-1] 학교급별 학업중단율 추이

〈표 Ⅲ-1〉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율(2004~2010년)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2004	0.84	0.97	0.66	0.79	0.68	0.69	1.44	1.71
2005	0.65	0.75	0.38	0.45	0.68	0.72	1.23	1.48
2006	0.68	0.78	0.44	0.50	0.73	0.78	1.17	1.42
2007	0.84	0.98	0.59	0.65	0.89	0.94	1.32	1.70
2008	0.87	1.05	0.52	0.59	0.95	1.02	1.49	1.94
2009	0.88	1.04	0.49	0.53	0.98	0.98	1.50	1.98
2010	0.77	0.93	0.34	0.37	0.78	0.81	1.51	1.98

주: 학업중단율 = 학업중단자 / 재적학생수 × 100

이러한 전반적인 추이는 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Ⅲ-1). 다만, 중학교단계에서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비해 남성청소년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차이를 보인다.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학교급에 관계없이 남성

청소년에 비해 일관되게 낮게 나타난다. 2010년 현재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34%, 중학교 0.78%, 고등학교 1.51%이고, 남성청소년은 각각 0.37%, 0.81%, 1.98%로 남성청소년에 비해 0.03% 포인트, 0.13% 포인트, 0.47% 포인트 더 낮다. 이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규모면에서는 남성청소년보다 적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Ⅲ-2〉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자수(2004~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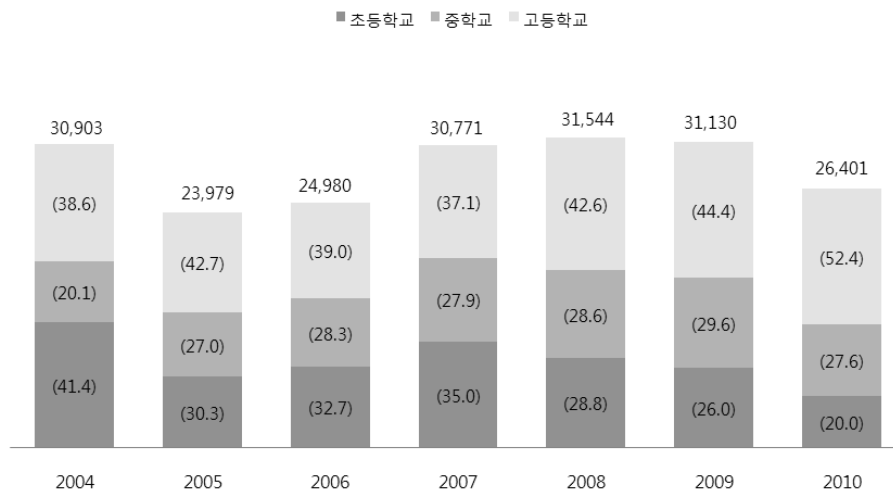
단위: 명(%)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04	70,962	30,903 (43.5)	40,059 (56.5)	30,056	12,785 (42.5)	17,271 (57.5)	13,276	6,202 (46.7)	7,074 (53.3)	27,630	11,916 (43.1)	15,714 (56.9)
2005	54,995	23,979 (43.6)	31,016 (56.4)	16,793	7,276 (43.3)	9,517 (56.7)	14,165	6,467 (45.7)	7,698 (54.3)	24,037	10,236 (42.6)	13,801 (57.4)
2006	57,148	24,980 (43.7)	32,168 (56.3)	18,403	8,178 (44.4)	10,225 (55.6)	15,669	7,059 (45.1)	8,610 (54.9)	23,076	9,743 (42.2)	13,333 (57.8)
2007	70,796	30,771 (43.5)	40,025 (56.5)	23,898	10,763 (45.0)	13,135 (55.0)	18,968	8,590 (45.3)	10,378 (54.7)	27,930	11,418 (40.9)	16,512 (59.1)
2008	73,494	31,544 (42.9)	41,950 (57.1)	20,450	9,073 (44.4)	11,377 (55.6)	20,101	9,030 (44.9)	11,071 (55.1)	32,943	13,441 (40.8)	19,502 (59.2)
2009	71,769	31,130 (43.4)	40,639 (56.6)	17,644	8,079 (45.8)	9,565 (54.2)	19,675	9,222 (46.9)	10,453 (53.1)	34,450	13,829 (40.1)	20,621 (59.9)
2010	61,910	26,401 (42.6)	35,509 (57.4)	11,634	5,279 (45.4)	6,355 (54.6)	15,736	7,294 (46.4)	8,442 (53.6)	34,540	13,828 (40.0)	20,712 (60.0)

학업중단 청소년의 총수는 2004년 이후 최소 55,000명에서 최대 74,000명 수준에 달한 가운데, 2010년에는 61,910명으로 전년대비 1만 명에 가까운 9,859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Ⅲ-2). 이처럼 학업중단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은 초등학교에서 학업중단자수(6,010명)가 크게 감소한데 의존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단계에서의 학업중단자수의 감소는 초등학교의 65% 수준인 3,939명이고, 고등학교는 오히려 90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고등학교단계에서의 학업중단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 학교급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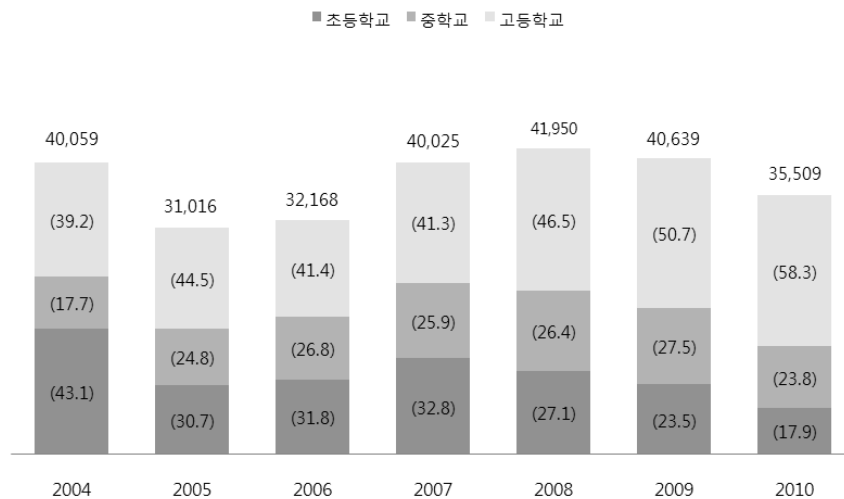
2010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은 26,401명이고, 남성청소년은 35,509명으로 여성청소년보다 9,108명 더 많다. 2004년 이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규모를 보면, 전체 학업중단자 중 43% 전후가 여성청소년으로 24,000명~32,000명 선을 보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2010년 현재 초등학교 5,279명, 중학교 7,294명, 고등학교 13,828명이다. 그런데 학교급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규모를 보면, 2010년의 경우 고등학교단계에서의 여성구성비가 40.0%로 초등학교(45.4%)나 중학교(46.4%)보다 낮다. 특히, 중, 고등학교를 비교해보면, 중학교단계에서 학업중단한 청소년중 여성청소년구성비가 고등학교단계에서 여성청소년구성비보다 높고, 지난 2004년 이후 일관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규모가 남성청소년보다 적으나,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남성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Ⅲ-2]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교급별 분포

이를 [그림 Ⅲ-2]를 통해 보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중 고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에 처음으로 50%를 상회한 52.4%를 보였으며, 2004년

이후 지난 6년간 40% 전후를 차지하였다. 비록 2007년 고등학생 구성비가 37.1%로 가장 적었다가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를 학업중단 남성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비와 비교해보면(그림 Ⅲ-3), 지난 7년간 학업중단 남성청소년 중 고등학생 구성비가 여성청소년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학업중단자중 중학교 학업중단자나 초등학교 학업중단자의 비율은 여성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룬다. 2010년 여성청소년 학업중단자 중 중학교 중단자가 27.6%로 남성청소년보다 3.8%포인트 더 많고, 고등학교 중단자는 52.4%로 남성청소년보다 5.9%포인트 더 적다.



[그림 Ⅲ-3] 학업중단 남성청소년의 학교급별 분포

이처럼 여성청소년은 남성청소년에 비해 저연령층인 초등 및 중학교단계에서 학업중단을 하는 비율이 높으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학년별 학업중단 비율을 보면 성별에 관계없이 중학교 1학년부터 학업중단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고등학교 1학년에 정점을 이룬 후 빠르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표 Ⅲ-3). 중학교단계에서는 전 학년에 걸쳐 학업중단이 일어나나 상대적으로 2,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높고, 고등

학교단계에서는 이와는 달리 1학년 때 학업중단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3학년 때의 학업중단은 비교적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0년을 보면, 중학교의 경우 2학년 학업중단자는 여성 37.2%, 남성 34.2%이고 3학년 학업중단자는 여성 36.9%, 남성 37.8%인데 비해 1학년 학업중단자는 여성 25.9%, 남성 28.1%로, 2, 3학년 학업중단자 비율이 다소 더 높다. 반면 고등학교의 경우는 1학년 학업중단자가 여성 57.1%, 남성 59.7%로 3학년 학업중단자(여성 9.1%, 남성 8.2%)는 물론 2학년 학업중단자(여성 33.7%, 남성 32.0%)보다 월등히 많다.

〈표 Ⅲ-3〉 학교급·성별 학업중단자의 학년별 분포

단위: 명, %

		학년	2006	2007	2008	2009	2010
중학교	여성	계	7,059	8,590	9,030	9,222	7,294
		1	28.4	27.2	26.2	26.9	25.9
		2	37.0	36.1	36.4	35.6	37.2
		3	34.6	36.6	37.4	37.5	36.9
	남성	계	8,610	10,378	11,071	10,453	8,442
		1	30.7	28.9	27.4	27.3	28.1
		2	35.3	35.2	34.4	34.5	34.2
		3	34.1	35.9	38.2	38.2	37.8
고등학교	여성	계	9,743	11,418	13,441	13,829	13,828
		1	53.9	51.3	55.8	57.9	57.1
		2	34.8	37.2	33.5	33.7	33.7
		3	11.3	11.5	10.7	8.4	9.1
	남성	계	13,333	16,512	19,502	20,621	20,712
		1	55.4	53.3	57.9	60.2	59.7
		2	34.2	36.1	32.4	32.3	32.0
		3	10.4	10.5	9.7	7.5	8.2

나. 지역별 현황

한편 지역별 학업중단율을 보면(표 Ⅲ-4), 전체적으로는 도지역보다는 광역시에서의 학업중단율이 더 높고 이런 경향은 지난 5년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광역시에서 학업중단율이 더 높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광역시보다는 도지역에서의 학업중단율이 더 높다. 2010년의 광역시 학업중단율은 전체 0.90%, 초등학교 0.42%, 중학교 0.89%, 고등학교 1.65%이고 도지역은 전체 0.82%, 초등학교 0.30%, 중학교 0.72%, 고등학교 1.85%이다. 이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은 광역시에서 더 높고,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은 도지역에서 높은 양상은 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지난 5년간 동일하게 나타난다.

〈표 Ⅲ-4〉 학교급·지역·성별 학업중단율

단위: %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06	광역시	0.78	0.72	0.84	0.51	0.47	0.55	0.86	0.82	0.89	1.23	1.10	1.35
	도	0.70	0.65	0.74	0.43	0.41	0.45	0.67	0.65	0.68	1.36	1.22	1.48
2007	광역시	0.97	0.88	1.05	0.69	0.65	0.73	1.03	0.98	1.07	1.43	1.21	1.63
	도	0.87	0.81	0.92	0.57	0.54	0.59	0.83	0.81	0.84	1.59	1.41	1.76
2008	광역시	1.02	0.92	1.10	0.60	0.56	0.63	1.09	1.06	1.12	1.68	1.42	1.91
	도	0.92	0.84	1.00	0.52	0.48	0.56	0.90	0.85	0.94	1.77	1.56	1.96
2009	광역시	1.02	0.93	1.09	0.58	0.55	0.60	1.09	1.10	1.08	1.67	1.40	1.91
	도	0.92	0.84	0.99	0.45	0.44	0.47	0.89	0.88	0.90	1.83	1.58	2.04
2010	광역시	0.90	0.81	0.97	0.42	0.39	0.44	0.89	0.86	0.91	1.65	1.42	1.85
	도	0.82	0.74	0.90	0.30	0.29	0.32	0.72	0.71	0.73	1.85	1.58	2.10

지역별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비를 보면(표 Ⅲ-5), 2010년 현재 광역시의 경우 고등학교 중단자 49.0%, 중학교 중단자 29.4%, 초등학교 중단자 21.6%인데 비해 남성청소년은 각각 54.4%, 25.8%, 19.7%로, 여

성청소년이 남성청소년에 비해 조기에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지역의 경우도 남성청소년의 경우 학업중단자중 고등학교 중단자가 61.7%를 차지하지만 여성청소년은 55.3%로 더 낮고, 중학교(여성 26.1%, 남성 22.0%)와 초등학교(여성 18.6%, 초등학교 16.3%)에서 중단한 비율은 남성청소년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여성청소년의 조기 학업중단 현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지난 5년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Ⅲ-5〉 지역·성별 학업중단자의 학교급별 분포

단위: 명(%)

		성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광역시	2006	여성	11,939	3,873(32.4)	3,670(30.7)	4,396(36.8)
		남성	15,746	5,018(31.9)	4,618(29.3)	6,110(38.8)
	2007	여성	14,532	5,204(35.8)	4,335(29.8)	4,993(34.4)
		남성	19,454	6,447(33.1)	5,440(28.0)	7,567(38.9)
	2008	여성	14,870	4,270(28.7)	4,584(30.8)	6,016(40.5)
		남성	19,945	5,299(26.6)	5,569(27.9)	9,077(45.5)
	2009	여성	14,644	3,973(27.1)	4,669(31.9)	6,002(41.0)
		남성	19,236	4,715(24.5)	5,211(27.1)	9,310(48.4)
	2010	여성	12,269	2,652(21.6)	3,611(29.4)	6,006(49.0)
		남성	16,482	3,254(19.7)	4,258(25.8)	8,970(54.4)
도	2006	여성	13,041	4,305(33.0)	3,389(26.0)	5,347(41.0)
		남성	16,422	5,207(31.7)	3,992(24.3)	7,223(44.0)
	2007	여성	16,239	5,559(34.2)	4,255(26.2)	6,425(39.6)
		남성	20,571	6,688(32.5)	4,938(24.0)	8,945(43.5)
	2008	여성	16,674	4,803(28.8)	4,446(26.7)	7,425(44.5)
		남성	22,005	6,078(27.6)	5,502(25.0)	10,425(47.4)
	2009	여성	16,486	4,106(24.9)	4,553(27.6)	7,827(47.5)
		남성	21,403	4,850(22.7)	5,242(24.5)	11,311(52.8)
	2010	여성	14,132	2,627(18.6)	3,683(26.1)	7,822(55.3)
		남성	19,027	3,101(16.3)	4,184(22.0)	11,742(61.7)

다. 고등학교 계열별 현황

고등학교 계열별 학업중단 규모를 보면(표 III-6), 2010년 현재 일반계 17,419명, 전문계 17,121명으로 거의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은 지난 5년간 7,000명 이상 증가한 반면, 전문계 고등학교는 4,000명 정도의 증가에 그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문제가 더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계 고등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대비 학업중단자 비율을 보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율이 2010년 현재 3.67%로 일반계 고등학교 1.16%의 3배에 달하고 있어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 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으나, 2010년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달리 전문계 고등학교에서의 학업중단자 규모가 전년에 대비 1,184명이 감소하는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계열별 학업중단 양상은 성별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2010년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도에 그만둔 여성청소년은 6,902명, 전문계 고등학교 6,926명이며, 학업중단율은 각각 0.97%, 3.29%로 나타났다.

〈표 III-6〉 고등학교 계열별 학업중단자 규모 및 학업중단율

단위: 명(%)

	일반계			전문계		
	계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2006	10,166(0.79)	4,261(0.70)	5,905(0.88)	12,910(2.61)	5,482(2.41)	7,428(2.78)
2007	12,616(0.94)	5,112(0.80)	7,504(1.06)	15,314(3.10)	6,306(2.78)	9,008(3.37)
2008	15,477(1.09)	6,311(0.93)	9,166(1.24)	17,466(3.58)	7,130(3.21)	10,336(3.89)
2009	16,145(1.09)	6,508(0.92)	9,637(1.24)	18,305(3.81)	7,321(3.36)	10,984(4.18)
2010	17,419(1.16)	6,902(0.97)	10,517(1.33)	17,121(3.67)	6,926(3.29)	10,195(3.99)

한편 전문계 고등학교의 전공별 학업중단자 규모를 보면(표 III-7), 2010년 현재 공업계가 6,93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상업계 5,064명, 종합 고등학교 2,627명의 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재학생대비 학업중단자 비율

을 보여주는 학업중단율은 농업계가 5.0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가사·실업계 4.48%, 공업계 4.09%의 순을 보이고 있다. 이 3개 전공계열은 지난 5년간 다른 전공계열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전문계 고등학교 전공별 학업중단자 규모 및 학업중단율

단위: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업계	계	712(4.27)	590(4.29)	775(4.98)	1,001(6.14)	829(5.03)
	여성	294(4.46)	235(4.34)	320(5.49)	340(5.62)	309(5.11)
	남성	418(4.15)	355(4.27)	455(4.68)	661(6.45)	520(4.98)
공업계	계	5,066(2.71)	6,238(3.35)	7,243(4.01)	7,414(4.18)	6,938(4.09)
	여성	951(3.63)	1,104(4.03)	1,326(4.86)	1,406(5.25)	1,331(5.18)
	남성	4,115(2.56)	5,134(3.24)	5,917(3.86)	6,008(4.00)	5,607(3.89)
상업계	계	4,205(2.51)	4,757(2.92)	5,179(3.32)	5,452(3.59)	5,064(3.43)
	여성	2,802(2.27)	3,113(2.59)	3,400(2.97)	3,466(3.15)	3,223(3.04)
	남성	1,403(3.17)	1,644(3.83)	1,779(4.28)	1,986(4.76)	1,841(4.46)
수산·해양계	계	158(3.58)	183(4.53)	182(4.56)	149(3.82)	133(3.56)
	여성	19(5.92)	11(3.87)	16(6.43)	9(3.56)	15(6.44)
	남성	139(3.40)	172(4.58)	166(4.43)	140(3.84)	118(3.37)
가사·실업계	계	1,058(3.20)	1,371(3.69)	1,663(4.32)	1,725(4.47)	1,530(4.48)
	여성	502(2.68)	673(3.24)	845(3.97)	853(3.98)	777(3.97)
	남성	556(3.87)	698(4.25)	818(4.75)	872(5.17)	753(5.17)
종합고	계	1,711(2.00)	2,175(2.42)	2,424(2.61)	2,564(2.76)	2,627(2.78)
	여성	914(1.76)	1,170(2.21)	1,223(2.31)	1,247(2.34)	1,271(2.40)
	남성	797(2.35)	1,005(2.72)	1,201(3.02)	1,317(3.31)	1,356(3.26)

이를 성별로 보면, 상업계 다음으로 많은 여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공업계의 경우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이 2010년 5.18%로 남성청소년(3.89%)보다 높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2005년 이후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성청소년 학업중단율이 높은 것은 전 학교급에 걸쳐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농업계 또한 2009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공업계와 마찬가지로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율

이 더 높다. 공업계와 농업계는 전통적으로 남성적 직업훈련분야로 인식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업계와 농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성청소년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8〉 고등학교 계열·성별 학업중단자의 학년별 분포

단위: 명, %

	학년	2006		2007		2008		2009		2010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일반계	전체	4,261	5,905	5,112	7,504	6,311	9,166	6,508	9,637	6,902	10,517
	1	55.8	55.2	52.6	54.1	56.1	58.4	57.3	59.8	57.2	58.9
	2	34.2	34.6	39.3	36.8	35.0	32.7	35.7	33.4	35.1	33.1
	3	10.1	10.2	8.1	9.1	8.9	8.9	7.0	6.8	7.7	8.0
전문계	전체	5,482	7,428	6,306	9,008	7,130	10,336	7,321	10,984	6,926	10,195
	1	52.4	55.6	50.3	52.7	55.5	57.5	58.4	60.6	57.1	60.6
	2	35.4	33.8	35.6	35.6	32.1	32.2	31.9	31.2	32.3	31.0
	3	12.3	10.6	14.2	11.7	12.3	10.3	9.7	8.2	10.6	8.4

고등학교단계에서의 학업중단은 <표 Ⅲ-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5년간 고등학교 계열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1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0년의 경우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절반이상(일반계 57.2%, 전문계 57.1%)이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했으며, 남성청소년(일반계 58.9%, 전문계 60.6%)도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3학년 때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는 계열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10% 전후로 비교적 적은 편이나 일반계보다는 전문계에서 다소 더 높고, 전문계 남성청소년보다는 여성청소년 중에 3학년에 학업을 중단하는 비율이 다소 더 높다.

2. 성별 학업중단 사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단계로 학업중단 사유가 의무교육 유예자와 면제자로만 구분되어 있어 성별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학업중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고 있는 고등학교 단계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사유를 살펴본다.

〈표 III-9〉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성별 학업중단 사유

단위: 명, %

		전체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2006	여성	9,743	6.9	29.3	2.9	37.4	23.6
	남성	13,333	6.3	29.4	2.8	40.5	20.9
2007	여성	11,418	7.9	28.5	3.6	36.1	23.9
	남성	16,512	6.5	29.1	2.7	41.4	20.3
2008	여성	13,441	7.8	30.0	3.3	40.0	18.9
	남성	19,502	5.7	31.6	3.0	44.3	15.3
2009	여성	13,829	6.9	31.5	2.1	42.7	16.8
	남성	20,621	4.9	28.2	1.9	50.3	14.7
2010	여성	13,828	7.0	24.9	1.2	40.2	26.7
	남성	20,712	5.3	23.8	1.5	46.9	22.6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을 중단한 이유를 보면(표 III-9), 2010년의 경우 학생의 성별에 관계없이 학교 부적응(여성 40.2%, 남성 46.9%)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지만, 여성청소년은 기타(여성 26.7%, 남성 22.6%) 사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반면 남성청소년은 부적응(남성 46.9%, 여성 40.2%)이 더 많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 5년간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학업중단 사유를 청소년의 성별과 지역을 함께 고려해보면(표 III-10), 여성청소년의 경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광역시(2010년, 광역시 40.7%, 도 39.8%)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기는 하나 지역간 격차가 크지 않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은 광역시보다 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은 광역시 21.3%, 도 27.6%로 도지역에서 6.3% 포인트 더 높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이 보다 더 높은 지역 간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상대적으로 광역시에서 더

많고 그 격차는 크지 않은 반면,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은 도지역에서 더 많고 지역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이러한 양상은 남성청소년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남성청소년의 경우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의 지역 간 격차는 여성청소년에 비해 더 크고,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의 지역 간 격차는 상대적으로 더 적다.

〈표 Ⅲ-10〉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성·지역별 학업중단 사유

단위: 명, %

			전체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여성	2006	광역시	4396	7.7	28.2	3.4	39.3	21.5
		도	5,347	6.3	30.2	2.4	35.8	25.3
	2007	광역시	4,993	8.1	24.5	4.4	39.5	23.4
		도	6,425	7.7	31.6	3.0	33.5	24.3
	2008	광역시	6,016	8.0	22.4	3.8	40.9	24.9
		도	7,425	7.7	36.2	2.9	39.2	14.0
	2009	광역시	6,002	7.2	26.1	2.0	41.6	23.1
		도	7,827	6.7	35.7	2.1	43.5	12.1
	2010	광역시	6,006	8.0	21.3	1.3	40.7	28.7
		도	7,822	6.2	27.6	1.2	39.8	25.2
남성	2006	광역시	6,110	6.4	28.2	3.1	44.7	17.6
		도	7,223	6.3	30.5	2.5	36.9	23.8
	2007	광역시	7,567	6.1	25.6	2.8	45.9	19.5
		도	8,945	6.8	32.0	2.7	37.6	20.9
	2008	광역시	9,077	6.1	26.6	2.5	44.5	20.4
		도	10,425	5.5	36.0	3.5	44.2	10.9
	2009	광역시	9,310	5.1	23.5	1.5	51.2	18.8
		도	11,311	4.9	32.0	2.2	49.5	11.4
	2010	광역시	8,970	5.4	21.6	1.3	48.7	23.0
		도	11,742	5.2	25.5	1.6	45.4	22.3

〈표 Ⅲ-11〉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성·계열별 학업중단 사유

단위: 명, %

		계열	전체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여성	2006	일반계	4,261	11.5	29.0	1.2	26.3	32.0
		전문계	5,482	3.4	29.5	4.1	46.0	17.0
	2007	일반계	5,112	12.1	26.3	1.3	26.8	33.4
		전문계	6,306	4.4	30.3	5.4	43.7	16.2
	2008	일반계	6,311	12.7	27.2	1.1	34.3	24.8
		전문계	7,130	3.6	32.6	5.2	45.0	13.6
	2009	일반계	6,508	11.3	27.8	1.0	36.7	23.2
		전문계	7,321	3.0	34.8	3.1	48.0	11.2
남성	2006	일반계	6,902	10.9	20.0	0.8	32.6	35.7
		전문계	6,926	3.1	29.7	1.6	47.9	17.7
	2007	일반계	5,905	10.1	29.8	1.4	31.0	27.7
		전문계	7,428	3.4	29.1	3.9	48.0	15.5
	2008	일반계	7,504	9.7	25.9	1.1	34.0	29.3
		전문계	9,008	3.8	31.7	4.1	47.7	12.7
	2009	일반계	9,166	8.6	29.2	1.4	40.3	20.4
		전문계	10,336	3.2	33.7	4.5	47.9	10.8
	2010	일반계	9,637	8.0	25.8	1.1	45.9	19.2
		전문계	10,984	2.2	30.2	2.6	54.1	10.8
		일반계	10,517	7.6	20.2	1.2	41.7	29.3
		전문계	10,195	2.9	27.5	1.8	52.1	15.7

고등학교 계열별로 청소년의 성별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표 Ⅲ-11, 부표 Ⅲ-1),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기타사유로 인한 학업중단이 일반계 고등학교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광역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여성학업중단자들에게서 많다는 점이다. 2010년 광역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중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38.1%에 달하지만 도지역 전문계 여성청소년은 17.4%에 불과하고 남성청소년의 경우도 광역시 29.6%, 도 15.9%로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지난 5년간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 학교 부적응과 가사로 인한 학업중

단에서의 계열간 격차는 여성청소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며, 일반계보다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학교 부적응 문제와 가사로 인한 학업중단이 더 많이 발생한다. 2010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중 학교 부적응으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전문계 47.9%, 일반계 32.6%이고, 가사는 전문계 29.7%, 일반계 20.0%이다.

그런데 이처럼 학업중단 사유가 기타 항목으로 나타난 비율이 15%에서 많게는 35%에 달할 뿐 아니라, 특정 성 및 특정 지역에서 기타 비율이 편중되는 것은 학업중단 사유를 조사하는 항목의 개편이 불가피함을 시사하고 있다. 교육통계에서 학업중단 사유를 조사하는 것은 학업중단 사유를 파악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적 필요와 맞닿아 있다. 학업중단이 일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업중단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 사유가 ‘기타’로 분류되고 그 비율이 15~35%에 달하며, 특히, 2010년 광역시 일반계 고등학교 여성 학업중단자 중 38.1%가 학업중단 사유 중 기타로 분류되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은 학업중단 사유를 조사하는 필요성과 그 목적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기 어렵게 한다. 김성기(2009) 또한 학업중단 사유가 상세화되어 있지 않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편안 마련을 제안한 바 있다.

IV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지원 요구

1.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63
2.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배경요인	72
3.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 및 생애인식	95
4.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서비스 접근 경험과 지원 요구	131
5. 소결	163

1.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이번 연구과정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은 모두 41명으로 대안학교, 청소년관련기관을 통해 소개받고, 인터뷰 참여자로부터 친구들을 소개받는 방식으로 섭외하였다. 아래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기본정보표는 전체 대상자들을 낮은 연령순으로 정리하였고, 동일한 연령의 경우 학교중단 기간 순서대로 나열하였다(표 IV-1). 통상적으로 전체 41명 중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 13세에서 15세까지의 여성청소년은 모두 9명이며,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만 16세에서 만 18세까지는 29명, 만 19세는 3명으로 청소년 중·후반기에 해당하는 이들이 전체의 4/5에 달한다.

이들의 연령적 특성은 학업중단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하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즉 중학생에 해당하는 9개 사례 중 조건만남과 같은 개인형 성매매경험이 있는 1개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 이는 만 15세 미만은 연소자근로법에 의해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데다가, 현재 만 15세인 5명 중 4명(나머지 1명은 앞의 개인형 성매매 경험자)은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이라 아르바이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연령적 측면 외에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특성을 학업중단시기 및 중단기간, 가족관계, 현재 하고 있는 일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표 IV-1〉 심층면접 대상자의 기본정보

번호	이름	연령 (만)	중단시기 (중단기간)	가출 경험	학업중단 이유	현 가족관계 (현 주거상태)	현재 하고 있는 일
1	김윤정	13	중1 6월 (13개월)	없음	친구 돈 뜯어내는 사건에 연루, 학교 징계과정에서 자퇴	부, 모, 언니, 오빠, 남동생	대안학교 재학
2	박정아	13	중2 6월 (14개월)	가출 중	학교 학업 흥미 없음, 학교의 낙인 및 일탈행위에 대한 학교 응대 방식 반감	모-이혼, 언니 (거리)	서울, 경기지역 돌아다니며 거리생활
3	김수은	14	초졸 (4개월)	없음	따돌림	부, 모	대안학교 재학

번호	이름	연령 (만)	중단시기 (중단기간)	가출 경험	학업중단 이유	현 가족관계 (현 주거상태)	현재 하고 있는 일
4	허은영	14	중3 4월 (4개월)	가출 중	부의 폭력으로 집이 싫 어서 반복 가출	부-이혼, 오빠(거리)	서울·경기지역 돌 아다니며 거리생활
5	한혜경	15	중3 (2주)	없음	임신 (중학교→위탁교육기관 연결되어 중졸 인정)	부, 모, 언니 (쉼터)	고등학교 재학
6	김은주	15	중1 2월 (16개월)	없음	학교 또래 관계 어려움	부, 모, 언니	대안학교 재학, 검 정고시 준비중 일반고교 진학이 목표
7	이혜선	15	중2 2월 (18개월)	있음	언니와 동반가출 (언니가 포주가 되어 조건만남 시킴)	조부모, 부-이혼, 언니, 여동생 (쉼터)	쉼터에 머물면서 쉼 터 프로그램 참여, 검정고시 준비
8	오성선	15	중1 (26개월)	없음	유학 이후 일반학교 진 학하지 않음	부, 모, 언니	대안학교 재학(중 졸검시 합격), 일반 고교 입학 목표 공 부중
9	이현지	15	고1 (4개월)	없음	학교 불신, 반감	모-이혼, 동생(이모 댁)	대안학교 재학
10	봉우리	16	중3 4월 (15개월)	확인 불가	학교부적응(낙인 및 학 교 응대 방식 반감)	부, 모, 언니	대안학교 재학 검정고시 준비
11	차은경	16	고1 (17개월)	있음	유학 후 일반학교 진학 부적응	부, 모, 남동생	검정고시준비(학원)
12	윤연아	16	중2 5월, 고2 5월 (21개월)	없음	일탈적 행동 반복, 학업 흥미 없음	외조모, 부, 모, 언니, 남동생	검정고시 준비 계 획 중 아르바이트 구직 중
13	정아름	16	중3 (24개월)	없음	보충수업 불참 계기로 교사 및 친구들과 관계 악화, 따돌림	부, 모	(학업중단 초기)뉴스 타트 프로그램 통해 미용쪽 직업훈련 받음 최근 검정고시 준 비(학원 수강)
14	조수현	16	중2 7월, 고1 3월 (24개월)	없음	학교문화(학생인권 무 시, 위계적 선후배문화 등) 반감	부, 모, 여동생(독립, 애인과 거주)	인권운동 (고입검정고시까지 합격)
15	박현민	16	중3 7월 (25개월)	있음	부모이혼 및 조모 폭력, 학교부적응에 따른 출 석일수 부족으로 가족 의 자퇴 권유	모-이혼, 언니 (외조부모 댁 거주)	아무것도 안 함 검정고시 준비 잘 안 됨 현재 보호관찰 기 간중임
16	강은이	16	중2 (27개월)	있음	찾은 결석, 교사와 갈등	부, 모, 오빠, 이모	대안학교 재학

IV.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지원 요구 ••• 65

번호	이름	연령 (만)	중단시기 (중단기간)	가출 경험	학업중단 이유	현 가족관계 (현 주거상태)	현재 하고 있는 일
17	박민혜	16	중1 3월 (40개월)	없음	제도권 학교 문화 거부감	부, 모, 여동생(독립, 고시원 거주)	대안학교 재학 고졸 검정고시 준비 아르바이트
18	유혜진	17	고2 5월 (2개월)	없음	임신(학교에서 임신중절 권유)	부, 모, 오빠 (썬터)	고등학교 재학
19	임경민	17	중3, 복학후 고1 (16개월)	있음	양부와의 생활 부적응 으로 인한 잦은 가출, 학교 복학 후 학교부적 응(주변 시선)	부-이혼, 오빠 (썬터)	청소년직업체험학교 창업프로젝트 참여
20	유정은	17	중졸 (16개월)	없음	학교 강압적 문화 반감	부모-이혼, 동생 (부·모 집 번갈아 거주)	대안학교 재학
21	정혜미	17	고1 3월 (17개월)	있음	일탈적 행동 반복, 학교 생활 및 학업 흥미 없음	부-모는 가출, 언니	주로 친구들과 어 울러 놀 가끔 키스방 알바 현재보호관찰 기간중
22	김정선	17	고1 10월 (22개월)	있음	학교 또래 관계 어려움	모-이혼, 언니	검정고시 준비
23	최승은	17	고1 3월 (28개월)	있음	성정체성으로 인한 부 모와의 갈등, 학교 대인 관계 어려움	부, 모, 언니, 남동생(독립, 애인과 거주)	음악 쪽으로 진로 정하고 대입준비 레슨 받는 중
24	윤민재	17	중3 3월 (29개월)	있음	낙인 및 학교 응대 방식 반감으로 학교부적응 학업 흥미 없음	언니	주로 친구들과 어 울러 놀 가끔 키스방 알바
25	이소정	17	중2 10월 (33개월)	있음	땡땡이, 화장, 담배 등 으로 학교 제재·교사 간섭 싫어 자퇴	부, 모, 남동생	대안학교 재학 검정고시준비
26	이경미	17	중1 5월 (36개월)	있음	부, 언니로부터 잦은 구 타, 일탈적 행동 반복에 따른 낙인 및 학교 응 대 방식 반감	모-이혼	소년원 출소후 중 졸 검정고시 합격 대형할인마트 제빵 사(현재 고졸검시준 비로 잠시 쉬는 중)
27	장민주	17	고2 (4개월)	없음	학업 스트레스 및 또래 관계 부적응	부, 모, 동생 (사촌언니집)	대안학교 재학
28	한진영	17	중1 4월 (53개월)	있음	일탈적 행동 반복, 학업 흥미 없음	부, 모, 여동생	하는 일 없음 (작년까지는 사고 치고 경찰서 출입 및 재판 반복)
29	김현희	17	중2 (54개월)	있음	친구들 괴롭힘	양부, 모, 여동생	검정고시 준비

번호	이름	연령 (만)	중단시기 (중단기간)	가출 경험	학업중단 이유	현 가족관계 (현 주거상태)	현재 하고 있는 일
30	박다영	18	고1 (13개월)	있음	학교문화(선후배 관계) 반감	모-이혼, 남동생	하는 일 없음
31	이원심	18	고1 (24개월)	있음	친구들과 마찰 및 학교 선도 처벌	부-이혼, 남동생 (기관 선생님 덕 거주)	대안학교 재학
32	김수연	18	고1 5월 (26개월)	있음	모 사망 직전 이모의 폭력 및 정신병원 강제 입원(대안학교 보낸다는 거짓말)	남동생 (그룹홈)	연기학원 다니면서 대입 준비 중
33	남보라	18	고1 5월 (26개월)	없음	해외에서 사업하는 부 를 따라가게 되면서 학 업중단	조부모, 부-이혼, 양모, 동생 (혼자 기관 임대주택 거주)	십대자활사업 참여 (고졸 검정고시 합격)
34	유현아	18	고1 3월 (28개월)	있음	조모 및 부의 차별과 폭력, 부의 성폭행으로 가출	할머니, 부-이혼, 남동생 (그룹홈)	아르바이트 구직 활동 중
35	김현정	18	고1 4월 (28개월)	있음	고입시기 다쳐 잠쉬 선 후 학교 나감, 학교 적응 어려워 자퇴(본래 학교 흥미 없었음)	모-부 사별, 언니, 여동생	혼자 검시 준비하다 어려워 포기 아르바이트 구직 중 평상시에는 그냥 친 구들과 놀
36	최원경	18	고1 12월 (32개월)	있음	부 폭력으로 반복 가출	부-이혼, 여동생	청소년 지원기관 인 턴 프로그램 이수 중, 검정고시 준비 중
37	김형란	18	고1 6월 (36개월)	있음	학교 폭력(가해)	이모 (이모 덕)	청소년지원기관 인 턴 프로그램 이수 중 검정고시 준비, 아 르바이트
38	유성아	18	중1, 고1 9월 (46개월)	있음	친부 및 양부의 폭력으 로 가출 반복	양부, 모-이혼, 여동생, 남동생 (그룹홈)	취업준비중(바리스타) 검정고시 준비
39	윤영주	19	고1 3월 (40개월)	있음	부의 폭력으로 반복 가 출 및 잦은 무단결석	부-이혼, 남동생 (그룹홈)	십대자활사업 참여 (고졸 검정고시 합격)

번호	이름	연령 (만)	중단시기 (중단기간)	가출 경험	학업중단 이유	현 가족관계 (현 주거상태)	현재 하고 있는 일
40	우소희	19	고1 10월 (44개월)	있음	부모의 공부강요로 학업흥미 상실 및 가출, 예고 경쟁적 분위기·엄격한 선후배문화 부적응	부, 모, 남동생	대안학교 재학 검정고시준비(학원)
41	정지수	19	중3 3월, 중3 7월 (48개월)	있음	학교 또래 관계 어려움으로 휴학, 복학 후에도 적응 어려워 다시 자퇴	남동생	청소년 지원기관 인턴 프로그램 이수 중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중

가. 학업중단시기 및 중단기간

1) 학업중단시기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정규 중·고등학교를 그만둔 시기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가 각각 1명, 중학교 재학 중 중단한 경우는 18명, 고등학교 재학 중 중단한 경우는 2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중학교 재학 중에 중단했다가 중학교로 복학했지만 다시 중단한 경우는 1명, 고등학교로 복학한 후 다시 중단한 경우는 4명이었다.

앞서 기술된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통계분석을 고려하면 고등학교 중단자가 중학교의 경우보다 약간 많긴 하지만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는 점에서 2가지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심층면접 대상자 중 고등학교 중단자 수가 많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증가하고, 둘째, 중학교 중단자 수가 고등학교 중단자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이 비교적 낮은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분석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보다 자세한 중단시점을 살펴보면 중학교 중단자의 경우 1학년 6명, 2학년 5명, 3학년 7명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중단자는 1학년 18명, 2학년 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청소년의 학년별 학업중단 비율에서 중학교 1학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고등학교 1학년에 정점을 이룬 후 이후 빠르게 감소한다는 통계현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학업중단기간

임신으로 인해 중학교에서 2주 동안의 중단기간을 가진 후 연이어 청소년미혼모 대안학교로 위탁되어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1명을 제외한 40명의 학업중단기간을 6개월 단위로 살펴보면 <표 IV-2>와 같다. 13개월~18개월이 10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였으며, 25~30개월 9명, 37개월 이상 7명, 6개월 이하와 19~24개월이 각각 5명, 31~36개월 4명 순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중단기간 역시 길었다. 전체 40개 사례 중에서 가장 짧은 중단기간은 2개월이며, 가장 긴 경우는 54개월로 중학교 1학년 때 중단한 이후 만 17세가 된 현재까지 검정고시 준비 외에 대안학교나 직업훈련 등 특정하게 하는 일이 없는 사례이다.

〈표 IV-2〉 심층면접 대상자의 학업중단기간

중단기간	6개월 이하	7~12개월	13~18개월	19~24개월	25~30개월	31~36개월	37개월 이상
인원	5명	-	10명	5명	9명	4명	7명

나. 현재 가족관계 및 주거상태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현재 가족관계 및 주거상태를 크게 ①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비동거중이지만 관계 유지 중인 경우, ② 가출,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인 경우, ③ 재혼가족인 경우, ④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가출 등으로 연락두절된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비동거중이지만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모두 18개 사례가 해당되며, 이 중 비동거중인 사례는 6개 이다. 비동거의 이유는 임신으로 인한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 2명, 동성애인과 동거 2명, 부모로부터의 의도적 독립 1명, 대안학교 다니기 위해서 1명으로 나타났다. 비동거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잦은 왕래를 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가출,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인 사례는 16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부자가족은 8명, 모자가족은 7명, 부모의 집을 번갈아가며 생활하는 경우는 1명이다. 16개 사례 중 비동거 상태인 경우는 7명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5명은 보호시설이나 기관 관계자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2개의 사례는 심층면접 당시 가출을 하여 거리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다.

세 번째 재혼가족인 경우는 모두 3명이었는데, 이 중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여성청소년은 모두 2명으로 보호시설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에 혼자 생활하고 있거나 그룹홈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부모가 모두 사망했거나 이혼, 가출 등으로 연락이 아예 두절된 사례는 4건으로 언니, 동생, 이모와 같이 형제나 친인척과 생활하는 사례가 3건,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1건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거나 비동거중이라도 관계유지를 지속적으로 하는 여성청소년들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대입 또는 검정고시를 위해 구체적인 준비-검정고시 전문학원 수강, 개인레슨 등을 하고 있었다. 이는 경제적, 문화적 자본의 제공이 가능한 가족환경 및 일정수준의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하는 가족기능이 여성청소년들에게 학업 중단 이후에도 학업을 지속하고 진로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부모가족, 재혼가족 내의 여성청소년들의 절반은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가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가족의 폭력 및 가족관계 악화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적절한 가족환경으로 인해 비동거중인 7명이 보호시설이나 기관 관계자의 집과 같이 사회안전망 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정폭력이나 빈곤으로 인해 집에 있기가 싫어 틈만 나면 거리생활을 한다는 2명의 여성청소년의 경우 적절한 사회적 개입을 통해 가출을 비롯한 위기경험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고 무의미한 학업중단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부모가 모두 부재함으로써 양육자 역할을 할 성인이 필요하다고 여

겨지는 4개의 사례 중 이모와 동거중인 여성청소년은 이모와의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아 하루빨리 자립을 하기 위해 억지로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키스방 아르바이트 및 친구들과의 유흥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이 차이가 많지 않은 언니에게 양육의 역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머지 2명은 청소년 관련기관의 지원을 통해 대입과 취업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가족의 부재를 대체할 적절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준다면 학업중단이라는 위기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가출경험

청소년 가출이 위기경험의 시작이면서 보다 심각한 일탈행동으로의 매개가 된다는 기존의 연구들은 재학 중에 발생한 가출이 학업중단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 학업중단기간의 생활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가출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가출이 본 연구의 심층면접 대상자들의 학업중단과정과 중단 이후 일상생활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후에 살펴보고자 하며, 여기에서는 이들의 가출경험 여부 및 경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전체의 약 2/3에 해당하는 25명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전후로 가출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2명은 면접에 참여한 기간 중에도 가출상태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출경험율도 높았으며, 연령이 낮으면서 친부모와 함께 살거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일수록 가출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황들은 가출경험이 본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이들의 가족환경과 가출경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라. 현재 하고 있는 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본 연구의 심층면접 당시 하고 있던 일들을 살펴보면, 주로 ① 학업지속 및 진학 준비, ② 집중적인 검정고시 준비, ③ 자립 준비, ④ 아르바이트 구직 중, ⑤ 가출 또는 무위형, ⑥ 기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학업지속 및 진학 준비의 경우 대안학교 및 2년제 기술관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준비하는 사례를 포함한다. 대안학교 재학 중인 사례는 13개, 2년제 기술관련 고등학교 재학 중인 사례는 2개, 정규고등학교 및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사례는 3개였다. 2년제 기술관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개 사례 모두 임신으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이며, 대학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례들은 예체능계열 지망자로 개인레슨을 받거나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검정고시는 학업을 중단한 여성청소년 대부분 계획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단절된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검정고시이며,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이들도 모두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별도의 검정고시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안학교 재학 사례를 제외하고 심층면접 당시 검정고시 전문학원을 다니거나 구체적인 시험일정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사례는 모두 3명 정도에 불과했다. 개인적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여성청소년들 상당수가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이 불명확할뿐더러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학력주의가 강한 우리 사회에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지 못한 채 성인이 된다면 이들의 학업단절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졸자의 높은 실업률이 주요이슈가 되는 현실 속에서 고졸미만자인 여성청소년들이 무직자나 임시직·저임금 노동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커질뿐더러 이는 결국 여성의 빈곤문제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는 취업을 위한 기술훈련을 받고 있는 사례 1개, 청소년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립준비를 하는 사례 6개를 포함하고 있는데, 주로 당장 자립을 해야 하거나 자립을 준비해야 할 상황에 있는 십대 중

후반의 여성청소년들이다. 현재 자활프로그램 참여 중인 사례들은 청소년직업체험센터나 자활훈련기관, 여성지원기관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훈련과정이나 창업프로그램에서 일을 하면서 약간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또한 가출 중이거나 특별히 하는 것 없이 가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지낸다고 답한 사례가 모두 9개였는데,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검정고시 준비 사례가 3개에 불과하다는 점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그만둔 여성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학업중단이 단순한 ‘학업의 중단’이 아닌 독립적인 성인기로서의 전환 자체를 중단시키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 아르바이트 구직 중인 경우가 3명, 기타 인권단체에서 활동한다고 답한 경우가 1명이다.

2.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 배경요인

청소년의 학업중단이 개인과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복합적인 현상(남국희, 2002)이라는 점에서 여성청소년들의 주변 환경들이 학업중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의 학업중단에는 개인, 가정, 학교, 또래집단, 지역사회 등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배경요인들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은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상화된 폭력 및 양육역할의 부재 등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 하는 가족, ‘공부 못 하고’, ‘문제아’로 낙인화된 학교생활, 가장 든든한 지지집단인 동시에 집단따돌림을 시켜버리는 또래집단과의 관계 등은 여성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을 중단시켜버리는 중요한 요인들이며, 학업중단이 일시적, 단편적 사건/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환경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장기간 축적되어온 결과물임을 보여준다.

가. 가족배경

구본용 외(2002)의 연구에서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성차를 살펴보면 여자청소년들이 또래남성에 비해 가족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나쁠 경우 중퇴율이 40%이상 증가하며, 편모가정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쁘다면 무려 100%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여성청소년이 주위의 타자와 밀접하고 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사회화되어 있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존 연구결과들을 고려한다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과 가족원들과의 관계 및 여성청소년이 가족 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아래 제시된 인용문은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 가족환경이 여성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중학교 상담교사¹⁰⁾의 설명이다.

(학업중단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가정적으로 그런 게 많고, 특히 여학생인 경우에 (최근에 상담했던) 세 케이스 중에, 대부분 부모님들이 불안정하세요.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아예 어릴 때부터 핏덩이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맡겨진 케이스. 엄마가 재가했는데 이야기를 못하고 여태까지 살고 있다가 그쪽에 끼워 넣고,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더라구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일이 있어서 그만큼 올라온 건데,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런 경험을 하기 이전에 가정으로부터 불안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학생들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하기 이전에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꿈도 없고 불투명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중학교 전문상담교사)

1) 일상화된 가정폭력, 밖으로의 탈출

가족에 의해 일상적으로 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청소년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며, 가출은 이들의 학교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여성청소년들도 부모나 당시 동거중이었던 친척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수위의 폭력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

10) 본 연구프로젝트 수행과정의 일부로 진행한 전문가 집담회 중 중·고등학교 교사들과 가진 2차 집담회에 참여한 전문상담교사로 회의록에서 인용하였다.

났다. ‘개 패듯이’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조르는 것 뿐 아니라 몽둥이, 못 박힌 나무토막, 다리미판, 선풍기, 칼과 같은 흉기가 이용되는 등 생명에 큰 위협을 느끼는 아주 위험한 상황들이었다.

조금만 잘 못하면 집에서 막 때리고, 너무 심하게 때렸어요. 그냥 개 패듯이 막 때리고. (엄마, 아빠) 둘 다……집에 조그만 늦게 들어오면 때리고, 성격이 오기가 있는 성격이라 더 말 안 듣고, 외박하고 그랬어요.(정혜미)

제가 말대꾸를 해서 아빠가 화를 못 참고……선풍기를 막 저한테 집어 던지고, 다리미판이 있었는데 그걸로 등을 엄청 세게 쳐서 등까지 멍들었고……손톱으로 제 목을 이렇게 너무 긁어 놔가지고 목에 흉터까지 생기고, 그날 아빠가 저 목 졸랐어요……말대꾸 조금만 해도 저한테 막 별 욕을 다해요.(김은주)

만날 저를 때렸던 건 기억나요……그냥 뭐 손이나 아니면 아빠 이제 밖에서 술 드시고 들어오면 구두 신고 계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오는데 너는 자고 있냐고 그러면서 문 벌컥 열면서 그냥 막 밟을 때도 있었고……몸도 막 그냥 차고 얼굴도 밟고 막……저는 그냥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맞았죠.(최원경)

중학교 2학년 때 친가 댁에서 저희한테 구타가 되게 심해 가지고……한 번은 너무 심하게 때려서 코피 나고 입술이 다 터질 때까지 때린 거예요……언니도 고등학교 3학년 되고 크다 보니까 동생이 맞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도 나름 힘들었나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짐 싸서 도망 나왔어요.(박현민)

피할 데도 없었어요……이것저것 다 집어 던지고, 아니면 마구잡이로 때리든가, 아니면 정신이 괜찮을 때는 몽둥이나 그런 걸로 앞드려뺀쳐 해서 맞고.(김현정)

아빠가 때려요, 목 조르고 죽인다고. 저는 그 때 칼 던져서 칼자국 나고……하루에 세 시간은 때렸어요. 충전기 달아서 밧줄 같은 것 달아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아빠가 잡아당기고 그랬어요.(허은영)

엄마가 때려요……못 박힌 나무토막 있잖아요, 그걸 갖다 때려요. 피 나요. 2~3번 정도.(박정아)

귀가시간, 전화요금, 말대꾸 등 ‘자신들이 잘못 했기 때문에’ 맞는다고 하지만, ‘잘못’에 비해 폭력의 수위는 지나치게 높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이유 없이 부모들의 스트레스 해소나 음주로 인해 때리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폭력은 ‘아버지가 술마시고 들어오면 주변에 몇 개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표현될 만큼 일상화되고 있었고, 말대꾸를 하거나 반항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맞게 된다는 경험적 깨달음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들은 그냥 아무말없이 맞고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맞고 있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진짜 잘못 했구나’라는 자책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성청소년들의 다수는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이었는데, 공통적으로 별거나 이혼상태인 ‘아내/어머니의 부재’라는 점이 주목된다. 원경이의 경우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일주일쯤 뒤부터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되었으며, 영주의 아버지는 영주가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한다. 이혼한 아버지와 함께 사는 현아는 자신이 ‘채팅해서 남자와 술마시고 관계맺는 딸’이란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면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변혜정(2006)은 이러한 현상이 정보나 자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계급의 가족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기대되는 것이 엄마의 부재를 메꿔주는 ‘성적 대상,’ 또는 ‘구타의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문화자본과 경제적 토대가 약한 계급 내에서 여성청소년들은 ‘자녀’의 의미보다는 아내나 어머니라는 성역할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변혜정, 2006). 이러한 설명은 원경이나 영주, 현아의 가족이 남자형제와 심한 차별을 한다거나 ‘여자는 저녁 6시 이후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아버지가 들어오기 전에 자식은 절대 자고 있으면 안 된다’ 등과 같은 가부장적 신념이 강한 환경이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아빠가 중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때렸어요……놀러 다니니까. 원래 아빠가 엄격하셔서, 여자는 저녁 6시 이후로 밖에 나가면 안돼요. 그 전에 들어와야 해요. …(중략)… 기절한 적은 많아요. 칼을 들고, 때리는 걸로 안 되니까 칼 들고 목까지 위협해요……제가 엄마랑 닮았대요. 그래서 때린 이유가 첫 번째가 그거래요. 두 번째는 내가 여태 잘못했던 것들 그걸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 거래요. 그래서 몇 달 내내 계속 똑같은 이유로, 그냥 계속 맞다보니까 난 똑같은 이유로 몇 달 내내 맞아야 되고, 똑같은 고통을 받아야 하고.(윤영주)

집을 나가서 채팅해서 술 먹고 남자랑 관계를 맺고 그런 애들 많이 봤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 저도 한 명이란 말이에요. 중2때 모든 걸 다 배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빠가 그 사실을 안 거예요. 그 뒤로부터 아빠가 저한테 집착이 심해지고 그 뒤로부터 성폭행을 한 거죠.(유현아)

부모들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온 여성청소년들은 끝까지 버티다 결국 ‘살기 위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출은 곧 바로 학교의 결석으로 이어져 학업결손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이들의 가출은 대개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집을 나오기 때문에 불안정한 주거상황은 학교생활에 장애가 되며, 학교로 부모님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학교를 더더욱 가지 못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한번 시작한 가출은 두 번, 세 번 반복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폭력으로부터의 탈출, 생존을 위한 가출은 학교결석일수의 증가와 그에 따른 심각한 학업결손 및 가출청소년이라는 낙인 등으로 학교생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집에서는 진짜 버틸 수가 없어요. 진짜 집은 지옥이에요. 바깥이 자유로워요. 아빠가 없으니까 더 나은 것 같아요.(허은영)

(고등학교) 1학년 때 머리 아파서 집을 나가게 됐어요. 나간 지 며칠 안 돼서 집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게 그 때부터, 한 번이 어려운거지 두 번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때부터 집이 너무 싫으니까 막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학교도 안 갔는데.(최원경)

제가 집을 나갔다가 머리를 두 번 잘렸거든요. 그냥 단발로 자르고 이런 거라면 괜찮은데, 남자머리처럼 완전 반삭으로 이렇게 자르니까. 집에 들어가면 혼나고 또 난 통금시간 제한을 받을 거고, 그러면 내가 숨 쉴 그런 시간이 없을 텐데. 그럴 바에는 그냥 집 나가서 자유롭게. 좀 힘들더라고 그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박다영)

2) ‘어린 엄마로’ 생활하기

안정적인 양육환경은 아동·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혼율이 높아지면서 재혼율과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조손가정, 비혈연가족 등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 하에서 가족의 구조적 형태만을 토대로 이것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고 청소년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단정적 전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하지만 가족이 해체되고 재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족의 기능이 급격히 약화되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청소년들 또한 성인양육자가 계속 바뀌거나 자신들을 거부하는 상황, 또는 아예 없어지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았다.

원래 엄마, 아빠, 동생이랑 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이혼하시고……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서 아버지가 동생을 보육시설에 맡겼었어요……아버지가 좀 방황을 하셔서 집에도 잘 없으시고 거의 할머니가 저희를 잠깐 동안……제가 동생을 거기 시설에서 데리고 와서 제가 동생이랑 엄마랑 이렇게 해 가지고……아버지는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다가 새 엄마가.(이원심)

아빠, 오빠랑 살아요. 엄마는 같이 안 살아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이혼했어요). 제가 4학년 때 헤어져서 5학년 때 붙었다가 다시 헤어지고 다시 6학년 때 붙었어요. 2~3번 붙었는데, 그거를 다 싸우고 끝냈어요.(허은영)

제가 첫째고 제 밑으로 동생 네 명 있어요……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고, 친아빠랑 중1 때까지 살고, 중1때 컴퓨터 들어와서……친동생은 바로, 셋째는 그냥 새아빠 아들이고, 넷째랑 다섯째는 엄마랑 새 아빠 사이에 아들이든가……(유성아)

엄마랑 동생 있어요……엄마, 아빠는 별거 중이에요. 아빠가 일은 하는데 돈을 못 받아 오는 거예요. 엄마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던 거죠……저는 두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유정은)

엄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방법을 찾다가 할머니네 집으로 가기로 했는데, 할머니 집에서도 아빠랑 연락 안 된다고 못 받아주겠다고 해서, 계속 서울 왔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김현희)

특히 가족의 구조가 재편성되는 과정에서 딸인 여성청소년은 가족으로부터 또 다른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가족의 부양책임자인 부모 또는 성인 보호자가 일을 하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청소년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돌봄과 가사를 담당하는 ‘어린 엄마’, ‘어린 엄마’로서의 역할을 어머니로부터 이어받게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폭력가정의 상황과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자원이 없는 가족구조 속에서 아버지/어머니에게 여성청소년인 ‘딸’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 가사 일을 전담하거나 분담해야 하는 ‘작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변혜정, 2006).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가 십대 중후반의 딸에게 생활비 벌기에 일정정도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거의 없는 여성청소년의 경우는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번다.

아빠는 일 나가서 새벽 2~3시에 오니까……그냥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당연한 것 같고……동생이 있으니까 서럽기보다는 내가 동생한테 해줘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동생은 혼자 못 할 나이였으니까.(윤영주)

아빠가 새벽 5시에 일하러 가야 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아빠 밥 해주고, 도시락도 챙겨주고 그리고 보내고. 방청소 하다가 오빠 일어나면 오빠 밥 챙겨주고, 학교 가라고 해주고……저는 계속 청소하다가 설거지 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세탁기 돌리고……집안 일 하면 5시예요. 제가 3시간 반 놀다가 집에 가야 되요. 늦었다고 또 맞아요.(허은영)

학교 다닐 때도 엄마가 주말 알바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주말 알바 하기는 좀 힘들고 그런 것 때문에 싫었고……가족이 많다보니까 아빠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네 용돈은 네가 벌어서 써라 이런 식.(유성아)

동사무소에서 언니랑 저랑 사는데, 엄마가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 언니가 그거 가지고 있고, 그걸로 생활하고 있어요……어려운데 언니랑 제가 알바해요.(윤민재)

어려서부터 전통적 성역할 가치에 사회화되어 있는 여성청소년들은 ‘작은 엄마’로서의 역할요구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하지만, 이중삼중의 역할수행은 시간이 갈수록 여성청소년들에게 고된 현실이 되며, 학업에의 몰입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 경제적, 문화적 자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은 가족 환경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러한 미래가 올 것이라는 기대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부를 잘 하지도 않고, 열심히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계속 다니는 것이 자신들의 미래를 크게 달라지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보이지 않는 미래를 위해 집과 학교를 오가는 현재의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 당장의 폭력 또는 집안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바깥공간이 여성청소년들에게는 훨씬 매력적일 수 밖에 없고, 집과 학교 ‘바깥’을 맴도는 동안 학업중단은 자신들에게 그리 심각하지도, 치명적이지도 않은 결정이 되어버린다.

3) 가족과의 소통부재

인간발달이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개별화되고자 독립성과 자율성 획득을 위해 많은 시도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길리

건은 이러한 분리론적 시각이 남성의 발달과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관계 중심의 여성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오히려 여성청소년의 특성은 관계성에 대한 의존이며, 관계 속에 머무르는 것이 오히려 이들의 심리적 특성이자 심리적인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추병완, 1998). 따라서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서는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는 것이 필요한데, 일차적으로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타자들과의 의미있는 관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가족을 통해 관계성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배워나가기에는 가족의 기능이나 의사소통방식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다.

엄마, 아빠가 저를 받아들인다면, 또 그냥 어떻게 다니든 간에 저를 믿었으면, 그리고 너무 압박하지 않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모든 게 그냥 저한테 다 화살이 오거든요. 뭘 하든 간에, 동생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너 때문이다, 집에서 뭐 없어졌다 그러면 너다,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박다영)

그냥 안 때리고, 외박도 그냥 웃으면서 넘겨주고, 통금시간 없고……제가 고민상담할 때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친구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너무 화난다고, 개가 먼저 잘못했어도 네가 먼저 사과하라고, 당장 사과 안 하면 안 된다고, 내 편이 아니구나.(박정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가족이 자신을 전혀 이해하지도 않을뿐더러 신뢰하지도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부모와의 심리적, 정서적 관계가 불안정한 여성청소년들은 자존감에 손상을 입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우면 여성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 수준이 높아지고, 이것이 자신의 역할수행이나 수행에 대한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전신현(1999)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다영이나 정아의 사례 뿐 아니라 딸이 무슨 말을 하든 모두 ‘핑계’라고 하는 엄마와 ‘도움받는 것만 생각한다’는 아빠 때문에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결론을 내버린 경민이 역시 자신이 가족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엄마가 성격이 무서운 사람이고, 엄마한테 화도 내본 적 없고요. 짜증이나 이런 거는 전혀 밖으로 표현하지 않았고……그냥 내가 말하면 다 핑계인 줄 알아요. 그건 제가 친아빠한테 말하면, 네가 도움 받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만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아예 말 안 하는 게 낫겠구나 생각했어요.(임경민)

이번 연구에 참여한 2명의 동성애 여성청소년들 역시 자신의 성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고, 친구 탓을 하며 교우관계를 정리해 버린 부모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후 어머니와의 관계를 단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래서 개랑 사귀게 됐어요. 그리고 개랑 첫 키스를 한 날 일기장에다가 그것에 대해 적었는데, 엄마가 그 일기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개네 엄마를 불러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헤어지게 됐어요……그래서 엄마랑 반목이 되게 많았고.(조수현)

중3 말에 제 정체성을 고민하다가 중3말에 커뮤니티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엄마랑 크게 싸우고……그 때 엄마가 레즈비언이 약간 무서운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 딸 이상한 데에 끌어들이지 말라 해서 엄청 싸우고.(최승은)

일방적, 부정적 의사소통방식도 여성청소년들의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신뢰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소통과정에서 상처를 받고 반발심으로 인해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가출 등을 실행하였지만, 이는 가족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아빠가 진짜 무뚝뚝했어요……커서도 아빠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아빠가 한 번은 때리고 나서 눈에 띄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윤연아)

다른 사람들은요 남이니까 별로 상처를 안 받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막, 물론 아버지가 진짜 착해요……그런데 아빠가 가끔 술 마시고 하는 말들이……잘 해준다고 하는데 가끔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말하는 거 있죠. 그거에 되게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이원심)

일단 말이 안 통해요. 얘기만 하면 싸워요……엄마가 작년 10월에 유방암 걸려서 항암치료를 했는데, …(중략)… 저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라고 해서 그때는 정말 사이가 안 좋았어요.(이소정)

가족이랑 솔직히 얘기도 별로 안하고, 그냥 좀……솔직히 전 혼자 큰 기분이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누가 감싸준다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기분이 아니라 거의 사실이죠. 거의 혼자 컸

쥬. 누가 옆에서 뭐 도와준다거나 직접적으로 도와준다거나, 말로만 도와주고……아빠는 그냥 가정이라는 틀만 살짝 잡아준, 좋게도 못 잡아주고 그냥 그것만 딱 해주고, 그 안에서는 제가 알아서. 밖에서 뭘 하든, 안에서 뭘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약간 그런 …(중략)… 꿈도 많았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가 주변에서 친구들 말고 가족 이런 사람들 중에서 위로해주는 사람도 없고.(이원심)

나. 학교배경

최근 들어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가족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이 약화됨에 따라 학교는 그 동안 가족이 맡아왔던 교육적 역할과 기능까지 수행해야 하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거의 지원받을 수 없었던 문화적 자본을 학교 교육을 통해 축적해갈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학교가 이들에게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심층면접 과정에서 학교 역시 가족환경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을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알려주었다.

1) 누적된 학업결손

학력과 경쟁이 중심인 사회에서 학교들의 최우선과제는 좋은 성적과 좋은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다. 이러한 학교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성적 중심으로 서열화되고, 그 위치에 따라 학교로부터 받는 대우에 많은 차이가 있음을 몸소 경험하게 된다. 성적이 낮은 청소년일수록 학교는 차별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성적에 따라서 애들을 평가하잖아요. 개들이 공부 아니고 다른 걸 더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싫어요.(차은경)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도 대부분 공부가 재미없고, 하기 싫을뿐더러 성적 역시 낮아 학교로부터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었다. 더 큰 문제는 중·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초등학교까지는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던 수업내용이 그 이후부터는 ‘하나도 모르겠고’, ‘제대로 알려줄 사람조차’ 없는 열악한 학습환경 속에서 해결방안을 찾지 못 한 채 진급과 진학을 해 왔기 때문에 학습문제는 더욱 더 심각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학습부진의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각 개인의 학습능력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겠지만, 무엇보다 앞서 살펴본 이들의 가정환경을 상기시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여성청소년들이 속해 있는 대부분의 가정환경은 이들에게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문화적 자본이나 경제적 토대가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가사/돌봄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출은 여성청소년들의 학업결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어려서부터 가족의 지원으로 다양한 문화적 자본을 축적한 또래들에 비해 가족의 이렇다 할 지원 없이 방임상태로 성장한 여성청소년들은 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공부를 아예 못 했어요. 중학교 때 배우는 모든 것을 아예 몰라서 돌아가면서 발표를 할 때는 영어를 읽지도 못하는 데, 이걸 어떻게 나보고 사람을 앞에서 읽으라는 건지 모르겠고, 수학도 변호대로 나와서 만날 푸는 거거든요, 그거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그냥 피하고만 싶었어요.(김현희)

(공부) 몰랐어요. 하나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와 가지고 친구들이 많아졌으니까 물어보기는 하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기초가 하나도 없으니까……(초등학교까지는) 조금이라도 이해했는데 중학교 올라오니까 아예 다른 거니까, 알려줄 사람도 없고 수업시간에 한다 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저 영어는 진짜 아예 기본 막 유치원 애들이 하는 것도 정말 몰라요.(최원경)

다른 애들은 다 필기할 때 뭐 필기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멍 때리고 있으니까……저는 진짜 기초가 안돼서, 꼭 공부 못하는 애들마저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안 돼가지고……진짜 꼴지만 했었어요.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박현민)

게다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수준과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과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내용 등은 학습부진이 심각한 이들의 학습의욕을 더욱 저하시키고 학교생활에 대한

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선생님이 막 자기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학원에서 배우고 오는 애들한테 맞춰져 있다는 거죠. 진도를 빼야 시험을 보니까 그런 식인 거죠. 처음에 막 설명을 해요. “이런 건, 이런 것 다 너희 알지? 배웠지?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라고 문제 몇 개 내주고 틀리면 맞고 다시 또 단원 넘어가고.(유정은)

(중략) 애들이 다 예습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과목 선생님들도 그것 위주로 해 가지고 설명도 잘 안 해주시고, (그런데도) 다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질문 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차은경)

결국 가정으로부터 제공받아야 할 경제적, 사회문화적 자본의 부재의 영향은 여성청소년에게 ‘낮은 성적’과 그에 따른 차별대우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의 축적은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을 중도에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는 은영이의 이야기에서 학교가 ‘공부 못 하는 학생’에 대한 격려나 학습지원을 제공하기는커녕 얼마나 노골적으로 차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냥 학교는 결석 1~2번씩, 1학년 1학기까지만 해도 200등 안에는 들었거든요. 우리 학교에 209명이 있었는데, 200등 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전교 꼴찌로 됐어요……선생님이 차별해요. 너는 공부 못하니까 가라고 하면서, 집에 가라면서……공부시간에 내용 모르면 넌 자라면서 그래요.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책을 봤어요, 그랬는데 너 거기에 낙서할 거지 그러면서 책을 뺏어 가고요.(허은영)

2) 학교로 이어지는 폭력

개별 학교들은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편들을 마련, 학생들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교칙을 어길 경우 벌점 부과나 징계를 주고, 교내외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하지만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회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나 장면은 ‘빡센 규정들’, ‘선생님의 막말과 매’와 같이 학생들을 폭력으로 억

압하는 분위기를 연상시켰다.

규정이 뽕쌌어요. 남자는 앞머리가 눈썹 밑으로 오면 안 되고, 여자는 무조건 머리가 단발이어야 되고, 치마는 길어야 되고. 이런 게 제일 싫어요.(김은주)

규칙을 한 번 어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화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입술이 터져 니베아 같은 것 빨간색을 발랐는데, 립스틱인 줄 알고, 색깔이 나오니까 그게 화장인 줄 알고 막 때리니까...(중략)... 조금이라도 희면 화장했다고 하면서, 화장했는데 왜 거짓말하느냐고 막 때리고 그래서. 때리는 것 때문에 싫었어요.(윤민재)

때려요, 때리는 게 싫어요. 조금만 잘못 해도.....그리고 차별이 너무 심해요. 매로 발바닥 때려요. 대걸레 갖다가 때리고, 대들면 더 때려요. 싸대기도 때려요. 중학교 때 애들이랑 같이 놀고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선생님 때문에 나가고 싶었어요.(정혜미)

중학교 막 들어갔는데 너무 그 분위기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저를 압박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는 그런 것에 적응을 할 수 없었어요. 복도 지나가다가 줄을 잘 못 가면 파일로 머리를 때린다는가 막 그런 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고.(박민혜)

교사와 교육정책이 너무 싫었던 거죠. 교사랑 트러블도 있었고.....제가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입학한 첫날에 맞았고요.....떠들었다고. 치마를 입었는데 앞드려뻥쳐 시켜서 빗자루로 맞았거든요.(유정은)

최근 1, 2년 동안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팽팽한 찬반양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각종 규제의 수위나 학생 체벌 등에 대한 논의는 교육적 측면에서 뜨거운 쟁점사안이다. 물론 청소년이 사회적 제재나 교칙 등을 통해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나 책임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사회인으로 성장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기가 싫다’고 느낄 정도의 체벌이 일상적으로 가해진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위 사례에서 제시된 것처럼 복도 통행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파일로 맞았다는 민혜의 이야기는 여성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내내 ‘체벌’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뺨이나 발바닥을 때리고, 빗자루, 대걸레, 죽도 등이 등장하는 체벌문화는 앞서 설명한 가정폭력이 학교에서도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한번 학교의 ‘눈 밖에 나가 되면’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은 더욱 고달파진다. 민재의 사례처럼 학교에 ‘찍히게’ 되면 이후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

연히 위반행위를 했을 것으로 ‘지레짐작’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다른 친구에게는 한대 때릴 걸 자신에게는 열대를 때린다’는 한 여성청소년의 말과 같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시선과 태도는 상당히 차별적이게 된다.

여성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을 힘들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체벌만이 아니다. 휴학 후 복학한 학생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넌 안 돼’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언어적 폭력, 학생을 아예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학생의 입장을 전혀 들어주지 않고 교사 생각만 강요하는 정서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학교의 모습은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학교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처음에 다니던 학교에 그대로 복학해서 그동안 절 많이 지켜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넌 못 버틸 거야’, ‘넌 안 돼’, 이런 말을 해서 오기로 버텼던 것 같아요.(임경민)

그냥 애들이랑도 별로 친해질 시간 없었는데, 가도 선생님이 없는 취급하고 하니까 짜증나서 내가 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나오다가……날 없는 취급하고 나만 계속, 애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런 식으로.(강은이)

어차피 얘기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학교 뭐 하러 다니냐고 해서 그냥 무작정 가출을 했던 것 같아요.(김현정)

학생이 문제를 일으키고, 더구나 문제상황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원칙적으로 교사들은 해당학생의 문제해결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직접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학교 내 상담관련부서로의 의뢰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많은 청소년들은 학교 내 교사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거의 없었다. 전문상담교사로부터 심리적 지지를 많이 받았다고 한 참여자도 있었으나 담임이나 다른 교과목 교사들에게는 여전히 문제학생으로 낙인찍혀 있는 상황에서 전문상담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의 실질적 개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이 처한 위기상황을 용기내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문제아로 찍혀 있는’ 학생의 말을 거짓말로 치부해 버리는 교사나 숨기고 싶은 학생

의 가정사를 공공연하게 내뱉는 교사로부터 받는 여성청소년의 상처는 학교를 다니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의미를 부여하지 못 하게 만든다.

아빠가 폭력이 심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안 나가는 날도 많았고, 무단결석이 진짜 많아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 할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측은 그런 거죠. 네가 어떤 잘못이 있었겠지……네가 거짓말을 하는 거겠지, 거짓말 하지 마……왜 말 지어내느냐 그러면서. 그거에 너무 화가 나서 선생님한테 욕을 했었는데……선생님이 머리를 잡고 학교 벽이 시멘트잖아요, 거기에 머리를 박았거든요. 학교는 다 그런 거니까, 선생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아빠한테 연락을 안 할 테니까 학교에 나와라, 졸업해야 되지 않겠냐’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선생님이 아니라 아빠가 있었어요.(윤영주)

선생님이 막말이 심해서……엄마가 너 버리고 살 수 있는데 너네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라고……그래서 욕을 했는데, 엄마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저 잘되기를 바라서 그랬다는데, 그래도 엄마에 대해 그런 말이 싫었어요. 엄마 얘기를 꺼내는 게……엄마, 아빠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그리고 할 거면 애들 없는 데서 하든가. 그걸 애들 있는 데서 말해서 그래서 학교에 소문나고 그랬어요. 그것도 저 없을 때 그런 말을 꺼내서……저희 아빠 없다고, 그런 걸 마음대로 얘기하고 다니니까.(김현정)

영주는 아버지의 폭력이 시작된 지 2년이 훨씬 지난 후에 처음으로 학교에 알릴만큼 자신의 가정폭력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을 꺼려했다. 하지만 중학교만큼은 졸업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결석일수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제적이나 유예상태를 피하기 위해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해 말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대뜸 돌아온 담임교사의 반응은 절망스럽게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결석을 하더라도 폭력적인 아버지를 피하는 것이 급선무인 영주에게 거짓말을 해 아버지를 만나도록 한 교사의 조치는 가정과 학교 모두 자신에게 안전하지 않은 공간이고, 그녀로 하여금 이 곳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겠다는 판단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영주에게 학교는 굳이 애써서 다닐 필요가 없는 공간이 되어버렸고, 고등학교 입학 후 곧 얼마 지나지 않아 학업을 중단하였다.

3) 은근하면서도 단호한 학교의 자퇴 권고

가출이나 결석에 따른 출석일수 부족, 교칙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유급이나 제적 등의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여성청소년들은 겉으로는 ‘스스로 그만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학교로부터 은근하면서도 단호하게 ‘그만 둘 것’을 종용받고 있었다. 즉 ‘문제학생’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고 면학분위기 조성에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문제학생이 없는 것이 학교입장에서 훨씬 낫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해당학생에게 제적당하는 것보다 ‘자퇴형식이 낫다’라거나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권유하기도 하고, 학교행사 등에 참여를 하지 못 하도록 말리는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심지어 허용된 결석일수를 넘어서서 이미 유급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학생에게 어떠한 통보나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학생들이 위기상태에 있더라도 끝까지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지해 주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직접 나서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서 말 하는 게, 그래도 잘린 것 보다는 자퇴서를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래서 가서 자퇴서를 썼어요.(윤연아)

담임선생님도 그렇게 이렇게 학교를 다닐 바에는 안 다니거나 더 잘 맞는 학교를 찾아서 전학을 가는 게 어떻겠냐고 저희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중학교 때도 엄마, 아빠가 차라리 자퇴하라고.(우소희)

학교에서 3번인가, 통지서 같은 게 3번인가 날아왔어요. 한 번 수련회에 가려고 했었는데 가지 말래요. 가려고 돈 내려고 하나까 가지 말래요. 더 열 받아서 아예 하지도 않고 그랬어요.(한진영)

그냥 자연스럽게 학교를 안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름방학 되기 전에 이미 유급 일자가 있어요. 빠지면 안 되는 기간이 있는데, 기간이 넘어선 거예요.(정지수)

이러한 학교의 처사는 임신한 경우 더욱 단호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1학년 말에 임신한 것을 알고 학교교사와 이 문제를 상의한 혜진이 엄마는 학교를 계속 다니려면 낙태를 해야 한다는 교사의 말에 혜진이와 함께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

(Q. 그러면 시집에 들어가던 시점에는 학교를 그만둔 건가?) 들어가기 전에. (Q. 임신사실을 학교에 어머니가 가서 알렸어?) 저희 엄마가 같이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 애 지우고 와라 그래서, 그러면 그만 둔다 하고.(유혜진)

다. 또래집단 배경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집단은 청소년의 생각이나 행동의 준거틀이 된다. 친구가 자신의 이상적 기준이 되기도 하고, 또래집단에 수용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인해 집단의 행동양식을 추구하거나 친구들과의 이질적 특성에 의해 갈등과 수용을 반복해서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또래집단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도 하고 또래집단 내에서 하위집단을 형성하기도 하는 등 나름의 위계질서를 만들어나간다(김성이 외, 2004).

또래집단의 이러한 영향력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고민은 ‘친구들하고만’ 얘기하고, 그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며, 친구들이 있어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다’는 이야기들은 여성청소년들의 삶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재미’를 위해 친구들과 일탈행위를 하고, 군대의 위계질서 유지방식을 연상시키는 집단문화나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었다는 여성청소년들의 사례 속에서 또래집단과 또래문화도 학업중단에 상당부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과 학교에서 위기 상황인 이들에게 또래관계의 중요성은 커질 수 밖에 없고, 영향력 또한 강해질 것이다. 교사집담회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의 말에서 이들의 관계성이 잘 드러난다.

의지할 게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 상처 이미 다 받은 아이들이고, 믿을 건 친구밖에 없어요. 애랑 놀려면 염색해야 되고, 놀아야 되고, 빵 사와 그래도 빵 사다주고, 이 애들이 나가버리면 뭘 데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이게 관계 뭇음이라기 보다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정보고등학교 사회과 및 상담담당교사)

1) 놀이로 일탈행위하는 친구들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중단과정을 6단계로 설명한 서우석(2007)은 3단계에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불만(1단계)을 표면화(2단계)시키면서 가정/학교 밖의 또래 혹은 성인들과의 유대관계를 경험하고 또래의 가치관을 내면화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 어울려 일탈 및 비행행동을 하게 되면서 재미와 의미를 경험하고 그에 대한 가치화를 하게 된다. 성윤숙(2005)도 부정적인 또래집단을 학교 부적응을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족이나 학교와 유대관계가 부족한 청소년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들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되고, 이러한 친구들과 함께 가출을 하거나 비행, 범죄를 저질러 학업중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 역시 재학 당시 또래집단과의 놀이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술, 담배, 노래방, 피씨방, 가출 등이었다.

클럽에 가서 놀고, 술집도 가고……민증을 따로 했어요. 파는 게 있어요. 돈 주고.(김형란)

아프다고 핑계, 아프다고 거짓말을 치고 학교를 안 나갔었는데, 그게 버릇이 된 거예요……그냥 PC방 가고 노래방 가거나 담배 피고……친구도 만나고요, 아는 오빠들 만날 때도 있고……친구네 집에 갔는데 그 친구네 형이 있는데 형들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개 친구가 오라니까 우리도 그 집에 가고.(강은이)

여자애들이랑 어울리면서 노래방, 쇼핑 그런 데에 자주 가고……쇼핑하러 인천이나 그런 데에 멀리 가요. 거기 있고 싶지 않아서……그냥 집 근처가 너무 싫었어요, 나를 가둬두는 느낌……친구 집에 있다가 돈 모으고 고시원 잡고, 고시원 잡다가 또 돈 모으면 원룸 잡고, 친구네 집에 너무 있을 수는 없으니까 찜질방에 가서 자고, PC방에서 밤새고 그런 식.(윤영주)

학생/청소년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적이지만,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노는 일은 다음날 학교에 지각하거나 결석하게 되는 등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유흥에 필요한 경비마련을 위해 뺑뺑이나 절도행위를 하며, 이러한 비행행위들이 또래들

과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일종의 놀이로 변질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서우석(2007)이 학업중단과정 3단계에서 설명한 일탈 및 비행행동의 가치화가 이루어지는 지점이다.

선배들의 돈을 모으라는 지시에 친구들한테 좀 빙땅을 뜯었어요……(중략) 초등학교 때부터 놀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 그냥 친구네 집 아니면 학교에 있는다거나, 홍대랑 이대는 자주 갔고, 노래방도 자주 갔고, 아니면 학교 부근에 놀 데 찾아서 놀고……(김윤정)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면서 저보다 한 살 많은 언니들과 친하게 지내서 제가 그 때부터 빠진 거예요……그 때 애들 돈 뺏고 학교 오고 그래서……초등학교 때는 빙 뜯고, 중학교 들어와서는 1학년 초반에는 학교 애들이랑 담배 피우고 애들 때리고 만날 경찰서에 불러 다니고 그래서……(한진영)

절도는 여러 번은 아니었고, …(중략)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어렸을 때라 솔직히 돈이 별로 없잖아요. 중학교 때는 일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용돈도 안 받았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나쁘게는 빙 뜯고 그런 것도 있었고, 훔치는 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그때는 재미로 그랬던 것 같아요.(윤연아)

그런데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친밀감과 소속감을 갖고 어울렸던 또래 집단 대부분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즉 이미 학업을 중단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친구들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동질성이 강한 이들 사이에 이미 학업을 중단한 친구들의 존재는 재학 중인 다른 친구들에게 ‘학업중단’이 결코 낯설고 새로운 경험이 아님을 인식시켜 주고 있으며, 오히려 ‘구속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됨으로써 학업중단에 대한 결정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해 본 경험도, 경험을 할 수 있는 자본도 없는 ‘계층적 동질성’ 또한 이들의 ‘패거리 문화’ 생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짜증나고, 학교에서 문제 생기면 엄마 만날 부르고. 그게 싫어서. 제가 중학교 때 애들 돈 뺏거나 애들한테 뭐 시키고 그래 가지고, 엄마가 학교에 만날 자주 와서……솔직히 (친구들) 학교 안 다니는 게 멋져 보였어요.(한진영)

2) 고독한 경험, 왕따

‘왕따’라고 표현되는 집단 따돌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청소년문제가 되었다. 집단따돌림은 지속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는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근본적 차단이 불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상화되어 있어 현장을 포착하기가 쉽지 않으며, 소수에 대한 다수의 행위라는 점에서 잘못을 피해자측에 전가하게 될 가능성이 커서 예방이나 지도가 쉽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박진규, 2000). 또한 집단따돌림을 당한 청소년은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고 장기화될 경우 대인기피, 우울증과 같은 정서장애를 겪거나 극단적으로는 자살시도까지 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는다. 특히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은 여성청소년이 남성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준, 2002). 본 연구참여자들 중 6명 정도가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학교생활 중 집단따돌림의 경험을 가진 여성청소년들도 일부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이 따돌림 당한 이유를 잘 알지 못 했으며, 그나마 설명된 이유로는 전학생이라서, ‘똥똥하고 공부를 못 해서’, ‘부모가 이혼해서’ 등이었다.

그냥 새로운 애가 들어오면 안 좋게 봐요. 그냥 무조건 건드려 봐요, 선배들 불려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되게 잘 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부러 잘 해준 거였어요, 찔러보려고.
(차은경)

너무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을 걸요……초등학교 때는 제가 거의 왕따 수준, 중학교 때는 그냥 반에 친구 1~2명 있는 정도.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유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그 때는 엄마, 아빠 이혼했다고 그러면 재네 엄마, 아빠 이혼했대, 놀지마. 이런 정도였거든요.(최원경)

애들이랑 잘 못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싫고, 그 전에 원래 되게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전학을 갔어요. 개도 없는데 계속 시비를 걸던 애랑 같은 반이 되니까 앞이 진짜 캄캄해서 다닐 자신도 없고……그 아이가 전학 가기 전에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다 같이 있어서 그래도 참을 만 했는데, 그 아이가 전학가고 나서 친구가 없어진 거예요.(김현희)

또한 학급 전체의 왕따는 아니지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사소한 이유로 하루아침에 소원한 관계가 되어버리고, 그 친구로 인해 다른 친구들과의 관

계마저 단절된 경험도 여성청소년들이 학교에서 겪는 중요한 위기경험이었다. 남성에 비해 초기발달단계에서부터 관계적 특성에 중점을 두는(김성외, 2004) 여성청소년에게 친한 친구와의 갑작스런 절교는 상당한 충격을 주고 학교생활을 의미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어쩌다가 친하게 된 여자애가 있는데, 개는 저랑 반대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인기가 많은 애였거든요. 그 여자애랑 한 번 싸우고 나서 사과를 제대로 안하고 그래서……개랑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다른 애들이 막 멀리하는, 소외시키는 것……애들이 막 끼리끼리 뭉쳐 다녀요……그럼 저랑 싸운 애가 있잖아요, 그럼 저랑 싸운 애가 친구가 많으니까 친구들한테 ‘나 OO이랑 싸웠으니까, OO 안 좋은 애다’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저랑 한 번 싸우면 그 친구는 저랑 안 놀고, 다른 애들한테 저랑 놀지 말라고 해서…….(김은주)

사이가 안 좋았던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 여자애 때문에 소문이 안 좋게 돌아가지고 그랬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그 애가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소문이 안 좋게 돌아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안 나갔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우겨우 어떻게 올라갔는데, 또 같은 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학을 갔어요. 그런데 동네가 가깝다보니까 소문이 오죠. 또 학교 여기로 퍼진 거예요. 적응을 못 하겠어서 중학교 3학년 딱 올라갔는데 그만 났어요.(정지수)

중2때 조금 우울증이 와 가지고……중2때 같이 다니던 친하다고 생각했던 여자 애가 저한테 와서 ‘너 우울하니까 너랑 같이 다니기 싫어’ 이런 말을 했어요.(유정은)

심지어 친한 친구집단 내에서 한명씩 돌아가면서 이루어지는 따돌림의 경우 ‘재미’ 때문에 그 방법이나 수준이 점점 더 심각해진다고 설명한 고등학교 교사는 왕따가 일부 여성청소년집단에게는 ‘놀이’로 인식되고 있음을 우려했다.

너무 특이한 건 애들이 열 명에서 놀잖아요. 열 명 안에서 애 한 번 시키고, 애 한 번 또 시키고,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놀이처럼. 이번에 너 왕따! 이러면서 처음에는 놀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재하는 사람 없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재밌으면 더 심하게 하고.(◇◇ 여자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집단따돌림을 통해 여성청소년들의 공격성을 연구한 레이첼 시몬스는 ‘Odd Girls Out: The Hidden Culture of Aggression’에서 소년들보다 소녀들이 인간관계를 무기로 하는 공격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소년

들은 육체적 공격을 하는 반면 소녀들은 관계적 공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계적 공격이란 ‘다른 이들의 관계나 소속감, 우정 등의 감정에 상처를 주거나 상황에 따라 협박을 하는 것’이다. 따돌림은 관계적 공격들의 다양한 형태 중에서 가장 발달된 형태이며, 그 생명력은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가장 친밀한 인간관계 내에서 일어나고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상처도 깊다(Simmons, Rachel, 2002). 시몬스의 이러한 설명은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여성청소년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결국 관계의 친밀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여성청소년에게 있어서 집단따돌림과 같은 또래와의 관계단절은 학교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현희는 학업중단 결정 이전에 ‘쪽팔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였다. 청소년기에 집단따돌림을 경험한 성인여성들의 사례를 분석한 윤운영(2004)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교에 도움을 요청하여 교사가 집단따돌림에 개입했던 경우 모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나타났다. 윤운영은 이를 따돌림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들과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접촉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교사집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에 의해서도 확인되었다.

정말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더 심해요.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는 어느 정도는 선생님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왕따가 되는데, 여자 아이들끼리 싸우고 왕따가 되면 선생님이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떨어져나가는 애들도 몇 명 있구요.(◎◎정보고등학교 사회과 및 상담담당교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집단에서 따를 당하면 집단의 관계를 재구성해주는 게 쉽지 않구요.(△△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3) 군대문화가 일상화된 여성청소년집단

(선배가) 부실에서 때리는 거죠……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대가리 박아 시키거나, 만약에 OO가 잘못을 했으면 OO 빼고 다 대가리박아. 애, 미안해하라고, 빨리 불으라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다 단체로.(남보라)

선배가 지나가면 한 살 차이인데 후배가 두 손을 배꼽에 붙이고 90도로 허리 숙이면서 “안녕 하십니까, 선배님”이라고 인사를 안 하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중략)...구두를 신고 온다거나 힐을 신고 오면 선배들이 계속 압박을 주고, 친구를 통해서도 압박을 주고.(조수현)

인사도 “안녕하세요, 일학년 보컬전공 000입니다, 선배님” 이렇게 해야 되요.....저희는 선배, 개네가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막 ‘계단 앞에서 구르기’하면 그럼 해야 돼요. (우소희)

대들면 단체기합이에요. 언니들 다 몰려와가지고, 명태말리기라고요, 칠판에 엎드려뺨쳐하고 다리를 올려놓고, 그게 진짜 막 미치거든요. 별주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의자랑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이 혼났어요.(박다영)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준비하는 그 시간 때.....OO중학교 언니들이랑 다 같이 아는 사이라서...(중략)...인사를 제대로 안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맞았어요...(중략)...언니들이 심심했나봐요. 언니들이 나머지 한 명씩 맡아서 때리고, 제가 렌즈 꺾었다고 때리고.....저는 돌림빵 맞고.....화가 나기보다는 무서웠죠.(이소정)

아예 처음부터 (선배들) 눈에 들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미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리고 최대한 무시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학교 매일 생활에도 굉장히 불편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학교가 좁으니까 마주치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서도 가끔은 하면서도 안하고 그러고 했죠.(김윤정)

만약 위 인터뷰 인용문들에서 젠더, 연령, 학교를 의미하는 단어들을 삭제하고 다시 제시한다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공간을 어디라고 추측할 수 있을까?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군대 내 총기사고나 군인들의 잇따른 자살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에서 소개된 군대문화와 아주 유사하지 않은가? 군대문화의 특성인 상명하복의 명령체계, 권위에 대한 복종, 폭력성 등이 그대로 드러나는 위 내용들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이야기한 학교 내외 또래집단 내에서의 경험담이다.

이러한 문화는 상급생과 하급생간의 전반적인 관계부터 공식적, 비공식적 하위집단에 이르기까지 학교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예체능계와 같이 특성화된 학교나 학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소위 ‘일진’과 같은 교내외의 문제적 집단에서는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각 집단의 선배들은 집단 내 위계질서 유지를 위해 다양한 이유들을 대면서 후배들을 압박하여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며, 조금이라도 집단 내 질서에 어긋나

는 행동을 하면 단체기합, 폭력, 왕따 등의 방식으로 위계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내 서열문화는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해야 되고, 선배가 시키는 심부름 다 해야 되고, 선배 앞에서는 다리도 꼬면 안 되고, 귓속말 안 되고, 침 뱉어도 안 되고, 욕도 안 되고, 그냥 선배가 옆에 있는데 친구랑 얘기하다가 욕이 나왔다 이것도 안 되고, 그냥 맘에 안 든다 이러면 단체 기합……그게 계속 너무 심하다보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런 마음에 그냥 자퇴를 한 것 같아요. (박다영)

이처럼 여성청소년들 사이에 상명하복의 폭력적 문화가 만연한 것은 이들이 부모와 학교 교사로부터의 폭력을 통해 나이가 많거나 힘 있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권력을 몸소 체험하며 학습한 결과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어려서부터 가정과 학교 등을 통해 명령에 복종하는 위계적인 의사소통 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을 배우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에게 폭력은 남성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3.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세계 및 생애인식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함에 있어서 학업중단이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충분히 전망하지도, 향후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다. ‘일단 (학교 다니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고’, ‘답답해서’, ‘급한’ 마음으로 학업중단을 결정한 이들에게 결정 당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막연히 이 학교를 다니기 싫다, 이 학교는 자퇴해야 한다 해서 그냥 나온 거예요……계획은 제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조차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스스로를 포기한 거죠, 나는 성공할 길이 없고, 나는 사는 게 무의미하다,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죠.(이원삼)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일단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어요.(김현희)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이 답답한 곳을 벗어나야 겠다.(정지수)

기대감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무작정 관두고 싶었어요……집에서 사는 것보다 밖에서 나가서 살게 되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르바이트도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집에서 받는 용돈보다도 아르바이트 해서 버는 돈으로 열심히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임경민)

이처럼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는 학업중단 이후의 삶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고, 학업중단이 이들의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은 향후 학업중단 예방이나 학업중단자에 대한 지원책 개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특히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겪는 고유의 경험과 그러한 경험을 발생시키는 사회적 구조 및 문화에 대한 분석은 여성청소년들에게 보다 실효성있고 특화된 지원방안 개발을 가능케 하는 과정이다.

가. 학업중단 이후의 생활방식

1)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일상생활

대부분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공식적인 학업중단 직후 느낀 자유로움을 비교적 즐거웠던 경험으로 회상한다. 이 해방감은 ‘당분간’ 하고 싶은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생활하겠다는 ‘무계획적인 일상’을 계획하게 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일상을 함께 하면서 가출과 일탈을 반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자유로움 속에는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불투명해진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

가) ‘계획없이 놀기’의 반복

여성청소년이 학업중단 직후 자신의 현 상황을 가장 일차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 가기 위해 이른 아침 애써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짜여진 시간표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루 일정을 조정

할 수 있고, 학교에서 금지해 놓은 것들을 마음놓고 할 수 있다. 이해되지도 않는 학교 공부도, 시험도 억지로 할 필요가 없다. ‘학교/학생’에서 벗어남으로써 달라진 당장의 생활의 변화는 여성청소년으로 하여금 학업중단이라는 선택에 대해 만족하고, 이후의 삶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도 한다.

그 틀에서 안 살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해도 되고.(유성아)

놀이 가자지, 이제 학교 안 다니네, 편안하겠단.....잠을 더 편안하게 잘 수 있고, 학교 가서 스트레스나 공부 이런 짜증 같은 것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은 좋았던 것 같아요.(박현민)

이제 소속 안 되어 있고 늦게까지 안 남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장도 하고 머리 풀어도 되고 이러니까 그냥 마냥 좋았어요.(박다영)

아무래도 제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 전에는 여기저기에서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 엄마도 학교 가라고 아침마다 전화 오고, 출근하는 길에 전화 하고, 학교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전화 오고, 친구들도 가자고 전화 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전화들이 안 오니까 아무래도 간섭받는 느낌도 없어진 것 같고, 그래서 좀 편하기는 해요.(윤연아)

일단 학교를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내가 그것만 안 해도 좋았던 것 같아요.....다양한 생활과 경험과 그런 걸 할 수 있다는.(장민주)

또한 학교 내 또래집단과의 관계맺기에서 심한 갈등과 부적응을 경험한 여성청소년들은 친구들이 있는 학교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학업중단 상황에 대해 안정감을 느끼고 만족하였다.

일단 개네들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 너무 좋아가지고.....그 애들을 다시 안 봐도 된다는 것이 되게 좋았어요.(김현희)

저한테는 학교도 안 맞고, 그냥 집에서.....그 무엇보다 저는 동생이랑 언니랑 엄마도 000(괴롭히는 애)한테 그렇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 되어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김현정)

물론 학업중단 직후 그동안 억눌렀던 자율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학교 때문에 하지 못 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은 욕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과정이 보다 생산적이고 향후 미

래에 긍정적이라면 오히려 학업중단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직후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의 힘든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는 민혜의 경우처럼 말이다.

한 4~5개월 정도 혼자 지내다가 왔어요……그때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중국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족들이랑 동생들이랑 해서 갔다 왔고, 그동안 뭔가 그 때 안에 들어 있던 것들이 빠지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해요.(박민혜)

문제는 학업중단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문화적 자본이 결핍된 계층의 여성청소년에게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여성청소년 스스로도 그러한 한계를 잘 알고 있기에 이들에게 학생신분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 지금 당장 해 보고 싶은 것들은 ‘미친 듯이 노는 것’ 말고는 없다. 그리고 문화적, 경제적 자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의 부재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다른 생산적 경험들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꽤 오랫동안 ‘별다른 계획 없이 미친 듯이 노는’ 생활을 지속하도록 만든다. 학업중단 이후 이들의 하루일과는 대체적으로 유사하다. 오전까지 늦잠을 잔 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놀고, 또래남성들과 어울리거나 늦은 밤까지 카페나 술집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또다시 다음날 늦잠을 자고……。 이렇게 반복되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일상은 아무런 지지자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사전준비나 계획 없이 결정되어진 학업중단의 결과물이다.

시간이 일단 많다보니까 놀 시간도 많고, 일단 ‘해야겠다,’ 이 생각보다는 심심하고 남들 학교 갈 때 아무 것도 안 하니까. 그렇다고 계획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집에 돈이 있어서 뭐 다닐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시간 때엔 만날 PC방 가거나 학교 안 다니는 친구가 한 명 더 있어요. 개네 집에 가거나 그냥 애들 학교 끝날 때까지 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고 학교 끝나면 같이 놀거나.(박현민)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와서 같이 있다가 나가서 노래방 가거나 PC방 가거나. 동네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다른 동네에 가출해서 살 때는 애들이 와서 나가서 놀자고 하면 일어나서 씻고 화

장하고 옷 갈아입고 나가서 일단 애들 다 모일 때까지 놀이터 같은 데서 앉아서 얘기하다가, 다 모이면 노래방 갔다가 그러면서 그냥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다가, 계속 시간 개기다 저 녀름 되면 이제 술 먹고 그냥 그러고 놀았어요.(최원경)

그 때는 하루가 다 똑같아서……그냥 다 논 것 밖에 없어서. 그냥 아는 오빠들을 만나서 놀거나, OO를 만나서 놀거나, 어디 막 돌아다니고……(봉우리)

남자들이랑 (놀아요)……길거리 가다가 그냥 놀자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돈 내요……재미있어요.(윤민재)

아예 집에 틀어박혀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아예 안 들어오거나 며칠 동안. 그게 반복됐어요……친구 집에서 자고 그냥 놀고, 먹고……(중략)……저녁 5시쯤에 일어나요. 그래서 화장하고 밖에 놀러 나가거나 아니면 앉아서 컴퓨터를 해요. 다 하고 시계를 보면 새벽 3~4시. 5시, 어떨 때는 7시 막 이래요. 새벽 5시쯤, 7시쯤에 안대를 끼고 자요……(친구들하고) PC방 가거나, 노래방 가거나, 당구장 가거나, 뭐 술을 먹거나, 그냥 밥을 먹으러 간다든가 디스코광광을 타러 간다든가.(이원삼)

나) 점점 심화되는 가출과 일탈

폭력과 과도한 역할부담으로 일상화된 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는 또래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시도되었던 여성청소년들의 가출이나 일탈행위들은 학교를 그만둔 이후에도 지속된다. 특히 가정폭력이 심한 여성청소년들의 가출은 학업 중단과 함께 본격적으로 장기화되고, 거리생활에서의 생존을 위해 앵벌이, 뽕뜯기, 아리랑치기, 절도와 같은 일탈과 범죄행위를 저지르거나 사이버채팅 또는 헌팅을 통해 남성물주들을 만나 놀면서 유흥비나 숙식을 해결하기도 한다.

그냥 무작정 가출을 했던 것 같아요……먹는 거는 애들 돈 뜯어서 하거나 아니면 애들이 사주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가출을 했어도 애들은 만났는데, 가출 안 한 애들이 사줬어요……(돈은) 안 주기도 하는데, 안 주면 때리거나 그랬어요……학교 가는 애들 잡아서 돈 뺏고 아침을 사먹은 다음에 다시 그 빌라로 가서 좀 자다가 애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다시 일어나서 그 다음에 놀러 갔던 것 같아요. 노래방이나 남문 같은 데.(김현정)

공동상해……제 친구를 때렸어요……지금 공동상해 재판 보는 중인데요. 어떤 아저씨들한테 제가 따 먹혔다고, 강간당했다고 (말해서). 그래서 때렸어요……그냥 아는 오빠들이랑 특수절도, 갈취는 휴대폰 (머니, 지갑).(허은영)

빵 뜯는 거, 아리랑 치는 것……제가 했던 건 그거예요. 술 취한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그 아저씨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친구가 뒤에서 빼고 제가 빼든가 개가 빼서 아저씨가 안 놔 주면 뒤에서 각목 같은 걸로 아저씨를 치는 거예요.(윤영주)

친구들이 자기들 친구들한테 얻든가 아니면 앵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집에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몇 천원만 빌려달라고 그래요. 몇 천 원씩 주기는 하는데 많이 주면 몇 만원씩 줘요.(박정아)

앵벌이.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하고 2천원씩 받아요. 그러면 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요, 5천원 주는 사람도 있고, 100원, 500원. 그걸 모아서 배고프면 라면, 삼각 김밥을 사 먹든가 해요.(허은영)

아는 오빠들이 물주었어요……사귀지는 않았는데 돈 좀 많은 오빠들 있잖아요. 그런 오빠들은 솔직히 자는 것 그런 거 바라지도 않거든요. 그냥 같이 놀아주고, 뭐 사고 싶다 이러면 가서 사고, 옷 사고, 비싼 것 먹고, 용돈 주고 저한테……그 오빠들한테도 사실 제가 뜯어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몇 번 그러다가 말고……싸이 파도타기 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글 올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사이에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와 가지고 만난 사람들도 있고.(최원경)

이와는 달리 재학 중에는 가출경험이 없었던 여성청소년이 자유를 최대한 만끽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가출한 경우도 있다. 아무런 제재장치 없는 거리생활을 온몸으로 체득한 다영이는 귀가 후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몸에 배어버린 자유로움을 잊지 못 해 가출을 반복하면서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생활하고 있다. 비록 앞서의 여성청소년들과 가출의 동기가 다르지만 이러한 다영이의 이야기는 가출이 장기화되고 반복적일수록 일탈 및 유해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현재의 즐거움을 유예시킬(민가영, 2007) 수 있는 의지 역시 상실시키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가영(2007)은 다영이처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유예시키기보다 당장의 자유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여성청소년들의 ‘비유예문화’가 ‘신빈곤층’ 가족환경의 여성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학생역할을 포기한 여성청소년들이 가족의 지원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노력해 봐야 별다른 미래를 보장받지 못 할 것이라고 느끼고, 그러한 좌절감이 비유예문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민가영, 2007).

학교 그만두자마자 가출해서, 그냥 이 상황이 너무 좋았어요. 어디 구속받지 않고, 누구한테 연락 안 해도 되고,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놀고 싶은 데에서 놀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그냥 돌아다니면서 여자애랑 있으면서 솔직히 어른들 문화 흉내 낸다고 하잖아요. 좀 힘들다 하면, 술 먹고 싶다 이러면 술 먹으면 되고,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처음에는 검정고시 다닌다고 집에서 좀 잘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또 집 나갔어요……(학원) 일 년을 다 계산해 놓고 한 두 달 정도 밖에 안 나갔어요.(박다영)

다) 불투명해진 미래와 현재에 대한 불안감

여성청소년들은 학업중단으로 인해 ‘자신의 시간이 많아졌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장점들과 ‘신나게’, ‘미친 듯이’ 놀았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다. 중·고등학교를 ‘잘 참고 다녔다면’ 졸업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졸업장과 그 졸업장으로 인해 선택가능한 보다 나은 진로들을 포기함으로써 미래는 불투명해졌으며, 현재 또한 아무 것도 정해져 있지도,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이 앞으로 가능한 사회적 신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토대라는 점에서 공식적, 제도적 학업을 중단한 채 미래를 구상할 어떠한 문화자본이나 물질적 자원이 제공되지 않은 여성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의 문제는 단순한 ‘중단’을 넘어선다(변혜정, 2006). 어려서부터 문화적, 물질적 자원 결핍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학교와 사회에서 경험해온 이들은 학교 졸업장이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는 않으나, 최소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신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이러한 불안은 학업중단시기가 빠를수록 더욱 커진다. 따라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다영이처럼 막연하게나마 학업중단이 ‘노는 것 말고’ 인생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라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여전히 ‘노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었다.

학교를 나오는 불안,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은 늘 있는 거예요……그냥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고민도 많았고…….(박민혜)

솔직히 좋긴 좋았는데, 중학교에서 잘리면……왜냐하면 고등학교면 모르겠는데 중학교라서, ‘조졸’이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했어요.(강은이)

무료하기는 한데 학교 가기 싫고. 뭔가 제 인생에 터닝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활력을 준다거나, 인생에 노는 것 말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박다영)

이처럼 학업중단이라는 사건을 삶의 전환점으로 의미화하고, 현재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디자인해 줄 수 있는 지지자와 자원이 부재한 상황은 ‘학업중단’을 ‘인생의 실패’로 규정하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과 맞닥뜨리면서 여성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인생을 망친’ 실패자로 규정하도록 만든다. 학교를 그만둔 이후 달라진 것도, 나아진 것도 없이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 ‘꿈꿔왔던 미래조차 사라져버렸음’을 깨닫게 되면서 학업중단이라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고 조금만 더 참고 다녔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된다. 현재 반복적인 가출로 인해 집으로부터 단절된 정아에게는 자신이 학교를 다니지도 않고 집에서 귀하게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체념한 상태였다.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나서 컴퓨터하고 밥 먹고 다시 자고. 이런 생활의 연속이니까. 막 인생을 망친 기분이 드는 거예요.(김현희)

학교 그만 두고 3개월 뒤. 저 위에 있는 오빠들이나 언니들이 고등학교 안 가면 눈에서 진짜 피눈물 난다고, 진짜 힘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괜찮다고 했는데 3개월 되니까 막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내가 지금 이라고 있지 않았을 텐데.(정혜미)

솔직히 말해서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학교 안 다닌 것도 후회가 되고, 애들 때린 것도 후회가 되고, 그냥 무조건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뭘 해야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졸업장도 없고. 저는 놀러 다니느라 바빠서 제가 생각해도 한심한 거예요……되게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것 아니까 꿈이라도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한진영)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것 볼 때마다 나도 교복 입고 학교 다닐 줄 아는데, 그런 생각. 출석만 해도 고졸은 됐을 것 아녜요……그래야지 나중에 자식 낳아도 엄마 고졸이라도 했다. 엄마가 공부 못했어도 출석은 잘했어……자식한테 부끄러움 없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 여태까지 살아온 거 보면 솔직히 내가 봐도 부끄럽거든요.(김형란)

제가 뭔가 생각하고 펼쳐 놓았던 미래들이 한 순간에 싹없어져 버렸어요.(이원심)

겉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자신감이 없어요. 지금 가출하고 있잖아요. 가출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학교 꼬박꼬박 나오고, 부모님 밑에서 귀하게 자라야지 성공하고 그러는데.(박정아)

2) 학업중단 이후의 선택과 경험들

학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교를 그만 두으로써 ‘졸업장’이 사라지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심각하게 하도록 만든다. 또한 재학 중에는 시간상 제약으로 인해 하기 힘들었던 아르바이트를 학업 중단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됨으로써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가 필요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진로 못지 않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

가) 검정고시와 대안학교를 통한 학업의 지속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떠밀렸고, 나름대로의 대안으로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학업문제는 여전히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최동선 외, 2009; 구본용, 2002). 이러한 특성은 이번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학업중단 이후에 검정고시를 반드시 해야 할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들이 한국과 같은 고학력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은 대학 진학이든 취업이든 간에 자신의 진로를 설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기본요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무런 자본이나 배경이 없는 ‘고졸미만자’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대우받으며 살 수 있으리란 기대감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복학에 대한 강한 의지와 복학 후 잘 해낼 수 있으리란 자신감도 없고,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이상, 검정고시는 자신의 ‘모자란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미용고등학교 재학중인 2

명을 제외한) 여성청소년들을 현재 ‘검정고시 합격자’, ‘곧 다가올 검정고시 공부 중’, ‘검정고시 준비가 잘 되지 않아 걱정 중’인 이들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검정고시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종의 의무/과제와도 같다.

검정고시는 언젠가는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었으니까……그냥 최대한 빨리 보고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김윤정)

내가 공부라도 해서 검정고시 해서 대학이라도 가든 취업이라도 빨리 나가든 아니면 뭘 하나 배워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기(청소년지원기관)로 온 거예요.(최원경)

일단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건 고등학교 검정고시 따는 거를 제일 하고 싶고, 나중에 커서는, 그래도 공무원 하고 싶어요. (검정고시)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 했어요……적어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되잖아요. 원래 대학교도 갈 생각이었는데.(윤연아)

자퇴를 올해 해서 검정고시를 못 치더라고요. 그게 4월 8일에 있는데 자퇴하고 나서 6개월 뒤에 검정고시를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3월에 학교를 다녔으니까 8월에도 못 치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쳐야죠……검정고시 치고 대학에 가서.(최승은)

다른 사람들보다 대학교 더 빨리 가고 싶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람들 선입견이 있잖아요. 검정고시를 안 좋게 보는. 그래도 졸업기간보다 빨리 따면 더 좋게 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생각 때문에 공부할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검정고시 책 사고, 문제집을 인터넷으로 뽑고, 그렇게 해서 저 혼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김현정)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독학 외에 검정고시 전문학원, 검정고시 지원프로그램이 있는 청소년관련기관, 대안학교와 같이 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대안학교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지속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이다. 비록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대안학교일 경우 검정고시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으나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과 교육방식이라는 특징이 학교를 그만둔 이들이 학업지속을 위해 선택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 중 현재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들은 12명이다. 그런데 이들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 대안학교로 입학하기까지의 기간이 짧게는 1개월, 제일 긴 기간이 16개월로 평균적으로 5~6개월가량이었다. 즉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은 대부분 대안학교 재학경험이 있는 형제자매 또는 친척, 지인이 있거나 대안교육에 대한 개별적인 관심으로 학업중단 이전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고, 학업중단 결정 전후에 바로 자신에게 맞는 곳을 탐색하는 과정을 실천하기 때문에 학업중단 이후 대안학교 입학까지의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인다. 또는 평소 공교육에 대한 회의나 반감을 가지고 있던 부모로부터 대안학교를 권유받아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대안학교 먼저 가고, 아 그런건 있었죠.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내가 가서 뭘 해야겠다는……그 당시에는 무기력했으니까 다시 에너지도 되찾아야 하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한 거예요. …(중략)…겨울방학부터 계속 학교를 찾다가 3월 달에 입학원서 같은 것을 다른 학교에 한 번 하고, 00학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입학원서를 내고 여기로 4월부터 다니기 시작했죠.(장민주)

나름대로 배우는 것도 있고, 시간이, 하루가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국·수·사·과, 영어하고 예체능이 많아요. 춤 배우고 요가하고, 배드민턴, 농구, 탁구 이렇게 하고 텃밭 같은 것 수업도 하고……활동 끝나면 3시, 집에 가서 공부해요. 한 10시까지.(오성선)

○○○(현재 재학중인 대안교육기관)는 처음에 6월말에 왔었다가……○○○ 방학 지나고 나서 2학기부터……처음에는 여기 다니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다니다가 2학기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했어요……(김윤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 없는 계층의 여성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미래전망에 대해 어떠한 기획력도 발휘하지 못 한 채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특성을 떠올려 볼 때 현재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청소년들의 정보력과 실천력은 상당히 이질적인 측면이다. 더구나 대안학교에 다니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비 문제로 포기해야만 했던 정아의 사례처럼 대안학교에 다닐 수 있는 경제력 역시 중요한 차이점이다. 즉 여성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 이후 곧바로 대안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이 스스로 정보력, 의사결정능력, 실천능력 등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 어렸을 때부터 문화적, 경제적 자본을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왔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은

이들이 대안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대학진학을 하겠다는 나름의 미래를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그 대안학교가 한 달에 100만원이 든대요. 제가 거기 계속 좋다고 하니깐 엄마가 거기 보내주면 학교 잘 다닐 거냐고 그래서 잘 다니겠다고 했더니 엄마가 거기 보내려고 했었는데, 엄마가 그 가격 듣고 안 보내 줬어요.(박정아)

나) 합법과 불법사이, 아슬아슬한 아르바이트

심층면접에 참여한 41명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중 30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들 중 일부는 현재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구직 중이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은 욕구, 학교를 그만 두고 집에서 빈둥거린다는 점이 부모님에게 ‘미안하거나 눈치가 보여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살펴본 이들의 가정환경에서 드러났듯이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가정폭력, 과중한 역할부담 등으로 집을 뛰쳐나온 여성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죽기 싫어서’ 일을 닦치는대로 했다는 영주의 말처럼 생계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 된다. 하지만 ‘학업중단’, ‘여성’, ‘청소년’이라는 이중, 삼중의 제한요건이 있는 이들이 합법적인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직종은 그리 많지 않은 반면, 성산업에서는 ‘여성’과 ‘청소년’이 유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돈이 당장 필요한 이들에게는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일거리가 된다.

죽기 싫어서. 팬시점이나 고깃집 서빙 하는 것. 홀 서빙. 그리고 술파는 술집도 해 보고. 팬시점은 캐시 말고 물품 정리 같은 것도 해보고. 신문배달도 해 보고. 그리고 짜라시 해 본 적도 있어요.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돈 독 오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그리고 처음에는 아는 언니들과 같이 살았어요. 혼자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언니들이랑 돈 모아서 같이 살고.(윤영주)

나오자마자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했거든요. 계속 일했어요. 거기 공장에서 한 달 하다가 여기 다시 들어와서 거기 옆에 분식점 있잖아요, 거기서 일하고. 또 바리스타 일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고.(유성아)

레스토랑, PC방, 주유소, 전단지 돌리는 것도 있었고, 뭐 그런 정도죠. 생활비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동생이 나이가 어려요. 수급자 비용도 들어오긴 하는데, 방세가 워낙 비싸서요……PC방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여기 기관(청소년지원기관)에 오게 되면 월급 대신 주는 그런 비용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정지수)

PC방도 해 봤고, 피자헛도 해 봤고……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엄마가 주는 용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래서 돈 생기면 사고 싶은 것도 있고 먹고 싶은 것도 있고.(한진영)

제일 쉬운 게 노래방 도우미 같은데, 나이 아니고 민증만 있으면 되니까. 민증은 그냥 구하면 돼요. 그런데 단속에 걸릴까봐 무서운 거죠.(한진영)

일단 잘 데가 없으면 채팅 들어가서 그렇게 구하게 되다보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는 그게 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그 때는 너무 갈 데도 없고 이런 것도 저 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나는 도움을 받을 곳도 없고, 집에 못 들어가겠고, 밥도 주고 일도 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가게 됐죠……(임경민)

<표 IV-3>은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경험한 아르바이트 종류를 크게 합법적인 업종과 유흥업소와 같은 불법적인 업종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명의 연구참여자 중 11명을 제외한 30명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 중 절반에 가까운 13명은 조건만남이나 키스방, 룸살롱 노래방 도우미 등 탈법적인 업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탈법적인 업종에서의 아르바이트를 한 적 없이 합법적 업종에서만 일한 여성청소년은 9명에 불과하다. 결국 30명 중 9명을 제외한 21명의 여성청소년은 합법적인 업종과 탈법적인 업종을 오가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뺑 뜯기, 앵벌이 등의 일탈행위로 돈을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 이후의 아르바이트 종류

이름	연령	합법	탈법
이혜선	15	없음	조건만남(언니, 포주역할)
이현지	15	전단지 배포	없음
봉우리	16	영화·드라마 엑스트라 출연	없음
차은경	16	없음	키스방
윤연아	16	미스터피자 서빙, PC방, 편의점	조건만남, 노래방 도우미
정아름	16	팬시점 알바, 고깃집 서빙	없음
조수현	16	설문조사 알바, 일식집 서빙	없음
박현민	16	미용실(3개월), 피씨방, 고깃집 서빙	조건만남
박민혜	16	피자집서빙, 키즈카페 종업원, 연극티켓 판매	없음
유혜진	17	미용실 아르바이트, 전단지 배포	없음
임경민	17	없음	노래방 도우미
유정은	17	카레집 서빙	없음
정혜미	17	전단지 배포, 순대촌 서빙 및 설거지	키스방, 룸싸롱, 조건만남
김정선	17	주유소, 백화점 안내 도우미, PC방	조건만남
최승은	17	식당 서빙, 고깃집 서빙, 전화기 대리점 텔레마케터, 일식집 서빙	없음
윤민재	17	없음	조건만남, 키스방, 룸싸롱
이소정	17	고깃집 서빙, 주유소	가출 시 앵벌이
이경미	17	생활용품 물류센터, PC방, 편의점, 독서실, 주유소, 세차, 식당서빙, 출장 뷔페, 설거지, 제빵 직원 근무	조건만남
한진영	17	PC방, 피자헛 서빙	가출시 뽕 뜯기
박다영	18	주유소, 마트, 팬시점, 피씨방, 미용실	노래방 도우미
이원심	18	미용실, 고깃집	없음
김수연	18	편의점, 주유소, 고깃집 서빙 등	가출시 뽕 뜯기
남보라	18	아버지 운영하는 pub에서의 일	없음
유현아	18	PC방	키스방, 조건만남
김현정	18	편의점, 주차안내	가출시 뽕 뜯기
김형란	18	막노동, 미용 보조, 레스토랑 매니저, 고깃집 서빙, 패스트푸드점	없음
유성아	18	핸드폰 공장, 커피전문점	조건만남
윤영주	19	팬시점, 고깃집 서빙, 호프집 서빙, 신문배달, 전단지 배포	뽕 뜯기, 아리랑치기, 절도, 조건만남
우소희	19	서빙(일식집 등), 바 서빙	노래방 도우미, 키스방
정지수	19	레스토랑, PC방, 주유소, 전단 돌리기 등	없음

그런데 청소년들의 노동이 허용된 업종에서 일을 한 경우에도 채용과정 및 노동시간, 일당 임금 등을 살펴보면 법적으로 보장된 기본 근무조건에 미치지 못한 열악한 환경이 많았다. 우리나라 연소자 근로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고용할 청소년으로부터 보호자 동의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여야 하며, 야간근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필요시 청소년의 동의 및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인가 후 가능하고,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실제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법적 사항을 준수하는 고용주를 거의 만나지 못 했다. 여성청소년 스스로도 관련 법을 잘 모르고 있었으며, 현정이의 말처럼 설사 ‘알았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으니’ 그냥 포기하고 현실에 맞추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임금은 많아야 최저임금이었으며, 이마저 수습과정이다, 중간에 그만 두었다 등의 이유로 임금을 떼이거나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게 받은 경험도 많았다. 소희의 경우에는 서빙을 했던 일식집에서 고용주가 ‘보증금’이라는 것을 받고, 그만둘 때 돌려주지 않아 따져서 겨우 받아낸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전 그냥 했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수당이 있대요……수당을 항상 줘야 하는데 그냥 월급만 준 거예요 그에 따른 수당이 있대요, 나는 그런 것 모른다고.(윤영주)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주유소에서 일할 때는 시급이 3,500원이었거든요. 최저임금도 안 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청소년이라서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10% 수수료를 떼인대거나. (김수연)

(편의점) 제가 했을 때는 3,400원인가 3,200원으로 받았어요. (최저임금) 알았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김현정)

학교 안 다니면 나이도 어리니까, 요즘에는 다 써주기는 하는데 그만큼 좀 뒤집어씌우는 게 있잖아요. 알바 생들한테 일부러 돈 조금 주려고, 돈 줘도 최저 임금인 4,320원인데 한 달 꼬박 다 일해도 100(만원)도 안 되는 거고.(최원경)

(근로계약서)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처음에 보증금이 있었어요. 30만원을 처음에 그 사람이 빼서 가지고 있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또 싸웠죠. 그랬더니 돌려주더라고요.(우소희)

한 달에 70~80(만원). 더 많이 받고 싶지만, 제 나이가 아직 안 돼서 그 정도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알바를 구하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나이가……전화하면 몇 살이냐고 하면 18살 94년생이라고 하면 구했다고 하고.(이소정)

나. 학업중단 지속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1) 학업중단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심리사회적 변화

학교로부터 막 벗어난 학업중단 초기에는 ‘잠시동안 이 시간을 즐기자’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놀기만 했던 무계획적인 일상이 점점 길어지수록 여성청소년들은 심리적, 대인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자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차별적인 편견들을 만나게 된다.

가) 깊어지는 무기력과 우울감

다음은 학교를 그만 둔지 16개월이 지난 최근, 대안학교에 들어가게 된 은주가 입학 전 반복되던 하루일과를 설명한 내용이다.

밤 12시 넘어서 항상 밤 12시 돼서 잠을 잤어요. 늦게 잤으니까 당연히 늦게 일어나죠. 아침 11시, 12시 이렇게 돼서 일어나고요. 점심 먹을 시간이 됐는데 아침을 못 먹었으니까 아침 겸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다가 TV를 계속 봐요. 몇 시간 동안. 1시부터 3시까지 재미있는 프로그램 찾아서 보다가, TV를 오래 보다보면 질리잖아요. 그러면 컴퓨터를 4시부터 7~8시까지 하고, 9시 되면 샤워하고 씻고 잘 준비 하고.(김은주)

다른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일상도 은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적, 문화적 자본력이 있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어느 정도의 휴식기간을 가진 후 바로 대안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성청소년들은 어떠한 지원도 없이 혼자서 자신들의 24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학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정보나 실천력도 없고,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만큼 학습능력 및 통제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이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일상을 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일지도 모른다. 자신들이 앞으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계획을 하지 못 하는 이들에게 지금의 시간들이 어떠한 의미

인지 인식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가출상태이거나 빈곤상태가 심각한 가정의 여성청소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미래보다 하루하루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당장의 현실이 더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즉 꿈꾸는 미래가 없는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 기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하루로 구성되고,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이들이 느끼는 것은 자괴감과 무력감이다.

갈수록 내가 게을러지고 아무 것도 안 하나까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았어요……혼자 있는 게 심심하고 할 것도 없고 해서.(오성선)

나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일어나서 컴퓨터 하고, 밥 먹고, 다시 자고 이런 생활이 연속이니까. 막 인생을 망친 기분, 망쳐버린 기분이 드는 거예요……(설탈터) 선생님이 하고 싶은 것 있으면 여기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김현희)

그냥 돌아다녔어요……그냥 막연하게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나이 때 다른 애들은 당연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게 의무이고. 그런데 나는 뭐하고 있지? 내가 이때까지 뭘 이뤘지? 나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지? 다 잊어 먹은 거예요.(정지수)

몸은 편했지만 마음은 불편했죠. 왜냐하면 여전히 무기력한 것은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리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장민주)

학교 다니면서 다른 애들이랑 수다 떨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혼자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생각이 많다보니까 우울하죠……난 뭐하지, 만날 이렇게 계획 세우면 왜 실천에 안 옮겨지지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고.(박현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지금 무기력해서. 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열심히 할 의욕은 없고.(김윤정)

비록 학업중단이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축적된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었다는 것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큰 사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청소년들에게 우울증, 좌절감, 불면증, 대인관계 기피증과 같은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남국희, 2002). 특히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여성청소년이 또래남성보다 우울증에 취약하다는 공통된 결과들이 나타났고,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차명호 외, 2009)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자살시도, 우울장애, 불안장애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정해숙 외, 2010).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학업중단이라는 위기상황도 여성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 중 일부는 우울증으로 인해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았던 경험이 있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 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물론 우울증의 원인이 전적으로 학업중단에 기인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여성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이라는 큰 사건과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은 우울증을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제 스스로를 저기 포기한 거죠. 나는 성공할 길이 없고, 나는 사는 게 무의미하다.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하루하루가 즐겁긴 한데, 이대로 가다간 나는 망할 것 같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있지만 지금 이 상태가, 이 즐거움이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 있고 싶고, 다른 무언가를 하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다 할까. 난 이렇게 그냥 흘러가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원심)

우울증하고 틱 장애가 그 증상이요. 그러니까 많이 괜찮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약간씩 우울증하고 틱 장애가 남아있대요. 그래서 그거 완벽하게 치료하려고 (신경정신과) 다녀요.(김은주)

제가 우울증이 심해요. 막 되게 즐거워 보여서 성격이 낙천적으로 보이고, 쾌활하게 보이는데 이래 보여도 속 안으로는 퍽 퍽 앓고 그런 타입이라.(정지수)

정신분열증인가 그런 특징들이 몇 개 보인다고, 그리고 정서불안인가. 그리고 좀 많아요……혼자 갑자기 있다가 살기도 싫고 그래요. 팔 그어 봤어요.(한진영)

또한 지속되는 학업중단기간 내내 구체적인 진로설계를 하지 못 하는 현실은 학업중단 선택에 대한 후회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학교를 그만두지 않았다면) 미래, 일하는 것 그런 것 있잖아요, 취직. 그런 것도 있고……학교에 다니면 친구들도 더 사귄 수 있는데.(강은이)

그냥 좀 참고 다니면 어렵게 검정고시 안 봐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혼자 있으면 나는 뭐하는 건가 싶고, 아무 의미 없이 사는 것 같고.(김현희)

아무래도 학교를 나오는 불안, 어쩔 수 없는 불안감은 늘 있는 거예요……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아직 (목표가) 확립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저런 걱정들 고민도 많았고.(박민혜)

답답하고, 그리고 제가 꿈을 높게 보지는 않아요. 제가 높게 보지는 않는데 현실이 너무 먼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앞이 캄캄하네’, 뭘 하고 살아야 되지? 평생 아르바이트는 안 될 텐데……모아둔 돈도 없고,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살고 끝이고. 저금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지?(정지수)

다른 고민이 생겼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 많이 들었죠.(유정은)

하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를 다니던 중에도, 학업중단이라는 ‘인생의 실패’를 겪은 이후에도 ‘성공’이라는 경험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비롯한 모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오히려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단정지어버린다. 자본이 부재한 자신의 처지를 이미 알고 있는데다가 지속적인 실패경험과 편견어린 외부의 시선 등이 내면화되면서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상실하게 된다.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여성청소년들의 무력감은 점점 심해져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게 된다.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렇게 잘 하는 것도 없거든요.(이현지)

나 혼자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점점 안 되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줄어들었어요.(김현정)

(검정고시) 돈 주고 일단 신청은 했는데 시험을 보러 가 볼 거예요. 그냥 내년엔 어차피 안 될 것 아니까. 안 되는 애는 안 돼요……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돼요. 제가 제 수준이 얼마인 줄 아니까.(유현아)

내가 학교 밖에서 뭘 시작하려고 하면 괜히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장민주)

난 뭐하지, 난 만날 이렇게 계획 세우면 왜 실천에 안 옮겨지지 막 이러면서 불안해하고……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다보니까 진짜로 기분이 꿀꿀해요, 진짜 우울해요.(박현민)

그렇게 노력은 안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요즘에는 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강은이)

뭔가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자신이 없고 어려워요. 항상 피하게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없어요. 이 일을 하면 내가 못 해낼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남들은 다 치고 올라가는데 나는 여기 있고.(김현희)

되게 하고 싶은 건 없어요. 어차피 안 될 것을 아니까, 꿈이라도 그렇게 정해놓지 않으면…… 솔직히 저는 나중에 커서 진짜 취직도 안 되고 저는 진짜 백수 될 것 같은데……솔직히 말해서 진짜 엄마, 아빠 돈 받아먹으면서 백수일 것 같아요. 아니면 조그만 일이라도 구해서 하고 있든가……거의 집에서 만날 놀 것 같아요.(한진영)

자신감이 없어서, 제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멍청하다고 생각해요……(선생님이) 앞에서 장난으로 ‘야! 네가 제일 최고야’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딱히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최원경)

나) 대인관계의 변화

학업중단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온다. ‘부모들의 기대에 어긋난’ 학업중단 과정 전후로 발생되고 축적된 부모와의 갈등들은 중단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어 항상 싸우거나 아예 무관심으로 전환되어 소통이 단절됨으로써 여성청소년들이 집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결과를 낳는다.

엄마가 일부러 무관심하려는 거 있죠. 그렇게 하는데 막 뭐라고 하고, 집이 무슨 놀이터냐고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박다영)

중학교 들어가고 학교 안 나가고부터는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 가라고 몇 번은 깨웠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해준다고 꾀면 학교에 몇 번은 갔어요. 그 다음부터 안 가니까, 학교 간다고 하고 만날 어디 가서 놀고 그러니까 엄마가 알아버려서……그 다음부터는 아예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한진영)

친구들과의 관계 역시 달라진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면서, 친구관계는 자신과 유사한 상황에 있는 또래들로 재편된다. 똑같이 학교에 다니지 않고, 가정환경도 비슷한 또래들끼리의 만남은 심리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항상 바깥에서 놀아야 하는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돈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주거가 불안정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아 학업중단 전에 비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어진다. 이러한 또래집단의 관계 변화는 가출상황이 장기적으

로 이어질 경우에 더욱 두드러진다. 인터넷을 통해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지내다가 헤어지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찾는 등의 과정은 친구들의 관계를 ‘유효기간’에 맞추어 형성하도록 한다(변혜정, 2006).

친구들은 연락이,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면 그냥 안 다니는 애들끼리 놀고 하니까 개네통 연락이 그렇게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가족이랑은 처음에 잘렸을 때는 조금 달랐죠.(강은이)

학교 그만두고 나서는 여자 친구들이 만나기 되게 꺼려하는 무서운……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그렇게 머리에 박혀 있어서 친구들이 남자밖에 없어요.(최원경)

학교에 안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 안 다니는 애들하고 어울리잖아요. 다니는 애들끼리는 유행어도 있고, 뭔가 통하잖아요……친구들이 그렇게 저를 약간 이용하는 게 있어요. 친하게 지내는 데 또 연락이 안돼요. 약간 제가 쓸모없으니까 버려진 기분.(유현아)

친구도 없고……이제 돈이 없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기 그렇고, 돈이 없는데 또 어떻게……다 없더라고요, 주위를 돌아보니까.(임경민)

앞서 관계의 친밀성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에 가정과 학교 뿐 아니라 또래집단과의 관계가 학업중단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살펴본 바 있다. 이러한 관계성의 문제는 학업중단 이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일시적이고 신뢰감이 부재한 관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향후 타인과의 의미있는 관계형성의 어려움, 대인관계기술과 같은 사회적 능력의 부족, 나아가 정신건강에 위험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바라보는 차별적 시선과 편견

여성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학업중단자인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이다.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자신의 진로를 위해 소신으로 결정한 중단이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업중단 청소년=학교를 도저히 다닐 수 없을 만큼의 문제청소년이나 저능아’라고 단정짓고,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도 자신들이 그러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을 체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선들은 친척들, 친구들 부모와 같이 어느 정도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구인처 사장, 버스기사 등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 일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있었다. 학업중단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성청소년들이 무엇을 해 보기도 전에 이들을 불성실하거나 말썽꾸러기, 무능력자로 판단하고 기회를 박탈해 버리기 때문에 이들의 불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머리 색깔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모부도 막 계속 저희 엄마한테 공부시켜야지 뭐 하냐고 그런 말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예요...(중략)···저도 제 나름 계획이 있는데 자꾸 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학교를 안 다닌다는 이유로.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기분 나빠요.(차은경)

너는 자퇴했잖아, 너는 학교 안 다니잖아, 너 졸업장도 없잖아. 이런 말이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스트레스 받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언니나 이모들이나 가끔 말다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그런 말이 나오니까.(김현정)

처음에는 제가 맨 처음 자퇴를 했잖아요. 친구들 엄마들이 저랑 다니지 말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이소정)

어른들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학교를 안 다니면 다 양아치고, 사고치고 다니는 애들이다.....친구가 ‘엄마 내 친구 OO야’ 하면, ‘애는 어느 학교 다니니?’하면 괜히 제가 부끄러운 것 있죠. 괜히 눈치도 보이고, 그 친구도 눈치보고 그냥 거짓말 하고.....(박다영)

대학을 가거나 흔히 말하는 취업, 어쨌든 돈을 벌어야 하는데, 흔한 알바 자리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검정고시 보려고 합니다’, ‘자퇴했습니다’라고 하면 보는 시선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남보라)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본다는 것. 그리고 어디 이력서 낼 때나 이럴 때도 초졸 이런.....되게 무시하죠. ‘뭐야, 재는. 학교에서 얼마나 그랬으면, 학교에서 얼마나 말썽을 피웠으면’ 그런. (임경민)

학교도 안 다니고, 또 아무 것도 안 하고, 화장 진하게 하고, 귀걸이도 많이 하고, 옷도 야시시하게 입고 다닌다고.....어른들이 보면 솔직히 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애는 예전부터 양아치였구나 그런 시각.....제가 면접을 보는데 제 머리가 노랗다고, 재는 뭘 해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하고, 재는 교육시키다가 분명히 도망갈 게 뻔하다.....그리고, 학교 안 다니니까 머리가 딸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최원경)

기본적으로 제 스스로가 무시를 해요. 학업중단자라는 것을……사람들에게 무시당하다 보니까 나도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를 안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말하기 좀 그랬어요.(김수연)

휴학을 8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애들은 다 학교 가는 시간에 저는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넌 왜 학교 안 가냐고 물어보잖아요. 슈퍼나 문방구를 가면, 그러니까 제가 그 때도 집에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밥 먹고 컴퓨터 하고, 자고 이런 것 밖에 없었거든요.(김은주)

여성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똑같이 학업중단한 또래남성들보다 사회에서 훨씬 불리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남자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비교적 관대한 시선으로 대하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대해서는 ‘학교라도 안 나오면 어찌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길래?’라는 식의 뼈뺀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남자청소년들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인생의 다양한 경험이며, 보다 ‘남자답게 잘 클 수 있는’ 기회로 의미화되는데, 학업중단 역시 그 다양한 경험 속 일부일 뿐이다. 이에 반해 여성청소년들은 학교를 ‘얌전하게’ 잘 다녀서 제대로 졸업하는 것만이 ‘잘 큰’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문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중단 전후로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청소년의 가출은 이미 그 자체로 ‘(이들의) 몸이 더럽다’라는 딱지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 사회가 여성, 그것도 어린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고위험사회라는 현실과 맞물려 가출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더욱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가출한 여자를 보는 시선하고, 가출한 남학생을 보는 시선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그럴 수 있어, 남자니까. 남자는 밖에서 자도 돼. 남자는 한 번 밖을 경험해 봐도 돼’, 그런데 여자는 무조건 안 되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1388갔을 때 ‘너는 여자애가 왜 나왔냐’ 이런 식으로, 남자 애들한테는 그렇게 말도 안 하면서, 여자니까.(임경민)

남자는 자퇴 같은 것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런 걸 이해해주는 것 같은데, 여자들이 자퇴를 하거나 그러면 재는 몸이 더럽다 그러는 것. 남자들처럼 논다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클럽에 가고 그러니까……욕을 많이 해요.(허은영)

사실 이러한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 가정과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이미 수없이 겪으면서 여성청소년들에게 내재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신이 경험한 것들이 성차별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일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차별 경험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기 어려워하기도 했다. 아래는 전문가 집담회에 참석한 한 상담교사가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교사들의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이다.

(남학생들도 가정환경이 불우해서 방황을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학교에서 뭐라 그럴까요…… 학생들한테 피드백하는데서 다른 게 있더라고요. 여학생들이 학교 밖을 나갔을 때는 속된 애기로 애네들이 몸을 잘못 굴릴 것이라든가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니까 몸 조심해라. 그런 게 아이들한테 상당히 반감이거든요. 내가 놀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밤새서 놀기는 하지만 내가 그런 걸 하려는 건 아닌데, 남학생들한테는 예를 들면 너희 집의 장남이지 않나……이렇게 벌써 피드백하는 게 다르다는 걸 느끼구요.(☆☆중학교 전문상담교사)

이처럼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도 학교와 청소년상담기관을 비롯해 전반적인 우리 사회는 남녀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면 유난히 경찰에게 잘 걸리며, 이들로부터 ‘할머니가 아닌’ 여성들은 담배를 피면 안 된다는 상당히 노골적인 성차별적 훈계를 듣기도 한다. 이러한 성별 고정관념에 학업중단자라는 신분까지 더해지면 ‘담배 피우는 일’ 하나로 시작된 조언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일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협박 아닌 협박으로 이어진다.

네가 할머니도 아니고 여자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이미 여성단체에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진짜 열이 확 받는 거예요.(남보라)

담배를 피우다 경찰한테 걸렸어요……너흰 어디 학교야 하는데 저희는 안 다니는데요 이랬더니 학교도 안 다니는 것들이 집에 가서 공부나 하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이게 되게 불리하데요. 학교 안 다니는데 경찰 일에 연루되거나 이러면. 소속이 없으니까.(우소희)

학업중단 남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우 자체가 다르다는 점과 함께 자신들이 생면부지의 아저씨들 뿐 아니라 같이 어울리

는 또래남성들에게조차 ‘만만해서 건드리기 쉬운’ 여성들로 인식되고 있다는 여성청소년들의 이야기 속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이들의 일상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다.

남자애들은 그냥 기술 배워서 해도 되고, 검정고시 보고, 그런데 여자들은 솔직히 말하면, 그만 두는 순간부터 정말 자기 혼자 싸워야 되거든요. 남자애들은 싸울만한 전투력이 풍부해요. 전투력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보는 시선조차도 달라요……똑같이 학교 안 다니고 똑같이 부모 없다고 쳐 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명히 남자보다 여자를 우습게 안다니까요……만만해 보일 우습게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한 번 건드려 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자빠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자들은 이미 한 번 버린 몸, 돈 벌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그 쪽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말이에요.(김수연)

신촌이나 그런 데 가면 길을 가다 보면 어떤 아저씨나 어떤 오빠들 술 취한 사람들이 ‘데이트 할래요?’ 이런 말투 이렇게 하잖아요. 그 것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가슴이 철렁해요.(박민혜)

사람들이랑 오빠들이 하는 말이 너는 좀 애가 쉬워 보인다고, 많이 당할 것 같다고……뭐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걸 저한테 쉽게 말해요……어떤 친구들이랑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혼자 와가지고 처음에 라이터 좀 빌려 달래요. 빌려줬는데 갑자기 내 친구 옆에 앉더니 우리 셋 보고 무슨 드라이브 할래 막 이래요.(강은이)

학업을 중단한 애들의 대다수가 가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자, 여자 둘 다 나쁜 쪽으로 빠질 가능성도 높지만 여자애들이 더 위험한 게 일단 그런 거죠. 강간 막 이런 성폭력 이런 것에 휩쓸릴 위험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나쁜 일 당하게 되죠.(정지수)

어떤 오빠는 막 건들려고 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쉽게 말해서 따 먹으려고.(최원경)

2) 학업 지속을 주저하거나 방해하는 요건들

가) 쉽지 않은 복교와 복교 후 적응

미래를 꿈꾸고 실현시킬 대안과 방법들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당장의 즐거움을 스스로 유예시키면서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진로를 계획하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어쩌면 복교를 함으로써 졸업장을 취득하는 것이 보다 더 쉬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기대와는 다른 학업중단 생활에 실망하여 복교를 고려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에 다시 들어가게 될 경우 나이가 어린 ‘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 예전처럼 다시 일찍 일어나서 등교하는 등의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복교를 망설이게 한다.

(학교에) 가기에는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는 못 들어가고, 내년엔 들어가면 저보다 2살 어린 애들과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정혜미)

저보다 이이가 1~2살 어린 건 괜찮은데 3~4살 어린 애들이랑 다니는 건 자존심 상하는 데 요……만약에 복학을 한다면 옛날에 다니던 중학교 말고 그 근처에 있는 학교, 아니면 거기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가고 싶어요. 애들이 저를 모르게.(김은주)

학교를 나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일단 제가 늦잠을 자는 생활습관이 걸리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깐. 다니기 싫어요. 스트레스 받아요.(이소정)

이런 염려는 실제 복교를 경험한 여자청소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이전 학교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는 여건들이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중단 기간 몸매 배인 생활습관과 학교, 특히 교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정적인 시선들은 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이전 학교에서처럼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또다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학업중단을 반복적으로 거치는 동안 여성청소년은 연아의 말처럼 자신을 ‘의지박약한’ 실패자로 인식하게 된다.

복학을 했는데, 나이 어린 애들이랑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나를 좀 이렇게 멀리하고, 나도 애들이랑 어울리기 좀 그렇고. 그래서 그만 됐어요……가르치는 애들이 나이가 어리니까 동급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져요.(정지수)

학교를 다시 다니고 싶어서 다시 다녀보려고 복학을 했는데, …(중략)…그래도 애들하고는 금방 친해져서 잘 어울렸는데. 공부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간 것도 아니고 만날 그냥 학교에 시간만 때우러 가는 것 같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뭐 말인지 모르니까……아침마다 일어나는 것도 습관이 안 돼 있어서 만날 지각하다보면 그냥 학교 빠져버리고 그래서. 아예 검정고시를 볼 생각으로 그만 됐어요.(박현민)

복학을 했고 동생들이랑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뭐 잘 못하면 ‘너는 일 년 더 다닌 애가 왜 그러냐’ 이러면서 그렇게 됐죠. 모든 게 다 저한테 오니까. 일학년이 잘 못하면 제 잘못, 제가 잘못하면 또 저한테 배로 이러니까.(박다영)

처음에 다니던 학교에 그대로 복학해서 그동안 절 많이 지켜본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넌 못 버틸 거야’, ‘넌 안 돼’, 이런 말을 해서 오기로 버텼던 것 같아요.(임경민)

교복 입을 수 있는 나이가 10대 밖에 없잖아요. 고등학교에 가려고 한 게 교복을 1년밖에 못 입었으니까. 그래도 나도 학교 다니면서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그것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만 뒀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학교에 들어왔는데 또 1년 만에 그만 두니까 제가 의지박약 같아 보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윤연아)

이러한 복교경험담들이 또래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목격되고, 구전되면서 복교에 대한 희망은 결국 희망사항으로만 그치게 된다. 또한 복교를 하고 싶어서 학교에 문의를 해도 문제행동 ‘전력’ 때문에 학교로부터 거부할 당하는 현실은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가 얼마나 차별적인 공간인지를 다시 한번 절감하게 만든다.

중학교 복학하면 친구들도 다 졸업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복학해서 잘 다녀서 졸업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복학해서 1년도 못 다니고 그만 두는 애들이 많던데……그래서 그냥 검정고시 볼까 생각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 보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좀 힘들까봐.(박현민)

주위에서 복학한 사람들이 말려서,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자퇴하기 전에 적응을 못 해서 자퇴한 건데, 복학한다고 해도 다시 적응해서 다닐 줄 아냐고, 돈 버리지 말고 그냥 검정고시 따라고 그래서.(김현정)

어딜 가든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소문에 꼬리를 달고 가니까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더라고요.(김형란)

나) 대안학교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가족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 여성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에 대안학교로 전환하여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가고 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는 현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안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학생들의 관심사와 개인별 수준에 맞춘 학습커리큘럼과 수업방식, 진로탐색이나 심리사회적 치유에 필요한 다양한 체험 및 상담프로그램들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미 학교를 한번이상 포기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안학교라는 공간을 통해 ‘실패’가 아닌 ‘성공’의 경험

을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대안학교의 이러한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곳들을 일반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지 못 할 만큼 ‘문제아’이거나 ‘머리가 좋지 않은’ 청소년들이 다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모 뿐 아니라 청소년집단 내에서도 작용하고 있어 학교를 그만둔 이후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 하는 계기가 된다.

제 남자친구는 대안학교 진짜 다니고 싶어 하는데 못 다녀요. 무슨 대안학교냐고, 그건 적응 못하는 애들이나 다니는 곳이라고.(차은경)

대안학교라는 타이틀 자체가 부당한 대우를 받기 딱 좋은 타이틀이거든요……‘꿀통들이 다니는데 아냐, ‘아, 거기 문제아들이 다니는데 아니야?(유정은)

대안학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 가지고. 애들이 대안학교는 날라리만 있다고. 가도 너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실제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대안학교는 정말 안 가는 것이 좋다고. 대안학교라는 자체를 생각을 안했어요.(김현희)

대안학교가 뭔지도 몰랐어요……그냥 학교 잘리거나 하는 애들이 가서 그냥 공부하는 데 아닌 가?(최원경)

다) 정보와 지지자원으로부터 차단된 ‘나 홀로’ 상황

아래에 소개된 민혜의 이야기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비록 학교가 차별적이고 폭력적이라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진로에 대해 알려주고, 최소한의 지도라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학업중단은 그러한 정보와 지도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나 홀로’ 상황으로의 전환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경제적 지원의 부재로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전문학원 등의 이용이 어려운 여성청소년은 혼자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하고, 학업이나 진로설계와 관련된 정보가 없어 미래를 구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학업중단 직후) 오히려 소속되어 있고 싶은 마음이 컸죠. 왜냐하면 아무 것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집에서만 지내면 불안하니까……학교라는 것에서 제시해주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것을 제가 직접 찾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박민혜)

라) 혼자 준비하는 검정고시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사라져버린 졸업장을 대체할 수 있는 검정고시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주요관심사이다. 하지만 대안학교처럼 비교적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교육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한 자기통제력이나 생활습관이 부적절하고, 가족의 지원 등이 부족한 여성청소년들이 혼자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검정고시 전문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다니겠다는 의지나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수업내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수준이 맞지 않는다면 또 다시 포기하게 된다. 이에 여성청소년들은 학업중단을 후회하면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방식으로 지도하고 도와줄 누군가가 옆에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검정고시 따서 대학 가려고 생각은 했었는데, 학원 다닐만한 돈이 안 돼서.(정혜미)

검정고시는 따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중졸이다 그러면 그건 정말 아니잖아요……처음에는 되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것도 오래 못 간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꼭 따야겠다고 느끼는데.(박다영)

검정고시 준비 중인데……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학원은 제가 만약에 늦게 들어가면 진도를 나가버리고 따로 질문도 할 수 없으니까 학원을 별로……가족 전체가 다 바쁜 분위기라서, 저도 다른 생각 하다가보니까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고……중학교 그만 둔 이후로 공부 하고는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르쳐달라 했는데 친구도 모르는 것이 많더라고요.(김현희)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공부 같은 것들 하다보면 혼자 하기가 약간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옆에서 도와 줄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겠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검정고시 때문에 스트레스.(김윤정)

그 때는 내가 검정고시 따면 되겠지 했는데 자꾸 미루게 되고 생각해도 안 하게 되니까, 시험을 봐도 공부를 못해서 합격을 못 하잖아요. 그냥 학교 다닐 때 할 걸 하는.(박현민)

이건 누구한테 말해도 좋아요, 검정고시 볼 거면 진짜 출석 잘 해서 학교 졸업하라고. 정말 후회한다, 검정고시는 좀 아닌 것 같아.(김형란)

마) 학업 또는 진로설계 관련 정보의 부족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성인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이다. 비록 지금과는 많이 ‘다른’ 미래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당장 ‘법적 성인’으로 살아가야 할 시점이 코앞에 와 있는 지금, 검정고시나 대학진학이나 취업 등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만이라도 결정하고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향이나 장단점, 관심사 등과 함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탐색 및 결정, 관련분야에 필요한 학습과 훈련 등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정보와 전문가의 지원이 요구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의 진로에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지지자가 있거나 대안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여성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순간 이 모든 정보와 지원으로부터 소외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기껏해야 아는 것이 비슷한 또래친구들에게 물어보는 방법이 전부인 이들은 검정고시부터 시작해서 복교, 상급학교로의 진학, 직업 등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궁금하고 모호한 것이 많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이는 정보부족을 비롯한 진로장애가 진로결정수준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황선미와 신현숙(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주위에 있는 애들에게 수소문해요. 물어보고, 어른들한테 물어보지 않아요……그나마 믿는 건 친구들밖에 없어요.(김형란)

(검정고시나 대학교 진학과 관련해서) 그런 도움을 주는 기관도 모르고, 그렇게 도움을 주는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도 모르고……안 알아 본 게 아니라 알아볼 방법을 잘 몰랐어요.(김현희)

(진로, 적성 프로그램이나 기관 소개) 받아본 적 없어요……요즘에는 나는 뭐를 해야 하나, 나중에 해야 될 것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한진영)

대학 진학도 원하는 과가 있어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과조차도 잘 모르겠어요.(남보라)

3) 진로준비와 자립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적 상황

가) 생계비 마련이 급한 현실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든 취업이든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여건은 매우 중요하다. 혼자서 공부하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검정고시 전문학원이라도 다니고 싶지만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여성청소년들에게는 학원비 마련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대안학교를 다니고 싶었지만 학비문제로 포기한 정아의 경우처럼 대안학교 역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대안’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학원비나 학비 마련만이 아니라 아예 생계비를 책임져야 하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진로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 하루하루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가출상황, 성인 보호자 대신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어린 형제가 있을 경우, 보호시설로부터의 퇴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십대 후반의 여성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진로준비는 뒤로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고졸 검정고시까지 합격한 영주는 유아교육을 전공하기 위해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자립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공부까지 하는 것이 버겁다고 토로한다.

수능을 한 번쯤은 보고 싶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지금은 힘들어요. 몸이 많이 힘들니까. 그래서 아직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일을 그만두면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윤영주)

해서 바로 바로 월급이 나오면 그 돈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 놓고 이래서 일주일이라도 살아갈 그계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알바를 구하러 갈 때 면접을 보러 가야 되는데 이력서 하나 살 돈도 없고, 차비도 없고 그냥 막막했죠.(임경민)

여기를 나와서 월급을 받는데, 일단 그 월급 받아서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아빠한테 2/3을 갖다 주고 1/3은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도 집에서는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언니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아빠 혼자 벌어서 집세 내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지금은 그런 책임감이 생긴 것 같아요.(최원경)

이것저것 다 해봤죠……생활비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동생이 나이가 어려요, 동생이 19살이거든요. 고3인데. 애도 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아무래도 동생이 나이가 어리고, 하는 시간도 짧고 하나까 돈이 많이 되지는 않아서 그냥 개 용돈벌이 하라고, 제가 보통 다 돈을 벌어서 쓰고 있어요.(정지수)

나) 차별적인 구직과정, 성별화된 일거리, 위험한 근로환경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취업을 해야만 생활이 가능한 이들도 상당수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 취업문제는 학업 및 진로와 함께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우선적으로 우리 사회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전경숙 외(2003), 윤철경(2010) 등의 연구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인중심의 노동구조에서 ‘어린 나이’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를 한정시키며, 여기에 더해지는 ‘학업중단’ 상황은 구직을 하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상당히 큰 핸디캡이 된다.

어린애들은 다 안 뽑아요, 거의 그래요. 20살 때부터, 경력이 있거나 그래야 돼요……저희가 어리니까 빗자루 이런 것만 쓸잖아요. 그 이후에는 배우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저희는 놀고 그럴 나이니까 잘 안 시켜주고, 20살 때는 일을 잘 하는 거 같으니까 저희는 안 뽑는 것 같아요.(정혜미)

면접 그런 건 상관없는데, 구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한진영)

일 구할 때 (인터넷으로) 알바 치잖아요. 나이는 상관없대요. 그런데 졸업해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연령은 19살인데 ‘졸업’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유현아)

제가 알바 하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제가 학교를 안 다닌다 그러면 학교는 다녀야지 말하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말을 하면 ‘말대답 하지 말라’ 이렇게 말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보편적일 것이고, 한국의 것인데.(박민혜)

(알바) 알아 본 데는 있는데, 거의 구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구하는 사람하고 안 맞는다고 하거나 그러면서 안 받아줘요……학교 안 다니거나, 학교 관두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봉우리)

낮 시간에 일을 할 거니까 어차피 학교 안 다니고 있다면, 지방이라서 그런지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뭐 하고 있냐고 그래요……(최승은)

또한 여성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또래남성들과의 차별점이라고 지적했다. 앞에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일했던 곳을 정리한 표를 보면 주로 식당, 카페, 마트, PC방, 옷가게, 미

용실 등 서비스업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은 또래의 남자청소년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다양한 종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었다. 남성청소년들은 서비스업종 외에도 배달, 막노동, 대형마트 운송 등 힘을 많이 써야하면서 위험하다고 인식되는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러한 업종 및 직종의 차이는 여성과 남성간의 임금차이로도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여성청소년들의 주요 일터였던 편의점조차 야간 근무가 많고 강도사건이 늘어나서인지, 최근 들어 여성청소년을 채용대상에서 아예 배제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아져서 일할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불평들도 있었다.

전경숙(2006)은 성별에 따라 이러한 직종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청소년 근로 자체가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이 남성청소년은 ‘육체노동력’, 여성청소년은 ‘몸의 상품화’라고 설명하며, 육체노동이 많이 필요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서는 남자청소년이 많이 필요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임금 역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반면 여성청소년은 ‘몸’을 상품화시킬수록, 즉 불법적인 성산업 내로 들어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특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하는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는 직종의 성별화는 아래의 고등학교 교사가 들려준 사례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집안의 실질적 가정인 여자) 아이는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좀 힘들어요. 요즘 편의점에 야간에 여자는 안 받아주거든요? 이 아이는 밤에 할 일이 없어요. 학교가 4시에 끝나면 5시부터 일해서 세 식구 못 살아요. 그러니까 야간 일 뛰게 되는 거고, 밤에 가서 단란주점 가서 일을 하고, 새벽 2시 이후에는 도우미 뛰고,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지만, 개 입장에서서는 최선인 거예요. 근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이 남학생은 주말에 지방산업을 가요. 산림청에서 벌목하는 거. 돈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남자들은 몸을 쓰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편의점은 거기서 자고, 왜냐면 삼각김밥도 나오죠. 동생들 갖다 주죠. 편의점 알바가 오후, 야간에는 켜요. 야간만 돌았는데 한 달에 백만원 나오니까요. 개는 세 식구 살아요. 근데 애는 주말 하루 내 알바, 편의점 알바가 최저임금보다 낮거든요. 3,800원이에요. 주말 알바 아무리 다 해도 한 달에 받는 돈이 3~4만원이에요. 그걸로 못 살아요. (○○정보고등학교 사회과 및 상담담당교사)

한편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자신이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학교를 그만 두었다는 이유로 고용주나 같이 일하는 남자종업원들이 자신들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성희롱을 많이 당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구나 고깃집처럼 술을 같이 판매하는 업소에서 서빙을 하는 경우에는 남성손님으로부터 언어 및 신체적 성희롱을 당하는 등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그만두고 나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한 번 했었는데, 근데 고깃집 아저씨가 살짝 성추행, 언어적인, 그런 것도 좀……그걸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아르바이트생한테 다 한 거예요.(이원심)

이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여성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 즉 연소자 고용이 금지된 술집이나 성매매 관련업종을 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전경숙이 지적한 여성청소년의 ‘몸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기 시작되는 지점이다. 윤철경(2010)의 연구에서도 서빙 아르바이트를 해 보았다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절반이 호프집, 소주방에서 일했고, 이외에도 노래방, 단란주점 등 청소년보호법상 19세미만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남성청소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본 연구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일부도 호프집이나 바에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일을 하는 내내 남자손님들로부터의 성희롱 피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

일하면서도 좀 문제가 되는 게, 남자 알바들한테 여자들이 남자 엉덩이 만지거나 뭐 손목을 잡아채서 앉아서 뭐 놀아라 이런 것 안 하잖아요. 그런데 호프집에 가면 여자 알바생들은 항상 남자 손님들한테 괴롭힘을 당해요.(정지수)

술 취한 손님들이 만지니까, 술 따르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접대용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고, 나는 손님이니까 나는 왕인데 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내가 무슨 술집 여자냐, 나는 그냥 호프집에서 서빙을 해주는 사람이자……눈 있으면 제대로 달고 봐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윤영주)

성매매가 불법인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성매매를 청소년보호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 처벌하고 있다고는 하나, 본 연구과정에서 너무나 쉽게 여성 청소년들이 성매매산업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인터넷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과 같은 개인적 성매매와 키스방, 노래방도우미와 같이 여성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인식하지 못 하는’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약 10여명의 여성청소년들이 개인형 성매매나 성산업 관련업종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경험들이 다소 민감한 이슈들이라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관련 질문에서 아예 대답을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키스방이나 노래방 도우미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자신이 했던 일이 성매매와 상관없다고 한계를 분명히 굿기도 했다. 다영이나 연아처럼 노래방 도우미를 했던 여성청소년들은 그 일을 재미있으면서도(?) 비교적 큰돈을 벌 수 있는 일로 묘사했다. 성매매처럼 직접적인 성행위를 하거나 업주와 심각한 채무관계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면서도 다른 일반적인 업종과는 달리 일한 대가가 크다는 점은 이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일로 인식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일이 불법이고, 성적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것을 ‘감(感)’으로 알고 있는 이들에게는 곧 그만 두어야 할 일이지만, 어디에서도 이만큼의 돈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만 두지 못 하고 있었다. 심지어 연아는 성매매를 하다 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은 경험도 있었지만, 큰돈에 대한 유혹으로 인해 그만 둘 수가 없다고 하였다.

노래방 도우미였던 거예요……내가 먹고 싶은 술도 먹지, 제가 노래방 되게 좋아하거든요, 노래도 부르지. 그리고 다 미성년자이니까 다 친구들이니까 우리끼리만 재미있게 놀다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게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적게 받으면 하루에 6만원이고, 제일 많이 받은 게 하루에 20만원인가 그랬어요……그 때 일한 게 있으니까 이제 다른 일을 못하겠는 거예요……다시 돌아가고 싶는데 무섭고……돈 씹셈이가 되게 나빠지는 거잖아요……일단 돈이 급했고,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다른 아르바이트는) 좀 어려운 일을 하면서 적게 돈을 벌고 시간도 기다려야 되니까 그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그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박다영)

성매매 그걸로 재판 볼 일이 있었어요……제가 걸린 횡수는 제가 했던 횡수에 비해서 되게 적은 편인데,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했다가 걸린 건 2번 이었고……솔직히 그렇게 돈을 벌다 보면 작은 돈이 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못 참고 또 하고 그랬어요.(윤연아)

가끔 키스방 나갈 때도 있고, 그리고 돈 벌어서 놀고.(윤민재)

전경숙(2006)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성매매가 ‘단기 고소득 아르바이트’처럼 인식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또한 아직 성매매 경험이 없는 여성청소년들도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주변 친구들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성매매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데에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가출이 집단적으로 의도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에 따른 성매매 구조가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아무리 성매매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도 일의 특성상 언제든지 강제적으로 성매매 상황으로 바뀔 수 있으며, 업주들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경우 감금, 협박, 성폭력, 폭력의 위험 또한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전경숙(2006)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위험상황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2차 강요, 폭력, 감금 등이 성적 서비스 산업에 종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공통점이었다.

처음에는 같이 놀아주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손님이 원하면 나가서 잠도 자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사장님이 자기가 급한 일이 있는데 돈을 꿔줄 수 있겠냐 해서 그냥 믿고 꿔주면 그냥 안 갚는……언니들이 많이 맞고.(임경민)

돈이 좀 안 되니까 나쁜 일도 했어요……조건만남 같은 것도 하고, 키스방에서 일하기도 하고, 룸싸롱도……2차는 안 나갔어요……싫었는데 할 게 없어서. 오래 했어요. 넉 달. 룸은 일주일 밖에 안 했어요. 사장님이 처음에 잘 해주다가 저희를 우습게 봤나봐요. 그래서 막 2차에 집어 넣으려고……어쩔 때는 집도 안 보내주고, 돈도 안 주고……저희가 거기에서 나가려고 핑계 대고 그러다가 걸려 가지고, 너네 그런 식으로 하면 돈 안 준다고, 여기에서 자라고, 먹고 자고 생활하라고.(정혜미)

만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도 안 좋잖아요. 성추행하는 기분이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니까, 원래 수위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손님이 ‘바꿔!’ 그러면서 나

가라도, 할 건 다 해놓고 나가라고 그러고, 손님 비위를 맞추기 힘들었어요...(중략)...사장님이 저희를 잘 안 내보내요.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뭘 맡겨놓고 가라고 해요, 무조건.....저희가 어리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애네들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윤민재)

도우미 그거 했는데.....저는 그냥 술만 따라주고 얘기만 들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그래서 갔는데 너무 1대 1이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었죠.....손님이 좀 심했어요. 옷 벗으려고 그러고, 만져보라고 그러고.....키스방 이런 건 하나도 몰랐고 또 바보 같은 게 간판을 못 보고 들어간 거예요.....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우소희)

돈 생각할 때, 진짜 너무 뭐가 먹고 싶고, 그런데 돈이 없고 그럴 때만 진짜 가끔(성매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딱히 막상 할 만한 게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납치도 당해본 적도 있어요. 납치를 당했는데 사람이 이상해서.(윤연아)

4.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서비스 접근 경험과 지원 요구

아직 우리 사회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나 지원 서비스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연구과정에 참여한 여성청소년들 중에는 청소년지원기관들을 통해 받은 지원서비스로 인해 마음의 치유와 힘을 얻게 되었다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부족한 지원과 여성청소년들의 욕구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지원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절에서는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경험한 여성청소년들의 사례를 통해 그들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과 한계, 지원요구를 살펴본다.

가. 사회적 지원 서비스와 긍정적 변화 가능성

이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청소년들은 가족과 학교로 이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폭력과 소통의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일련의 연장선 속에서 가시화된 학업중단은 이들을 더욱 중첩된 위기 상황에 놓이게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또래집단에서의 의존성이 심화되며, 또래와 함께하는 일탈행위는 재미삼아

하는 놀이로 변질된다. 이들의 생활세계는 가출, 또래와 함께 하는 유흥과 일탈행위, 거리생활, 자신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의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로 재편된다. 이들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 속에 무기력과 우울감이 깊어지고, 자칫하면 ‘만만해서 건드리기 쉬운 몸 버린 애’ 취급당하기 십상이다.

이런 가운데 여러 계기로 접하게 된 사회적 지원 서비스는 이들에게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긍정의 세계를 만나게 하고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1) 긍정적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

가) 의식주가 해결되는 안전하고 든든한 쉼터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의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돌봄을 받기 보다는 ‘어린 엄마’로 가족을 위한 돌봄노동의 책임을 떠맡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들에게 가족은 안전하지도 않으며, 기본적인 물질적, 정서적 지원도, 지지도 제공되지 않는다. 가부장적 가족 질서 속에서 이들이 딸로서 ‘어린 엄마’노릇을 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어머니의 부재를 메꿔주는 ‘성적 대상’ 또는 ‘구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비해 쉼터에서는 의식주가 제공되고 안전하고 편안하며,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해주는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다가간다. 더욱이 잘 데 없고 배고픈 거리생활에 지친 혜선은 쉼터에서의 생활을 통해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족스럽다.

밖에서 지낼 때는 잘 데가 없고, 항상 졸리고 하나까. 그리고 밖에 있으면 배고프고 하나까 안 좋았던 거 같고, 여기에 있으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운동도 할 수 있고, 강아지도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거 같아요.(이혜선)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쉼터생활이 좋았다는 현희의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가족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나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이 제

공해주지 못한 안전에의 욕구가 컴퓨터를 통해 실현되고, 주위 사람들과의 친밀감의 교류와 가족에 의해서는 가능하지 않았던 지원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이들에게 삶의 또 다른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Q. 컴퓨터에 있을 때 생활은 어땠어?) 되게 좋았어요. 저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다시는 저 되게 걱정했거든요. 친구들에 대한, 제 또래에 대한 안 좋은, ‘잘 못 어울릴 것 같다, 못 어울리면 어떡하지?’ 하고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컴퓨터에 있었는데 언니들이 너무 많이 반겨주는 거예요. 새 완전 까무잡잡하고 귀엽다고. 먼저 말 걸어주고 뭐 권해보고 그렇게 계속 말 걸어주고 그래서 적응도 되게 빨리했어요.……그때는 언니들이 착한언니들만 있어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생활은 트러블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격 이런 거 좀 변해지는, 그 언니들에 맞춰서 변해지다보니까 또 다음 입소생들 오면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지금 낮가림 아예 없진 않지만 많이 없어지고, 예전에는 누군가가 다가오려고 하면 제가 밀쳐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친하지도 않고 이러니까.(김현희)

좋아요. 재밌고요. 좋은 사람들도 많고, 집에서 받은 것 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체 생활이니까, 규칙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밥도 먹고 하고 같이 잠도 자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제 선생님들도 막 상담도 들어주고 내가 힘든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지원해주잖아요 “무슨 학원을 다니고 싶다.” 그러면 “다녀라.” 막 그런 게 되게 좋아요. 애들 새로운 애들을 만나면서 여기 성매매만 해야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그런 걸 더 그냥 일반 애들 보다는 더 잘 나눌 수 있는,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임경민)

나) 다양한 활동을 통한 ‘나’ 알아가기

학업중단 이후 ‘미친듯이 노는’ 중에도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미리 ‘해도 안 될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경향을 보인다.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여성청소년들은 막연히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한 검정고시에 연연할 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알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컴퓨터나 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로상담이나 다양한 직업 및 진로정보는 이들에게 자신의 특기와 적성에 대해 고민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을 알게 되는 새로운 경험의 장을 열어주고 있다.

(기관 선생님들과 학업, 진로 등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 안정이 되고, 제가 뭐가 재주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몰랐고, 내가 뭐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안 들었고, (그런데 얘기 하면서) 저에 대해 알게 되고.(정혜미)

제 적성도 알아보고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랑, 직업의 폭을 상당히 많이 알게 됐어요. 이런 것도 있다고 알선해주시고, 그런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고, 상담 받으면서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한 것들도 알려주시고, 원래는 국비지원이 있다는 거, 그거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안건 선생님 덕분에, 선생님께 여쭙봤더니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박다영)

뿐만 아니라, 이들 중 일부는 학업중단으로 이러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은주나 은경이는 그냥 학교에 다녔으면,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만 받고, 하고 싶은 것도 없이 ‘나는 아무 것도 안할 거’라는 동기의 부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 했을 거라고 고백한다. 이들에게 ‘학업중단’은 분명 위기의 경험이지만, 일시보호시설과 대안학교 등에서 이들에게 제공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면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 적성에 맞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서’ 더 좋다는 다영이의 이야기는 가족으로부터 지원받았어야 하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풍부한 교육적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일반학교에서는 공부를 많이 시키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여기는 필요한 공부를 하고, 공부 안 하는 시간에는 라틴댄스, 요가, 탁구 이런 스포츠로 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김은주)

제가 학교를 그만 두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녔으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전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나 아무 것도 안 할 거야’ 그랬는데……학교를 그만 두고 나서부터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차은경)

(친구는) 이렇게 시험을 찢찢 매면서 수능을 봐야 하고 수시를 써야 하고 이러는데, 저는 지금 자퇴해서 이르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자퇴하고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시간도 제약 안 받겠다, 막 그런 것에 숨통 조이면서 시험기간에 공부해야 되고 시험점수 잘 내야 되고 이런 것 보다는 이것저것 경험해 보면서 공부가 아니어도 제 적성에 맞는 것 찾을 기회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박다영)

다) 직업체험 : 아르바이트와는 다른 ‘일’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 체험활동은 이들에게 ‘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 성매매가 적발된 후 쉼터로 온 영주는 쉼터에서 연결해준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현장을 체험하고, 똑같은 직장인으로서 일해 보니 ‘알바’와는 다르며, 힘은 들어도 직업인으로서의 태도 등을 배워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이) 내가 경험했던 알바 형식의 일보다는 똑같은 직장인으로서 체험인 거잖아요. 8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을 하고 6시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퇴근을 하는 거. 그런데 제가 (전에 알바로) 일했던 일들은 시간개념이 없잖아요.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가면 되는 거고, 잠을 아예 안 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안 해 본 거를 하나까 잠도 잘 수도 있는데, 못 일어나겠고, 그 시간이 일어나던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일 할 때는 되게 많이 지각을 했어요. …(중략)… (Q.지금은 규칙적인 생활과 시간 다 지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바뀐 거 같아요?) ○○○○ 다닐 때 지각을 너무 많이 해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에게 물어 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시냐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내 직업이라고 내 꺼라고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안 된대요. 자기 어제 밤에 되게 많이 아팠대요. 그런데 내가 없으면 여기는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나까 일찍 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생각을 하면서 죽어라 일을 해요. 아! 여기는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각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은 지각할 때가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번.(윤영주)

여성지원시설에서 운영하는 여성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성아의 이야기도 영주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거기가 △△이 운영하는 데잖아요. 좀 △△이 많이 힘들긴 한데, 거기서 정식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오래 일했거든요. 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을 알아볼 때, 어떤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도, 급여나 이런 거,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좋고 막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어요).(유성아)

△△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현아는 일을 열심히 해서 자신의 카페를 갖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현재를 계획적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일을 해야지 내 핸드폰비도 내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가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그거 말고도 목적이 하나 있었어요. 저만의 카페를 갖기 위해서. 요새는 그냥……(유현아)

라) 지지적 환경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것은 현재나 미래의 자신을 쓸모 있다고 평가하며, 무엇을 하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및 그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는 실천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자존감과 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청소년 개인적 요인 뿐 아니라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가족과 같이 의미있는 타자/집단의 존재와 이들 간의 끊임없는 소통 속에서 학업중단과정과 중단 이후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안, 좌절, 두려움 등을 해소시키고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업을 중단한 현재의 상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의 경우 부모 뿐 아니라 제3자와의 관계도 자존감, 효능감 향상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음악을 전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이후에도 레슨을 지속적으로 받는 승은이의 경우 레슨선생님과의 관계를 통해 진로를 비롯한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가이드를 받고 있으며,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민혜는 재학 중인 대안학교의 교사나 동료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지지받고 있었다. 또 다른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소희 역시 마찬가지로 학교에 다닌 이후로 자신을 ‘낮추지도 창피해 하지도 않는다’고 말한다.

레슨 선생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선생님이 엄청나게 친구같이 잘 해주는 분이어서 레슨 할 때는 엄격하고 아닐 때는 되게 편하게 해 주시는 선생님이어서 제 삶에 대해서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클래식 선생님인데도 재즈를 하고 싶어 하니까 되게 지지해 주시고, 지금은 아무래도 대학에 가야 되니까 그걸로 뽕세게 나가고 있는데, 제 음악적인 성격 그런 것들은 많이 존중해 주시고.(최승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랑 지내온 시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야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분야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부조리에 대해서 되게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공유하죠. 많은 감정들을……(자신에 대해 생각해 볼 시간) 그런 면에서는 만족해요, 너무 많아서 피곤하죠.(박민혜)

이 학교 입구를 딱 들어섰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다니고 싶다 막 이런 게 생겨가지고 면접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어디 나가도 저 낮추는 일도 없고, 저는 지금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창피할 것도 없고.(우소희)

승은이와 민혜, 소희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가족의 지원으로 좋은 선생님과 좋은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자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사례들이다. 이에 비해 현희나 원심이, 영주와 같이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들에게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함께 나누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지지자가 더욱 절실하다. 이혼한 어머니와의 불화로 이집 저집 옮겨다니다 결국은 쉼터에 있게 된 현희는 쉼터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어 좋았다고 이야기 한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생계비를 벌기 위해 알바에 전념해야 했던 원심이라도 대안학교 선생님 집에 거처하며 선생님의 지지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상담이 제가 힘들었던 것을 누구한테 털어낼 수 없는데 털어놓을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맘이 편했던 것 같아요.(김현희)

또 선생님들도 담임선생님, 그 선생님이, 진짜 저 엄마가 그래도 좀 없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거의. 그래서 엄마처럼 되게. 제가 뭐 고민 같은 거 있으면 들어주고 그런 서포트 해주는 어른이 필요한데, 주위에 마땅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솔직히 00 선생님한테 그런 고민들이랑 그 거에 대해서 답 같은 거 말해주고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제가 막 그런 거 들으면 좀 안심되고 많이 그러잖아요.(이원심)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에 시달렸던 영주는 자신의 호소를 거짓말로 치부해 버린 학교 선생님과으로부터 상처받은 아픔을 자신이 속해 일하고 있는 자립지원기관 선생님을 통해 치유받고 있다. 영주의 이야기처럼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믿음은 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위로를 가져다준다.

나한테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 같이 나를 일으켜 줄 수 있게 해 주는 사람들. 또 누가 옆에 있다는 그런 느낌. 혼자 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있으니까.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시간이 생겼다는 거. 그 때는 내 시간이 없었으니까. 지금은 제 시간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윤영주)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원과 지지를 받기보다는 심한 폭력에 시달렸던 경미는 청소년지원기관에서 만난 선생님과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치료가 됐다고 고백한다. 청소년지원기관의 선생님은 경미가 가족의 폭력으로부터 도망치거나 사고를 쳤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서 자신을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지지자로 자리매김하였다.

중학교 때 이걸 무슨 도움을 받은 건 아닌데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마음의 치료가 됐다고 그래야 되냐? 집에서 계속 맞는데, 제가 맞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끔 왔어요. 와 갖고 선생님 저 이랬어요, 이랬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선생님이 진짜 뭐 도와주고 싶은데 어쩔 방법도 없고, 진짜 선생님이 집에 한번 가 볼까? 아니 안 가셔도 돼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런 마음의 치료가 많이 됐어요. 선생님이 이제 제 말 들어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자퇴할 때 그 때도 여기로 찾아왔어요. 교복 입고 찾아 왔는데 …(중략)…그래서 ‘너 자퇴해라 해라, 해도 되는데 대신 여기 와라, 선생님이 도와줄게.’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것도 되게 감사했죠. 일단 나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검정고시 이런 것도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그것도 고마웠고, 그래서 또 세 번째는 자수할 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데서 자수할 때 경찰서나 이런 데서 안 좋아하세요. 기관에서 이런 기관에서 청소년들 도와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 하면서 도와주려고 그런다고, 어린애들이라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그런다고 싫어하세요. 그 쪽에선. 그런데도 용기를 내서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갔잖아요. 가서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인사를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안아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가자마자 수갑 찼거든요. 1년 반을 도망쳤는데 또 도망칠지 누가 아냐고 그러면서 가자마자 수갑 찼거든요. 그것도 선생님 덕분에 1년 반을 깬 거 아니에요. 2년을 살아야 되는데, 6개월만 살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했고. 세 번째는 갔다 나와서 또 선생님이 잘 갔다 왔냐고 안아주시고 이럴 때 고맙고.(이경미)

마) 롤모델, 본받고 싶은 존재

이러한 노력들은 가족과 학교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여성청소년들이 어른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인 시선을 바꾸게 한다.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의 극심한 폭력에 시달린 영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들어주고 자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생님을 만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모든 어른이 다 아버지와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그 때 좋았던 게) 내 얘기를 누가 들어준다는 거. 말하고 나면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미술치료를 같은 경우는, 그리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리는 걸 싫어한다고 표현을 하니까 다른 형식으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생각이나, 내가 바라보는 시선 같은 거(가 달라졌어요).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던가. 예전에는 어른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른들도 그럴 순 있겠지. 그 사람도 그 때는 이런 마음이었겠지. 이랬겠지. 또 아빠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빠도 그 방법밖에 몰랐겠지. 나를 다독이는 방법은 몰랐겠지. 아무래도 큰애다 보니까 엄마랑 이혼했다 보니까 나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겠지.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그 방법은 아니지 라고 생각이 되요.(윤영주)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어머니의 폭행에 시달린 수연이는 전국을 떠돌았다. 우연히 청소년보호시설 선생님의 도움으로 대기업에서 후원하는 청소년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되고 또 유명 영화배우를 멘토로 만나게 되었다. 현재 그룹홈에 머물며 생활하고 있는 수연이는 그 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이 성장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고 인식할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여기는) 자기의 진짜 의견과 자존감을 중요시하는 거 같아요. (그 전까지는 쉼터에 하루, 이틀 있었는데, 지금은 1년반 가까이 이 곳(그룹홈)에 계속 남게 된 이유가 나를 존중해주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예?) 네. ○○(청소년지원단체) 안에 ◎◎(그룹홈)가 소속되어 있는 거니까. ○○이 제 인생에 반환점이죠.(김수연)

수연이와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청소년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곳에서 일하는 선생님이나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롤모델로 삼고 닮아가고자 하는 여성청소년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희진이는 부모 이혼으

로 가출 후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시작했다. 온라인 상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사이버 또래상담자가 말을 걸어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면서 성매매를 그만두었다. 또한 자신과 같이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이버 또래상담자의 조언으로 컴퓨터에 머물게 된 경민이는 또래상담을 하는 언니를 롤모델로 삼으면서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있었다. .

여기서 제일 큰 언니, 제일 오래 있고,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사또(사이버 또래상담)를 하고 있는. 되게 멋있죠. 여기 다니면서 검정고시 봐서 대학교 다니고 있고, 17살 때부터 사이버대학교 다니면서 그런 모습이 되게 큰 영향력이. 자기 꿈을 막 되게 열심히 찾고 이런.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제과·제빵을 하고 싶다.'라고 확신이 생긴 게 그 언니를 보면서. 되게 뚜렷하고, 자기 목표가. 자기 하고 싶은 걸 찾았고, 그러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 하나에 몰두하고 싶다. (임경민)

여러 차례의 가출과 키스방 알바로 거리생활을 하던 은경이는 거리상담 선생님을 만나면서 사회복지사와 같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미혼모로 미혼모 보호시설에 머물며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혜경이 역시 시설의 선생님을 자신의 롤모델로 삼아 유치원 선생님이 되고 싶어한다.

아, 그리고 제가 지금 또 하고 싶은 직업도 있어요. 이번에 생긴 건데요. 쉼터 선생님들 보면서 돈은 별로 못 벌어도 제가 인생을 즐기면서 일을 즐기면서 사회복지사도 되게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요즘 많아요, 그냥.....사회복지사들은 인상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차은경)

(Q. 유치원 선생님 되고 싶다 이런 건 언제 생각하게 된거야? 애기 낳고 나서?) 그냥, 여기서 교육 하거든요. 할 때 국장님이 해주시는 거 보면, 애기에 대해 잘 아시고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럴 땐 뭐, 이런 거 보면서 저도 공부 그런 거 해가지고 애기한테도 잘해주고 싶고 잘 키우고 싶고 그래요.(한혜경)

다영이의 경우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고 집을 구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를 보면서 무의미하게 돈을 벌고 쓰고를 반복하는 가출생활에 회의를 느껴, 언니와 같이 하던 노래방도우미를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친구는 이제 처음에는 공부에 욕심이 있다가, 그래서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욕심이 없어지니까 일 욕심이 생겼다가 근데 이 일을 하면서 이제 돈 욕심이 생긴 거죠. 그니까 돈을 악착같이 그냥 모으게 된 거예요. (Q. 아,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뭔가 이루는 게 있는데?) 저는 그냥 험프게 다 써버리니까. (Q. 그럼 다영이도 뭔가 하나를 목표로 삼고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네.(박다영)

2) 변하는 아이들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은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희망을 발견하게 하고, 나름의 삶의 목표를 갖게 하며,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한다. 공부에 관심 없이 ‘좀 놀았던’ 우리는 지역사회복지관 선생님을 통해 소개받은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좀 놀고 뺑 뜬던’ 윤정이도 자발성을 독려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대안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스스로 검정고시 모임을 만들어서 해보고자하는 자발적인 노력을 보이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복지) 선생님이 없었다면 여기도 몰랐고,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도 안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봉우리)

(Q. 고입 검정고시도 도와줘요?) 학교에서요? ☆☆에서요? 아니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검정고시 소모임도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처참히 실패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시안을 가지고 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했거든요. 우리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검정고시 보는 애들 들어와서 계속 하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안됐어요. 아직 그 프로그램 준비가 부족해요.(김윤정)

청소년지원기관에 연결되어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 원경이 역시 검정고시 준비와 컴퓨터 자격증을 공부하면서 삶의 의욕을 북돋우며 변화된 자신을 스스로 깨닫고 희망을 갖는다.

야! 나도 이제 하고 싶은 걸 하고, 조금이나마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겠구나.……지금은 그런 책임감이 생긴 거 같아요. 나와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안 나오면 내가 손해다. 컴퓨터 자격증도 지금 준비 중이고 또 뭐 검정고시도 안 하면 그냥 제 탓이고, 여기 안 나와서 돈 안 나오는 것도 제 탓이고, 저한테 불이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알바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불이익이 올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제가 안 나와서 월급 안 나오는데

빼고는 없잖아요. 여기 다녀서 손해볼 거 없고, 나 잘 되라고 도와주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막지는 않으니까.(최원경)

가출과 학업중단 후 뺑 뜯기, 아리랑치기, 절도, 성매매 등으로 경찰서를 드나들기도 하고 각종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다 여성청소년지원기관의 도움으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며, 인터십 등을 통한 직업체험으로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것과는 다른 긍정적 경험을 축적한 영주는 이제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할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Q. 만약에 영주가 여기에서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또 이 공간 밖에, 지원체계 밖으로 나가게 되어서 혼자 자립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어려워지면 다시 예전처럼 그런 걸 하게 될 거 같아요?) 아뇨. 지금은 성인이 되었고, 나도 혼자 살아야 하고, 지원에 기대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야 할 때가 된 거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하나 하면 여기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자연스레 나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기대게 되요. 그래서 쉽터가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쉽터가 다 그래요. 제가 그걸 쉽터에서 들었었어요. 나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나한테 해 주는 게 그냥 당연한 거구나. 부모님이 아닌데 너무 당연한 거구나.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니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나도 돌아서야 할 때가 올 거고, 이 사람들도 나한테서 돌아서야 할 때가 올 텐데 그러니까 나는 돈을 열심히 모아야 하고, 여기에서 나가도 열심히 모아서 다른 데에 잘 쓸 수 있게. 적금도 들고 돈을 잘 쓰고 내보내야 할 돈은 따로 내보내고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아요. (윤영주)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으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성매매청소년지원기관에 넘겨진 연아는 성매매방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자신의 몸이 소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이러한 깨달음으로 예전과 같이 아무렇지 않게 성매매를 하게 되지는 않게 되었으며, 지금도(연구자를 만나는 날) 검정고시 준비할 학원비 마련을 위해 PC방 알바를 구하는 곳에서 면접을 보고 왔다고 한다.

(5박 6일 성매매방지 관련 캠프를 갔을 때 좋았던 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까운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편했던 거 같고. 제일 편했던 거는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다 친절하시다고 할까? 친근감 있게 대해 주셔서 그래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지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솔직히 한 번도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

만 그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던 거 같고요.……딱히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상담선생님도 계시고, 거기 담당선생님도 계시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알게 해 주셨던 거 같아요. 진짜 내 몸이 소중한 게 당연한 건데, 그 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막 해도 나는 상관없겠구나 그랬었는데. 그런데 아니더라고요.(윤연아)

나.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한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절한 사회적 지원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과 목표를 발견하게 하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이들에게 걸핍된 안전과 사랑, 인정에의 욕구가 실현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야겠다고 자신을 추스르는 모습은 이들 또한 보통의 여성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적 서비스를 지원받으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여성청소년들은 소수의 선택된 사례들로 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더 많은 여성청소년들이 적절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개입 등으로 여전히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1) 부적절한 초기 개입과 서비스 제공의 경직성

학업 중단에 이른 여성청소년 중에는 이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 폭력 등 가족문제로 인한 가출이나 무단결석이 원인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 은영이 또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가출을 반복하면서 학업중단에 이른 경우다. 부모 이혼 후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은영이는 엄마를 닮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극심한 폭력에 시달렸다. 여러 번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에서는 간단한 조사만 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아버지를 계속 되돌려 보내는 일이 반복되면서 은영이는 결국 본인이 아버지를 피해 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번은 목 졸리다가 쓰러졌었어요. 우리 오빠가 경찰 불러서 저 병원에 가고, 아빠는 조사 받고. (Q. 그 다음에 아빠는 어떻게 됐어요?) 아빠는 계속 집에 있었어요. (Q. 금방 풀려나서?) 네. 제가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경찰아저씨가) 가족끼리는 못 넣는다고, 감옥에 못 넣는다고 그

래서.....그래서 경찰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Q. 그런데 한 번도 은영이네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려는 게 없었어요?) 아빠는 경찰 아저씨에게 좋은 쪽으로 말하니까. 내가 잘못된 걸로 말하니까요. 애가 늦게 들어와서 아빠한테 종아리 몇 대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나까 경찰 아저씨가 믿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옆에서 눈빛을 줘요. 그래서 내가 아! 맞다고 내가 잘못 했다고. 그리고 문 닫으면 무슨 말하려고 했냐고 하면서 또 때려요.(하은영)

은영이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이 가정폭력에 적절히 개입하지 못함으로써 아버지의 폭력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선택한 가출과 그로 인한 학업중단은 이제 만 14살인 은영이를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지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 대구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한 경험 이 있는 경민이도 경찰에 미성년 성매매 신고를 해도 업주가 풀려나고, 미성년자인 자신에게는 폭력적 언사를 사용하는 등 경찰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반감을 보인다.

신고를 해도 별 마땅치도 않은.....다 풀려나요. 그 사람(업주)이 거짓말 하는 거에 경찰들이 속는 건지, 속아 주는 척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풀려나고, 경찰들도 너무 싸가지가 없고. 학생이라고 혼자가면 막 대하고, 그런 데서 일했다고 하면 막 대하고, 없이 보고 천하게 보고. 이렇게 경찰들이 먼저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막 그런게 없는 것 같아요. 신고도 해봤는데 하루 만에 풀려나더라고요. 분명히 미성년자가 성매매 하는 것도 잘 못 된 일이고, 성매매 시키는 것도 잘 못된 일인데, 그냥 가서 사장이 어떻게든 말하겠죠. “나 아니다.” 이렇게. 근데 그거 그대로 믿고.(경찰들이) 엄청 막 대하고 때리기도 해요. 진짜로 보면 영화 찍어요. 판자 같은 걸로 때리잖아요. 그런 걸로 때리고. 나는 좀 진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빨리 말하라고 자기 시간 없다고 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고, 자기들도 바쁘니까 나중에 오라는 등 갑자기. 이런 거 되게 어이없는 것 같아요.(임경민)

이러한 사례들은 사법적 개입이 필요할 만큼 절박한 위기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들에게 경찰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지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가 하면,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부모를 피해 가출한 청소년에게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면, 갈 곳 없는 줄 알면서 하루만 자고나가야 하는 규정에 무조건 맞출 것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듯

한 모습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당한 처사로 비춰지고 있었다. 청소년지원서비스 이용을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역할을 하는 청소년상담창구가 이처럼 불만과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1388 상담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략)…… (Q. 뭘 말하고 싶는데?) 많죠. 1388 전화하면 싸가지가 없다는 등. 너무 불친절하다는 등. 무조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조건 우리가 미성년자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건 당연한데,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고 그러면 며칠간 시간은 줄 수가 있잖아요. 한 3일, 5일? 근데 그런 것도 안 주고, 밀도 끝도 없이 “이게 나라에서 법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애들이 안 가죠. 알면서도, “가면 전화 해, 집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이라고, …… (중략) ……그냥 진짜 ‘하루만 자고 나가야 돼.’ 이런 것도, ‘너 여기서 하루 밖에 못 있으니까 빨리 결정해.’ 임시 보호소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루 만에 모든 걸 결정하라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걸 하루 만에, 우리가 나가면 갈 데 없는 거 빨리 알면서 하루 만에 어떻게 이걸 다 정리하라고 하지?(임경민)

어머니와의 불화로 중학교 1학년부터 쉼터를 전전한 현희는 역시 청소년지원기관이 자신들의 처지나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경직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장기쉼터로 옮기고 이랬을 때는 어땠어?) 되게 가기 싫었어요. …(중략)…장기쉼터에 제가 적응을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싸세다 그래야 되나? 머리 말리는 것도 조금이라도 물기 있으면 못 올려 보내게 하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쉼터) 거기도 외출은 못했지만 그런 일일이 사생활 간섭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못 참고 제가 나왔어요. 그 상담선생님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여기 못 있겠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제가 교회 가는척하고 짐을 다 놔두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것만 가지고 딱 나왔어요.(김현희)

2) 청소년지원기관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청소년지원기관이 소수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경우, 검정고시 준비와 같이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학습지원서비스는 충실히 제공될 수 있으나, 기관 자체가 갖고 있는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인력 또한 부족

한 상황이라 실무자가 직접 개입해야 하는 서비스는 충실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원경이의 경우가 그런 사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관련한 학원 정보를 찾아놓고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실무자와의 상담을 기다려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다른 자활이 있어요. 성인 자활. 거기 가서 컴퓨터 수업 받고 1시 안에 여기까지 들어와요. 밥은 알아서 해결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할 거 하는 거죠. 공부면 공부. 할 게 없는 사람은 그냥 책 읽거나, 학원 준비하는 사람은 컴퓨터 갖다 학원 찾고. 그리고 평일 날에는 그냥 9시 반까지 기관에 와서 책 읽고 공부하고 뭐 그거 밖에 없어요. (Q. 그러면 원경이는 와서 뭐 해요? 그 시간에?) 저, 학원 다 알아 봤는데, 상담을 해야 하는데 바쁘셔서 책만 읽고 있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는 거 같아요? 원경이가 보기에?) 그냥 허무하게 보내는 거 같아요. 너무 긴 시간 아무 것도 안 하고, 애기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바빠서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계속 기다리게 해 놓고 계속 저는 덩그러니 앉아서 책만 읽어야 되고, 할 것도 없고.(최원경)

이와 더불어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 중에는 청소년문제나 청소년들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사례는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나 청소년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종사자나 성차별적 태도를 보이는 종사자에 의해 여성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지원받은 서비스가 사실상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심한 폭력으로 일상적인 가출을 일삼는 원경이는 청소년지원기관으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기관담당자의 이해 부족으로 폭력 피해자인 원경이에게 아버지의 폭력에 맞대응하거나 아버지의 폭력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포착하라는 잘못된 조언을 함으로써 원경이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생님은 내가 맞더라도 집에 있어라. 아빠랑 싸워라 그렇게 애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걸 녹음해 놓고 동영상 찍어 놓고 그 증거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좀 별로.(최원경)

어머니의 재혼 후 할머니의 폭력과 가난으로 가출하고 학업을 중단한 후, 조건만남을 위장한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잡혀 들어간 현민이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호소한다. 보호관찰소에서 나온 상담선생님과 1달에 한번씩 의무적인 상담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상담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 상담선생님으로부터 자신이 전혀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현민이에게 선생님이 해주는 ‘똑바른 말’이 설득력이 있게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Q. 보호관찰소에서 나온 상담선생님과 상담이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솔직히 모르겠어요.……그 선생님 뭔가 제가 뭐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제가 막 이래가지고 싫어요. 이러면 그거를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싫구나, 그런데 싫을 수 도 있어 대충 넘어가면서 설득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싫어하면 안 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진짜 똑바른 말만 얘기를 하니까 웬지 오기가 나는 거 있잖아요. 난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이걸 너무 바로 잡아 줄려고 하니깐 좀 듣기가……(박현민)

그런가 하면, 여성청소년에게 ‘여성다운’ 처신을 강조하며 ‘왜 나왔냐? 집에나 얹전히 있으라’고 했다는 실무자의 발언은 청소년전문기관 실무자의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실망스럽다.

그냥 1388 갔을 때, ‘너는 여자애가 왜 나왔니?’ 이런 식으로. 남자애들한테는 그렇게 말도 안 하면서 여자니까. 분명히 1388에서 여자들이 그런 걸 많이 봤을 텐데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다른 애들한테도 그랬겠구나. 어이가 없더라고요.(Q.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거야?) 그냥, 밀도 끝도 없이. 인적사항 쓰고 있는데, ‘왜 나왔니? 집에나 있지 얹전히.’ 뭐 이런 식.(임경민)

3)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재생산되는 일탈

그런가 하면 청소년지원시설에서 전문가나 실무자들의 개입에 의해 청소년 일탈행위가 완화 내지는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제어되지 않고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이후 가출해서 어려서부터 친했던 남자친구들과 무리지어 전국을 떠돌았던 수연이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어머니의 폭력과 이모에 의

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소당하는 등 많은 상처를 갖고 있었다. 1388을 통해 알게 된 한 쉼터에서 또래 입소자들에게 폭력을 당하자 수연이는 ‘엄마도 아니고 이모도 아닌데 내가 더 맞고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맞서 폭력으로 대응하다 쉼터에서 쫓겨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원래는 (쉼터의 존재에 대해) 몰랐죠. 몰랐는데 제가 집을 처음에 나와서 여자애들과 가장 먼저 연락이 됐어요. 개네가 그 때 가출을 해서 ◇◇ 쉼터에 있었어요. 오라고 해서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쉼터가 뭔지도 몰랐었어요. 있다 보니까 쉼터가 ◇◇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388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남자애들이 그렇게 해 줘 가지고. 그런데 해 보니까 오래 있을 곳은 아니었어요.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솔직히 그런 걸 다 떠나서 애들이 개념이 없어. 원래는 장기 쉼터가 아니니까 자꾸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개념이 없어요. 버릇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맞을 짓만 골라해요. 진짜 애 때려서 쫓겨났어요. 잘 참는 성격도 아니지만. 솔직히 어떻게 참아요. 내가 그렇게 맞으면서 참은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내가 참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엄마도 없고 이모도 아니고.(김수연)

수연이와 마찬가지로 폭력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헤미도, 폭력으로 소년원에서 6개월의 징역형을 살은 경미도 그 곳에서 구타를 당했다고 토로한다. 보호관찰 처분으로 외출이 금지된 보호시설에 있었던 헤미와 소년원에 있었던 경미는 이러한 폭력에 대해 실무자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Q. 쉼터 생활은 어땠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애들이 신입들 들어오면 막 때리고 장난 아니에요. 어리든 나이가 많은 때려요. (Q. 거기에서 때리는데 안 막아요?) 네. 안 막아요. 말리면 더 하니까. 언니들이 머리 짧게 자르고 밤에 선생님들 다 잘 때 방으로 와서 때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무 심해요. 그제. 억누르는 게.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기간이 연장되요. (Q. 거기에서 상담을 해 주거나 헤미한테 뭔가 프로그램을 해 줘요?) 아뇨. 상담 안 해 줘요. (정헤미)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왕따. 맞고 막 욕 먹고 청소시키면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처음 들어가면 대부분 그런 거를 겪어야 돼요. 소년원에서는. 선생님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딱히 그렇게……왜냐하면 200명이 넘는데.(이경미)

뿐만 아니라 쉼터 언니들을 통해 인터넷으로 조건만남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성아의 사례는 쉼터 종사자들이 입소자들간의 관계나 정

보공유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 때는 그냥. 뭐 모르고 철없던 시절이어서 그냥. 밖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도 해봤고 막. 안해본 일이 없고. (Q. 어떻게 하게 된거야?) 예전에 그 어렸을 때 컴퓨터에 살 때 그 때 어떤 언니가 그냥 알려줬었거든요. 그 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막상 거기서 나오게 되니까 그런 거 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아요.(유성아)

4)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기피 현상

휴대폰 사용금지, 흡연금지,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외박 금지, 친구들끼리 입소 불가, 동성애 성향 발각 시 퇴소 조치 등 대부분의 컴퓨터가 규율이 엄격하다. 컴퓨터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청소년 관리 및 일탈방지 차원에서 엄격한 규율을 만들고 이를 지키도록 주문하고 있다.

(Q. 그러면 영주는 어디로 갔어요?) ○○○○ 성인 컴퓨터예요. 19살이면 나이가 애매해서 청소년 컴퓨터에 들어가면 얼마 안 있다가 나와야 해서…… (지난번에 있던 컴퓨터에서 지낼 때는 어땠어요?) 거기는 괜찮았어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편했어요. 외박도 되고, 3일 전에 말하면 되고, 한달에 2번 되고, 외출도 말 하면 되고. 그런 게 좋았는데. ○○○○은 외출은 안 되고 주말에만 외출 되고, 어쩔 수 없잖아요. 주말에만 하게 되니까 평일에는 일을 하고, 여기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 이후로 학원 다니고 뭐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일 다니고, 9월부터 같이 일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주말에 외박을 자주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냥 그런 거죠. 너가 계속 외박만 하면 우리가 너를 볼 시간이 언제냐. 맨날 외박만 하면 어떻게 하나. 평일에 외박도 못하고 평일에 외출도 못 하는데 주말에 내가 하는 게 무슨 상관이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도저히 여기에서 못 살겠는 거예요. 규칙이 나랑 너무 안 맞는 거예요. 평일이라도 외출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그룹홈으로 들어갔어요.(윤영주)

그러나 영주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일정한 생활규칙 없이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던 청소년들이 보호시설 등에서 엄격히 정해놓은 규율을 따라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업중단과 가출 등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보호시설이 엄격한 규율로 이들을 관리·선도하고자 하나, 은영이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엄격한 규율이 결과적으로 컴퓨터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된다.

(Q. 장기쉼터에는 왜 안들어가요?) 담배 못 피우고, 외출도 금지고, 친구랑 연락도 못 해요. 컴퓨터도 못 해요.거기에서는 할 게 없어요. 컴퓨터도 되면 할 게 있는데, TV도 언니들이 다 보고, 저희는 거기에서 (할 게 없으니까) 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독서 같은 거냐하고.(하은영)

더구나 이런 보호시설에서 입소자들간의 충돌이나 마찰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듯이 보인다. 앞의 수연이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쉼터에 먼저 입소한 또래들의 텃세가 있고, 이로 인해 입소자들간에 폭력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쉼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양산하고 쉼터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현정이나 형란이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현실을 보여준다.

쉼터도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라고 해서. 거기 들어간 사람마다 다 맞는다고. 저희 또래가 있으니까 그냥 맞는다고.(김현정)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쉼터에 가면 폭행당한다, 맞는다.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냥 소문인데도 가기 너무 찝찝한 것 같아요.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김형란)

(Q. 쉼터는 왜 안 가 봤어요?) 거기는 꺼림직한 게 많아요.(한진영)

결과적으로 거리에는 학업중단과 가족 폭력 및 가족 해체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절실한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쉼터는 청소년들의 기피대상이 되어 입소자가 부족한 많은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5) 학업 지원의 한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한 방편으로 검정고시를 보려한다. 그러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안학교들의 경우 재정상태가 어려워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어렵다. 윤정이가 다니는 ☆☆도 학교의 열악한 재정에 맞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한계로 프로그램의 선

택의 폭이 넓지 않고 예산이 적게 드는 인문학쪽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Q. 이 학교에서의 배움의 과정이 본인의 욕구를 채우기에 충분한지?) 채워는 지는데 부족하죠.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하는 것도 그게 있기는 좀 한데 ☆☆☆학교도 경제적인 여건과 이런 게 좀 약간 부족하잖아요. 약간 허술하거나 아니면 퀄리티가 약간 좀 떨어진다거나 그런……그런 게 좀 있고, 저희가 이번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기획을 했거든요. 기획을 담당하는. 그런데 여기서 최대한 챙기고 별로 많이 안사고 저렴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 사용비랑 이런 거도 저렴한 쪽을 찾아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 그런 거를 떠나서, 저렴한 공간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았다고 생각을 들었거든요. 이번에 (학교가)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제가 다른 거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검정고시라던가 다른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사까지 겹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이사 때문에 이사랑 다른 생각하고 막 겹치게 되고 막 복잡해지고,……그리고 (학교 커리큘럼이) 뭔가 다양한 선택의 폭은 없었던 거 같아요.(김윤정)

그러나 학업중단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이보다 더 큰 고민은 대안학교를 다녀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학교는 공부 안 해도 졸업장을 주는데 대안학교는 학교를 다녀도 검정고시를 봐야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서 다시 일반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소희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준다.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소희, 우리, 윤정이, 원심이 모두 검정고시 준비과정에 큰 부담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공부가 진짜 싫거든요? 근데 거기(일반학교)는 공부 안 해도 졸업장은 주잖아요. 근데 여기서 검정고시를 봐야 되니까 너무 싫어요. 그게 진짜 싫어요. (Q.그것 때문에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우소희)

지금은 검정고시하고, 알바……(공부를) 일대일로 가르쳐 줄 사람.(봉우리)

혼자는 하고 있는데(검정고시) 옆에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그 것 때문에 스트레스 (김윤정)

(공부) 누가 가르쳐주면 그거 받아 적으면서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게 힘들어요.(이원심)

이와는 달리 미혼모인 혜진이는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최근 마련된 미혼모 위탁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했으나, 원적학교가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는 점에서 위탁교육 혜택을 받지 못해 낙담한 사례이다. 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제17조의2)’ 조항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이라는 입법취지를 생각해 볼 때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요청된다.

(Q. 그래서 자퇴서를 쓴 거야?) 예. 그래서 교육청에 있다가 △△에 들어와서 국장님이 한번 신고를 해서 ◇◇대안학교 있거든요. 그걸 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대에 부풀었죠. 졸업할 수 있구나 라고. 그런데 안 된다 이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평생교육법 때문에. 그게 결된다고. 그냥 다른 애들이나 다른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법이랑 그게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하면 되는데, ◇◇대안학교로 하면 되는데, 평생교육법이라 안 된다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요... (유혜진)

6) 진로 및 자립 지원의 한계

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사업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연계해준 노동부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참여했던 다영이는 자신이 원하는 뮤지컬 배우나 레크레이션 강사와 같은 분야는 없어서 할 수 없이 미용을 하겠다고 했다고 아쉬워했다.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노동부 뉴스타트 프로그램) 제가 하고 싶은 건 뮤지컬 배우나 레크레이션 강사나 청소년 지도사인데……미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어요. (Q. 그러니

까 그 국비지원 프로그램들을 봤는데 정작 다영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없더라는 거야?) 네, 한계가 있더라고요. (Q. 그걸 한번, 내가 진짜 이걸 꼭 해야 되라기보다, 난 뭘 잘하지? 뭘 하고 싶지? 그런 마음에서 애네 들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어요.(박다영)

그런데 이러한 지적은 다영이의 이야기 뿐이 아니다. 뉴스타트에 참여했던 다른 여성청소년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지원가능 분야가 거의 미용, 제빵 분야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처럼 여성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일부 특정한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여성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과 적성을 살려주기 어려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자활지원사업은 독립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성인자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범운영되고 있는 사업으로 노동부의 뉴스타트보다 더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자활지원사업의 도움을 받고 있는 원경이가 하고 있는 이야기도 뉴스타트에 참여한 다영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지원받지 못하고, 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뮤지컬 하는 데에서 보컬 트레이닝을 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시켜 주고 계세요. 학원을 보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내기 같은걸 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그 때 보내줄게. 내가 저걸 하면 그 때 보내줄게. 제가 바리스타를 했었거든요. 전 바리스타 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했는데.....(중략).....사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고마운데 하기 싫은걸 하라고 그러면은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원래 (학원비 지원해 주는) 분야가 한정돼 있었는데, 지금 요즘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때부터 분야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진 거 같아요. 그냥 원래 바리스타만 고집을 했었거든요.(최원경)

한편, 한 여성지원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청소년자립사업은 자립지원이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여성청소년들이 실제로 매장을 경영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들은 매장에서 판매할 음식을 만들고, 매장을 관리하며, 수입 및 지출 관리 등을 직접 하면서 인문학 강좌, 등산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여성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에 부딪히며, 2~3달, 길어야 4달 정도 버티다 그만두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성아는 일과 학업과의 병행을 힘들어했으며, 수연이는 청소년의 주도성을 키워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기관 내에서 자신들의 노력이 무시당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일을 그만두었다고 토로했다. 영주는 일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심신이 지쳐가면서 이곳에 무슨 목적으로 있는 건지 알 수 없게 되었다며, 이곳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결같이 프로그램이 좋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은 여성청소년의 자립을 전반적이면서도 세심하게 지원해주는 전문적인 코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그 때 여기 뭐 딱 들어왔을 때,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도 하고 싶고 학교도 다니고 싶다고. 처음에는 학교랑 그거랑 같이 했는데요. 학교 끝나고 바로 일하러 가고……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하다보니까 힘들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거기서 계속 일하다가 또 거기다 그만두고 일을 잠깐 쉬고 학교만 다니고. 거기 프로그램이 너무 오래해서 힘들어요.(Q. 예를 들면?) 인문학이나, 등산이나, 요가나……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에 하는 건데 그래도 좀 몸이 힘들고. 일주일마다 그게 계속 연속으로 있는 거.(유성아)

저는 너무 힘들어서 그만 둔 거예요. 일이 힘들진 않았는데……그냥 조금……여기가 청소년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고 청소년에게 주도성과 그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만들고 그런 음식을 사람들에게 팔고 프로그램이나 메뉴나 그런 걸 직접 개발을 하고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웬지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니네가 한번 만들어 봐 그래서 죽도록 몇 주 동안 해 놓으면 우리 꺼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다른 걸 해 주고. 선생님들이 딱 만들어서 이거 해야 돼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또 여태까지 우리가 해 온 게 있는데. 그런데 그거 다 없이 이걸 다시 새로 익혀서 만들어야 되고……그거를 하다가 점차 알게 된 거고, 우리가 지금 전혀 존중받지 않구나 하는 거를 하다가 알게 된 거고……그런데 프로그램은 되게 좋았어요. 공부도 시켜주고. 인문학, 근무시간에 신체활동 하러 탁구 치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건 되게 좋은데 제가 그거 하러 거기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진짜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얻어지는 게 있구나 했는데, 전혀 가면 갈수록. 솔직히 아무리 좋아도 내가 존중받지 못 하는 곳에서 있고 싶지 않았어요.(김수연)

처음엔 그냥 좋았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기술을 배우는 거. 커피도 기술이잖아요. 그런 걸 배울 수 있다는 거. 설레임 같은 거.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별로.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피로가 쌓이고 내가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일하게 되고 시간을 자꾸 때워주고 그러면서 힘들고 또 ……(중략)…… (매장에 일하러 들어오고 처음에) 인문학,

등산, 요가같은 거 하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냥 몸이 되게 찌뿌둥하던 게 괜찮아지고 해서 좋았는데 지금은 몸이 점점 지쳐가고 정신까지 힘들니까 애네도 싫어요. 내가 힘들니까 다른 거 자체가 그냥 안 보여요.(중략).....(Q. 여기에서 뭔가 꿈을 찾는다고 보다는 정체된 상태로 일단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게 더 싫은 게 앞에 보면 십대자립실험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목적이 일인 건지? 자립인 건지? 인문학인지? 그냥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지. 솔직히 진짜 그래요. 어떤 때는 일이 목적이다. 매출이 목적이다. 어떤 때는 자립이 목적이다. 어떤 때는 인문학이 목적이다. 저희 여기 조건이 인문학 수업 안 하면 못 들어와요. 조건이 뭐 그래요.여기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미래를 생각할) 그럴 생각 할 거들이 없는 게 여길 벗어나야지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은 너무 지쳤기 때문에.(윤영주)

다. 학업 중단 여성청소년의 지원 요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사회적 지원서비스 경험은 이들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부적절한 초기 개입과 서비스 운영의 경직성, 취약한 재정 및 인력으로 인한 제한적 프로그램의 운영과 전문성 부족 등으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와 요구를 고려한 지원을 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들의 경험을 토대로 지원 요구를 살펴본다.

1) 청소년지원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중 가족의 지원이 가능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학업중단을 계기로 학교는 물론 가족과의 관계마저 단절된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정보처는 또래집단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구 중의 하나는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이다.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냐는 질문에 ‘정보’라고 대답한 진영이의 말처럼, 윤정이도, 성아도, 지수도 학교에서 나온 청소년들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중 많은 사람이 대안학교나 쉼터에 대한 정보도 없고 검정고시나 취업 정보 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며, 일부에서는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Q. 뭔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요?) 정보요,……자기도 옛날에 그랬다면 그런 애기도 들었으면 좋을 거 같고,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한진영)

학교에서 나온 애들 보면 학교 같은 경우 학교에서는 대안학교를 모르거나 대안학교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만약 학교를 나오게 된다면 그런 애들이야말로 정말 방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애들한테도 알려주고 그런 것.(김윤정)

혼자 일을 구하려다 보니까 그게 어려워서…취업 정보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줘. 또 검정고시에 대해서 공부를 알려준다거나……대안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학력 취득이나 일자리카나 그리고 쉼터 같은 데 연계해줘서 그렇게 해줬으면 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유성아)

뿐만 아니라, 지수의 지적처럼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을 당했을 때 어디에서 상담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매우 필요한 과제중의 하나다.

상담해주는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찾아가야만 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여성 폭력에 관한 어떤 상담을 하는 곳은 어디에 있지?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찾아 가도 멀리에 있거나 혹은 뭐 그런 쪽이거든요…….(정지수)

제가 학교를 그만 두고 집을 나왔을 때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이랑 같이. 일을 했는데 저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애들은 다른 데서 일하고 그랬었는데, 무턱대고 시작했는데 이력서나 등본을 제가 내잖아요. 그런데 등본에 제가 혼자 있었던 말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여자고 보호받을 저기가 없고 학교를 안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일 때문에 그만두게 됐어요. 제가 성추행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 입장에서 부모도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제대로 안 해 줬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냥……흐지부지 끝난 거예요. (김수연)

학업을 중단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정보가 곧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현아와 다영이가 말한 미혼모들의 경우에 해당한다. ★★★과 같이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이 있음에도 현아와 다영이의 미혼모 친구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제가 아는 애 중에서 봤는데, 애를 낳았는데 모텔에서 지내는 거예요. 애 데리고, 노래방 도우미를 하면서 하루하루 번 것을 모텔비로 내고, 밥 먹고, 애기 분유 사고 그러면서 지내는 거예요……(쉼터) 그런 것을 모르는 애들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쉼터라는 걸 알긴 하는데, 거기서 얼마큼 안전하게 도와주고 그렇게 정확하게 모르고.(유현아)

제 친구가 지금 애기가 있거든요. 혼자 애기를 키우고 있는데, 친구 혼자 되게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조금 더 안 좋은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넉넉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 아니면, 개가 이제 마음 놓고 일을 못 해요. 애기가 집에 있으니까. 어린이 집에 맡길 수 있는 거, 그런 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박다영)

2) 대안교육 학력 인정 및 맞춤형 학업 지원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학업을 계속해서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야겠다는 생각은 떨쳐버리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하든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들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부딪히는 벽은 적지 않다. 우선은 대안학교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고, 대안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학비 마련이 어려워 다니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대안학교를 다니면서 스스로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소희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많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대안교육을 의무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의무적으로 대안학교에 보내줬으면……하는 게 있어요. 안 될 애들은 안 되겠죠. 밖으로 나오면 애들이 근데 저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고 와서 또 애들이 바뀌는……진짜 저희 기수 애들이 많이 바뀌었던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애들이 있는데 돈이 없고 이런 거를 모르고 이래가지고 방향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의무적인 걸로……해줬으면 좋겠어요.(우소희)

둘째,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도 따로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소희도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출석일수만 채우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나오는데, 대안학교에서는 왜 따로 검정고시를 봐야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바 있다. 민주 또한 대안학교에 다닌 것을 학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나도 학교 다니고 있는 것 맞잖아요. 솔직히 검정고시를 따로 챙겨서 봐야하는 것도 싫어요. 나도 이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왜 인정해 주지 않는지.(장민주)

셋째, 대안학교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취득이 이들의 누적된 학업결손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검정고시 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그 동안의 학업결손을 메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들에게는 현희나 현민이의 말처럼 ‘한명 한명씩’ 지도해주는 개별 학습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별 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들을 위한 개별 학습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이다.

검정고시 잘 보려면 학원을 다니죠. 근데 저는 분위기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대안교육인데 검정고시 공부를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게 딱히 제도권 교육이랑 똑같은 필요는 없죠.(박민혜)

프로그램 같은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학원을 되게 다니고 싶지만 무조건 공부를 가르치는 것 보다는 스스로 알 수 있게 팀별로 짜서 수학이 아니고 뭐 영어 이런 것도, 프로그램에서 발표를 하고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돈 문제도 조금, 학원 같은 것 다니는 것도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차은경)

공부방, 거기에 무료로 다니고 해서……한 명씩 한 명씩 지도해주니까 모르는 것도 바로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게 필요해서.(김현희)

(검정고시) 일대일로 하면 집중도 잘 되고 더 알 수도 있고, 공부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그런데 그런 것 지원해주는 데도 없고, 과외는 또 비싸고.(박현민)

3) 직업체험 등 진로 개발 지원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또 하나의 고민은 내가 무얼 잘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영주의 말처럼 자신의 소질이나 적성을 잘 알지도, 알 기회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혼자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영주, 보라, 은주, 현민이는 한결같이 나의 관심과 흥미, 적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직업체험을 하면서 정말 내게 맞는 일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싶어한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해줄 전문가의 조언과 직업체험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한다.

우리나이 때는 진로를 혼자 정하기는 어렵잖아요. 직업체험도 한번도 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직업체험을 하다 보면 내가 관심있는 분야에 관심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나는 이걸 안 맞다. 나는 다른 걸 해 볼래 해서 다른 걸 찾아볼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좋은 거 같아요.(윤영주)

내 적성에 딱 맞다,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는 정말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적성에 맞는다고 느끼는 게 뭘까 누군가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체험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이런 일이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객관적으로 보는 담당 코치님, 매니저?(남보라)

저도 제가 미래에 좋아하는 직업을 갖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하고 싶은 것 중에서도 직업을 어떤 길로 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직업전문센터 그런 단체가……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직업을 학생들한테 꼭 보여주면서 거기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직업을 몇 개 고르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직업을 고른 다음에 직업교육 전문센터에 가서 그 사람,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나도 실제로 한 번 해 보고, 거기서 내 적성과 흥미에 제일 잘 맞고 내가 자신 있고 잘 하겠다 하는 걸 선택했으면 좋겠어요.(김은주)

저같이 직업학교 같은데 가서. (직업학교 하는 프로그램들 보면, 친구 말로는) 캠프도 되게 재미있게 해요. 거기는. 몇 명, 한 30명 어울려 가지고 제가 말한 1단계, 2단계 에는 그냥 상담하고 그냥 직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이렇게 상담소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런 활동하고 직업 같은 거 미리 참여하고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박현민)

4)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의 제공

학업중단을 전후로 가출을 한 여성청소년들에게 안전하게 잘 곳은 절실한 요구이다. 가출 후 화장실과 공원에서 잠자며 거리생활을 했던 승은이는 ‘따뜻하게 잘 곳’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쉼터가 절실함에도 쉼터에서의 엄격한 규율은 그토록 절실한 따뜻한 잠자리를 외면하게 만들고 있음을 민지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민지의 이야기는 여성청소년들이 쉼터를 기피하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음을 앞에서도 살펴본 바 있다. 여성청소년들의 생활세계와는 동떨어진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경직된 운영을 하는 일부 쉼터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쉼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 보다 많이 여성청소년이 쉼터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말 안전하게 잘 곳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만날 화장실에서 자기도 하고 공원에서 자기도 했고 그러니까. 몸 따뜻하게 잘 수 있는 곳, 일단 나와 있고 가출을 했으면 트러블이 있어서 그런 거

잡아요. 그 때 같이 나왔던 친구는 아빠가 엄청 때리고 성추행하고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니까……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먹을 것을 지원해 줄 테니까 여기를 따라야 된다는 것도 우스운 것 같고……위축되어 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음이 안정되어야 당장 사는 것도 안정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최승은)

미국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공식적으로 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쉼터는 귀가시간도 정해져 있고,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술, 담배도 안 되고, 떠들어도 안 되고……개인적으로 세운 쉼터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 대안교육을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준다거나.(강민지)

여성 아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솔직히 저는 운이 좋아서 쉼터라는 걸 알게 되었지, 쉼터라는 걸 모르는 애도 많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어요.(김수연)

그런 애들도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성 그런 거(지원서비스 기관)를. 그런 걸 모르는 애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쉼터라는 걸 알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얼마큼 안전하게 도와주고 그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고.(유현아)

5) 경제적 지원 및 의료 지원

아버지의 폭력으로 가출을 반복하다 학업을 중단한 원경이는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자립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받는 수입의 2/3를 생계비로 아버지에게 주어야 하고, 이혼한 어머니를 대신해 엄마 역할, 아내 역할, 언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은 절박한 실정이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생활의 반복 속에서 생계비의 지원과 검정고시 학원비 등의 경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

일단 그 월급 받아서 저만 쓰는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한 2/3를 갖다 주고, 1/3은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저두 그러니까 집에서는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아내 역할도 해야 되고, 언니 역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아빠 혼자 벌어서 집세 내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걸 해서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최원경)

학원 보내주는 것, 수능학원. 아무래도 등록금도 많이 필요하고 학원도 돈이 많이 드니까, 솔직히 그거 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윤영주)

대학 그제(등록금) 너무 비싸잖아요……아버지도 돈이 없으신데, 제가 거기다 대고 할 수도 없고, 일 하면서 공부를 하자니 그거는 또 어려울 것 같고.(이원심)

평생 아르바이트는 안 될 건데, 모아 둔 돈도 없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살고 끝이고. 저금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정지수)

돈 문제도 조금……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원 같은 데 다니는 것도……검정고시 다니려고 하는데 검정고시 학원 못 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차은경)

집을 나와서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거나,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애가 거부를 하는 애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갑자기 급하게 돈이 떨어지든가 그러면 좀……그게 큰 액수면 안 되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빌려주실 있는 만큼. 애 능력을 보고, 무슨 자료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고 이만큼 빌려줄 수 있겠다.(유현아)

생리대나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쿠폰 같은 것 발행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이원심)

더욱이 은경이의 말처럼 여성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별로 없는 현실에서 노래방 도우미나 조건만남 등을 끊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회의 지적은 틀린 말이 아니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차은경)

또 다른 친구는 노래방에서 하는데 개도 모텔 달마다 잡고 사는데 계속 하루살이. 일단 경제적 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일단 생활비가 있어야 애네가 일을 끊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을 거 아니 예요. 지금 그 일을 끊으면 생계가 위험한 애들이예요. 거의 일하는 애들 아니예요? 그런 애들? 그러니까 돈……(우소희)

이 밖에 생리통이나 성병 등으로 인한 의료지원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었다.

저희 언니가 생리통이 되게 심하고 한달에 막 2번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초반에 언니가 몸이 좋지 않아요. 아토피도 있고 그래서 초반에 그게 걱정이 많이 되어서 혹시나 해서 산부인과에 갔거든요. 그런데 혹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애들도 혹시 그럴지 모르잖아요. 성관계를 많이 가지면 성병이 심해져서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개네는 그걸 모르고 그냥 야! 조금 있으면 낫겠지 하고 그냥 냅둘 수 있으니까.(김정선)

6) 정서적 지지자(멘토, 상담자)의 연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요구가 많았던 것 중의 하나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가족같고 친구같은 존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이는 우울증이 심한 지수의 이야기처럼 남성청소년보다 정서적 지

원에 대한 갈망이 더 큰 여성청소년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나 학교로부터 따뜻한 정서적 지원을 받은 경험이 별로 없는 이들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친구들은 삶을 별로 안 살아봤잖아요. 한계적이잖아요. 좀 친구들한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근데 어른들한테 들어야하는 그런 이야기도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엄마의 역할도 필요하고 아빠의 역할도 필요한데, 그 두 개가 다 안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어린 동생한테 그런 얘기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따뜻한 그런.(이원심)

조언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가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 보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그 길로 한 번 열심히 해 볼 생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김현희)

밖에서 좀 오래 있다 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많이 나아질 것 같아요. 쉽게 성매매 쪽으로 빠지는 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상담해주고, 개네들 뭐 힘든 것 있으면 상담해주고.(유성아)

제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가 다른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약물치료도 했는데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부작용도 일어나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맞춰 상담해주는 그런 기관이나, 상담해주고 조언해줄 수 있는 그런 상담이 필요한 것 같아요.(김현희)

제가 워낙 우울증이 심해서 그런 쪽에 상담이나.....그렇게 거창하게 상담 서비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यो.(정지수)

우선은 어른 친구가 한 명쯤 있으면 좋겠어요.....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선생님하고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정말 친구로서 서로 얘기하고 경험도 공유하고 그런 상황. 꼭 어른이 아니더라도 한명 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박민혜)

(멘토) 그런 사람을 한 번 갖고 싶기는 한데, 없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주인공이 힘들 때 찾아가는 할아버지나 현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김수은)

7) 성교육 및 성 상담

여성청소년들의 지원 요구 중에는 성과 관련한 교육과 상담에 관한 것이 있다. 이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놀면서 여성청소년들이 남자들을 만나게 될 기회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자발적인 성관계나 성폭력 피해경험, 또는 성매매를 하게 되는 현실을 이야기 하면서, 성교육을 받

을 수 있는 곳이나 돈 벌기 위해 성매매하는 여성청소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

학업을 중단하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면 오빠들이나 남자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나.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 몸을 함부로 하는 게 많을 거 같아요. 그건 자기 개인 사정이고 사생활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교육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런 식으로.(김수연)

성교육, 학교 안 다니는 여자애들이 학교를 그만 두는 이유가 그냥 놓고 싶어서 그런 애들이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 좀 안쓰러운 게, 남자애들은 그렇게 성관계를 맺고 싶어서 여자애들한테 막 잘 해주다가 성관계를 맺고 나서 안 만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기 몸을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돈을 벌려고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 쪽에서 일하는 애들 두 명 있는데, 개네도 다 돈 때문에 하는데 애들 표정도 진짜 안 좋거든요.(차은경)

쉽터 가서 이런 상담 하면서, 성관계든 집안 관계든 좀 그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저처럼 부모도 안 계시고 가르쳐 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다 들리는 소문으로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잘 못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안 보이게 얘기라도 할 수 있게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최원경)

5. 소결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은 총 41명으로, 이들의 학업중단 시점은 중학교 3년 동안 5~7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18명)에 이르러 집중적으로 발생한 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년별 학업중단 분포와 동일한 양상이다. 가족, 학교, 또래집단은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이 세 가지 환경들도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밀접히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학업중단이 개인과 환경들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 복합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가족환경의 경우 한부모가족이나 재혼가족, 부모가 없는 가족 등 가족의 구조가 해체 및 재구성된 사례가 전체의 약 61%로 그렇지 않은 사례에 비해 더 많았으며, 이들 가족은 후자보다 문화적 자본과 경제적 토대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양육자/보호자에 의한 가정폭력은 상당히 심각한 수

준으로 일상화되어 있으며,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할 어머니’의 부재는 여성청소년에게 ‘어린 엄마’라는 역할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비교적 빈곤하고 가부장적 가치가 강한 가족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문화자본과 경제적 토대가 약한 계급일수록 여성청소년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닌 ‘아내나 어머니의 연장선상에 놓인 여성’(변혜정, 2006)으로 위치가 바뀌기 때문이다. 가정폭력과 과중한 역할 부담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여성청소년들은 결국 생존을 위한 가출을 선택하게 되며, 이후 반복되는 가출은 결석일수 및 학업결손 증가, 일탈에 대한 낙인으로 연결됨으로써 학업중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버린다.

결핍된 문화자본은 학교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어려서부터 가족으로부터 다양한 문화적 자본을 축적한 또래들에 비해 그렇지 못한 여성청소년은 학교의 교육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 할 뿐 아니라 잦은 결석은 이들의 학습능력을 더욱 저하시켜 버림으로써 성적에 의해 서열화되는 학교공간에서 또다시 차별받고 소외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게다가 각종 규제와 교칙들에 어긋나는 행위까지 하게 될 경우 학교는 이들에게 ‘문제학생’이라는 낙인을 찍고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체벌과 언어적, 심리적 폭력을 행사한다. 가정에서처럼 또다시 폭력이 재현되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 학교라는 공간을 여성청소년들이 꼭 참고 다닐 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문제학생’인 이들에게 자퇴나 전학을 권유하거나 학교 행사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가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에 오히려 앞장서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집담회에서 여성청소년의 학업중단 배경에는 ‘관계의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단정지은 한 상담교사의 말처럼 또래집단 역시 학교를 그만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청소년들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래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탈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학교를 그만둔’ 친구를 보게 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그들을 모델로 삼기도 한다.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해 본 경험도, 경험에 필요한 자본도 없는 ‘계층적 동일성’이 또래집단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집단따돌림과 같은 또래와의 관계단절, 소통이나 배려보다는 군대문화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폭력적이고 위계적인 집단문화 등은 관계의 친밀성을 중히 여기

는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상호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학업중단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지만, 대부분의 여성청소년들은 힘든 상황을 일단 피하고 싶은 마음에 급하게 내린 결정이라 학업중단 이후에 대한 계획은 거의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적 자본이 결핍된 계층의 여성청소년일수록 자신들과 똑같이 학교를 그만두었거나 그만둘 위기에 있는 또래들과 어울려 계획 없이 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출과 일탈행위가 심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나 장기화되는 가출은 생계유지 및 유흥비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비행행위로까지 연결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몸에 배인 거리생활의 자유로움은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가출을 반복적으로 하게 만든다. 학생역할을 포기한 여성청소년들이 가족의 지원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노력해 봐야 별다른 미래를 보장받지 못 할 것이라는 좌절감이 지속적인 가출과 일탈을 야기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고졸학력조차 갖추지 못한 자신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은 학업중단 이후의 사회적 개입에 대한 이들의 잠재된 욕구를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여성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이후의 주요경험은 크게 검정고시 및 대안학교와 같은 학업이나 아르바이트로 정리할 수 있다. 검정고시는 정규학교로의 복교나 학력인정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청소년 이외의 모든 학업중단자들이 자신의 단절된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인데, 비교적 전문적인 검정고시 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에 재학중인 여성청소년들은 비교적 경제적, 문화적 자본이 축적된 계층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들은 자본이 결핍된 계층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대안학교라는 전환점을 찾아 검정고시와 같이 학력취득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받고, 상급학교로의 진학까지 계획하는 미래전망까지 갖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은 아르바이트를 주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를 위해서 선택하고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종은 적고 제대로 대우받지도 못 하는 것에 비해 불법적인 성산업에서는 오히려 자신들을 우대하는 경험을 하면서 합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

는 외출타기를 보여주고 있다.

학업중단기간이 점점 더 길어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많은 여성청소년들은 자괴감, 무력감, 우울감, 자살충동 등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병원 통원치료 중인 사례들도 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에서 여성청소년이 또래남성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여성청소년에게 학업중단 자체가 위기경험으로 의미화되고, 중단 이후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변화들은 이들의 정신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업중단자인 자신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또한 여성청소년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가족, 친인척, 친구들 부모부터 시작해서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모든 일상에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남성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다양한 경험’, ‘남자다워지는 경험’으로 긍정적 의미가 부여되는 반면, ‘학교를 졸업해야만 잘 컸다’고 여겨지는 여성청소년들에게 학업중단은 ‘실패’를 의미하며, 이들은 ‘실패자/문제아’로 규정지어진다. 이러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은 경찰들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길거리 흡연단속을 유독 자주 한다든가, 이들을 ‘만만하게 건드리기 쉬운 여자’로 생각하는 주변 남성들의 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단절된 학업을 지속시키고 진로 탐색을 위해 정규학교로의 복교나 대안학교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복교는 무엇보다 이전의 학업중단 당시 문제가 되었던 상황의 반복, 복학생에 대한 학교의 편견 등으로 인해 적응이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안학교는 재학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 한 부모나 여성청소년들이 ‘노는 학교’, ‘문제아들만 있는 학교’라는 편견을 강하게 갖고 있어 쉽게 다가서지 못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이전에는 그나마 학교를 통해 조금씩 제공받을 수 있었던 진로탐색 관련 정보나 지도들이 학교를 그만두면서부터 완전히 차단됨으로써 미래를 구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겪은 성차별적 경험은 아르바이트 구직과정 및 근로환경에서 보다 극명하게 드러났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자체가 성인중심의 노동구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직종 자체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여성청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은 주로 식당, 카페, 마트, PC방, 옷가게 등 서비스 업종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위험도가 높고 육체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또래남성의 일거리보다 훨씬 종류가 작고, 임금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즉 성별화된 직종과 그에 따른 임금의 차이는 생계를 책임지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여성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성산업 내로 들어가도록 만든다.

연소자 고용이 금지된 술집이나 성매매 관련업종을 택하게 되면서 여성청소년의 몸의 상품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성산업에서 일했다고 답한 대부분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조건만남과 같은 개인형 성매매, 키스방, 노래방도우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스방이나 노래방도우미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서도 틈나는 대로 돈도 쉽게 벌 수 있기 때문에 ‘단기 고소득 아르바이트’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다. 게다가 면접과정에서 드러난 이야기 속에는 여성청소년이 처한 노동환경의 특성상 언제든지 하고 있는 일이 성매매 또는 유사 성매매로 바뀔 수 있으며, 그만큼 감금, 협박, 폭력, 성폭력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계기로 접하게 된 사회적 지원 서비스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에게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과 보살핌에의 욕구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가기 싫을 정도로 좋았다’는 고백은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지 못한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이들이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자원이 있음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성청소년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유의미한 타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무언가 해보고 싶고, 해보고자 하는 관심과 의욕을 갖게 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절실했던 이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주고 함께 경험을 나누며 고민을 들어주는 활동가나 자신과 같은 처지를 극복한 선배경험자를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은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들

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학업 중단 여성청소년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위기상황에서 경찰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경직된 규정만을 거론하며 사무적으로 처리하려는 청소년지원기관의 상담원들의 태도는 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청소년지원기관의 열악한 재정과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또한 불만의 소지가 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이해 없이 ‘뚝바로 살아야 한다’는 상담만 해주는 상담선생님의 말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고,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상담선생님 말에 어이없어 한다. 이러한 현실은 청소년지원기관에의 재정 및 인력 확충과 그곳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의 전문성과 성인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재교육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청소년지원시설에서 폭력과 일탈이 재생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 사이에는 사회적 지원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생겨나면서 이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거리를 배회하는 여성청소년은 증가하는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나 시설은 이용자가 없어 이들을 찾아나서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한 여성청소년들에게 학업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지만, 대안학교를 다녀도 검정고시를 따야만 학력이 인정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자활지원사업은 미용, 제빵과 같은 일부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보인다.

한편,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지원 요구를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학교 밖으로 나왔을 때 자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어 했다. 이와 함께 대안학교의 학력인정과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맞춤형 학업지원, 직업체험과 같은 진로 개발 지원,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의 제공, 경제적, 의료적 지원, 멘토와 같은 정서적 지지자와의 연계를 희망하였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서비스에 대한 젠더 분석

1.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171
2.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결과	181
3. 청소년 지원기관 사례분석	245
4. 소결	260

1.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대체로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온 탈 학교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학교 안 학생들은 학교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년 지원기관의 프로그램들은 학교 부적응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청소년 지원기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표 V-1>은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별로 관련부처, 전달체계, 사업내용, 대상층을 비교한 것이다.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사회적 지원과 취업지원으로 크게 구분하며 사회적 지원으로는 대안교육시설, 지역사회통합지원 체계(CYS-Net), 청소년자활사업으로, 취업지원은 청년층 뉴스타트, 잡스쿨로 구분하였다.

<표 V-1>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관련 부처	전달체계	사업내용	대상층
사회적 지원	대안교육시설		교육과학기술부	대안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계속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 그들의 다양한 욕구반영	학업중단청소년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보호/의료/자립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	특별 지원	여성가족부	8개시 86개 시군구에서 실시	사회적/경제적지원이 필요하지만 소외된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연 350만원까지 경제적 지원	보호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학업 중단 청소년
		두드림존		8개소 400명 전문가 (2010년 기준)	진로설정, 자립동기화, 경제개념 지도를 위한 종합자립지원프로그램(사전 스크리닝 → 동기화 중심의 교육 → 체험중심의 현장 실습 → 사회진출)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CYS-Net	학업복귀 및 직업준비 등 자립 지원	학업중단 등 취약계층 청소년
		아웃리치		CYS-Net	-청소년밀집 우범지역에 동반자 파견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인터넷과 메신저 활용하여 가출청소년 상담 및 조기발견(사이버아웃리치)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

	프로그램 명		관련 부처	전달체계	사업내용	대상층
		쉼터		쉼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사례 관리 실시	가출청소년
	청소년자활 사업		보건 복지부	청소년 자활지원관	자립지원사업	학업중단 청소년
취 업 지 원	청년층 뉴스타트		고용 노동부	83개 민간기관 (2010년 기준)	학력/경력부족으로 취업에 어려 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심층상담 에서 취업까지 전 과정에 개인 별 맞춤지원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 구직자, 위기청 소년 등
	잡스쿨			고용안정 센터	직업체험학습 제공	일반청소년, 소 년원 및 보호관 찰대상 청소년

가. 사회적 지원

1) 대안교육시설

대안교육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대안학교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계속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기존의 교육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 대안학교는 대안교육특성화학교, 도시형 비인가 대안학교, 전원형 비인가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비인가 초등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약 168개의 대안학교가 있다.

〈표 V-2〉 대안학교 현황

	대안교육특성화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도시형 비인가 대안학교	전원형 비인가 대안학교	비인가 초등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개)	9	23	22	16	12	20	66

2)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

가) 성별 이용 현황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여 보호/의료/자립 통합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는 2005년 5개 시·도에서 처음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점차 확대하여 2010년에는 166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인원도 2006년 29,190명에서 2009년 98,020명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작긴 하지만 비교적 여성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CYS-Net 운영지역 및 서비스 이용 인원

	사업운영지역(단위: 개소)			서비스이용인원(단위: 명)		
	시·도	시·군·구	전체	남	여	전체
2005	5	-	5	-	-	-
2006	16	40	56	14,055	15,135	29,190
2007	16	52	68	27,845	29,054	56,899
2008	16	65	81	40,977	40,025	81,002
2009	16	81	97	47,825	50,195	98,020
2010	16	150	166	목표인원 120,000명		

자료: 2010 청소년 백서(여성가족부).

〈표 V-4〉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건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 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 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 문 및 권리구 제지원	여가 및 문화활 동 지원	합계
2006	143,490	8,365	14,860	1,957	495	1,406	918	2,166	173,657
2007	303,356	25,176	55,035	6,986	2,463	4,902	1,800	13,093	412,811
2008	286,069	30,497	80,857	10,740	2,754	5,759	1,362	16,343	434,281
2009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자료: 2010 청소년 백서(여성가족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에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서비스 이용건수가 504,540건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초 생활 및 경제적 지원(109,428건), 사회적 보호(43,517건),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29,79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5〉CYS-Net 이용 학업중단 청소년의 주 호소문제유형별 성별 현황

	여자		남자		전체	
	비율(%)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가족	7.9	99	6.6	115	7.1	214
일탈 및 비행	55.1	695	55.7	969	55.4	1,664
학업/진로	20.9	263	29.0	505	25.6	768
성	6.3	79	0.5	9	2.9	88
성격	0.7	9	1.3	22	1.0	31
대인관계	1.8	23	1.1	19	1.4	42
정신건강	5.4	68	2.9	50	3.9	118
생활습관/외모	1.5	19	1.1	19	1.3	38
컴퓨터/인터넷사용	0.1	1	1.4	25	0.9	26
정보제공	0.3	4	0.2	4	0.3	8
법률정도	0.1	1	-	-	0.0	1
활동	-	-	0.2	3	0.1	3
계	100.0	1,261	100.0	1,740	100.0	3,001

자료: 정해숙 외(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CYS-Net) 이용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주로 호소하는 문제를 살펴보면(표 V-5), 일탈 및 비행이 55.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학업/진로가 25.6%로 나타났다. 성별을 살펴보면, 일탈 및 비행과 학업/진로가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성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이 6.3%로 남성(0.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인관계 및 정신건강 관련 문제도 여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

성청소년이 관계성으로 대변되는 발달과정상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래남성에 비해 우울증이나 섭식장애 등 정신건강에 취약하다는 실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를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지원서비스가 42.0%로 가장 많이 제공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기초생활 및 경제적지원서비스가 33.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게 제공된 지원서비스

	여자		남자		전체	
	비율(%)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상담 및 정서적지원서비스	42.2	6,053	41.8	6,145	42.0	12,198
사회적보호서비스	12.0	1,719	12.4	1,822	12.2	3,541
기초생활 및 경제적지원서비스	33.6	4,821	34.0	5,002	33.8	9,823
교육 및 학업지원서비스	4.9	701	4.8	705	4.8	1,406
자활지원서비스	1.0	140	0.9	131	0.9	271
의료지원서비스	2.2	310	1.3	191	1.7	501
법률 및 권리구제지원서비스	0.4	59	0.2	32	0.3	91
여가 및 문화활동지원서비스	3.7	526	4.5	667	4.1	1,193
계	100.0	14,329	100.0	14,695	100.0	29,024

자료: 정해숙 외(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나) 지원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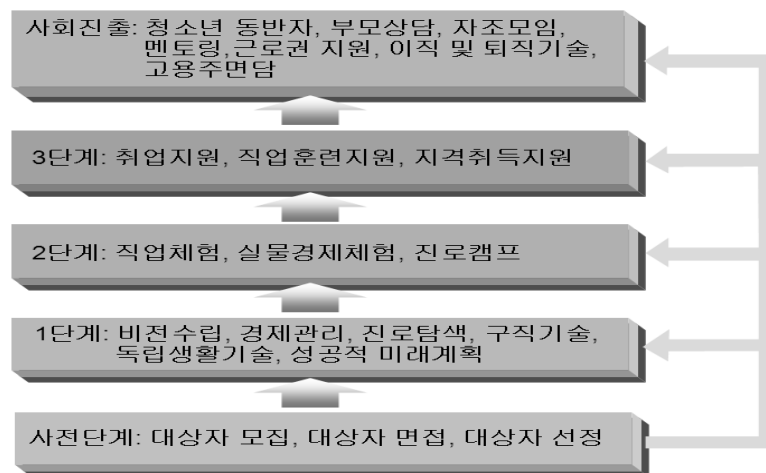
① 특별지원

보호자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등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소외된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연 350만원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 현재 8개 시, 86개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다.

② 두드림존

두드림존은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설정, 자립동기화, 경제개념 지도

를 위해 제공하는 종합자립지원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의 자립을 목표로 사전스크리닝, 동기화중심의 교육, 체험중심의 현장실습, 사회진출의 과정을 거친다. 1개의 총괄기관을 중심으로 상설두드림존과 시범두드림존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V-1] 두드림존 프로그램 소개

〈표 V-7〉 두드림존 현황

	2007년	2010년
두드림존(개소)	12	30
지원청소년(명)	2007년~2009년 * 프로그램제공 : 13,000명 * 자립단계 : 1,200명	목표: 10,000명

자료: 2010 청소년 백서(여성가족부).

사전단계와 진로·직업 체험단계 그리고 노동시장 연계로 이어지는 두드림존 사업은 진로와 직업의 현장 체험 기회를 높인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프로그램을 전체 학교와 공유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③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¹¹⁾

학업중단 청소년 등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사업이 2011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취약청소년에 대한 자립동기화 서비스 제공 후, 사례관정을 통해 학업복귀형과 사회진출형 등 자립목표별로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④ 아웃리치

헬프콜 청소년 전화 주요실적은 <표 V-8>와 같다. 통화횟수는 2006년 98,466건에서 2009년 424,739건으로 약 331% 증가하였다.

<표 V-8>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주요실적

단위: 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통화횟수	98,466	243,051	353,578	424,739
일평균	269.8	665.9	969	1,164

자료: 2010 청소년 백서(여성가족부).

<표 V-9> 청소년 동반자 현황

	2005년(시범운영)	2008년	2009년	2010년
운영 시·도(개)	4	16	16	16
청소년동반자(명)	223	470	1,270	975

자료: 2010 청소년 백서(여성가족부).

정해숙 외(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청소년 동반자 현황은 2005년에는 223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470명 2009년에는 1,270명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975명으로 감소하였다.

⑤ 쉼터

쉼터는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보호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

11) 한국청소년상담원 내부자료.

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81개의 센터가 있다.

3) 청소년자활사업

청소년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학업중단청소년 등에게 취업·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청소년자활사업지원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28개의 청소년 자활지원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취업 지원

1) 청년층 뉴스타트

청년층 뉴스타트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고졸이하 비진학 미취업자, 장기구직자, 위기청소년, 니트족 등 학력/경력부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심층상담부터 취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인별 맞춤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민간위탁기관은 위탁비영리기관과 영리민간위탁기관으로 구분이 되며 2009년 123개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V-10〉 청년 뉴스타트 민간위탁기관 현황(2009년 10월 기준)

단위: 개

		영리			비영리			합계
		직업소개	직업정보 제공	기타	상담 및 복지	대학	직업소개 사업	
부분위탁	1단계	-	-	1	13	5	-	19
	3단계	6	3	-	-	-	2	11
전체위탁	합계	47	7	-	16	11	12	93
합계		53	10	1	29	16	14	123

자료: 주무현 외(2009).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운영실태 비교연구.

〈표 V-11〉 청년층 뉴스타트 현황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예산(백만원)		972	13,914	9,185
알선인원(명)		3,263	16,600	11,000
취업인원(명)		1,176	5,787	-
취업률(%)		39.2	37.5	-
지원금 대비 취업자수 (명)		121.0	41.6	-
수료율(%)	1단계	91.9	93.3	-
	1,2,3단계 평균	91.9	73.2	-

자료: 청년고용대책평가(2010), 국회예산정책처.

취업률=취업자수/순 수료자수

지원금 대비 취업자수=총 취업자수/총 지원예산액

수료율=단계별 수료자수/단계별 참여자수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운영실태 비교연구(주무현, 2009)에서 모집단의 성, 연령, 학력, 참여기관 분포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464명의 참여자 표본을 구성하여 2009년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전화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중 장기구직자(240명), 고졸이하 비진학자(181명)를 제외한 위기청소년(43명)의 답을 분석하면 <표 V-12>와 같다.

〈표 V-12〉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 유형별 특성

단위: %

프로그램 단계				현재취업상태		현재 구직활동		현재 취업의사	
1단계	1→2단계	1→3단계	1→2→3단계	취업	미취업	활동함	안함	있음	없음
21.7	23.2	27.6	27.5	46.5	53.5	73.9	26.1	100.0	0.0

자료: 주무현 외(2009).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운영실태 비교연구.

위기청소년은 단계별 참여 분포가 균등한 가운데 1→3단계와 1→2→3 단계 참여자가 많았다.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자는 취업의사가 100% 모두 있었으며 프로젝트 종료 후 현재 46.5%가 취업상태에 있고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도 7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3〉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동기

단위: %

주위소개 및 권유	센터직원 상담소개	민간기관 인터넷	워크넷 사이트	학교추천	민간기관직원 상담소개	기타
43.0	64.1	-	-	15.2	6.9	6.9

자료: 주무현 외(2009).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운영실태 비교연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참여동기는 센터직원 상담소개가 6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주위소개 및 권유(43.0%)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4〉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1순위)

단위: %

취업 위한 구체적 방법을 알게됨	관심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알게됨	원하는 직업 위해 할일을 알게됨	일하고 싶은 의욕이 강해짐	별로 달라진 것 없음
14.8	10.3	25.3	48.2	1.4

자료: 주무현 외(2009).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운영실태 비교연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 전후 변화를 살펴보면(표 V-14), 프로그램을 참여한 후 일하고 싶은 의욕이 강해졌다가 4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원하는 직업위해 할 일을 알게 되었다가 25.3%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잡스쿨(Job School)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잡스쿨 사업은 중·고등학생 및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올바른 직업선택을 도와주고, 직업에 대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체험프로그램이다.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공계 분야의 직업과 대학(전공)에서 견학, 실습, 강연 등을 통해 직접 직업을 체험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하고 건전한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잡스쿨은 전문가와 현장과 대학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표방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었다. 2005년까지 잡스쿨의 신청 및 운영은 한국고용정보원

에서 하였으나 2006년도부터는 전국의 지역고용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보강하고 대상인원도 대폭 확대하였다.

잡스쿨은 지역 고용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박2일 일정으로 직업 체험을 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크게 직업정보 및 진로탐색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는 ‘사전학습’과 관련 기업체나 대학을 방문하여 실제 체험이나 실습에 참여하는 ‘현장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업정보 및 직업탐색 강의 → 오리엔테이션 → 대학교수 강의 및 대학 전공체험 → 기업체 직업체험·직업인 강의 → 기업체 견학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취약계층 청소년¹²⁾만을 대상으로 하는 잡 스쿨 사업은 2007년부터 수행하였다. 취약계층 청소년 전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노동부가 지원하는 예산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보호관찰소나 소년원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회 20명 안팎, 1년에 10회 안팎 정도 수행¹³⁾하고 있는 실정이다.

2. 프로그램 실태조사 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기관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의 여성청소년 접근기회를 파악하고,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는지, 그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제시한다.

가. 조사 응답기관 특성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총 99개 기관으로, 기관형태를 살펴보면, 남녀공학 대안학교 9개소, 여성청소년 대안학교가 3개소로 대안학교가 총 12개소이

12) ‘취약계층(위기) 청소년’이란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소수집단에 속하는 가정의 청소년들로서 보호관찰 대상이나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비롯해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13)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2008). 노동부 ‘취약계층 청소년 잡 스쿨’ 사업, “있으나 마나”

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7개소, 청소년자활지원관은 14개소, 남성청소년 보호시설은 17개소, 여성청소년보호시설은 39개소로 나타났다.

〈표 V-15〉 응답기관 특성¹⁴⁾

구 분		사례수	%
대안학교	남녀공학대안학교	9	9.1
	여자대안학교	3	3.0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지역	7	7.1
	시도	10	10.1
청소년자활지원관		14	14.1
남성청소년보호 시설	남성쉼터(장기)	3	3.0
	남성쉼터(단기)	11	11.1
	남성쉼터(혼합)	3	3.0
여성청소년보호 시설	여성쉼터(장기)	4	4.0
	여성쉼터(중기)	4	4.0
	여성쉼터(단기)	11	11.1
	여성쉼터(혼합)	1	1.0
	성매매	6	6.1
	미혼모	13	13.1
계		99	100.0

나. 프로그램 현황

조사에 응답한 99개 기관에서 2010년에 운영한 프로그램을 학업지원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4) 기관조사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남성 24명, 여성 71명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22명, 30대 40명, 40대 22명, 50대 이상은 9명이다.

1) 운영 프로그램 유형 및 운영기간

진로지원 프로그램이 87.9%로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그다음으로 학업지원 프로그램과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이 81.8%,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71.7%로 가장 적게 운영되고 있다(표 V-16). 이외에도 그 밖의 기타 프로그램도 40.4%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이 네 개의 프로그램별로 70~100%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는 사회정서지원프로그램(47.1%)과 학업지원프로그램(50.0%)을 절반정도 운영하고 있었으며,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그보다도 더 적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V-16〉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유형(복수응답)

단위: 개소(%)

	사례수	학업지원 프로그램	진로지원 프로그램	사회정서 지원프로그램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기타
남녀공학대안학교	9	7(77.8)	9(100.0)	9(100.0)	8(88.9)	4(44.4)
여자대안학교	3	3(100.0)	3(100.0)	3(100.0)	3(100.0)	3(10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15(88.2)	16(94.1)	8(47.1)	5(29.4)	2(11.8)
청소년자활지원관	14	7(50.0)	13(92.9)	11(78.6)	4(28.6)	3(21.4)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15(88.2)	13(76.5)	13(76.5)	14(82.4)	10(58.8)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9	34(87.2)	33(84.6)	37(94.9)	37(94.9)	18(46.2)
전 체	99	81(81.8)	87(87.9)	81(81.8)	71(71.7)	40(40.4)

각 유형별로 기관에서 운영했던 대표적인 프로그램 2개를 기입하게 한 후 프로그램 별로 운영기간을 살펴보면 <표 V-17>과 같다.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9.1개월로 가장 길게 운영되었고, 그 다음이 진로지원 프로그램(7.9개월)으로 나타났다.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9.9개월로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가장 길었으나, 다른 기관들은 대체로 5~7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었다.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은 대체로 5~7개월 이나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의 경우 8개월 정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5~6개월 정도였으나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은 8개월 이상을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다.

〈표 V-17〉 프로그램 총 운영기간

단위: 프로그램 수, 개월

	유효 프로그램수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 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	9		3		17		14		17		39		99	
학업지원 프로그램	116	8.91	3.91	7.60	4.62	9.06	2.49	6.50	3.30	9.65	3.47	9.57	3.60	9.10	3.53
진로지원 프로그램	128	7.17	4.09	4.83	3.66	9.91	2.55	5.11	3.64	7.85	4.25	8.53	4.31	7.87	4.15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78	5.92	3.20	5.00	3.46	6.92	4.60	4.93	3.87	7.46	4.15	8.46	4.17	7.34	4.19
성 관련교육 프로그램	78	5.86	4.45	6.60	5.50	5.20	4.76	6.50	6.35	4.85	4.43	8.00	4.34	6.94	4.60
기타 프로그램	54	7.86	3.93	3.00	2.83	2.00	0.00	10.50	3.00	6.80	4.96	8.89	4.02	7.80	4.38

주: 무응답 제외

프로그램별로 총 시수를 살펴보면(표 V-18),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평균 398.2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수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이 진로지원 프로그램(181.3시간)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29.2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안학교의 경우 학업지원프로그램이 641.6시간으로 프로그램 운영시수가 가장 많고, 학업지원프로그램에 비해 다른 프로그램은 약 30~50시간으로 적게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시수가 70.40시간으로 다소 많이 운영되고 있다.

〈표 V-18〉 프로그램 총 시수

단위: 개소, 시간

	유효 프로 그램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지원관		남성청소년 보호시설		여성청소년 보호시설		전 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	9		3		17		14		17		39		99	
학업지원 프로그램	93	345.6	410.2	641.6	805.8	319.4	358.7	317.5	324.0	437.3	349.6	420.9	384.2	398.2	398.6
진로지원 프로그램	118	218.4	488.4	38.3	32.8	182.4	294.9	144.4	216.9	288.3	494.8	170.8	326.3	181.3	340.6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75	64.6	62.2	48.4	38.2	84.4	171.8	34.3	40.3	58.9	57.2	76.0	104.1	66.8	94.4
성 관련교육 프로그램	75	14.9	15.2	27.6	20.0	70.4	139.6	4.5	2.1	11.9	20.3	34.2	51.8	29.2	53.3
기타 프로그램	56	105.6	82.6	331.2	440.7	11.3	5.8	233.0	192.9	64.9	101.2	71.6	82.4	104.4	171.1

주: 무응답 제외

2) 운영인력 및 예산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수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평균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타프로그램(2.4명)으로 나타났다(표 V-19).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인력은 대체로 2~3명 정도이나 여자대안학교가 10.6명, 남녀대안학교는 5.7명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운영 담당자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9〉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수

단위: 개소, 명

	유효 프로 그램 수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자 활지원관		남성청소년 보호시설		여성청소년 보호시설		전 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사례수	-	9		3		17		14		17		39		99	
학업지원 프로그램	119	5.73	5.1	10.60	5.6	2.78	3.1	1.60	0.7	1.65	1.0	1.84	1.4	2.66	3.1
진로지원 프로그램	133	4.31	7.3	3.83	3.3	3.00	2.6	1.77	0.9	1.37	1.0	1.58	1.4	2.17	2.9
사회정서지 원프로그램	142	4.71	8.5	1.80	0.8	2.25	1.2	2.06	1.1	1.88	1.4	2.00	1.9	2.27	3.1

	유효 프로 그램 수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자 활지원관		남성청소년 보호시설		여성청소년 보호시설		전 체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성 관련교육 프로그램	83	1.25	0.5	1.40	0.6	1.50	0.8	1.50	0.6	2.27	4.9	1.64	1.5	1.69	2.3
기타 프로그램	66	2.39	2.0	5.80	3.8	2.33	1.2	1.67	0.8	4.57	6.7	1.07	0.3	2.41	3.6

주: 무응답 제외

〈표 V-20〉 프로그램 정부지원예산 규모

단위: 개소(%)

		유효 프로 그램 수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계
사례수		-	9	3	17	14	17	39	99
학업 지원 프로그램	예산 없음	109	-	-	1(5.9)	2(20.0)	3(15.8)	13(26.5)	19(17.4)
	100만원 미만		2(22.2)	-	1(5.9)	2(20.0)	3(15.8)	11(22.5)	19(17.4)
	100만원~500만원		2(22.2)	2(40.0)	5(29.4)	6(60.0)	10(52.6)	23(47.0)	48(44.0)
	500만원~1000만원		1(11.1)	-	4(23.5)	-	3(15.8)	-	8(7.3)
	1000만원 이상		4(44.5)	3(60.0)	6(35.3)	-	-	2(4.1)	15(13.8)
진로 지원 프로그램	예산 없음	122	3(30.0)	-	2(11.1)	3(14.3)	3(17.7)	19(38.0)	30(24.6)
	100만원 미만		1(10.0)	2(33.3)	-	4(19.1)	8(47.1)	15(30.0)	30(24.6)
	100만원~500만원		2(20.0)	3(50.0)	-	10(47.6)	6(35.3)	11(22.0)	32(26.2)
	500만원~1000만원		3(30.0)	1(16.7)	3(16.7)	-	-	4(8.0)	11(9.0)
	1000만원 이상		1(10.0)	-	13(72.2)	4(19.1)	-	1(2.0)	19(15.6)
사회 정서 지원 프로그램	예산 없음	132	3(25.0)	-	3(30.0)	1(6.3)	3(14.3)	22(32.4)	32(24.2)
	100만원 미만		3(25.0)	-	2(20.0)	3(18.8)	9(42.9)	8(11.8)	25(18.9)
	100만원~500만원		4(33.3)	5(100.0)	1(10.0)	10(62.5)	9(42.9)	27(39.7)	56(42.4)
	500만원~1000만원		1(8.3)	-	-	-	-	9(13.2)	11(8.3)
	1000만원 이상		1(8.3)	-	4(40.0)	1(6.3)	-	2(2.9)	8(6.1)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예산 없음	81	5(71.4)	-	3(50.0)	2(50.0)	10(66.7)	35(79.6)	55(67.9)
	100만원 미만		1(14.3)	2(40.0)	2(33.3)	2(50.0)	4(26.7)	3(6.8)	14(17.3)
	100만원~500만원		-	3(60.0)	-	-	-	5(11.4)	8(9.9)
	500만원~1000만원		-	-	-	-	-	-	-
	1000만원 이상		1(14.3)	-	1(16.7)	-	1(6.7)	1(2.3)	4(4.9)
기타 프로그램	예산 없음	64	1(14.3)	-	-	3(50.0)	2(14.3)	17(58.6)	23(35.9)
	100만원 미만		-	-	-	1(16.7)	5(35.7)	5(17.2)	11(17.2)
	100만원~500만원		4(57.1)	3(60.0)	3(100.0)	1(16.7)	4(28.6)	5(17.2)	20(31.3)
	500만원~1000만원		-	-	-	1(16.7)	1(7.1)	1(3.5)	3(4.7)
	1000만원 이상		2(28.6)	2(40.0)	-	-	2(14.3)	1(3.5)	7(10.9)

주: 무응답 제외

프로그램 정부지원예산 규모를 살펴보면(표 V-20),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약 17~36%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약 67.9%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100~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비율이 44.0%로 가장 높고,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도 13.8%로 나타났다. 진로지원프로그램은 100만원 미만이 24.6%, 100~500만 원 미만이 26.2%로 나타났고 1,000만 원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도 15.6%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지원프로그램의 경우 100~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은 비율이 약 42.4% 정도로 가장 높다.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원 미만(17.3%)의 정부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보호시설에서 500만원 미만의 정부지원을 받은 곳이 많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1,000만 원 이상의 정부지원을 받은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대안학교의 경우에는 100% 정부지원이 되고 있다.

〈표 V-21〉 정부지원 이외 후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유무

단위: 개(%)

	사례수	있 음	없 음
남녀공학대안학교	9	5(55.6)	4(44.4)
여자대안학교	3	1(33.3)	2(66.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1(5.9)	16(94.1)
청소년자활지원관	14	5(35.7)	9(64.3)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	17(100.0)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9	17(43.6)	22(56.4)
전 체	99	29(29.3)	70(70.7)

정부지원 이외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후원이 없는 경우가 7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남녀공학대안학교(55.6%)의 경우에는 후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았지만, 청소

년상담지원센터는 94.1%, 남성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후원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이용자의 성별 분포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의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표 V-22>와 같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한 해 동안 9,522명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 남성청소년보호시설 958명, 여성청소년보호시설 580명, 여자대안학교는 59명, 청소년자활지원관은 53명, 남녀공학대안학교는 41명의 순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이용자수를 살펴보면, 남성(962명)보다 여성(1,032명)이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사대상기관에 여성청소년 전용기관이 많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표 V-22> 기관이용 청소년의 성별 분포

단위: 명

	사례수	남 성		여 성		전체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녀공학대안학교	9	19.3	6.6	22.0	13.0	41.3	18.2
여자대안학교	3	-	-	59.3	27.1	59.3	27.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4,725.0	7,705.5	4,796.8	8,899.7	9,521.8	16,391.0
청소년자활지원관	14	21.9	17.1	31.0	30.2	52.9	46.1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957.7	1,713.3	-	-	957.7	1,713.3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9	-	-	580.3	1,190.3	580.3	1,190.3
전 체	99	962.1	3,585.9	1,031.6	3,996.8	1,993.7	7,416.3

프로그램별로 남녀 참여인원을 살펴보면,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경우(표 V-23), 남성(50.3명)보다 여성(118.1명)이 더 많다. 하지만,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여성(55.9명)보다 남성(101.9명)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고, 다른 기관보다 남성청소년보호시설(164.8명)과 여성청소년보호시설(245.9명)의 참여인원이 많아 청소년보호시설에서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제공에 주력함을 알 수 있다.

〈표 V-23〉 학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사례수	남 성		여 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녀공학대안학교	9	15.0	8.2	14.9	10.9
여자대안학교	3	-	-	57.7	29.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101.9	163.0	55.9	88.8
청소년자활지원관	14	12.0	9.2	15.4	15.5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164.8	240.1	-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9	-	-	245.9	589.4
전 체	99	50.3	136.4	118.1	396.6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V-24), 남성(115.6명)보다 여성(175.7명)의 참여인원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남녀공학대안학교의 경우 여성(10.3명)보다 남성(11.1명)이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의 참여인원이 남성이 570.1명, 여성 696.5명으로 여성청소년의 참여가 더 많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성별에 관계없이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4〉 진로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사례수	남 성		여 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녀공학대안학교	9	11.1	9.0	10.3	11.5
여자대안학교	3	-	-	57.7	29.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570.1	1,322.8	696.5	2,073.7
청소년자활지원관	14	12.9	8.3	17.2	11.6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60.3	70.2	-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9	-	-	118.1	169.4
전 체	99	115.6	588.3	175.7	898.7

〈표 V-25〉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성별 분포

단위: 명

	사례수	남 성		여 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녀공학대안학교	9	15.9	7.9	17.0	13.9
여자대안학교	3	-	-	57.7	29.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1,568.0	3,650.9	1,577.5	3,505.1
청소년자활지원관	14	10.6	7.7	15.0	13.5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437.7	1,202.3	-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9	-	-	270.9	491.5
전 체	99	234.3	1,292.4	293.2	1,203.6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한 청소년의 남녀 이용자수를 살펴보면(표 V-25), 남성(234.3명)보다 여성(293.2명)의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의 참여인원이 남성이 1,568명, 여성이 1,578명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한 청소년의 남녀 이용자수를 살펴보면(표 V-26), 남성(17.1명)보다 여성(51.5명)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남성의 참여가 65.2명으로 여성의 참여(17.4명)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6〉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인원

단위: 명

	사례수	남 성		여 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녀공학대안학교	9	15.1	7.0	15.9	10.4
여자대안학교	3	-	-	57.7	29.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65.2	91.2	17.4	29.6
청소년자활지원관	14	5.5	4.1	7.8	6.8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52.1	64.2	-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9	-	-	87.5	192.3
전 체	99	17.1	43.4	51.5	143.8

〈표 V-27〉 기타 프로그램 참여인원

단위: 명

	사 례 수	남 성		여 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남녀공학대안학교	9	16.0	9.8	15.0	13.1
여자대안학교	3	-	-	35.0	23.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14.0	5.7	13.5	5.0
청소년자활지원관	14	22.3	31.1	33.3	47.6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697.5	1,551.8	-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9	-	-	98.3	132.9
전 체	99	192.8	836.1	47.7	94.6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의 남녀 이용자수를 살펴보면(표 V-27),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여성(47.7명)보다 남성(192.8명)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청소년보호시설에서의 참여인원이 697.5명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4) 프로그램 참여경로

학업중단청소년들이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주요경로 1순위를 살펴보면(표 V-28),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다른 청소년 관련기관을 통해서 온 경우가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서 기타(28.3%), 다니던 학교 교사 소개와 친구들 소개로 온 경우는 각각 10.1%로 동일했으며, 부모의 권유로도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28〉 프로그램 참여 경로(1순위)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9	3	17	14	17	39	99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다른 청소년 관련기관을 통해	1(11.1)	1(33.3)	9(52.9)	1(7.1)	7(41.2)	10(25.6)	29(29.3)
기 타	1(11.1)	-	-	2(14.3)	6(35.3)	19(48.7)	28(28.3)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다니던 학교 교사 소개로	-	1(33.3)	3(17.6)	1(7.1)	1(5.9)	4(10.3)	10(10.1)
친구들 소개로	2(22.2)	1(33.3)	2(11.8)	3(21.4)	-	2(5.1)	10(10.1)
부모의 권유로	4(44.4)	-	1(5.9)	3(21.4)	2(11.8)	1(2.6)	9(9.1)
인터넷 등 사이버 정보에 의해서	1(11.1)	-	2(11.8)		-	3(7.7)	8(8.1)
지자체 공무원 소개로	-	-	-	4(28.6)	-	-	4(4.0)
경찰 소개로	-	-	-	-	1(5.9)	-	1(1.0)

청소년상담지원센터(52.9%), 남성청소년보호시설(41.2%)의 경우는 다른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해서 온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남녀공학대안학교의 경우 부모의 권유(44.4%),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지자체 공무원 소개로(28.6%), 여성청소년보호시설은 기타(48.7%)의 이유로 참여하게 된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경로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표 V-29〉 프로그램 참여 경로(복수응답)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9	3	17	14	17	39	99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다른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해	1(11.1)	1(33.3)	6(35.3)	2(14.3)	2(11.8)	5(12.8)	17(17.2)
기 타	3(33.3)	2(66.7)	6(35.3)	6(42.9)	4(23.5)	8(20.5)	29(29.3)
다니던 학교 교사 소개로	3(33.3)	2(66.7)	11(64.7)	6(42.9)	10(58.8)	18(46.2)	50(50.5)
친구들 소개로	6(66.7)	-	5(29.4)	6(42.9)	-	2(5.1)	19(19.2)
부모의 권유로	-	-	-	6(42.9)	1(5.9)	-	7(7.1)
인터넷 등 사이버 정보에 의해서	2(22.2)	-	2(11.8)	-	4(23.5)	9(23.1)	17(17.2)
지자체 공무원 소개로	-	-	1(5.9)	-	3(17.6)	2(5.1)	6(6.1)
경찰 소개로	2(22.2)	1(33.3)	2(11.8)	2(14.3)	7(41.2)	25(64.1)	39(39.4)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주요경로 중복응답을 살펴보면(표 V-29),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다니던 학교 교사 소개가 5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경찰소개로 39.4%, 기타가 29.3%이다.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남성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는 다니던 학교 교사 소개로 온 비율이 가장 높고(각각 64.7%, 58.8%), 남녀공학대안학교의 경우 친구들 소개로(66.7%), 청소년자활지원관은 학교교사나 친구, 부모의 권유로(42.9%), 여성청소년보호시설은 경찰 소개로 오는 경우가 6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여성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99개 기관 중 36개소(36.4%)로 나타났다. 기관형태별로 살펴보면 주로 여성전용기관인 여자대안학교(3개소)와 여성청소년보호시설(33개소, 84.6%)에서 여성청소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표 V-30〉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사항(복수응답)

	사례수	%
문화여가활동/정시지원/사회적응지원/취미여가/심리/레크레이션	28	77.8
교육지원/인문학 강의/학습/검정고시	24	66.6
직업 지원/진로 지원/직업훈련/취업성공패키지	23	63.9
성교육/섹슈얼리티 교육	17	47.2
연극치료/미술치료/글쓰기 치료/원예치료/집단상담	11	30.5
퀵트/아기옷만들기/십자수/양재	7	19.4
순산체조/필라테스/체육프로그램/라인댄스/요가	5	13.9
청소년 인권 교육/여성 인권 교육	4	11.1
금연교육	3	8.3
자립훈련 매장/꾸미준(매장이름)자립 지원사업	3	8.3
자기주도적 자립훈련	2	5.6
귀가 지원	2	5.6
가족 지원	1	2.8
학교폭력 예방 교육	1	2.8
기타	4	11.1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V-30>과 같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은 다양하나, 문화여가활동 관련 내용(28개소)과 교육지원관련 내용(24개소), 직업 및 진로지원관련 내용(23개소)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는 성교육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내용(17개소), 미술치료 및 집단상담(11개소)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이유를 살펴보면(표 V-31), 여성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이 9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여성 안전을 위해, 가출 상태 시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한 예방차원, 여성권리에 대한 다양한 인권의식 함양 등을 이유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각 1개 기관에 불과하다.

〈표 V-31〉 여성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 이유(복수응답)

	사례수	%
여성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34	94.4
여성 안전을 위해서	1	2.8
가출상태시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한 예방차원	1	2.8
여성 권리에 대한 다양한 인권의식 함양	1	2.8
계	36	100.0

다. 기관 및 종사자 현황

1) 기관운영 인력

운영기관의 종사인원을 살펴보면(표 V-32), 평균 총 인원 수는 2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지원인력(멘토, 자원봉사포함)이 12.2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상담인원(6.9명), 상근직 교사(2명), 비상근교사(1.5명), 행정인력(1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로 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61.2명으로¹⁵⁾ 기관 종사인원이 가장 많은데, ‘상담기관’의 특성상 상근직 교사

15)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인력이 이처럼 많게 나타난 것은 멘토, 자원봉사자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점과 더불어 청소년동반자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상담

는 없고, 대체로 상담인력이 30명 정도로 가장 많다. 교사인력은 남녀 공학 대안학교가 가장 많았는데, 상근직 교사 5.6명, 비상근교사 5.8명 정도였으나 상담인력은 2.6명 내외이다. 그러나 여자 대안학교는 상근직 교사 3.3명이며 비상근교사 10.7명, 상담인력이 4.3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상근직 교사가 1.6명이며 비상근 교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대체로 멘토·자원봉사 인력이 9.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남성청소년보호시설은 상근직 교사 2.3명, 여성청소년보호시설은 2명이며 비상근 교사는 1명 내외였다. 이 기관들도 멘토·자원봉사인력이 8~9명이 되며 이 인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2〉 기관 운영인력규모

단위: 명

	사 례 수	상근직 교사		비상근 교사		상담인력 (비정규포함)		행정인력		기타 지원인력 (멘토/자원봉 사 포함)		총 인원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남녀공학 대안학교	9	5.56	2.55	5.78	5.49	2.56	3.32	1.00	1.00	11.33	11.25	26.22	12.08
여자 대안학교	3	3.33	1.53	10.67	7.51	4.33	3.51	0.33	0.58	10.67	6.03	29.33	4.51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17	-	-	0.47	1.94	30.76	25.63	1.29	1.10	28.71	30.22	61.24	39.98
청소년 자활지원관	14	1.57	0.85	0.07	0.27	0.29	0.73	0.43	0.76	9.21	11.96	11.57	12.20
남성청소년 보호시설	17	2.29	2.11	0.59	0.80	2.24	1.99	0.53	0.72	8.82	16.86	14.47	17.66
여성청소년 보호시설	39	1.95	2.47	1.18	2.90	2.21	1.92	1.21	1.96	7.82	8.78	14.36	12.98
전체	99	1.99	2.39	1.51	3.54	6.94	15.17	0.95	1.44	12.18	17.71	23.57	26.94

사를 활용하는데 따른 것임. 2010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도의 경우 평균 15.8명, 시/군/구는 평균 4.0명의 전일제 및 시간제 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음(정해숙 외, 2010).

〈표 V-33〉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전문강사 확보 여부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9	3	17	14	17	39	99
분야 및 내용별 전문강사 확보	3(33.3)	3(100.0)	4(23.5)	3(21.4)	6(35.3)	15(38.5)	34(34.3)
담당운영교사가 내용 전부 강의	1(11.1)	-	-	2(14.3)	-	2(5.1)	5(5.1)
필요 시 해당분야 전문강사 초빙	5(55.6)	-	13(76.5)	9(64.3)	10(58.8)	20(51.3)	57(57.6)
자원봉사자(무료)	-	-	-	-	-	2(2.6)	2(1.0)
기타	-	-	-	-	1(5.9)	-	1(1.0)

한편,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강사가 강의하지만 필요 시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초빙(57.6%)하는 기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분야 및 내용별로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34.3%) 순으로 나타났다(표 V-33). 기관별로 살펴보면 여자대안학교(100%)는 분야 및 내용별로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비중이 높았고, 운영교사가 강의하지만 필요시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비중이 높은 기관은 남녀공학대안학교(55.6%), 청소년상담지원센터(76.5%), 청소년자활지원관(64.3%), 남성청소년보호시설(58.8%), 여성청소년보호시설(51.3%)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원봉사자(무료, 유료), 분야 내용별로 전문강사가 강의하지만 필요시 해당 운영교사가 강의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V-34), 58.6%가 프로그램관련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한 다와 별도의 교육을 받지 않는다가 25.3%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대부분 한국청소년상담원(94.1%)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안학교, 청소년자활지원관, 청소년보호시설에서는 프로그램 관련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높다.

〈표 V-3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연수 실시 여부(복수응답)

단위: 개수(%)

	사례수	한국청소년 상담원 전문교육	교육청 별도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기관 교육	별도의 교육 없음	기타
남녀공학대안학교	9	-	1(11.1)	4(44.4)	3(33.3)	3(33.3)
여자대안학교	3	1(33.3)	1(33.3)	2(66.7)	1(33.3)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16(94.1)	1(5.9)	10(58.8)	-	2(11.8)
청소년자활지원관	14	1(7.1)	-	11(78.6)	3(21.4)	1(7.1)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4(23.5)	-	11(64.7)	5(29.4)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9	3(7.7)	2(5.1)	20(51.3)	13(33.3)	11(28.2)
전체	99	25(25.3)	5(5.1)	58(58.6)	25(25.3)	17(17.2)

2) 프로그램 운영 예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운영예산에 있어 불충분(75.5%)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자대안학교의 경우 66.7%로 운영예산이 비교적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5〉 프로그램 운영 예산 충분성 여부

단위: 개수(%)

	사례수	충분하지 않다	비교적 충분하다
남녀공학대안학교	9	8(88.9)	1(11.1)
여자대안학교	3	1(33.3)	2(66.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11(64.7)	6(35.3)
청소년자활지원관	14	11(78.6)	3(21.4)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13(76.5)	4(23.5)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8	30(78.9)	8(21.1)
전체	98	74(75.5)	24(24.5)

〈표 V-36〉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부족한 부문(1순위)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8	1	11	11	13	30	74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부족	5(62.5)	1(100.0)	6(54.5)	4(36.4)	3(23.1)	9(30.0)	28(37.8)
전문강사 인력 초빙 예산 부족	1(12.5)	-	3(27.3)	3(27.3)	8(61.5)	15(50.0)	30(40.5)
실습비, 프로그램 운영 공간 마련 등의 예산 부족	2(25.0)	-	2(18.2)	4(36.4)	2(15.4)	4(13.3)	14(18.9)
기타	-	-	-	-	-	2(6.6)	2(2.7)

예산이 부족한 곳은 전문 강사 인력초빙 예산 부족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37.8%)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V-36). 남녀공학대안학교(62.5%), 여자대안학교(100.0%)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54.5%)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이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자활지원관의 경우에는 실습비, 프로그램 운영 공간 마련 등의 예산이 부족(36.4%)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시설은 전문 강사 인력을 초빙할 수 있을만한 예산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청소년 자립지원 활동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연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80.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37). 하지만 남녀공학대안학교(55.6%)와 청소년자활지원관(57.1%)의 경우에는 취업연계와 관련된 역할을 하는 비중이 다른 기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V-37〉 청소년 취업 연계 관련 구체적 역할 수행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9	5(55.6)	4(44.4)
여자대안학교	3	3(100.0)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7	16(94.1)	1(5.9)
청소년자활지원관	14	8(57.1)	6(42.9)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7	13 (76.5)	4(23.5)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9	35(89.7)	4(10.3)
전체	99	80(80.8)	19(19.2)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표 V-38), 자립 및 직업 지원을 위한 상담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가 52.5%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이력서 쓰기, 면접지원 등 구직활동을 도와준다가 42.5%, 가까운 고용센터로 연계한다가 4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남녀공학대안학교는 청소년들이 직업을 찾도록 인턴십 가능 업체를 섭외한다는 기관이 80%였으며, 여자대안학교는 이력서, 면접지원 등 구직활동을 모두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81.3%, 청소년자활지원관은 62.5%가 자립 및 직업 지원을 위한 상담활동을 주로 해주고 있다. 남성청소년 보호시설은 76.9%,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은 48.6%가 고용센터와 연계해준다고 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처 발굴을 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청소년 보호시설과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8〉 청소년 취업 연계 관련 구체적 역할 수행 사항(복수응답)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5	3	16	8	13	35	80
구체적인 취업처 발굴	-	-	-	2(25.0)	1(7.7)	7(20.0)	10(12.5)
고용센터와 연계	1(20.0)	-	5(31.3)		10(76.9)	17(48.6)	33(41.3)
인턴십 가능 업체 섭외	4(80.0)	2(66.7)	3(18.8)	1(12.5)	-	8(22.9)	18(22.5)
구직활동 지원(이력서쓰기, 면접지원 등)	3(60.0)	3(100.0)	6(75.0)	2(25.0)	7(53.8)	13(37.1)	34(42.5)
자체적인 직업교육 실시	-	-	4(25.0)	4(50.0)	-	6(17.1)	14(17.5)
자립 및 직업지원 상담	2(40.0)	1(33.3)	13(81.3)	5(62.5)	7(53.8)	14(40.0)	42(52.5)
직업설명회 등 현장탐방	-	-	-	-	-	1(2.9)	1(1.3)
자립지원을 위한 교육계획	-	-	-	-	1(7.7)	-	1(1.3)
자격증 취득 연계	-	-	-	2(25.0)	-	-	2(2.5)
기타	-	-	-	-	-	1(2.9)	1(1.3)

4) 기관종사자의 성역할의식

해당 기관 응답자들의 성역할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13개 문항별로 동의한다고 응답한 분포를 제시한 것이 <표 V-39>이다.

기관종사자의 성역할의식을 보면,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직업지도 시에는 남성다운 특성과 여성다운 특성을 고려하는게 좋다’, 와 ‘가족의 생계책임은 일차적으로 남편한테 있다’ 문항에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9〉 성역할과 관련한 주관적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명(%)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사례수	12	17	14	56	99
직장에서 직원을 줄일 때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12(100.0)	15(88.2)	13(92.9)	53(94.6)	93(93.9)
진로 및 취업준비는 아무래도 여성청소년보다는 남성청소년에게 더 우선적이다	3(25.0)	2(11.8)	-	6(10.7)	11(11.1)
집안일은 일차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게 좋다	1(8.3)	2(11.8)	6(42.9)	11(19.6)	20(20.2)
리더십 훈련은 여성청소년보다 남성청소년에게 더 필요하다	2(16.7)	-	1(7.1)	2(3.6)	5(5.1)
여성에게 일, 사회적 성공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	-	3(17.6)	4(28.6)	12(21.4)	19(19.2)
청소년들의 직업지도 시에는 남성다운 특성과 여성다운 특성을 고려하는 게 좋다	3(25.0)	6(35.3)	11(78.6)	29(51.8)	48(49.5)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성보다 남성의 학벌이 더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1(8.3)	2(11.8)	2(14.3)	11(19.6)	16(16.2)
가족의 생계책임은 일차적으로 남편한테 있다	3(25.0)	4(23.5)	6(42.9)	21(37.5)	34(34.3)
원만한 남녀관계를 위해 여성이 너무 주도적인 것은 좋지 않다	-	1(5.9)	6(42.9)	16(28.6)	23(23.2)
부서의 책임자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합하다	2(16.7)	1(5.9)	2(14.3)	10(17.9)	15(15.2)
혼전 임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다	-	-	1(7.1)	1(1.8)	2(2.0)
여성보다 남성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	1(8.3)	5(29.4)	2(14.3)	9(16.1)	17(17.2)
남자 아이는 씩씩하고 용감하게 여자아이는 온순하고 차분하게 키우는 게 좋다	-	-	2(14.3)	7(12.5)	9(9.1)

주: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만 제시함.

각 문항별로 보면, 직장에서 직원 감원 시 여성에 대한 우선 해고에 대해서는 대안학교는 100%가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나,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는 88.2%, 청소년자활지원관은 92.9%, 남성청소년 보호시설은 94.6%, 여성청소년보호시설 관련자들은 93.9%가 동의했다. 진로 및 취업준비는 아무래도

여성청소년보다는 남성청소년에게 더 우선적이라는 의견에서는 대안학교의 경우에서만 25%가 동의했으며, 나머지 기관에서는 약 10%의 적은 동의율이 나타났다. 집안일은 일차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게 좋다는 의견에서는 청소년자활지원관의 경우 42.9%로 절반정도가 여성이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리더십 훈련은 여성청소년보다 남성청소년에게 더 필요하다는 의견은 낮은 동의율을 보여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는 일과 사회적 성공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은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28.6%가 동의했다. 청소년들의 직업지도 시에는 남성다운 특성과 여성다운 특성을 고려하는 게 좋다는 의견은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7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청소년 보호시설 51.8%, 여성청소년 보호시설은 49.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족의 생계책임은 일차적으로 남편한테 있다와 원만한 남녀관계를 위해 여성이 너무 주도적인 것은 좋지 않다도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는 절반정도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볼 때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응답자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성역할태도에 대한 주관적인 동의정도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부표 V-1).

라. 프로그램별 운영 실태

1) 학업지원 프로그램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한 기관을 대상으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표 V-40),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 사용했다가 65.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기본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23.5%, 다른 민간기관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12.3%,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3.7%로 가장 적었다.

대안학교는 100%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하고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기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86.7%)의 응답비율이 높다.

〈표 V-40〉 사용하고 있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처(복수응답)

단위: 개소(%)

	사 례 수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기본프로그램 사용	다른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하고있는 프로그램 사용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 사용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남녀공학대안학교	7	-	-	7(100.0)	-
여자대안학교	3	-	-	3(100.0)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5	13(86.7)	-	3(20.0)	-
청소년자활지원관	7	1(14.3)	1(14.3)	6(85.7)	-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5	2(13.3)	4(26.7)	8(53.3)	1(6.7)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4	3(8.8)	5(14.7)	26(76.5)	2(5.9)
전체	81	19(23.5)	10(12.3)	53(65.4)	3(3.7)

〈표 V-41〉 학업지원 프로그램 목적 적합성

단위: 개소(%)

	사례수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평균
남녀공학대안학교	7	-	4(57.1)	3(42.9)	-	2.43
여자대안학교	3	-	2(66.7)	1(33.3)	-	2.33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5	1(6.7)	7(46.7)	7(46.7)	-	2.40
청소년자활지원관	7	-	6(85.7)	1(14.3)	-	2.14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5	-	10(66.7)	5(33.3)	-	2.33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4	2(5.9)	20(58.8)	11(32.4)	1(2.9)	2.32
전체	81	3(3.7)	49(60.5)	28(34.6)	1(1.2)	2.33

주: 척도는 매우불충분 1점, 불충분 2점, 충분 3점, 매우충분 4점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60.5%)의 응답비율이 높다(표 V-41). 기관별로 살펴보면 남녀공학대안학교가 평균 2.43점으

로 가장 높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이 평균 2.1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2〉 학업지원프로그램 목적달성 불충분 이유(동의률)

단위: 개수(%)

		전체	남녀공 학대안 학교	여자 대안 학교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센터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사례수		52	4	2	8	6	10	22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	프로그램 기간이 너무 짧다	22(44.2)	1(25.0)	2(100.0)	1(12.5)	5(83.3)	2(20.0)	11(50.0)
	프로그램 내용이 부실하다	21(44.2)	1(25.0)	-	1(12.5)	5(83.3)	3(30.0)	11(50.0)
	프로그램 운영 공 간 부족	30(57.7)	4(100.0)	2(100.0)	3(37.5)	5(83.3)	4(40.0)	12(54.5)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 다양 한 자원 부족	48(92.3)	4(100.0)	2(100.0)	8(100.0)	5(83.3)	10(100.0)	19(86.4)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 성 부족	39(75.0)	3(75.0)	1(50.0)	4(50.0)	6(100.0)	6(60.0)	19(86.4)
	운영예산 부족	50(96.2)	4(100.0)	2(100.0)	8(100.0)	6(100.0)	10(100.0)	20(90.9)
참여자 문제	프로그램에 지속 적으로 참여하고 자 하는 의지 부족	47(90.4)	3(75.0)	1(50.0)	8(100.0)	5(83.3)	9(90.0)	21(95.5)
	기본적인 학습능 력 부족	48(92.3)	3(75.0)	2(100.0)	8(100.0)	5(83.3)	9(90.0)	21(95.5)
	가족 등 주위환경 지지 부족	5(83.3)	3(75.0)	2(100.0)	6(100.0)	29(90.6)	9(90.0)	20(90.9)
운영 기관의 문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12(23.1)	-	-	-	3(50.0)	1(10.0)	8(36.4)
	담당자 부족으로 사례관리가 어렵다	32(61.5)	1(25.0)	1(50.0)	5(62.5)	4(66.7)	5(50.0)	16(72.7)
	학업지원 프로그 램의 필요성에 대 한 기관 인식 부족	7(13.5)	2(50.0)	1(50.0)	1(12.5)	2(33.3)	-	1(4.5)

주: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만 제시함.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점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V-42),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에서는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는 응답한 비율이 96.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다(92.3%),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 부족(75%),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다(57.7%)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문제’에서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90.4%,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다 92.3%, 가족 등 주위환경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83.3%로 나타나 세 항목 모두에서 높은 동의율을 보여 준다. 특히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100% 모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참여자에게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운영기관의 문제’로는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관리가 어렵다(61.5%)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고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23.1%)와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13.5%)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하지만 기관별로 동의율에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청소년자활지원센터에서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50%), 여성청소년보호시설은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관리가 어렵다(72.7%), 대안학교의 경우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50%)로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학업지원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표 V-43), 59개의 기관에서 검정고시가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분반 학습 진행(34개소)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 진학/학교지원, 학업관련 상담, 영어학습/외국어/수학학습, 정규학교 복귀 등의 교육내용은 6~8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학학습, 수능대비 교육, 글쓰기, 독서, 한문 익히기, 컴퓨터 학습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기회 정도를 살펴보니 대부분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한 것(84.0%)으로 나타났다(표 V-44). 남녀 공학대안학교의 경우 100%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

자대안학교(33.3%), 청소년상담지원센터(26.7%), 청소년자활지원관(14.3%)에서는 프로그램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자활지원관은 1인당 프로그램 참여횟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3〉 학업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복수응답)

	사례수	%
검정고시	59	72.8
분반 학습 진행	34	42.0
상급학교 진학/학교지원	8	9.9
영어/외국어/수학학습수능대비 교육	8	1.2
학업관련 상담	7	8.6
정규학교 복귀	6	7.4
기초학습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학습클리닉	6	7.4
대안학교 수업/대안학교 연계, 진학	3	3.7
공부방 운영/상설 학습실 운영	2	2.5
독서/글쓰기	2	1.2
야학 연계 등 기타	7	1.2
응답기관수	81	

〈표 V-44〉 학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정도

단위: 개소(%)

	사례수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1인당 프로그램 참여횟수 제한됨
남녀공학대안학교	7	7(100.0)	-	-
여자대안학교	3	2(66.7)	1(33.3)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5	10(66.7)	4(26.7)	1(6.7)
청소년자활지원관	7	4(57.1)	1(14.3)	2(28.6)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5	14(93.3)	-	1(6.7)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4	31(91.2)	3(8.8)	-
전체	81	68(84.0)	9(11.1)	4(4.9)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수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56.8%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43.2%로 나타났다(표 V-45). 하지만 남녀공학대안학교의 경우는 100% 모두 단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개발하고 있다.

〈표 V-45〉 학업지원 프로그램 단계적 수준 개발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7	7(100.0)	-
여자대안학교	3	1(33.3)	2(66.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5	8(53.3)	7(46.7)
청소년자활지원관	7	5(71.4)	2(28.6)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5	7(46.7)	8(53.3)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4	18(52.9)	16(47.1)
전체	81	46(56.8)	35(43.2)

〈표 V-46〉 학업지원 프로그램 단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

단위: 개소(%)

	사례수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감	참가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재설계·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 제공
남녀공학대안학교	7	-	-	7(100.0)
여자대안학교	1	-	1(100.0)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8	2(25.0)	6(75.0)	-
청소년자활지원관	5	-	3(60.0)	2(40.0)
남성청소년보호시설	7	-	2(28.6)	5(71.4)
여성청소년보호시설	18	1(5.6)	11(61.1)	6(33.3)
전체	46	3(6.5)	23(50.0)	20(43.5)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V-46), 참가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50%의 비율로 가장 높고,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43.5%),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간다(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여성청소년 보호시설(61.1%)은 참가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남녀공학 대안학교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비율(100.0%)이 가장 높다.

〈표 V-47〉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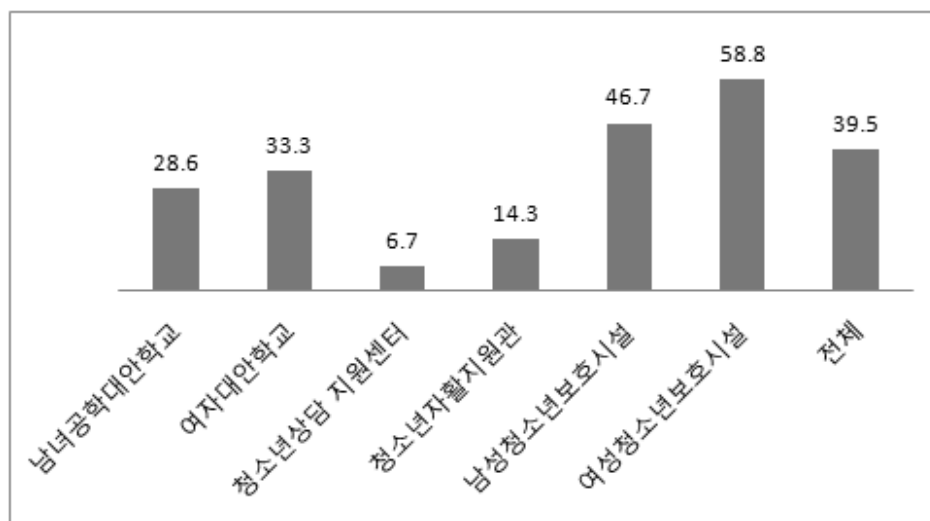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7	3	15	7	15	34	81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 부족	-	-	1(6.7)	1(14.3)	4(26.7)	13(38.2)	19(23.5)
프로그램 운영 시 장시간 혼자 진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	1(14.3)	1(33.3)	3(20.0)	2(28.6)	3(20.0)	2(5.9)	12(14.8)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 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	3(42.9)	3(100.0)	9(60.0)	4(57.1)	5(33.3)	9(26.5)	31(38.3)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부 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	3(42.9)	-	2(13.3)	2(28.6)	2(13.3)	3(8.8)	12(14.8)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 원인력 확보의 어려움	4(57.1)	1(33.3)	8(53.3)	4(57.1)	9(60.0)	21(61.8)	49(60.5)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부정 적 인식 때문에 외부지원 어 려움	1(14.3)	1(33.3)	2(13.3)	-	-	7(20.6)	11(13.6)
참여자의 중도 하차	-	-	1(6.7)	-	-	2(5.9)	3(3.7)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부족 으로 안내 홍보 어려움	-	-	2(13.3)	-	-	-	2(2.5)
청소년의 참여의지 부족	-	-	-	1(14.3)	2(13.3)	2(5.9)	5(6.2)
예산부족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	-	-	2(13.3)	-	2(2.5)
대상자 인원이 자주 변경됨	-	-	-	-	2(13.3)	1(2.9)	3(3.7)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표 V-47),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60.5%로 절반이상의 비율이 응답했

으며,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38.3%),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에 대한 부족(23.5%)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공학대안학교(57.1), 남성청소년보호시설(60.0%), 여성청소년보호시설(61.8%)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응답했으며, 여자대안학교(10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60.0%), 청소년자활지원관(57.1%)은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청소년의 참여의지 부족, 참여자의 중도 하차,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부족으로 안내 홍보 어려움, 예산부족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그렇지 않다(60.5%)고 응답하고 있다(그림 V-2). 하지만 여성청소년보호시설(58.8%)의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비해 성별 특성이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2]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율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미반영 이유를 알아본 결과(표 V-48),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가 69.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대안학교(10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85.7%), 남성청소년보호시설(62.5%), 여성청소년보호시설(57.1%)의 경우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청소년자활지원관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V-48〉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미반영 이유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5	2	14	6	8	14	49
주로 남성청소년들이 흥미 있을 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	-	-	-	1(12.5)	-	1(2.0)
여성청소년들이 관심 있을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	-	-	-	1(12.5)	-	1(2.0)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	5(100.0)	2(100.0)	12(85.7)	2(33.3)	5(62.5)	8(57.1)	34(69.4)
청소년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	-	1(7.1)	4(66.7)	1(12.5)	2(14.3)	8(16.3)
여성만 입소대상이기 때문이	-	-	-	-	-	4(28.6)	4(8.2)
잘 모름	-	-	1(7.1)	-	-	-	1(2.0)

다음으로 학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여 포함시킨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95.1% 대부분이 특별히 포함시킨 내용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학업지원 프로그램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하여 포함시킨 내용이 있다고 한 4개 기관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주도적으로 학업과 일정을 관리하고 진행 하는 방법,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인성도덕 학업지원 프로그램, 도자기 수업, 미술 염색 수업,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로 나타났다.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청소년들의 교육 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95.1%가 남녀 반응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응답했으며, 4개소만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청소년 자활지원기관은 학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7개소 중 3개소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 후 반응이 다르다고 응답해 다른 기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들의 교육 전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표 V-49), 남성청소년의 경우 건성으로 임한다, 자존감이 향상된다, 직업 성취도에 대한 생각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응답했으며,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차분하게 노력하는 자세를 보인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중도 탈락이 있다, 미래에 대한 생각이 희망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표 V-49〉 학업지원 프로그램 전후 남녀 반응의 차이(복수응답)

	사례수	%
남성은 건성으로 임한다	2	50.0
여성은 차분하게 노력하는 자세	2	50.0
남성청소년은 자존감이 향상된다	1	25.0
남성은 직업 성취도에 대한 생각이 업그레이드 된다	1	25.0
여성청소년은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중도탈락이 있다	1	25.0
여성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희망적이다	1	25.0
응답기관수	4	

〈표 V-50〉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필요 여부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7	7(100.0)	-
여자대안학교	3	3(100.0)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5	12(80.0)	3(20.0)
청소년자활지원관	7	7(100.0)	-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5	13(86.7)	2(13.3)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4	25(73.5)	9(26.5)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3.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남녀공학대안학교, 여자대안학교, 청소년자활지원관은 100%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V-50).

학업지원 프로그램에서 개선해야 할 상황을 살펴보면(표 V-51), 청소년들이 과목수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 및 지원처 확보가 52.2%로 절반이상의 응답비율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환경 개선(교실, 학습도구 등)(43.3%),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적 사례관리 도입(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 환경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남녀공학대안학교(85.7), 여자대안학교(66.7%), 남성청소년보호시설(61.5%)에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지원금 및 지원처 확보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83.3%), 남성청소년보호시설(61.5%), 여성청소년보호시설(44.0%)에서 가장 많이 응답했다. 그리고 청소년자활지원관(57.1%)은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을 개선 사항으로 지적했다.

〈표 V-51〉 학업지원 프로그램 개선 사항(복수응답)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7	3	12	7	13	25	67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3(42.9)	-	1(8.3)	4(57.1)	2(15.4)	9(36.0)	19(28.4)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	1(33.3)	-	-	-	6(24.0)	7(10.4)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환경 개선(교실, 학습도구 등)	6(85.7)	2(66.7)	3(25.0)	2(28.6)	8(61.5)	8(32.0)	29(43.3)
청소년들이 과목수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 및 지원 처 확보	3(42.9)	-	10(83.3)	3(42.9)	8(61.5)	11(44.0)	35(52.2)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	2(28.6)	1(33.3)	2(16.7)	3(42.9)	6(46.2)	8(32.0)	22(32.8)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적 사례관리 도입	-	2(66.7)	8(66.7)	2(28.6)	2(15.4)	8(32.0)	22(32.8)

2)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실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한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표 V-52),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용했다가 42.5%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기본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35.6%, 다른 민간기관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18.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2.3%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남녀공학대안학교의 경우 100%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100%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기본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2〉 운영 중인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의 개발처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9	3	16	13	13	33	87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기본 프로그램 사용	-	1 (33.3)	16 (100.0)	1 (7.7)	5 (38.5)	8 (24.2)	31 (35.6)
다른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 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	-	-	-	1 (7.7)	5 (38.5)	10 (30.3)	16 (18.4)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 으로 개발·사용	9 (100.0)	2 (66.7)	-	10 (76.9)	3 (23.1)	13 (39.4)	37 (42.5)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	-	-	-	-	2 (6.1)	2 (2.3)
후원기업에서 개발한 프 로그램 사용	-	-	-	1 (7.7)	-	-	1 (1.1)

현재 기관에서 운영 중인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찾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 (55.2%)의 응답비율이 높다(표 V-53).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

터가 평균 2.56점으로 가장 높고, 여자대안학교가 평균 2.00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3〉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목적 적합성

단위: 개소(%)

	사례수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평균
남녀공학대안학교	9	1(11.1)	5(55.6)	3(33.3)	-	2.22
여자대안학교	3	-	3(100.0)	-	-	2.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6	1(6.3)	6(37.5)	8(50.0)	1(6.3)	2.56
청소년자활지원관	13	-	6(46.2)	7(53.8)	-	2.54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	8(61.5)	5(38.5)	-	2.38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3	2(6.1)	20(60.6)	10(30.3)	1(3.0)	2.30
전체	87	4(4.6)	48(55.2)	33(37.9)	2(2.3)	2.38

주: 척도는 매우 불충분 1점, 불충분 2점, 충분 3점, 매우 충분 4점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직업 프로그램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점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V-54),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응답한 비율이 7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는 76.9%,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다(71.2%)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문제’에서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가족 등 주위환경의 지지가 부족하다(각각 88.5%),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다(84.6%)의 높은 동의율을 보여준다. 특히 여자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남성청소년보호시설에서는 100% 모두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이유에 참여자 문제가 포함된다고 답하고 있다. ‘운영기관의 문제’로는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관리가 어렵다가 73.1%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고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32.7%, 진로·직업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15.4%로 가장 낮은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표 V-54〉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단위: 개수(%)

		전체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지원 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센터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사례수	52	6	3	7	6	8	22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	프로그램의 기간이 짧다	29(55.8)	4(66.7)	2(66.7)	3(42.9)	5(83.3)	3(37.5)	12(54.5)
	프로그램의 내용 부실하다	24(46.2)	3(50.0)	1(33.3)	-	5(83.3)	3(37.5)	12(54.5)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37(71.2)	5(83.3)	3(100.0)	4(57.1)	6(100.0)	4(50.0)	15(68.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 부족	41(78.8)	4(66.7)	3(100.0)	6(85.7)	4(66.7)	7(87.5)	17(77.3)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 인력의 전문성 부족	32(61.5)	3(50.0)	2(66.7)	3(42.9)	4(66.7)	6(75.0)	14(63.6)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40(76.9)	5(83.3)	2(66.7)	6(85.7)	6(100.0)	6(75.0)	15(68.2)
참여자 문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	46(88.5)	4(66.7)	3(100.0)	7(100.0)	5(83.3)	8(100.0)	19(86.4)
	기본적인 학습능력 부족	44(84.6)	3(50.0)	3(100.0)	7(100.0)	4(66.7)	8(100.0)	19(86.4)
	가족 등 주위환경 지지 부족	46(88.5)	3(50.0)	3(100.0)	7(100.0)	6(100.0)	8(100.0)	19(86.4)
운영기관의 문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17(32.7)	2(33.3)	1(33.3)	1(14.3)	3(50.0)	3(37.5)	7(31.8)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관리 어렵다	38(73.1)	3(50.0)	2(66.7)	7(100.0)	6(100.0)	4(50.0)	16(72.7)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 인식 부족	8(15.4)	-	1(33.3)	1(14.3)	1(16.7)	1(12.5)	4(18.2)

주: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만 제시함.

진로·직업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표 V-55), 37개의 기관에서 취업, 직업, 진로 탐색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답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 현장체험, 인턴쉽 프로그램(28개소), 직업 적성검사와 직업 기술 교육, 직업훈련, 직업 교육(24개소), 직업적성검사/직업흥미검사/스트롱검사(22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직업컨설턴트 상담/집단상담, 관련분야 자격 취득 지원, 아르바이트 연계/취업연계, 자립 지원, 심리검사, 진로캠프 등의 교육내용은 3~12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5〉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주요 내용(복수응답)

	사례수	%
취업/직업/진로 탐색	37	42.5
직업 현장체험/ 인턴십 프로그램	28	32.2
직업 기술 교육/ 직업훈련/ 직업교육	24	27.6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스트롱검사	22	25.2
진로상담/ 직업컨설턴트와 상담/ 집단 상담	12	13.8
직업 학교와 연결/ 노동부와 연결/ 고용지원센터 연결	9	10.3
진로선택/ 직업찾기	10	11.5
MBTI 성격 유형검사/심리검사	9	10.3
직업, 취업 설명회/ 직업특강	6	6.9
한직업에 성공한 직업인과의 만남	5	5.7
아르바이트 연계/ 취업연계	4	4.6
자립 지원	3	3.4
직업을 찾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일 정하기	3	3.4
진로캠프/ 두르림존	4	4.7
면접 보는 방법/이력서 작성법	4	4.7
잡 마블 게임	2	2.3
자기 주도적 생애 설계	2	2.3
진로 동아리 활동/ 진로 카페	2	2.3
청소년 창업 프로젝트	1	1.1
기타	6	6.9
사례수	87	

진로·직업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기회 정도를 살펴보면(표 V-56),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한 경우(59.3%)는 절반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참여를 못하는 경우도 27.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상담지원센터(60.0%)와 청소년 자활지원관(46.2%)에서는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나이가 제한되어 있다, 학교수업으로 참여를 못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표 V-56〉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정도

단위: 개소(%)

	사례수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능	프로그램 참여 인원 제한	1인당 프로그램 참여횟수 제한	학교수업으로	나이 제한	예산과 관련하여 진행
남녀공학대안학교	9	4(44.4)	2(22.2)	1(11.1)	1(11.1)	1(11.1)	-
여자대안학교	3	2(66.7)	-	1(33.3)	-	-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5	6(40.0)	9(60.0)	-	-	-	-
청소년자활지원관	13	5(38.5)	6(46.2)	1(7.7)	-	1(7.7)	-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10(76.9)	-	2(15.4)	-	-	1(7.7)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3	24(72.7)	7(21.2)	2(6.1)	-	-	-
전체	86	51(59.3)	24(27.9)	7(8.1)	1(1.2)	2(2.3)	1(1.2)

〈표 V-57〉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단계적 수준 개발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9	4(44.4)	5(55.6)
여자대안학교	3	1(33.3)	2(66.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6	13(81.3)	3(18.8)
청소년자활지원관	13	6(46.2)	7(53.8)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5(38.5)	8(61.5)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3	18(54.5)	15(45.5)
전체	87	47(54.0)	40(46.0)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수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54.0%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46.0%로 나타났다(표 V-57).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단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개발하고 있는 응답비율이 81.3%로 높게 나타났다.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V-58), 참가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46.8%의 비율로 가장 높고,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

그램 경로를 따라간다(29.8%),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23.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남녀공학 대안학교(50.0%)와 남성청소년보호시설의(40.0%) 경우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가는 경우가 가장 많고, 참가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여자대안학교(10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53.8%), 청소년자활지원관(66.7%), 여성청소년보호시설(44.4%)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8〉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단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

단위: 개소(%)

	사례수	모든 프로그램참가자들이 동일 프로그램 경로 따라감	참가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재설계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
남녀공학대안학교	4	2(50.0)	1(25.0)	1(25.0)
여자대안학교	1	-	1(100.0)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	5(38.5)	7(53.8)	1(7.7)
청소년자활지원관	6	1(16.7)	4(66.7)	1(16.7)
남성청소년보호시설	5	2(40.0)	1(20.0)	2(40.0)
여성청소년보호시설	18	4(22.2)	8(44.4)	6(33.3)
전체	47	14(29.8)	22(46.8)	11(23.4)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표 V-59),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외부지원의 어려움이 54.0%로 절반이상의 비율이 응답했으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 확보의 어려움(33.3%),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27.6%)의 순으로 응답한 비율을 볼 때, 진로·직업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어려움(60.9%)이 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공학대안학교(66.7%), 여자대안학교(10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68.8%), 여성청소년보호시설(45.5%)은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외부지원의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청소년자활지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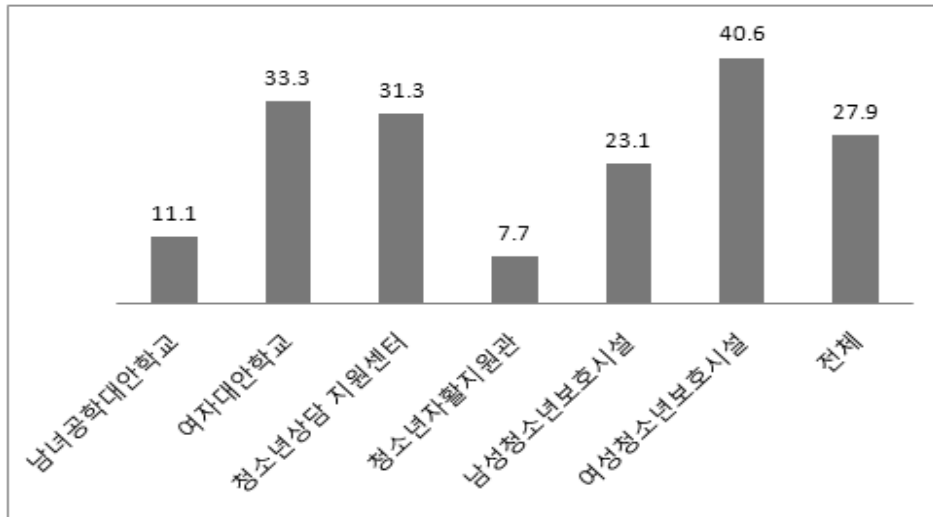
(53.8%), 남성청소년보호시설(61.5%)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의 확보가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청소년들의 의지부족, 프로그램 운영시간 부족, 예산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표 V-59〉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개수(%)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9	3	16	13	13	33	87
프로그램 운영 관련 전문지식 부족	1(11.1)	-	-	2(15.4)	2(15.4)	12(36.4)	17(19.5)
프로그램 운영 시 장시간 혼자 진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	-	-	4(25.0)	3(23.1)	2(15.4)	4(12.1)	13(14.9)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	3(33.3)	-	8(50.0)	4(30.8)	1(7.7)	8(24.2)	24(27.6)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부족 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	3(33.3)	1(33.3)	3(18.8)	-	2(15.4)	2(6.1)	11(12.6)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	2(22.2)	1(33.3)	2(12.5)	7(53.8)	8(61.5)	9(27.3)	29(33.3)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부정 적 인식 때문에 외부지원 어 려움	6(66.7)	3(100.0)	11(68.8)	6(46.2)	6(46.2)	15(45.5)	47(54.0)
기타	3(33.3)	1(33.3)	1(6.3)	1(7.7)	1(7.7)	8(24.2)	15(17.2)
참여자의 중도하차	-	-	-	-	-	1(3.0)	1(1.1)
청소년들의 의지 부족	-	-	-	1(7.7)	1(7.7)	1(3.0)	3(3.4)
청소년들의 인지 부족	-	-	-	-	1(7.7)	1(3.0)	2(2.3)
프로그램 운영 시간 부족	-	-	-	-	-	2(6.1)	2(2.3)
대상자 자주 변경(단기쉼터 특성)	-	-	1(6.3)	-	1(7.7)	-	2(2.3)
예산부족	-	-	-	1(7.7)	1(7.7)	-	2(2.3)

청소년의 성별 특성이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72.1%)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그림 V-3). 특히 남녀공학대안학교, 청소년자활지원관의 경우에는 약 90%이상 프로그램에 성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3]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율

〈표 V-60〉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미반영 이유

단위: 개수(%)

	남녀공학대안학교	여자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자활지원관	남성청소년보호시설	여성청소년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8	2	11	12	10	19	62
주로 남성청소년들이 흥미있을 자료 사용	-	-	-	-	3(30.0)	-	3(4.8)
여성청소년들이 관심있을 내용 부족	-	-	1(9.1)	-	-	2(10.5)	3(4.8)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 없기 때문	6(75.0)	2(100.0)	10(90.9)	7(58.3)	4(40.0)	10(52.6)	39(62.9)
성별 차이에 대한 기관 인식 부족	-	-	-	4(33.3)	2(20.0)	4(21.1)	10(16.1)
여성시설이기 때문에(여성만 입소대상)	-	-	-	-	-	3(15.8)	3(4.8)
개개인 특성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별과 무관	1(12.5)	-	-	1(8.3)	1(10.0)	-	3(4.8)
다양한 욕구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1(12.5)	-	-	-	-	-	1(1.6)

청소년의 성별 특성이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미반영 이유를 알아본 결과(표 V-60),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가 62.9%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개개인의 특성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성별과 무관해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어서 등으로 나타났다.

〈표 V-61〉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에 여성청소년 특화 내용 포함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9	-	9(100.0)
여자대안학교	3	1(33.3)	2(66.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6	-	16(100.0)
청소년자활지원관	13	1(7.7)	12(92.3)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	13(100.0)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3	7(21.2)	26(78.8)
전체	87	9(10.3)	78(89.7)

다음으로 진로·직업 프로그램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여 포함시킨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89.7% 대부분이 특별히 포함시킨 내용은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V-61). 남성훈련기관을 제외하고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100%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포함시킨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2〉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에 포함된 여성청소년 특화내용(복수응답)

	사례수	%
여성의 전문적인 일 찾기	3	33.3
피부관리 프로그램	3	33.3
공예만들기(비즈, 리본, 장신구 등)	2	22.2
직업의 이해/ 직업가치관	2	22.2
네일아트 프로그램	1	11.1
제과제빵	1	11.1
증장비	1	11.1
응답기관수	9	

222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진로·직업 프로그램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하여 포함시킨 내용이 있다고 한 기관 중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표 V-62), 여성의 전문적인 일 찾기, 피부 관리 프로그램, 공예 만들기, 직업의 이해/ 직업가치관 등으로 나타났다.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교육 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89.7%가 남녀 반응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표 V-63).

〈표 V-63〉 진로·직업 찾기 교육전후 남녀 반응 차이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9	2(22.2)	7(77.8)
여자대안학교	3	-	3(10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6	4(25.0)	12(75.0)
청소년자활지원관	13	1(7.7)	12(92.3)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1(7.7)	12(92.3)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3	1(3.0)	32(97.0)
전체	87	9(10.3)	78(89.7)

청소년들이 교육 전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군이 다르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여자아이들의 경우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여학생의 참여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등의 의견으로 나타났다(표 V-64).

〈표 V-64〉 진로·직업 찾기 교육 전후 남녀 반응의 차이(복수응답)

	사례수	%
성별 따라 선호 직업군이 다르다	4	44.4
친밀감의 정도 차이(여자아이들은 세심한 배려, 관심 필요로 함)	2	22.2
여학생의 참여로 적극적	2	22.2
진행자와의 의사소통 문제	1	11.1
여성청소년이 남자에 비해 포기가 빠르다	1	11.1
응답기관수	9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4.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표 V-65). 여자대안학교, 청소년자활지원관은 100%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65〉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개선 필요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9	7(77.8)	2(22.2)
여자대안학교	3	3(100.0)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6	9(56.3)	7(43.8)
청소년자활지원관	13	13(100.0)	-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10(76.9)	3(23.1)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3	23(69.7)	10(30.3)
전체	87	65(74.7)	22(25.3)

진로·직업 프로그램에서 개선해야 할 상황을 살펴보면(표 V-66), 현장 실습처의 다양화가 55.4%로 절반이상의 응답비율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50.8%),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적 사례관리 도입(3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61.5%), 남성청소년보호시설(70.0%), 여성청소년보호시설(56.5%)에서 프로그램의 내용의 전문성을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남녀공학대안학교(57.1%), 여자대안학교(100.0%)에서 현장실습처의 다양화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또한 실습도구의 현실성도 여자대안학교(100.0%)에서 꼽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66.7%)는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적 사례관리 도입을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기타의견으로는 담당교사의 강한 의지 필요, 운영비 확대, 취업교육의 필요성 및 동기부여에 대한 교육 필요, 인력 확대 등으로 나타났다.

〈표 V-66〉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개선 사항(복수응답)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7	3	9	13	10	23	65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3(42.9)	-	2(22.2)	8(61.5)	7(70.0)	13(56.5)	33(50.8)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	-	2(22.2)	1(7.7)	1(10.0)	6(26.1)	10(15.4)
실습도구의 현실성	3(42.9)	3(100.0)	3(33.3)	1(7.7)	4(40.0)	3(13.0)	17(26.2)
현장실습처의 다양화	4(57.1)	3(100.0)	4(44.4)	7(53.8)	7(70.0)	11(47.8)	36(55.4)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적 사례관리 도입	1(14.3)	-	6(66.7)	5(38.5)	-	8(34.8)	20(30.8)
담당교사의 강한 의지 필요	1(14.3)	-	-	-	-	-	1(1.5)
운영비 확대	-	-	-	2(15.4)	1(10.0)	1(4.3)	4(6.2)
취업교육의 필요성 및 동기부여에 대한 교육 필요	-	-	-	-	-	1(4.3)	1(1.5)
인력 확대	-	-	-	1(7.7)	-	-	1(1.5)
나이제한(15세미만 참여불 가)이 있다	-	-	-	-	-	1(4.3)	1(1.5)
부모님에 대한 인식 전환	1(14.3)	-	-	-	-	-	1(1.5)

3)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실태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한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표 V-67),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 사용했다가 76.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른 민간기관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17.5%,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기본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11.3%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남녀공학대안학교, 청소년자활지원관, 여성청소년보호시설은 80~90%가 여자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남성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50~67%정도가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7〉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사용 여부(복수응답)

단위: 개소(%)

	사례수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기본프로그램 사용	다른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용
남녀공학대안학교	9	1(11.1)	1(11.1)	8(88.9)
여자대안학교	3	-	1(33.3)	2(66.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8	4(50.0)	2(25.0)	4(50.0)
청소년자활지원관	10	1(10.0)	-	9(90.0)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1(7.7)	5(38.5)	7(53.8)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2(5.4)	5(13.5)	31(83.8)
전체	80	9(11.3)	14(17.5)	61(76.3)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52.5%)의 응답비율이 충분하다는 응답비율(47.5%)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68). 기관별로 살펴보면 남녀대안학교가 2.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이 2.30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8〉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목적 적합성

단위: 개소(%)

	사례수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평균
남녀공학대안학교	9	-	4(44.4)	4(44.4)	1(11.1)	2.67
여자대안학교	3	-	2(66.7)	1(33.3)	-	2.33
청소년상담지원센터	8	1(12.5)	2(25.0)	4(50.0)	1(12.5)	2.63
청소년자활지원관	10	1(9.1)	6(54.6)	2(18.2)	1(9.1)	2.30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	6(46.2)	7(53.8)	-	2.54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4(10.8)	16(43.2)	14(37.8)	3(8.1)	2.43
전체	80	6(7.5)	36(45.0)	32(40.0)	6(7.5)	2.48

주: 척도는 매우불충분 1점, 불충분 2점, 충분 3점, 매우충분 4점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정서적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V-69), ‘프로그램 자체의 문

제'에서는 운영예산이 부족하다는 응답한 비율이 92.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다(83.3%),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6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프로그램의 기간이 너무 짧다(85.7%),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하다가 71.4%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부족하다와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100%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69〉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목적달성 불충분 이유(동의률)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남녀공학 학대안 학교	여자대 안학교	청소년 상담지 원센터	청소년 자활지 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사례수		42	4	2	3	7	6	20
프로그램 자체 문제	프로그램 기간이 너무 짧다	24(57.1)	2(50.0)	1(50.0)	1(33.3)	6(85.7)	1(16.7)	13(65.0)
	프로그램의 내용 부실	20(47.6)	2(50.0)	-	-	5(71.4)	4(66.7)	9(45.0)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25(59.5)	3(75.0)	1(50.0)	3(100.0)	5(71.4)	3(50.0)	10(50.0)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 한 지역의 다양한 자 원 부족	35(83.3)	3(75.0)	2(100.0)	2(66.7)	6(85.7)	6(100.0)	16(80.0)
	강사 등 프로그램 투 입인력의 전문성 부족	28(66.7)	3(75.0)	1(50.0)	3(100.0)	4(57.1)	2(33.3)	15(75.0)
	운영예산 부족	39(92.9)	4(100.0)	2(100.0)	3(100.0)	6(85.7)	4(66.7)	20(100.0)
참여 자 문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 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	34(81.0)	2(50.0)	1(50.0)	3(100.0)	5(71.4)	5(83.3)	18(90.0)
	기본적인 학습능력 부족	31(73.8)	2(50.0)	2(100.0)	3(100.0)	3(42.9)	5(83.3)	16(80.0)
	가족 등 주위환경 지 지 부족	37(88.1)	2(50.0)	2(100.0)	3(100.0)	6(85.7)	6(100.0)	18(90.0)
운영 기관 문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17(40.5)	-	-	1(33.3)	2(28.6)	2(33.3)	12(60.0)
	담당자 부족으로 프 로그램 참여자 사례관 리 어려움	32(76.2)	3(75.0)	2(100.0)	3(100.0)	6(85.7)	3(50.0)	15(75.0)
	사회·정서적 지원 프 로그램 필요성에 대 한 기관 인식 부족	9(21.4)	-	-	-	3(42.9)	-	6(30.0)

주: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만 제시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항목은 여자대안학교와 남성청소년보호시설에서 모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예산이 부족하다는 남성청소년보호시설(66.7%)을 제외하고는 모두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참여자의 문제’에서는 가족 등 주위환경의 지지가 부족하다는 88.1%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81.0%),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다(73.8%)의 순으로 모두 높은 동의율을 보여준다. 특히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100% 모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를 참여자 문제로 꼽고 있었다. ‘운영기관의 문제’로는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관리가 어렵다가 76.2%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고,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40.5%),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21.4%로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여자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에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관리가 어렵다가 100%로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0〉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복수응답)

	사례수	%
미술치료/연극치료/음악치료/원예치료 등	42	51.9
문화체험활동 (연극, 영화, 야구관람)	22	27.2
개별 또는 집단 상담	15	18.5
자아존중 프로그램/ 자아 정체성	14	17.3
인문학 강좌(인문학, 소통, 여성, 철학, 독서 등)	10	12.3
심리상담 캠프	9	11.1
정서지원 프로그램/ 정서 순화/ 마음다루기/ 분노조절	8	9.9
자원봉사(복지시설 봉사, 노인 무료급식 배식)	7	8.6
인성교육/ 품성개발	6	7.4
공예 등 취미활동	6	7.4
여행/ 지역탐방/ 자연체험 활동	6	7.4
사회 적응 프로그램	5	6.2
체육 활동 프로그램(탁구, 농구), 요가	5	6.2
요리 등 일상생활 기술 프로그램	5	6.2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등/ 의지향상프로그램/ 리더십	5	6.2
가족 사회/ 집안 상담	4	4.9
기타	6	6.2
응답기관수	81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조사한 결과(표 V-70), 미술치료/연극치료/음악치료/원예치료 등을 하는 기관이 42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연극, 영화, 야구관람 등 문화체험활동이 22개소, 개별 또는 집단 상담(15개소), 자아존중 프로그램/자아 정체성(14개소), 인문학 강좌(10개소), 심리상담 캠프(9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기회 정도를 살펴보니 대부분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한 것(77.5%)으로 나타났다(표 V-71). 여자대안학교의 경우 100% 원하는 만큼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기관에서도 대부분 약 63~87% 정도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참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25.0%, 청소년자활지원관은 50.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1〉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정도

단위: 개소(%)

	사례수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능	프로그램 참여 인원 제한	1인당 프로그램 참여횟수 제한	학교수업으로
남녀공학대안학교	9	6(66.7)	1(11.1)	-	2(22.2)
여자대안학교	3	3(100.0)	-	-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8	5(62.5)	2(25.0)	1(12.5)	-
청소년자활지원관	10	5(50.0)	5(50.0)	-	-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11(84.6)	1(7.7)	1(7.7)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32(86.5)	5(13.5)	-	-
전체	80	62(77.5)	14(17.5)	2(2.5)	2(2.5)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수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32.5%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가 67.5%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표 V-72). 하지만 남녀공학대안학교, 여자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는 다소 단계적으로 청소년들의 수준에 맞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72〉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단계적 수준 개발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9	5(55.6)	4(44.4)
여자대안학교	3	2(66.7)	1(33.3)
청소년상담지원센터	8	4(50.0)	4(50.0)
청소년자활지원관	10	3(30.0)	7(70.0)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1(7.7)	12(92.3)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11(29.7)	26(70.3)
전체	80	26(32.5)	54(67.5)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표 V-73), 참가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53.8%의 비율로 가장 높았고,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26.9%),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간다(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은 66.7%로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가는 비중이 많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참가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75.0%로 높게 나타났다.

〈표 V-73〉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단계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

단위: 개소(%)

	사례수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 따라간다	참가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 재설계 후 운영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 제공
남녀공학대안학교	5	1(20.0)	2(40.0)	2(40.0)
여자대안학교	2	-	1(50.0)	1(5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	4	1(25.0)	3(75.0)	-
청소년자활지원관	3	2(66.7)	-	1(33.3)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	-	1(100.0)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11	1(9.1)	7(63.6)	3(27.3)
전체	26	5(19.2)	14(53.8)	7(26.9)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표 V-74),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54.3%로 절반이상의 비율이 응답했으며,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40.7%),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에 대한 부족(29.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남녀공학대안학교는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에 대한 부족(44.4%)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 시 장시간 혼자 진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37.5%)과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 부족 문제(75.0%)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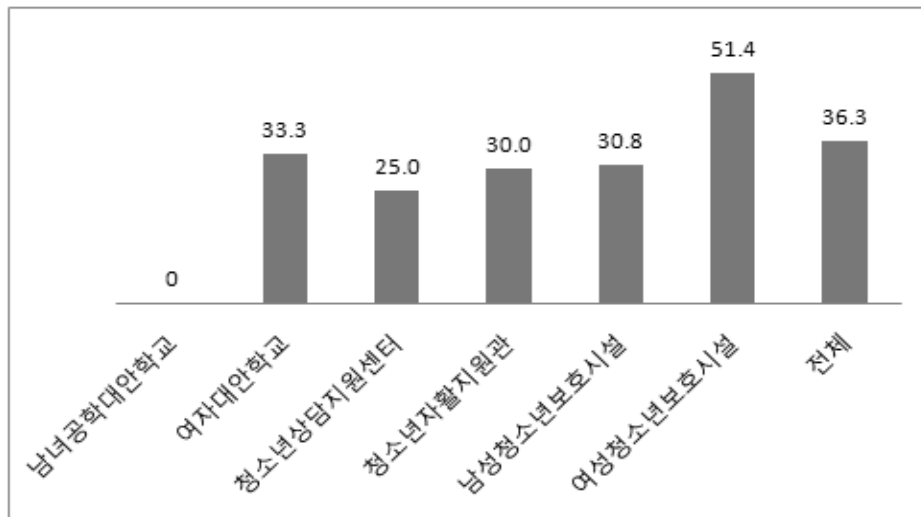
〈표 V-74〉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대안 학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자 활지원관	남성청소년 보호시설	여성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9	3	8	11	13	37	81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 부족	4(44.4)	-	-	2(18.2)	5(38.5)	13(35.1)	24(29.6)
프로그램 운영 시 장시간 혼자 진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	1(11.1)	-	3(37.5)	2(18.2)	2(15.4)	8(21.6)	16(19.8)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	5(55.6)	1(33.3)	6(75.0)	5(45.5)	2(15.4)	14(37.8)	33(40.7)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	-	1(33.3)	2(25.0)	2(18.2)	6(46.2)	5(13.5)	16(19.8)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 확보 어려움	2(22.2)	3(100.0)	3(37.5)	7(63.6)	7(53.8)	22(59.5)	44(54.3)
입소자들이 참여하기 꺼려함	1(11.1)	-	1(12.5)	-	-	-	2(2.5)
예산 부족/강사비 부족	2(22.2)	-	-	1(9.1)	1(7.7)	5(13.5)	9(11.1)
프로그램 운영 시간 부족	-	1(33.3)	-	-	-	-	1(1.2)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 부족으로 안내 홍보 어려움	-	-	1(12.5)	-	-	-	1(1.2)
참여 청소년의 의지 부족	-	-	-	1(9.1)	-	-	1(1.2)
입소자가 단기간 머물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	-	-	-	-	-	1(2.7)	1(1.2)
없다	1(11.1)	-	-	-	1(7.7)	-	2(2.5)

남성청소년보호시설에서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46.2%)을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여자대안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 확보의 어려움(10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예산부족(강사비 부족), 입소자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한다 등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그렇지 않다(63.7%)고 응답하였다(그림 V-4). 하지만 여성청소년보호시설(51.4%)에서는 다른 기관에 비해 성별 특성이 프로그램에 반영되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4]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율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미반영 이유를 알아본 결과(표 V-75),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74.5%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표 V-75〉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미반영 이유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 학교	여자대 안학교	청소년 상담지 원센터	청소년 자활지 원관	남성청 소년보 호시설	여성청 소년보 호시설	전체
사례수	9	2	6	7	9	18	51
주로 남성청소년들이 흥미있을 자료들 사용	1(11.1)	-	-	-	-	-	1(2.0)
여성청소년들 관심 있을 내용 부족	-	-	-	-	-	4(22.2)	4(7.8)
성별 특성 고려할 필요 없기 때문	7(77.8)	2(100.0)	6(100.0)	6(100.0)	6(66.7)	11(61.1)	38(74.5)
성별 차이에 대한 기관 인식 부족	-	-	-	1(14.3)	2(22.2)	1(5.6)	4(7.8)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기 때문	1(11.1)	-	-	-	1(11.1)	-	2(3.9)
여성만 입소	-	-	-	-	-	2(11.1)	2(3.9)

다음으로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여 포함시킨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83.7% 대부분이 특별히 포함시킨 내용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청소년에게 특화된 내용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개소 중 10개소가 있다(27.0%)고 응답하였으며, 이 밖에 남녀공학대안학교 1개소, 여자대안학교 2개소 등이다.

〈표 V-76〉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된 여성청소년 특화내용(복수응답)

	사례수	%
미술치료/음악치료/연극치료/원예치료	7	53.8
여성 정체성 찾기/자존감	3	23.1
취미 강좌(공예품 만들기 등)	2	15.4
인권 교육	2	15.4
문화 체험 프로그램(여학생 선호하는 영화)	1	7.7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	1	7.7
자신 보호, 방어 프로그램	1	7.7
요가 등 기타	3	23.1
응답기관수	13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내용 중 여성청소년 특화 내용이 있다고 한 기관 중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표 V-76), 미술/음악을 이용한 심리치료, 취미 강좌(공예품 만들기 등), 인권 교육, 여성 정체성 찾기/자존감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교육 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는 92.5%가 남녀 반응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교육 후 반응에서 성별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청소년자활지원기관이 10개소 중 3개소로 가장 많고, 남녀공학대안학교, 여자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각각 1개소로 총 6개소이다.

청소년들의 교육 전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별로 프로그램 테마에 따라 관심도의 차이가 다르다는 의견, 남성청소년의 경우 활동 프로그램을 선호하다는 의견과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예술 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의견,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해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으로 나타났다(표 V-77).

〈표 V-77〉 사회·정서 프로그램 교육후 남녀반응 차이(복수응답)

	사례수	%
여자 아이들 위한 예술 치료(여자아이들 선호도)	2	33.3
(정서적) 테마에 따라 받아들이고 관심도 차이	2	33.3
남자아이들은 활동 프로그램 (운동) 선호	1	16.7
사회성 프로그램에 대해 여자아이들은 부정적	1	16.7
여자아이들은 태도가 얌전하다	1	16.7
남자아이들은 태도 산만	1	16.7
사례수	6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7.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여자대안학교의 경우에는 100%가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표 V-78).

〈표 V-78〉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선 필요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9	5(55.6)	4(44.4)
여자대안학교	3	3(100.0)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8	6(75.0)	2(25.0)
청소년자활지원관	10	9(90.0)	1(10.0)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3	10(76.9)	3(23.1)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29(78.4)	8(21.6)
전체	80	62(77.5)	18(22.5)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표 V-79),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다양화가 45.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가 등 외부 전문자원의 연계(38.7%),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문가 등 외부 전문자원의 연계가 남녀공학대안학교(80.0%), 여자대안학교(100.0%)에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다양화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66.7%), 청소년자활지원관(66.7%), 남성청소년보호시설(50.0%), 여성청소년보호시설(41.4%)에서 가장 많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표 V-79〉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개선 사항(복수응답)

단위: 개소(%)

	사례수	프로그램 내용 전문성	프로그램 운영자 전문성	프로그램 필요 자료 다양화	전문가 등 외부 전문자원 연계	예산	인력 부족
남녀공학대안학교	5	1(20.0)	-	1(20.0)	4(80.0)	-	-
여자대안학교	3	-	-	-	3(100.0)	-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6	-	2(33.3)	4(66.7)	1(16.7)	-	-
청소년자활지원관	9	1(11.1)	-	6(66.7)	1(11.1)	2(22.2)	1(11.1)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0	1(10.0)	-	5(50.0)	3(30.0)	1(10.0)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29	4(13.8)	1(3.4)	12(41.4)	12(41.4)	-	1(3.4)
전체	62	7(11.3)	3(4.8)	28(45.2)	24(38.7)	3(4.8)	2(3.2)

4)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실태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고 한 기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고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표 V-80),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용했다와 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 실시했다가 3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다른 민간기관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가 27.1%,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기본프로그램을 사용했다(8.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여자대안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용했다(66.7%),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개발한 기본프로그램을 사용했다(60.0%)의 응답비율이 높다.

〈표 V-80〉 운영 중인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처(복수응답)

단위: 개소(%)

	사례수	중앙정부 개발 프로그램	다른 민간기관 등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 담당자 자체 개발·사용	성 관련 전문기관 위탁교육	산부인과 의사 내방 강의	전문강사 초빙
남녀공학대안학교	8	-	3(37.5)	2(25.0)	3(37.5)	-	-
여자대안학교	3	1(33.3)	-	2(66.7)	1(33.3)	-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3(60.0)	1(20.0)	2(40.0)	1(20.0)	-	-
청소년자활지원관	3	1(33.3)	-	1(33.3)	1(33.3)	-	-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4	-	5(35.7)	4(28.6)	5(35.7)	-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1(2.7)	10(27.0)	12(32.4)	12(32.4)	1(2.7)	1(2.7)
전체	70	6(8.6)	19(27.1)	23(32.9)	23(32.9)	1(1.4)	1(1.4)

현재 운영 중인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60.0%)의 응답비율이 충분하다(40.0%)의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표 V-81).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평균 2.6점으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이 평균 1.6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1〉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적합성

단위: 개소(%)

	사례수	매우 불충분	불충분	충분	매우 충분	평균
남녀공학대안학교	8	-	4(50.0)	4(50.0)	-	2.50
여자대안학교	3	-	3(100.0)	-	-	2.00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	2(40.0)	3(60.0)	-	2.60
청소년자활지원관	3	2(66.7)	-	1(33.3)	-	1.67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4	-	12(85.7)	2(14.3)	-	2.14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2(5.4)	17(45.9)	15(40.5)	3(8.1)	2.51
전체	70	4(5.7)	38(54.3)	25(35.7)	3(4.3)	2.39

주: 척도는 매우불충분 1점, 불충분 2점, 충분 3점, 매우충분 4점

〈표 V-82〉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목적달성 불충분 이유(동의율)

단위: 개소(%)

구분	전체	남녀 공학 대안 학교	여자 대안 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 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 시설
사례수	42	4	3	2	2	12	19
프로그램 자체 문제	프로그램 기간이 너무 짧다	25(59.5)	3(75.0)	1(33.3)	1(50.0)	2(100.0)	15(78.9)
	프로그램의 내용 부실	24(57.1)	3(75.0)	3(100.0)	1(50.0)	2(100.0)	10(52.6)
	프로그램 운영 공간 부족	17(40.5)	3(75.0)	2(66.7)	1(50.0)	2(100.0)	6(31.6)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 부족	37(88.1)	4(100.0)	2(66.7)	2(100.0)	2(100.0)	17(89.5)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 부족	28(66.7)	2(50.0)	1(33.3)	2(100.0)	2(100.0)	13(68.4)
	운영예산 부족	28(66.7)	3(75.0)	1(33.3)	2(100.0)	2(100.0)	14(73.7)
참여자 문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부족	35(83.3)	3(75.0)	2(66.7)	2(100.0)	1(50.0)	17(89.5)
	기본적인 학습능력 부족	31(73.8)	2(50.0)	2(66.7)	2(100.0)	1(50.0)	14(73.7)
	가족 등 주위환경 지지 부족	33(78.6)	3(75.0)	2(66.7)	2(100.0)	2(100.0)	14(73.7)
운영기관 문제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15(35.7)	2(50.0)	-	-	2(100.0)	4(33.3)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 사례관리 어려움	27(64.3)	3(75.0)	1(33.3)	1(50.0)	2(100.0)	15(78.9)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기관 인식 부족	6(14.3)	-	-	-	2(100.0)	1(8.3)

주: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만 제시함.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선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표 V-82),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88.1%로 가장 높았으며,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운영예산이 부족하다(66.7%), 프로그램의 기간이 너무 짧다(59.5%)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는 100% 모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를 들고 있다. 여자대안학교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응답자 모두 생각하고 있었으며 남녀공학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았다. 또한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운영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문제’에서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83.3%), 가족 등 주위환경의 지지가 부족하다(78.6%),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다(73.8%)의 순으로 답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참여자문제의 동의율은 79~84%로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는 100%모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에 참여자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청소년자활지원관은 가족 등 주위환경의 지지가 부족해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운영기관의 문제’로는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 관리가 어렵다(64.3%)에 대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서가 35.7%,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해서가 14.3%의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기관별로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여자대안학교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청소년자활지원관의 경우에는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해서에 대한 동의율이 100%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공학대안학교, 여자대안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자활지원관은 100%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3〉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주요 내용(복수응답)

	사례수	%
올바른 피임법/낙태예방	23	28.2
생명 탄생과 소중함/임신과 출산	22	31.0
성에 대한 정체성 확립/성에 대한 올바른 인지	21	29.6
남녀의 차이/신체적 차이	14	19.7
성희롱예방/성폭력/성폭력에 대한 대처법	12	12.7
성관계/성매매 예방	10	14.1
성생활에 대한 책임/임신예방	8	11.3
성문화 센터 체험 교실 방문	8	11.3
나 자신의 소중함/자존감 향상	7	9.9
올바른 이성교제	6	8.5
성병	4	5.6
성적 자기 결정권 향상 교육	4	2.8
혼전순결	1	1.4
기타	3	1.4
사례수	71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표 V-83), 올바른 피임/낙태예방이 가장 많은 23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생명 탄생과 소중함/임신과 출산(22개소), 성에 대한 정체성 확립/성에 대한 올바른 인지(21개소), 남녀의 차이/신체적 차이(14개소), 성희롱 예방/성폭력/성폭력에 대한 대처법(12개소), 성관계/성매매 예방(10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생활에 대한 책임/임신예방, 나 자신의 소중함/자존감 향상, 올바른 이성교제, 성병, 낙태예방 등의 교육내용은 3~8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 향상 교육, 혼전순결, 결혼 등에 관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4〉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정도

단위: 개소(%)

	사례수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능	프로그램 참여 인원 제한	1인당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 제한	기타
남녀공학대안학교	8	5(62.5)	-	2(25.0)	1(12.5)
여자대안학교	3	3(100.0)	-	-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3(60.0)	2(40.0)	-	-
청소년자활지원관	3	1(33.3)	1(33.3)	1(33.3)	-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4	12(85.7)	-	2(14.3)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30(81.1)	3(8.1)	4(10.8)	-
전체	70	54(77.1)	6(8.6)	9(12.9)	1(1.4)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청소년의 참여기회 정도를 살펴보면(표 V-84), 대부분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 가능한 것(77.1%)으로 나타났다. 여자대안학교의 경우 100% 원하는 만큼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기관에서도 대부분 약 60~86%정도의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하지만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참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40.0%, 청소년자활지원관은 33.3%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V-85〉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단계적 수준 개발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8	2(25.0)	6(75.0)
여자대안학교	3	1(33.3)	2(66.7)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1(20.0)	4(80.0)
청소년자활지원관	3	1(33.3)	2(66.7)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4	2(14.3)	12(85.7)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12(32.4)	25(67.6)
전체	70	19(27.1)	51(72.9)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수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27.1%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도 72.9%로 나타났다(표 V-85). 기관별로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청

소년들의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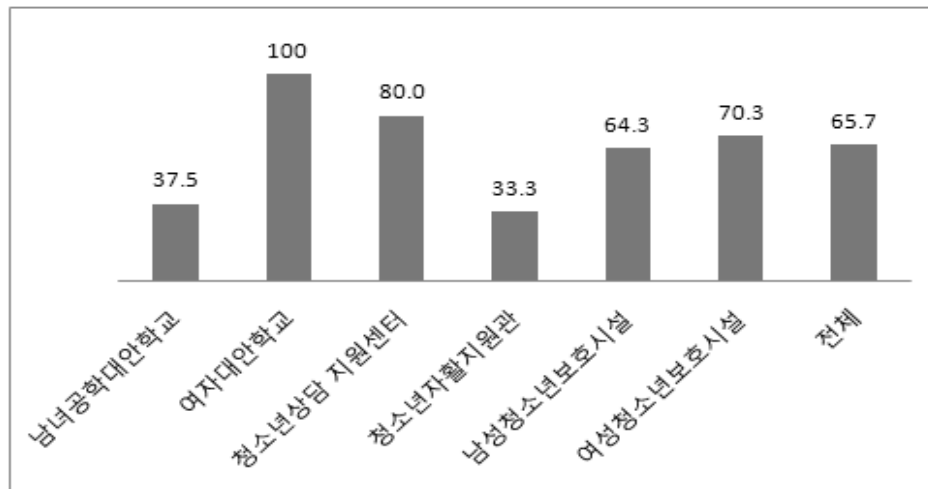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단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간다(68.4%)의 비율이 가장 높고, 참가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15.8%,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10.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86〉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복수응답)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8	3	5	4	14	37	71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 부족	1(12.5)	1(33.3)	2(40.0)	2(50.0)	4(28.6)	13(35.1)	23(32.4)
프로그램 운영 시 장시간 혼자 진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	2(25.0)	-	1(20.0)	-	1(7.1)	7(18.9)	11(15.5)
많은 청소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	4(50.0)	1(33.3)	1(20.0)	-	1(7.1)	9(24.3)	16(22.5)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부족으로 인한 설명 어려움	1(12.5)	-	2(40.0)	2(50.0)	8(57.1)	14(37.8)	27(38.0)
본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	3(37.5)	2(66.7)	1(20.0)	2(50.0)	11(78.6)	19(51.4)	38(53.5)
참여자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	1(33.3)	-	-	1(7.1)	1(2.7)	3(4.2)
전문적인 강사 초빙의 어려움	-	-	-	-	-	1(2.7)	1(1.4)
예산부족으로 강사비 책정이 어려워 자원봉사로 이용하는 점	-	-	-	-	1(7.1)	1(2.7)	2(2.8)
낮은 참여율	-	-	1(20.0)	-	-	1(2.7)	2(2.8)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	1(12.5)	-	-	-	-	-	1(1.4)
청소년의 정보부족으로 안내홍보 어려움	-	-	1(20.0)	-	-	-	1(1.4)
교구 부족	-	-	-	-	-	1(2.7)	1(1.4)
없다	1(12.5)	-	-	-	-	1(2.7)	2(2.8)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표 V-86), 본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가 53.5%의 응답으로 가장 높았으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38.0%),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 부족이 32.4%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은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의 부족(50.0%)을 애로점으로 꼽았으며, 남녀공학대안학교는 프로그램 운영 시 장시간 혼자 진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25.5%)과 많은 청소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50.0%)인 것으로 응답했다. 남성청소년보호시설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57.1%)과 본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78.6%)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응답하였다. 기타의견으로는 낮은 참여율, 예산부족으로 강사비 책정이 어려워 자원봉사로 이용하는 점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V-5] 성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반영율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그렇다(65.7%)고 응답하였다(그림 V-5).

〈표 V-87〉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미반영 이유

단위: 개소(%)

	사례수	여성청소년들이 관심 있을 내용 부족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 없기 때문	청소년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관 인식 부족	여성만 입소
남녀공학대안학교	5	1(20.0)	3(60.0)	1(20.0)	-
여자대안학교	-	-	-	-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	-	1(100.0)	-	-
청소년자활지원관	2	-	2(100.0)	-	-
남성청소년보호시설	5	-	3(60.0)	2(40.0)	-
여성청소년보호시설	11	-	8(72.7)	1(9.1)	2(8.2)
전체	24	1(4.2)	17(70.8)	4(16.7)	2(8.3)

하지만 청소년자활지원관(66.7%)의 경우에는 성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 특성 미반영 이유를 알아본 결과(표 V-87),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 70.8%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로 나타났다.

〈표 V-88〉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 포함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8	2(25.0)	6(75.0)
여자대안학교	3	3(100.0)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2(40.0)	3(60.0)
청소년자활지원관	3	1(33.3)	2(66.7)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4	3(21.4)	11(78.6)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24(64.9)	13(35.1)
전체	70	35(50.0)	35(50.0)

다음으로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여 포함시킨 내용이 있냐는 질문에 특별히 포함시켰다와 특별히 포함시킨 내

용은 없다는 비율은 50.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표 V-88). 하지만 여자대안학교의 경우 100%, 여성청소년보호시설(64.9%) 절반 이상이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하여 포함시킨 교육내용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내용 중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하여 포함시킨 교육내용이 있다고 한 기관 중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표 V-89), 임신과 중절/출산관련이 42.9%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몸과 책임성/존중성 31.4%, 피임 방법 2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폭력 관련 문제/예방(17.1%), 성매매 바로알기/재유입 방지(14.3%), 성관계 거절 의사 표현 방식/성적 의사결정권 훈련(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89〉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중 여성청소년 특화내용(복수응답)

	사례수	%
임신과 중절/출산관련	15	42.9
여성의 몸과 책임성/존중성/자존감	11	31.4
피임 방법	8	22.9
성폭력 관련 문제/예방	6	17.1
성매매 바로알기/재유입 방지	5	14.3
성관계 거절 의사 표현 방식, 성적 의사결정권 훈련	4	11.4
성병예방	3	8.6
육아	2	5.7
성교육에 대한 상담	1	2.9
남녀의 성문화 차이 등 기타	2	5.7
응답기관수	35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청소년들이 교육 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지를 물었을 때 87.1%가 거의 남녀 반응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교육 전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임신육아에 대한 책임감 정도와 성폭력 교육에 있어 남자는 가해자라는 생각과 여성은 피해자라는 생각, 남녀에 따른 피임법 차이 등을 들고 있다(표 V-90).

〈표 V-90〉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후 남녀 반응 차이(복수응답)

	사례수	%
임신 육아에 대한 책임감 정도	2	22.2
여자들은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나 남자들은 대화단절	2	22.2
여자아이들의 이해도가 빠르다	2	22.2
성폭력 교육에 있어 남자는 가해자라 생각	2	22.2
성폭력 교육에 있어 여자는 피해자라 생각	2	22.2
남녀에 따른 피임법 차이 (여- 사후피임)	1	11.1
남자는 피임에 대한 인식이 없다	1	11.1
여자는 사랑하면 피임 필요 없다 생각	1	11.1
사례수	9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60~100%로 나타났다(표 V-91). 이 중 여자대안학교와 청소년자활지원관의 경우가 100%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V-91〉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선 필요 여부

단위: 개소(%)

	사례수	예	아니오
남녀공학대안학교	8	6(75.0)	2(25.0)
여자대안학교	3	3(100.0)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5	3(60.0)	2(40.0)
청소년자활지원관	3	3(100.0)	-
남성청소년보호시설	14	10(71.4)	4(28.6)
여성청소년보호시설	37	26(70.3)	11(29.7)
전체	70	51(72.9)	19(27.1)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표 V-92), 교육 프로그램 자료의 다양화가 39.2%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자원의 연계(25.5%),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자의 전문성(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남녀공학대안학

교(50.0%)와 여성청소년보호시설(42.3%)의 경우 교육 프로그램 자료의 다양화를 개선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66.7%)는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청소년자활지원관(66.7%)은 외부 전문 자원 연계에 대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현실적인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운영시간 단축, 예산확대, 보다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으로 나타났다.

〈표 V-92〉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사항

단위: 개소(%)

	남녀공학 대안학교	여자 대안학교	청소년 상담지 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남성 청소년 보호시설	여성 청소년 보호시설	전체
사례수	6	3	5	4	10	26	71
프로그램 내용 전문성	2(33.3)	-	1(33.3)	-	1(10.0)	3(11.5)	7(13.7)
프로그램 운영자 전문성	-	-	2(66.7)	-	-	5(19.2)	7(13.7)
교육 프로그램 자료 다양화	3(50.0)	1(33.3)	-	1(33.3)	4(40.0)	11(42.3)	20(39.2)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자원 연계	1(16.7)	1(33.3)	-	2(66.7)	4(40.0)	5(19.2)	13(25.5)
현실적인 프로그램 내용	-	1(33.3)	-	-	-	-	1(2.0)
프로그램 운영시간 단축	-	-	-	-	-	1(3.8)	1(2.0)
예산확대	-	-	-	-	1(10.0)	-	1(2.0)
보다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	-	-	-	-	-	1(3.8)	1(2.0)

3. 청소년 지원기관 사례분석

사례조사는 실태조사결과 분석으로부터 도출하기 어려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 서비스의 내면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서비스 영역인 학업지원 사업, 자립·자활지원사업,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사업, 미혼모 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1개 기관씩 선정하였다.

가. 기관의 특성과 현황

사례조사를 위해 선정된 기관들의 주요 서비스 제공 대상층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자활지원관은 대체로 저소득층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여성청소년쉼터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도시형 미인가 대안학교는 제도교육을 중단하고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을,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미혼모로 현재 학업중단 위기에 처한, 대체로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V-93〉 청소년 지원기관 특성과 현황

	주요대상	운영법인	직원현황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저소득층청소년	(재) 대한성회유지재단 (대한성공회 봉천동나눔의 집)	정원 2명 / 현원 3명(계약직 1명)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청소년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	상근교사 3명
도시형미인가 대안학교 꿈틀학교	제도교육 중도탈락청소년	(사) 청소년내길찾기	상근교사 5명
대안교육 위탁기관 나래 대안학교	임신으로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여성청소년	한국장로교복지재단	행정인력 3명 / 사례관리·사회복지 3명

이 4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관하면 <표 V-93>과 같다.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의 주요사업은 청년인큐베이터사업, 교육복지 지원사업, 한누리 멘토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학업 중단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사업은 청년인큐베이터사업으로 저학력·저소득 청년들이 개별 특성에 맞춰 진행되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이다. 구체적으로 진로탐색, 직업교육, 취업알선 및 단계별 취업지원을 하고 있다. 한누리 멘토교실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멘토를 연결하여 건전한 인격형성, 진로설계 과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로 대학생 자원봉사단을 멘토로 연결하고 있다고 한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는 쉼터와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 늘푸른자립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쉼터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보호, 상담, 교육하는 것을 통해 청소년성매매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지도력을 개발하는데 목적

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숙식, 각종상담 및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곳이며,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5박 6일 동안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에게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 및 삶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늘푸른자립학교는 청소년들이 학습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학력적 자립을 위한 검정고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진로탐색, 정서적 자립을 위한 성 교육 및 인문학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V-94〉 기관 주요 프로그램 구성

	사업 명	사업목적	기획의도
관악 청소년 자활 지원관	청년인큐베이터 사업	저학력·저소득층 청년/청소년들의 개별 특성에 맞는 자활지원 프로그램	사회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노동시장 연계 프로그램
	교육복지 지원 사업	초·중학교 재학중인 저소득가정 청소년의 진로지원서비스	진로지도
	한누리 멘토 교실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멘토 지원으로 건전한 인격형성 및 진로지원	사회정서 및 안정성 추구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쉼터 운영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숙식, 각종상담 및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함	보호안전
	서울위기청소년 교육센터 (청소년성장캠프)	성매매피해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 및 삶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 지원
	늘푸른자립학교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적, 정서적 영양을 제공함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과 실천의 기회를 제공함	학습기회 확보와 학업 진로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꿈틀학교	도시형 미인가 대안학교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학업중단 심대들이 다양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접하며 보다 넓고 깊은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	지속적 학업과 진로개발, 사회·정서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나래대안 학교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임신으로 학습중단 위기에 처한 심대모 학생들이 소중하고 독특한 자신을 발견하며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익혀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배우터의 역할	원적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위탁기관에서 학업과 진로 등의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도시형 미인가 대안학교인 꿈틀학교는 제도교육을 중단하고 학교 밖에 나와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공간이다. 진로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학업중단 십대들이 다양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접하며 보다 넓고 깊은 경험을 기반으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탁형 대안교육기관 나래대안학교는 임신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미혼모자시설 내에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나래대안학교는 십대模들이 원적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위탁기관에서 학업과 진로 탐색 등의 미래설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욕구와 특성

청소년자활지원관의 저학력·저소득층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탈 학교한 이후에 생활태도 등의 문제로 대체로 가족 간의 불화를 겪는 경우가 빈번해서 가족과 단절하는 비중이 높다. 한편 소년, 소녀 가장이 자활지원프로그램 대상 청소년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욕구는 대체로 현재 살고 있는 가정으로부터의 독립 및 기본급여가 월 120만원은 보장이 되는 직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 진학의 욕구는 있으나 이는 대부분 대학생활 자체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경우가 많다. 또한 노동현장이 힘든 경우, 하고 싶은 직업이라도 기피하는 현상이 강하다.

청소년지원기관 실무자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만나게 되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남성청소년에 비해 우울한 성향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 또한 이성 관계에서 의존도가 높으며 자신의 가정환경에 대한 변화를 원하는 욕구가 강해 가정으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다른 환경에서 살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관계자) 여성청소년들은 학교 밖에 있는 남성청소년과 사귀면서 남자 친구한테 상당히 의존적이 되어가요. 남자친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굉장히 잘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이별을 하면 더 많은 상처를 받고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습능력은 초등학교 고학력 수준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학업성취 욕구는 있으나 학습습관이 갖춰지지 않아서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경향성은 꿈틀학교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대안학교에 오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비행으로 연루되면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들, 왕따 또는 폭력피해 등을 경험하면서 정서적으로 어려움 가진 경우, 인터넷 중독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 둔 경우 등 상당히 다양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은 심리적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지능계발이 꾸준히 진행되지 못해 경계선적 지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상당수가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경우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어 양육되면서 학습적인 자극을 받지 못해 지적 발달이 늦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요소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수준에 맞는 학습, 정서적 지지, 다양한 활동 참여를 통한 자신감 회복 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꿈틀학교 관계자) 아이들이 아주 기초적인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지적 장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가르치다 보면 지적 발달이 안 되어 그런 거예요. 많이 안타깝습니다.

꿈틀학교 관계자에 의하면, 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여성청소년들이 평소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학교생활에 임하다가도 연애를 하게 되면 애인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여성청소년들이 ‘친밀한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강하게 영향을 받는 종속적 관계가 향후 여성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연계되는데 빌미가 되기도 한다.

(꿈틀학교 관계자) 자신의 삶을 모두 남자친구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관계에서 남자친구와의 이별이 반복되면 성매매에 빠져드는 심각한 상황이 되기도 해요. 여자애들은 자신의 내적자원을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고 이를 자원화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학교 밖으로 청소년이 나오는 경우 여자 애들이 더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지향적인 여성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긍정적 관계맺음과 소통에 관한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의 애기에 귀를 기울이며 이들의 욕구에 맞는 학습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에 오는 청소년들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로 대체로 빈곤가족이며 해체가정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 이들은 성매매를 겪기 전부터 가정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등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는 점에서 현재 가정으로 돌아가도 회복과 치유가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다. 성폭력피해 청소년들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비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정서적·심리적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위기환경에 처해있는 여성청소년들에게 특히나 정서적 안정 및 치유의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미혼모 시설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나래대안학교의 미혼모 청소년들도 다른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기관의 이용자들과 유사한 가정환경,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이미 가정을 떠나 가출한지 상당 시간 지난 여성청소년들도 많다. 이들 십대 여성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제대로 된 양육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십대 여성청소년이 출산을 결심한 경우, 임신·출산 시 학업중단과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예상함에도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는 십대모 중 절반가량은 아기를 출산해서 본인이 양육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당장의 생활지원과 함께 아기와 본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질 좋은 교

육기회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

학업중단 청소년지원기관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일찍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키워주는 부분이라 강조한다.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과 미혼모 여성청소년들은 일찍 자립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관계자) 현실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은 노동시장과 관련한 것입니다. 직업교육도 진로교육보다는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훈련이 더 절실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노동시장과 관련한 부분에 전문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들은 탈 성매매를 위해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하지만 낮은 학력과 일자리 찾기의 어려움, 성매매의 장기화로 인한 자포자기 등으로 성매매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들에게는 시설에서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보호시설에서 계속 머물다 보면 어떤 단계에서 자립에 대한 욕구가 커진다. 안정적이지만 구속이 많은 시설보다는 자립을 통해 좀 더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이런 경향은 미혼모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물리적·정서적 안정을 찾은 이후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합한 자극과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미혼모시설의 위탁교육 과정에서는 정규학교에서의 교과수업 방식보다 밀착된 정서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특기·적성 발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혼모 시설 위탁교육 기관은 미혼모의 원래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면서 위탁기관에서 대신 교육을 받는 형태이다. 교육과정은 정규학교 학업과정과 장기적인 진로모색을 위한 대안교과 수업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원적학교 복귀 후에도 최장 5년간 1:1 사례관리를 지속하여 최종적으로 취업과 안정적인 거주환경마련까지 돕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래대안학교 관계자) 저희목적은 (십대모의) 자녀가 유치원가기 전에 자립시킨다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가면 친구랑 비교하고 모자원에 살면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 지역사회에서 집 마련하면서 취업해서 자립시키는 게 목적이예요

나래대안학교에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의 주택마련과 교육 훈련 및 학업성취도를 높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십대 미혼모가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시설은 교육과 복지체계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엮여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적학교 학적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 청소년의 상황에 맞는 일대일 교육을 할 수 있으면서도 학력취득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며,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사회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양질의 지원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관이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취업연계부분이다.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한 직업체험프로그램이 너무 진로교육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것도 문제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꿈틀학교 관계자) 당장 필요한 것은 진로선택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선택한 진로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인 부분이에요.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관계자) 현재 취업을 시키려면 선생님들이 취업할 수 있는 취업처부터 교육시킨 청소년 이력서, 면접까지 모두 봐줘야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노동시장을 잘 모르니 참 어려워요

요약하면 청소년지원기관에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이 내용들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으려면 취약계층 청소년을 별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을 가진 고용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현황과 애로점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하는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 자활프로그램인 청년인큐베이터 사업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는 자활동기 강화 프로그램, 2단계는 직업훈련프로그램, 3단계는 선택 직장의 근로체험 프로그램이다. 최근 소외된 계층의 자활을 위해 인문학 과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과정은 첫 단계에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자활동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감의 내면화를 통해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진로탐색을 시도한다. 진로적성 탐색과 함께 다양한 직업탐색 그리고 직업인 인터뷰, 직업체험 등을 하게 된다. 이외에도 구직 과정과 관련한 훈련 중 하나로 면접법 교육과 모의면접 등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한다. 2단계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교육인 컴퓨터 교육과 인턴쉽을 동반한 직업 현장교육을 한다. 이외에도 창업교육을 병행한다. 3단계는 선택 직장의 근로체험 프로그램이다. 직업근로 체험프로그램은 취업결정 시 취업활동지원을 하고, 창업을 결정하면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하여 창업인큐베이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업체 근로체험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청소년의 직업체험 활동을 받아주는 기업체의 발굴이다.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관계자) 기업체에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잘 받아 주려고 하질 않아요. 교사들의 노력만으로 취업 처를 찾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기업체 근로체험은 도제교육 및 해당사업에 대한 사회봉사 개념이 강한 기업체를 발굴해서 기업 내 교육 멘토를 붙여주고 참여자에게 정서적, 교육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청소년 지원활동에 협력하고자 하는 적절한 기업을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은 지역 내에서 저소득가정 청소년 및 학교를 대상으로 10년간 진로사업을 시행해 왔고, 2009년부터는 청년인큐베이터사업 실시를 위해 지역사회에 이용대상자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중을 높였다. 이 기관은 사회적기업과 자원봉사를

적절히 이용하여 부족한 인적자원에 대한 보완을 하고 있다. 예컨대 검정고 시도 ‘공부의 신’이라는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자원교사와 일대일로 수업 하도록 하고 있다. 담당자는 이 사업을 통해 탈 학교한 여성청소년들이 학 업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고 학습습관과 태도가 좋아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두고있다. 특히 탈 학교하면서 가정에서 이탈하여 따 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직업과 진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 기가 거의 없는데 이 사업은 학업과 진로 준비활동을 모두 할 수 있어서 상 당한 성과가 있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특성상 친구 의 회유 또는 이성문제 등으로 이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이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 출하고 탈 학교한 여성청소년들이 친구나 이성의 영향을 덜 받고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정적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V-95〉 관악청소년자활지원관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내용
1 단 계	자활동기 강화 프로그램	1차 진로탐색 및 자활활동 계획 수립(참여시)	- 진로흥미 및 적성검사 - 진로상담 개인 자활활동 계획수립 - 참여자 가정 내 문제파악 - 참여자 분류(취업 및 창업)
		자활동기강화	- 청소년인문학/ 이미지메이킹
		진로 및 취업 동기화	- 진로 탐색 프로그램
		단기취업교육	- 취업서류 작성법/ 면접법/ 취업상담
2 단 계	직업훈련 프로그램	기본교육	- 검정고시 교육 - 컴퓨터 자격증 교육
		직업교육	- 직업교육 - 직업현장교육
		창업지원	- 창업교육
3 단 계	선택직장의 근로체험	직업근로체험	- 지역사회 내 기업체 대상 근로체험 실시
		진로 및 취업결정	- 직업근로체험종교시점에서 자신의 진로를 창업, 취업 2가지 분야에 대한 진로를 결정

특히 청년인큐베이터사업은 전국 8개 지역 청소년자활지원관에서 시범으 로 실시하고 있는데 관련 사업 지침이 없어서 성인대상 사업에 영향을 많 이 받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과 해당 사업을 전국사

업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형 미인가 대안학교 꿈틀학교의 프로그램은 2년 4학기제로 ① 꿈틀거림의 발견 ② 꿈틀거리기 ③ 꿈의 틀 짜기 ④ 꿈 띄우기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개인적인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신감/자존감을 회복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비전을 가지고 스스로 새로운 장을 여는 힘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받는다.

〈표 V-96〉 꿈틀학교 교과과정

교과 구분	단계별 목표 교과명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꿈틀거림 발견 (잠재력 발견)	꿈틀거리기 (자신감 회복)	꿈의 틀 짜기 (계획)	꿈 띄우기 (시도)
기초	말과 글	글읽기, 쓰기, 말하기		논리적 글쓰기, 설득하기, 주장하기	
	외국어	흥미높이기/단어/듣기/읽기		실용회화, 말하기/쓰기	
	탐구	역사/사회	환경/과학	인권	정치/경제
	스포츠	몸을 움직이고 땀흘리는 즐거움을 알기 위한 운동			
감성	표현창작	미술, 연극,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창작, 연극	창작, 연극
	나를알기	성교육, 약물교육, 또래상담, 의사소통프로그램 등			
	미디어	사진, 동영상, 애니메이션 제작을 통한 자기표현			
	집단상담	집단상담 캠프			
진로	직업특강	진로검사, 다양한 진로정보탐색, 직업윤리, 가치관 알기		포트폴리오 만들기, 모의면접	-
	직업체험	다양한 직업현장 방문,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과 이야기,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인턴십	-		개인이 원하는 진로와 관련된 실제 직업현장에서 현장실습	
	프로젝트 수업	-		개인프로젝트 : 진로선택에 필요한 공부, 자격증 취득 등 팀프로젝트 : 공동의 관심분야에 대해 과제를 정해 수행	
자치	자치회의	학교 일과 수업에 대한 평가, 자체 프로그램 계획, 협의 등			
	자작/협작	스스로 생산하기, 함께 완성하는 경험(옷만들기,목공,재배,요리,밴드,합창)			
	프로젝트여행	무전여행, 도보여행, 지리산등반, 자전거여행, 농촌활동 등			
	체험학습	다양한 문화체험, 봉사학습			

교과과정은 기초교과, 감성교과, 진로교과, 자치교과로 나뉘지고 기초교과는 기초학습능력 향상, 감성교과는 인문학교육을 통한 정서지원, 진로교과는 직업체험과 인턴십을 통한 안정적 직업을 갖도록 하는 직업교육, 자치교과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와 더불어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꿈틀학교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이러한 교과과정 참여를 통해 상처받았던 마음을 치유하고 향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과교육에 치중하지 않고 주류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을 돌보고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상담, 복지, 보호, 교육 영역에 걸친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이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주요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 기관은 특히 직업교육은 직업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직업체험교육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꿈틀학교 관계자)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보다 어떻게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직업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진로교육은) 너무 진로·적성 파악에만 치우쳐져 있어요

이 기관은 2년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200시간 이수하도록 하고 있고 인턴십은 2학년 2학기에 3개월 정도, 한 달에 70시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직업 현장에 직접 나가서 경험을 쌓도록 한다. 해당직업의 전문성을 지닌 자원봉사자 풀로 구성된 드림멘토 자원을 확보하고, 청소년이 해당 드림멘토를 정한 후 드림멘토 및 기업체 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도록 해서 사회에 건강하게 편입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관은 지난 10년 동안의 노력 끝에 현재 100명의 드림멘토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다. 드림멘토 인력풀과 관련하여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지지를 얻는 것은 쉽지 않지만, 기관에서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드림멘토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섭외하면 의외로 잘 호응해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꿈틀학교 관계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직접 써서 제출하게 한다. 그리고 그 친구를 본인이 원하는 현장으로 보낸다. 비용은 대부분 학교에서 대고 때로는 무료로 갈 수 있도록 그쪽

선생님과 연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인권이나 청소년 성장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스승을 많이 두어야 한다. 때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한다. 이런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설득해 점차 드림멘토 인력 자원을 확대해 가는 중이다. 좋은 의의가 전해지게 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흔쾌히 드림멘토를 자처하는 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직업프로그램의 성과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얼마나 잘 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지원기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애로점을 운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고 있다. 지역사회 연계 및 적절한 인력활용 관련 정책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표 V-97〉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프로그램

	프로그램	세부내용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생활지원	십대 성매매피해 여성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의식주 등 제공 및 성매매 예방과 청소년 문제해결
	상담서비스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전문가상담 등을 통해 내담자가 역기능적인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극복하도록 도움
	직업교육	의식향상 프로그램, 직업준비 프로그램, 검정고시준비 프로그램, 생활기술훈련 프로그램, 현장활동가 교육 등을 통해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법률지원	선불금과 채무문제의 법적해결을 위해 연계지원망을 구축하여 법률서비스 제공
	문화·수련활동	건전한 문화활동과 취미·특기개발을 통해 건강한 문화시민으로 육성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피해청소년 성매매재유입예방 및 자립지원
서울위기 청소년 교육센터 (청소년 성장캠프)	심리진단	MMPI, 문장완성검사
	자아존중감	MBTI성격검사 활용 / 미래설계 /개인가치브랜드높이기
	사회통합	진로탐색 / 직업체험 / 학교 방문 / 자원봉사활동
	성주체성향상	섹슈얼리티 / 성교육 / 성교육장 체험
	탈성매매	성매매바로알기 / 뼈뼉녀의 수다백분토론
	치유 및 치료	미술치료 / 색치료 / 동작치료 / 한의원방문
늘푸른 자립학교	관계형성(여가활동)	레크레이션 /핸드폰 줄 만들기 /노래방 /영화 /스케이트 /탁구 등
	검정고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역사
	진로·직업	직업특강 /직업체험 /인턴쉽 /자격증 특강
	성교육·인성교육	성교육 /서당-인성교육
	움직이는 교실	참여교실 /야생활동
	자치활동·기타활동	자치회의 /송이샘과 춤을 /책읽기 프로그램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로관련 지역사회 멘토의 필요성과 자원 확보의 중요성은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와 늘푸른자립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을 위해 직업체험과 인턴쉽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으나 진로 멘토와의 연계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관계자) 친구들에게 사회통합적인 자원을 제공하려면 늘푸른자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를 활용한 직접 지원의 방법이었다. 바리스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꿈을 가진 친구들에게 보다 전문성 있는 진로멘토를 연계해주는 일을 학교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네트워크의 힘이었다.

〈표 V-98〉 나래대안학교 교과과정

교과구분	내용	
보통교과(40%)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대안교과(60%)	진로직업교육	진로상담, 직업탐구, 직업실습, 직업교육, 상담 및 진로지도
	건강교육	산전·후 건강관리, 분만, 모성건강, 약물, 정신건강, 산부인과 등
	특기적성교육	1인1악기, 도자기, 공예, 영어회화, 컴퓨터활용교육
	인성교육	성교육, 의사소통, 마음공부, 대인관계훈련, 인권교육, 개별상담 인문학, 문화체험, 독서학습
	부모교육	예비 부모교육, 영아기 부모교육, 가정경영과 법, 요리 등

미혼모 대상 대안 위탁 교육기관 나래대안학교는 교육내용이 다른 청소년지원기관과 조금 상이하다. 이 과정에는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여성청소년들의 지속적인 학업을 위해 수업은 보통교과(40%)와 대안교과(60%)로 운영된다. 보통교과는 재학생들의 평균적인 교육적 능력을 해당 교과 선생님들이 측정해, 그 중간정도를 기준으로 학습플랜을 짜서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이렇게 짜여진 교과 내용을 어려워하는 경우 1:1 과외학습을 한다. 이런 방식은 여성청소년이 원적학교로 복귀했을 경우 학업을 따라가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나래대안학교 관계자) 이제 보충수업으로 대안교과 시간을 어느 정도 이수를 하면 나머지는 과외로 하고 나머지는 마지막 수능단계는 학교가 허락하면 전문 수능학원 이런데로 연결하려

고, 전문학원하고 강남구에 있는 어느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거기서 파견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애를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같이 좀 협조를 할라 그러고, 입시설명회 이런 것도 학교에서 나와서 해주시고, 애들이 학교에서 받는 걸 할 수가 없고, 사회복지사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보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나래대안학교 교과과정에서는 부모교육을 강조한다. 자녀연령별 단계를 구분하여 실습까지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십대 미혼모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진로교육은 7단계로 구성하고 있는데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와 직업탐색, 적성검사, 직업체험 등의 과정을 이수하고 직업교육, 구체적 진로계획 세우기, 직장 적응 등의 수순을 밟아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취업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사례관리 워커(사례관리 복지상담사)와 함께 상의해 가면서 학생들은 능력별로 기관 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문적인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관 외부에 아직까지는 십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직업교육, 체험 등의 분야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아직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 습득 및 사회진출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생계유지가 가능한 곳에 취업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사례관리 워커의 도움을 받으며 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후 양질의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돈을 모아 별도의 학원 등록이나 대학 진학 등을 준비하면서 더 나은 미래설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나래대안학교 관계자) (전문적인 직업훈련 교육을) 하다가 간호조무사를 생계형으로 하잖아요. 애네들이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자기가 자꾸 성장이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의 경험을 맛보니까, 간호조무사를 하다가 간호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간호조무사 경험을 어느 정도 쌓으면 대학 가기가 유리해요. 보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업그레йд 할 수 있는 걸 계속 5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센터에 들어오면 우리 사례 관리 워커가 맡아서 계속 해주는 거죠..... 다시 우리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그 단계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7단계까지는 하는 거예요. 안정된 생계를 가지면서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걸 계속 업그레йд 해 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이 경우에도 여성청소년들을 지원할 전문 인력의 부족과 개별형 맞춤형교육에 맞는 전문인력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나래대안학교 관계자) 문제는 2,3학년들은 전공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보충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애네들을 학교랑 하면서 다 개별플랜을 짜야 되는 거예요. 학교 적응이 문제니까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실업계 2,3학년 오는 애들 중에서, 우리가 컴퓨터 하는 애들은 컴퓨터 학원에 보내면 돼요. 대안교과 시간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의료영상이다 그런 거는 방사선을 가르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나머지 후원금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독특한 과들이 문제인 거예요. 의료영상처럼. ……애들마다 학습플랜이 다 달라요.

이외에도 공간의 부족과 예산부족은 전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쉬움과 애로점이었다. 나래대안학교는 이외에도 학생들이 원적학적을 유지하면서 위탁교육을 받고자하는 부분에 대한 법적 미흡도 함께 개선되어야 함을 제시했다. 현재 위탁교육기관 입학 결정이 학교장 재량으로 되어있어서 십대모가 미혼모 지원 시설로 오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보호자, 학교선생님, 교장선생님들과의 협의과정이 필요하고 이 단계에서 학교장 입학허가가 나지 않는 애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혼모의 학습권이 보장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설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시스템과도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기관의 역할은 해당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프로그램도 그에 맞게 구성되어 있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동일하게 지적하는 부분은 학업중단한 청소년의 기초학습능력에 대한 보완과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편입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할 수 있는 직업교육의 구체성 그리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쁜 경험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정서지원프로그램의 실질적 효과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전문가와의 연계와 정부의 특화된 계층(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예산지원, 지역복지시스템과의 연계(사례관리 등)라고 할 수 있다.

4. 소결

이 장에서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기 위해 99개 청소년지원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4개 기관에 대한 사례연구를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지원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여성청소년이 처한 생태학적 환경이나 이들의 지원 요구가 남성청소년과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보호시설과 여자대안학교를 제외하고 여성청소년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청소년만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관도 그 이유는 단지 그곳이 여성청소년 시설이기 때문에 했다고 한 경우가 대부분(94.4%)이다. 이외에 여성 안전을 위해, 가출 상태 시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한 예방차원, 여성권리에 대한 다양한 인권의식 함양 등을 이유로 여성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1개 기관에 불과했다. 이는 청소년정책 및 서비스들이 여전히 성인지적 관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성맹적 정책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지원규모와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민간영역의 후원수준 또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의 경우에도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17% 정도지만 진로·직업 프로그램은 25%,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은 25%,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68% 기관이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이외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 비중도 29%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지원금이 절대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학교 밖으로 나온 청소년일수록 사회적 안전망에 취약하며 이들에게는 학업만큼이나 노동시장과의 연계를 통한 안정적인 직업생활의 영유와 사회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유대를 공고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또한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성교육과 관련해서 보다 철저한 교육을 통한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에게는 여러 방면에 위험노출을 최소화하는 전방위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정부의 지

원금이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은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 이 부분에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체계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성 정형화된 진로 및 생애설계 기획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들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청소년지원기관에서는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성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조사대상기관의 응답자들이 진로지원 프로그램에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남녀의 차이를 느끼는 부분은 성별에 따라 선호하는 직업군이 다르다는 정도이다. 특히 여성청소년에게 피부 관리, 네일아트 등 여성 편향적 직업 훈련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종사자의 성역할 고정관념 현황에서도 드러났는데, 다른 문항에 비해 ‘청소년들의 직업지도 시 남성다운 특성과 여성다운 특성을 고려하는 게 좋다’라는 문항에 대해 모든 기관의 종사자의 동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직업훈련 등의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주요사업인 청소년자활지원기관에서는 직업에 대한 영역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종사자들의 직업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대상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 지원프로그램에 당연히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여성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종들에 대한 탐색과 자신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무조건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직종을 권유하는 것은 서비스 직종에 대한 편향성이 강한 여성노동시장의 특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성인지적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기관 및 종사자들에 대한 성별 감수성 훈련프로그램 등을 선행함으로써 이들의 성 인지적 관점을 향상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넷째, 성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밖으로 나온 학업중단 청소년 중 남성청소년

년이 성교육을 받는 비율이 여성청소년에 비해 상당히 저조했는데, 이는 향후 보완 되어야 할 과제이다. 청소년 시기에 학교 밖으로 노출된 남성청소년들도 성문제에 무방비이기는 여성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이들도 이 부분에 좀 더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자아정체성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성교육 관련 부분은 여성청소년들은 성매매, 성폭력 피해와 관련하여 좀 더 많은 교육을 접할 기회를 갖지만 남성청소년은 상대적으로 방치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녀 청소년의 각기 다른 특성이 반영된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성교육 프로그램은 1회성으로 반복하기 보다는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자신의 생애설계에 잘 스며들도록 인식변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프로그램 내용들이 피임과 임신, 단순한 성교육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경향에서 탈피하여 성인지적, 관계성 및 소통 중심을 지향하는 통합적 섹슈얼리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실천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 별 애로점은 학업지원, 진로·직업지원, 사회·정서지원, 성교육 프로그램별로 다양하지만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원기관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진로·직업지원 프로그램이다.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진로·직업지원 프로그램은 여러 단계를 통해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청소년들의 적성과악과 적절한 직업훈련 그리고 인턴쉽을 통한 노동시장 적응 등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계 부분을 개별지원기관 차원에서 소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한 청소년 정책은 미흡한 사각지대라 할 수 있다. 응답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개발한 진로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비중이 저조하며 교사가 개별적으로 재설계한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부분은 진로·직업 프로그램이 현실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해 개발하기 어려운데서 발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여섯째,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이유로 예산과 운영공간

의 부족, 지역과의 연계 부족, 그리고 학습자의 의지와 기초학습능력, 가족의 지지 부족 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심리적 저항과 사회부적응의 문제일 것이다. 이는 그들이 환경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심리치료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지적, 정서적 안정성을 되찾을 수 있는 보다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보완돼야 한다. 이미 심리치료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더러 있지만 체계적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지원기관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는 기관 및 종사자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성매적 성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청소년자활지원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관의 종사자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비교적 약했지만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강하게 나타났다.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특히 직업에 대한 성별화가 전체 종사자들에게 높이 나타났다는 점은 이것이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이미 반영되고 있었다. 기관 및 종사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재는 모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서 참여집단에 대한 성별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단정적 입장을 취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직접 밝혔듯이 학업중단은 또래남성에 비해 여성청소년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며, 학업중단 전후의 삶을 구성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르다. 가정에서 여성청소년에게 부과하는 역할이 다르며, 학업중단 이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이나 내용 역시 남성청소년과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무시한 채 모든 청소년들에게 똑같은 내용과 방식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가정과 학교, 사회의 가부장적 폭력성에 많은 상처를 받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메

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상담과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면 사회적 지원서비스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들에게 내재화된 가부장적 가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개별 기관들에게 종사자들의 성인지 교육까지 별도로 실시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을 비롯한 청소년 지원기관과 종사자의 성인지 관점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4개 기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보면, 첫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경우 대체로 편모, 편부, 소년·소녀 가장인 경우가 많으며, 가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한 사유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에 피해를 입은 데 따른 것인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한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 특히 여성청소년은 청소년지원기관에서 정서적 지지를 통한 치유과정 및 교육을 받는다 해도 원래의 불안정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면 또 다시 가출을 반복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이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면, 이들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기 전에 안전한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학업을 중단하고 위기에 처한 여성청소년들은 성매매 등 유해한 환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책임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관계 등으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미혼모가 될 위험에도 노출되어있다. 이들이 더욱 열악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며, 자립할 수 있도록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 우선 이들이 학교 밖으로 이탈했을 때 바로 사회안전망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과 지원 서비스 사이의 연결망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거리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비행에 노출될 위험이 적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관계자) 이미 탈학교거나 집에서 보호관찰중인 친구. 그냥 방치되어 있잖아요. 보호관찰도 한 달에 한번밖에 상담을 안 받는데, 나머지 시간은 애네들이 그냥 거의

방임상태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이 학교를 보내주시죠…… 학교를 애는 가기 싫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아이들도 있고, 서울 시내의 쉼터들, 탈학교하고 쉼터에 머무르는 친구들을 보내기도 하고 미혼모 시설도 있고, 저희가 청소년지원시설, 가출청소년 쉼터, 이런 여러 가지 쉼터에서 탈학교한 친구들, 10대를 보내기도 하고……

전문가들은 학교 밖을 떠도는 여성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기 전에 사회안전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청소년 쉼터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운영하는 “또래 상담실”이 그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방황하는 여성청소년들에게 이전에 유사한 경험을 했지만 지금은 안정을 찾은 여성청소년들이 조언을 해주는 사이버 상담활동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신뢰감도 형성함으로써 사회안전망에 보다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

이들에게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제도는 취약한 기초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습지원과 직업능력을 개발이다. 직업교육은 이들의 자립지원과 자존감 회복에 중요한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직업교육의 비중을 학습지원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두고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노동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다. 청소년 직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고용센터와 연계한 ‘청소년 잡스쿨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앞서서도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취약한 학습능력 및 정서적 어려움 등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 없이 일반 청소년들의 직업체험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식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자활지원기관에서 시도하고 있는 ‘청년 인큐베이팅 사업’의 프로그램과 같이 정서지원, 심리치료 등과 병행해야 하며, 기업체에서 멘토와 함께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 현재 청년인큐베이팅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이러한 복지체계에 편입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쁜 환경에 처하게 되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 때문에 원하는 직업기술을 배우기 위한 기업 실습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별도의 직업훈련 공간으로써의 작업장 등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작업장에 지역사회의 전문가가 직업멘토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직업훈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셋째, 프로그램별로 전문성을 떨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가와의 연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은 대체로 가정과 학교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은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전문식견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심리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 기관들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를 초빙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한 학교 내 전문가를 보유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이유는 충분한 지원금이 확보되지 않아서 인건비를 충분히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실질적인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기관이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과 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 그러나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기초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프로그램들은 심리치료와 자신감 회복, 자신의 트라우마를 회복하는 기초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편 지역사회 전문가 자원을 자원봉사차원에서 활용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연계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넷째, 여성청소년들은 학교 밖으로 이탈한 후 대체로 성매매, 성폭력 피해 등에 노출되는 비중이 높다. 여성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이탈했을 때 사회안전망 확보에 보다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보다 장기적인 치유 프로그램과 함께 학업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이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장기적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비용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 지원기관의 프로그램들 중 대체로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50%씩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성매매 피해 여성 청소년의 경우에 그렇다. 그러나 이런 기관들이 정부 이외의 지원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의 안정적인 지원과 함께 다른 후원기관을 찾아서 다양한 채널로 지원금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VI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272
2. 지역사회 중심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서비스 강화 278

이 연구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지원 요구 파악하는 한편, 청소년지원기관에서의 지원 서비스 배분 및 지원과정에서의 문제들을 젠더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향후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표 Ⅶ-1〉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및 추진주체

	정책과제	추진주체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여성청소년을 위한 학교지원체계 구축 -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상담 체계화를 통한 학교상담 강화	
	○ 학업중단 숙려제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도입	
지역사회중심 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서비스 강화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 거리이동상담 활성화 -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 확대	여성가족부
	○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학업 지원 - 미인가 대안학교 졸업자에 대한 학력인정제도 도입 - 미혼모 위탁형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 - 여성청소년의 역량 및 성인지적 진로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꿈나래'(가칭) 사업 실시	여성가족부
	○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대상 자활지원사업 확대 및 여성 청소년 지원 기능 강화	보건복지부
	○ 성매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내 자활작업장 운영 지원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제도 도입	여성가족부
	○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체제를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연구결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은 가족,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학업중단에 이르게 되었으며, 학업중단 후에도 여성청소년에게 폐

쇄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조건만남 등 성산업으로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청소년지원기관으로부터도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원기관 실태조사결과, 정부의 지원규모와 내용이 부실하고, 대부분의 지원 서비스가 여성청소년이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지형이나 여성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제공됨으로써 지원서비스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생활세계에서 드러난 고유 경험과 특성을 반영한 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관련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주체별로 요약하면 <표 VI-1>과 같다.

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환경 조성

가.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여성청소년을 위한 학교지원 체계 구축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차별과 편견을 경험했으며, 체벌과 무시를 당했다고 호소한다. 이들 대부분이 가족의 이렇다 할 교육적 지원 없이 학교에 진학한 상황에서 선행학습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학교 공부는 아예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다고 토로한다. ‘공부가 아니고 다른 걸 잘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들은 성적에 따라서 애들을 평가하는 게 싫었다’는 여성청소년의 이야기는 학력위주 문화가 팽배한 우리의 교육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학교 문화 속에서 여성청소년들은 남성청소년에 비해 특히, 교사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크게 상처받으며, 가족과 학교로부터 지지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래집단에 수용되고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더욱 크게 작용하여 비슷한 처지의 또래집단에 더욱 집착하게 만든다. 또래집단의 하위문화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무단결석이나 일탈에 동조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거꾸로 왕따를 하거나 당하는 등 관계의

친밀성을 이용하여 공격하는 경향도 강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누적되고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 중의 하나는 가족의 기능상의 결손이나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학업은 물론 정서적, 심리적 상처를 안고 학교에 진학한 여성청소년들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문화 및 학교교육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상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2010년 국무회의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학업중단학생 예방 노력, 성과가 교육청 및 학교 평가에 반영된다.¹⁾ 이로 인해 그동안 ‘한번 걸러주기’²⁾ 위해 은근하면서도 단호하게 이루어졌던 학교의 자퇴 권고행위가 줄어들어 따라, 향후 외형상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가 이런 청소년들을 수용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이는 미봉책에 가깝다.

1)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교육과학기술부)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을 보더라도 비록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마음은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더 이상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학교 ‘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바뀐 상황에서 학교 ‘안’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경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생의 문제들은 학생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가

1) 2010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업중단(위기) 학생 예방 및 지원 실적”을 1000점 만점에 30점 반영

2) (△△공업고등학교 상담교사, 제2차 전문가집담회에서)안타까운 건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제가 첫 해에 갔을 때 35명이었어요. 2학년 올라갈 때는 25명 정도예요. 10명 정도가 자퇴하거나 전학가거나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너무 슬픈 말인데, 한 번 걸러줘야 된다고, 한 번 걸러줘야지 애들을 3년 데리고 있을 수 있다고.

족의 폭력이나 과도한 가족내 역할부담에 힘겨워하는 여성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문제들을 학교, 가족,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해주어야 한다.

2)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교사들이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개최된 현장전문가 집담회에 참석한 교사들의 이야기는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의 차이를 잘 보여준다.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훨씬 상처를 잘 받아, ‘야, 학교 왜 안 왔어?’와 같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에도 상처를 받으며, 친구들과 잘 휩쓸리는 만큼 왕따로 인한 상처도 크다. 이는 초기 발달단계에서부터 관계적 특성에 중점을 두는(김성이 외, 2004)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불우한 가족환경에서 받은 상처가 적지 않은 여성청소년의 경우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여성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왕따와 같은 또래관계에서의 어려움은 결국 학업 중단이나 전학을 가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다.

(○○○ 정보고등학교 사회과 및 상담담당교사) 남자아이들도 상처를 잘 받겠지만, 여자아이들이 워낙 상처에 민감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지나가면서 ‘야, 학교 왜 안왔어?’ 널 걱정해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린 거죠. 그래서 학교 부적응이 되는 경우도 많구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워낙 잘 휩쓸리니까 여자아이들은, 그런 게 더 심하다 보니까.

(△△공업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여학생들은 학교를 중단하거나 전학을 가는 이유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구요.

그런데 여학생들의 이러한 특성을 잘 모르고 교사가 집단따돌림에 개입할 경우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연구결과(윤운영, 2004)나 ○○○ 교사의 경험사례는 여성청소년의 생활지도에 있어서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 정보고등학교 사회과 및 상담담당교사) 정말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가 더 심해요. 남자 아이들 사이에서 왕따는 어느 정도는 선생님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왕따가 되는데, 여자 아이들끼리 싸우고 왕따가 되면 선생님이 개입하면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떨어져나가는 애들도 몇 명 있구요. 전학오는 여자아이들은 거의 그런 경우도 있구요.

(☆☆ 중학교 상담교사) 여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펼치고 그런 경험을 하기 이전에 가정으로부터 불안한 경험(이혼 등 가족의 불안정)을 하다 보니까 특히 여학생들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고, 이런 직업을 갖고 싶어 하기 이전에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자기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꿈도 없고 불투명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Q. 그 부분에서 만약 그렇다면 남학생도 똑같지 않을까요?) 남학생들도 같은 이유로 똑같은데, 근데 학교에서 뭐라 그럴까요. 학생들한테 피드백하는데서 다른 게 있더라구요. 여학생들이 학교 밖을 나갔을 때는 속된 애기로 ‘애네들이 몸을 잘못 굴릴 것이다’라는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니까 몸 조심해라. 그런 게 아이들한테 상당히 반감이거든요. 내가 놀고 싶어서 친구들이랑 밤새서 놀기는 하지만 내가 그런 걸 하려는 건 아닌데, 남학생들한테는. (Q. 몸을 굴리더라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연세 많으신 선생님들한테 좀 있구요. 남학생들한테도 너가 예를 들면은 너희 집의 장남이지 않니, 이렇게 벌써 피드백하는 게 다르다는 걸 느끼구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 중학교 상담교사의 이야기처럼 여성청소년에게 부적절한 대응을 하는 경우 오히려 강한 반감을 일으키는 사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꿈도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결석하는 여성청소년에게 ‘몸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은 여성청소년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다치게 하는 일일 뿐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한 교사의 지도가 이 여학생에게 교육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게다가 동일한 행동을 한 남학생에게는 ‘너희 집 장남이지 않니’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교사들 중에는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차별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교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여성청소년들이 마음을 다쳐 학교를 그만두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여성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생활지도방법과 관련한 교사 연수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 영주의 사례는 여성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는 데 교사 재교육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라는 것 자체가 압박감도 너무 많이 주고, 이래저래 집안 사정도 있었고, 그런데 그걸 선생님들에게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다 그냥 제 잘못만 탓하니까.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학교라는 게 학생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무슨 일 있으면 니가 잘못을 했으니까 집에서 그러지 그렇게만 판단을 하니까. 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학교를 다닐 필요는 없겠구나. ……아빠가 폭력이 심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출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학교 안 나가는 날도 많았고, 무단결근이 진짜 많아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 할 상황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측은 그런 거죠. 니가 어떤 잘못이 있었겠지. 그러니까 아빠가 너를 때리셨겠지.(윤영주)

나. 학교 상담 체계화를 통한 학교 상담 강화(교육과학기술부)

가정폭력이나 부모와의 갈등, 가출,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학교 상담을 체계화하여 학교 상담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 상담 인프라를 구축하여 재학생은 최소 1년에 한번은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상담은 문제있는 애들만 받는 건데, 내가 상담실을 가는 순간 나를 문제있는 애로 보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가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 이는 현재 학교 상담이 여성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욱이 일부 학교의 경우는 상담이 필요한 학생도 교사가 보내주지 않으면 상담교사가 상담을 할 수 없는 등 학교의 학생상담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은 것도 학교 상담 활성화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학교 부적응 등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고 상담·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Wee 프로젝트(학생통합안전시스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별학교에 설치되는 Wee Class가 2009년 1,530개교에서 2010년 2,530개교, 2011년 3,530개교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상담교사는 2010년 926명에 불과하고, 전문상담인턴교사는 2009년 1,614명에서 2010년 981명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학교 상담실역할을 하는 Wee Class가 말 그대로 일부학교에서는 상담교실만 있고 전문상담가 없이 일반 교사나 인턴교사에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Wee Class라는 학교 상담실을 잘 갖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상담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상담만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학업 중단에 놓여있는 여성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어려워할 뿐 아니라, 그 동안 교사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이나 신뢰가 없는 상황인데 일반교사가 상담을 할 경우 상담에 응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따라서 학교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 교사를 대폭 확충하고 1년에 한번 모든 학생이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하는 상담의 무제와, 수업시간에 상담을 받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고, 학생들의 전, 출입 시 상담교사의 결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상담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다. 학업중단 숙려제 및 사회적 지원 서비스 정보 안내 시스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

이러한 학교 상담 인프라를 토대로 자퇴형식을 통해 학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는 학생에게 자퇴나 전학 등과 관련한 문제를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한다. 학업중단을 하려는 학생은 관련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날로부터 최소 한 달정도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 학교 상담실 또는 Wee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상담을 3회 이상 받도록 하고, 상담실적을 자퇴원서 등에 첨부하도록 한다. 여학생의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은 왕따 등 또래집단과의 위기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 자퇴의 하나의 대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려는 경우도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여성청소년이 학업중단을 선택할 경우에는 학교는 반드시 지역사회와 청소년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지원 서비스를 안내하는 리플릿 등을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 중단 여성청소년들의 주요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의 청소년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것이었다. 이들 말대로 ‘운 좋게’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떠나는 순간에 학교를 대신해서 여성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손에 들고 있게 해야 한다. 이 안내책자에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소개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등을 담는다. 특히, 여성청소년의 경우, 생계비를 벌어야 하거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할 경우 사회적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남성청소년보다 월등히 높아,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지역사회 중심의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서비스 강화

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조기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학업중단이나 가출 초기인 여성청소년이 지원기관과 연결된 경우에는 성매매 등 위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쉽터 수가 줄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비해 학업중단이나 가출 등으로 인한 거리청소년이 감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거리 청소년은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여성청소년을 보호하는 시설에의 이용자는 줄어드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대상자를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확대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이나 횟수, 장소 등을 확대하여 보호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

1) 거리 이동 상담 활성화

이를 위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거리상담을 학업중단 및 가출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은경이처럼 학교 그만두고 가출한 여성청소년들은 배고프고 잘 곳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상담에서 제공하는 먹거리, 정보, 상담 등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를 계기로 이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아, 저희 가출했을 때. 학교 그만 둘 때, 삼 개월 전에. 심심해서 돌아다니다가 이동쉼터가 있길래, 버스가. 어, 저게 뭐지 이러면서 봤는데 ××선생님이 어 애들아 너네 십 대니 이러면서. 그때 아는 척해서. 들어가서 밥 먹고 그때 가출했을 때 배고프고 그러니까. …(중략)…(Q. 되게 쉼터가 마음에 들었나보다.) 네. 맨날 밥이랑 참치 뭐 먹을 거 있고, 3분 요리 이런 거 다 챙겨주시고 김이랑. 오면 맨날 먹을 거 다 주고서. (Q. 매주 가요, 선생님 보러?) 네, 집 들어가도 선생님들 너무 고마우니까. 너무 좋고. 네, 안보면 막 보고 싶다고.(차은경)

2) 사이버 아웃리치(Cyber Outreach) 사업 확대

이와 함께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에서 운영하는 ‘새날사또(새날 사이버 또래 상담)’와 같이 사이버 아웃리치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매매나 가출, 학업중단 등의 위기 경험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한 여성청소년이 사이버 상담원이 돼서, 성매매나 가출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찾아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채팅으로 말을 걸고, 상담을 해주면서 사회적 서비스와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이를 위한 예산, 인력 배치 및 또래 상담자 전문성 강화 및 소진 방지를 위한 멘토 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새날 「성매매 피해청소년 사이버 아웃리치(Cyber Outreach)」 사례

① 사업목적 : 인터넷 상에서 성매매 피해상황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연계·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청소년성매매를 예방하고 피해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함. 또한 청소년상담원에게는 자립·자활과 청소년성매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② 사업 주요내용

- 청소년상담원이 직접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출과 조건만남으로 채팅방을 개설한 10대 여성청소년과 대화상담 ⇒ 지원서비스 연계 ⇒ 지속상담
- 웹 전단 제작 후, 10대 여성청소년 애용사이트에 정보 제공 및 홍보
- 월말 정기회의 진행 및 지속적인 교육 추진
- 활동내용 보고서 제작

③ 사업추진 주체 및 대상

주체 : 청소년성매매 피해경험자로서 19세~20대 초반의 여성청소년
대상 : 사이버 상의 성매매피해 가능성이 있는 10대 여성청소년

자료 :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내부자료.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전국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던 성매매 피해 여성 청소년을 위한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대상자가 없다는 이유로 내년에 2개소가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 사업은 경찰, 검찰, 보호관찰소 등으로부터 연계받은 성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후속 사례관리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연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에 경·검찰 등에서 받은 성매매 여성청소년 명단이 100명이 안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명단 100명을 받아도 여성청소년들이 그 사이에 휴대폰 번호 등을 모두 바꾸기 때문에 그 중 연락이 되어 실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수 있는 청소년들 수는 극히 적다. 따라서 각 센터별 2명의 실무자가 성매매 청소년 재활교육 등 기본 사업을 꾸려갈 뿐만 아니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직접 검찰 조사관, 보호관찰소 등을 방문해 명단을 받아오는 일까지 담당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거리 여성청소년은 늘었는데, 여성청소년 센터의 이용자는 줄은 것과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보인다. 사이버를 매개로 한 조건만남이 횡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이나 검찰, 보호관찰소 등에 의해 연계되는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은 적은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아웃리치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사업에 나서야 한다.

나. 청소년지원기관 종사자에 대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

청소년지원기관 실태조사 결과, 기관 및 종사자들의 성인지적 관점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서 참여 집단에 대한 성별적 접근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단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성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적절한 개입이나 프로그램 지원이 미흡한 실정인어서, 청소년지원기관 및 종사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의 성별 차이 등 젠더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직접 밝혔듯이 학업중단은 또래남성에 비해 여성청소년에게 훨씬 불리한 조건으로 작동하며, 학업중단 전후의 삶을 구성하는 방식도 상당히 다르다. 가정에서 여성청소년에게 부과하는 역할이 다르며, 학업중단 이후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이나 내용 역시 남성청소년과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를 무시한 채 모든 청소년들에게 똑같은 내용과 방식의 서비스를 지원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구나 가정과 학교, 사회의 가부장적 폭력성에 많은 상처를 받은 여성청소년들에게 여전히 동일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상담과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면 사회적 지원서비스 자체를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에게 내재화된 가부장적 가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폭력이나 성매매 등으로 인해 경찰이 개입한 경우, 이 연구의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여성청소년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연계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청소년상담기관의 상담원조차 학업을 중단한 가출 청소년에게 ‘여자가 얌전히 집에 있지’ 돌아다니느냐는 등 여성청소년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을 보임으로 인해서 여성청소년이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하는 등의 문제를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을 비롯하여 여성청소년의 위기경험 지원을 위한 초기 개입인력인 경찰 및 청소년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

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학업 지원

1) 미인가 대안학교 졸업자에 대한 학력 인정제도 도입(교육과학기술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학업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대안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미인가로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해 검정고시를 별도로 치러야 한다는 점이다.

이들 대안학교들이 미인가로 운영하는 데에는 열악한 재정 등의 문제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제도권 학교의 교육과정을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과 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를 일정 수 이상 채용해야 하지만, 이미 주류 교육환경에서 소외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교사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교과교육을 더 잘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소외된 청소년들에게는 상담과 복지, 보호와 교육이 통합된 접근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학교장) 현재 제도권 교육 내에서의 교육방식이나 커리큘럼은 여러 가정적 환경, 학교문화, 또래문화 사이에서 학교·학업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소외되거나 결국 학교로부터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생겨난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권 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지속하기보다 커리큘럼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 자체가 각 아이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추어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중략) ...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기본 교과교육을 잘 할 수 있겠지만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교육환경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교과교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류 교육환경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잘 돌볼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런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고 상담, 복지, 보호, 교육의 영역에 통합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욱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 사회복지, 상담, 청소년 이해, 여자아이들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학교가 지향하는 교과과정 운영 및 청소년 교육에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도권 교육에서 요구하는 틀이 이런 다양한 가치관을 포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은 일반학교에서는 공부를 전혀 안 해도 학교만 나가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면서,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또다시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데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고 학교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 및 자립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미인가 대안학교에서의 교육과정과 함께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진로 및 자립지원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이수할 경우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진로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관련 프로그램 및 운영과정을 사전에 심사하여 인증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 때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위한 진로 및 자립지원프로그램에는 여성청소년의 역량 개발과정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³⁾

2) 미혼모를 위한 위탁형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법제 정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에 의거하여 임신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워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로써 여성청소년의 임신으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보되었다.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청소년은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으로서 ① 임신·출산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위기에 처한 여학생, ② 출산 후 아기를 양육하는 학적이 있는 여학생, ③ 복교절차 통해 학적을 회복한 중퇴자 ④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해 있는 학적이 있거나 회복해야 할 여학생이 해당된다. 따라서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 임신이나 출산을 한 여성청소년은 위탁형 대안교육을 받을 수 없는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 다른 문제는 위탁교육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남겨놓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 대안학교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장이 추천을 하지 않으면, 위탁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 위탁형대안학교 교사) 법적으로 학교장 재량이에요. 위탁을 한다는 게 학교장 재량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학습권이 보장되면서 그냥 자동으로 그게 올 수 있게 해야 되

3) 여성청소년의 역량 개발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 방안 중 1) 여성청소년의 역량 및 성인지적 진로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참조.

는데, 학교장 재량이라는 거는, 학교장 추천이 있다는 거는 (학교장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니가 왜 그러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추천을 해줘야 (위탁학교에) 오는데, 애는 와 있는데 추천을 안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가서 몇 번을 봐 주십시오 하다가 부모도 지쳐가지고, “그럼 선생님 한 번 더 가주세요.”, “아버님 저도 지금 교육청이랑 계속 하고 있고, 장학사도 몇 번씩 대신해도 학교가 꿈쩍을 안해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하는 얘기가, 지금 지치니까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더 구걸해야 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측에서는 유아무야 봐주면 학교 명예가 손실된다. 이거예요. 입학생을 받는 데 지장이 생긴다. 명문학교가 명문학교 아닌 걸로 떨어진다. 실업계가 더 강하고, 다음에 사립이 강한 거 같아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②항을 보면,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 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 근거하여 미혼모의 위탁교육 여부에 대한 결정은 학교장 재량사항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법령 정비를 권고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하였음에도(2010년 12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기본법 제17조의 2(남녀평등 교육의 진흥) 2항에 ‘임신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바꾸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에 3항을 신설하여 ‘학교의 장은 임신 등 신체상의 변화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퇴학시킬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⁴⁾

4) 대만은 양성평등교육법 제14조에 학교는 임신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개정(안)
교육 기본법 제17조의 2 (남녀평 등교육의 진흥)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제16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의 설립자·경영자는 교육을 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등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u>임신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u>
초·중등 교육법 제 18조(학 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좌동 좌동 (신설) ③ <u>학교의 장은 임신 등 신체상의 변화를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퇴학시킬 수 없다</u>

3)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정부는 대안학교 확대 및 대안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사와 관계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2010년에는 120여개에 달하는 미인가 대안학교시설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학교 운영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갖고 있는 유휴공간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서 상당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공간사용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대안교육시설에서 건물관리비 및 사용료 등 일정부분을 부담하도록 한다.

(◇◇ 학교관계자) 소규모의 도시형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학교 공간 부족이다. 대안학교들이 공간을 따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 2년 단위로 공간을 구하고 때가 되면 옮겨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좋아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긴 시간 안정감을 느끼며 학업과 자기성장에 매진해야 하는 학교 공간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엔 변함이 없다. 특히 여러 지역자원 등 학교 인근의 자원들을 새롭게 뚫어가며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활동 영역을 넓혀가고자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방침과 방식에서 주요 거점 공간이 2년 단위로 바뀌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 확보했던 많은 자원들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학교 공간이 자주 변화하게 되는 것은 학생들과 선생들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주는 환경일 수 밖에 없고, 비용과 자원 활용 면에서 여러 비효율을 낳는다.

대안학교 관계자의 이러한 이야기는 실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윤정이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이번에 이사 가는 것도 그렇고……이사 기획할 수 있어서 그런 거도 좋긴 한데 그 공간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해야 되고 계속 뭐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거 일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검정고시라던가 다른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사까지 겹치게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이사 때문에 다른 생각이…… 이사랑 다른 생각하고 막 겹치게 되고 막 복잡해지고 그리고 ◆◆에서는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접해 보니까 그거는 좋았어요. 그런데 약간 더 시간? 이라거나 아니면 공간이용? 이런 거……지금 심리학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마포구청에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심리학 거기서 하거든요? (김윤정)

라.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진로 및 자립 지원

1) 여성청소년의 역량 및 성인지적 진로의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청소년지원기관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기관 및 종사자의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의 성맹적(gender-blind) 성격을 개선하기 위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역량 및 성인지적 진로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지원기관에 보급하여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의 진로 및 자립 지원은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을 고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여성청소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고걸스 프로그램(The Go Grrrls Program⁵⁾)을 개발한 르클로이(Craig Winston LeCroy, 2006)는 청소년기의 발

달은 생물-심리-사회적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 특징적(gender specific) 개입이 요구되며,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이 연구에 참여한 여성청소년들의 경우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서 아버지의 폭력과 ‘어린 엄마’로서의 역할수행을 요구받으며 성장하였을 뿐 아니라, 학업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동기의 부재와 무기력,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이러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더욱 절실하다. ◇◇ 학교선생님의 이야기는 가부장적 가족문화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지 못하고 종속적 관계에 길들여져 있는 여성청소년들의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 학교관계자) 우리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이 훨씬 몰몰해요. 그렇게 가출해서 온 애들은요, 전반적으로 여자애들이 에너지가 있고 남자애들은 비리비리 하거든요. …(중략)… 근데 그게 전형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사귀면. 그거는 참 힘들어. 사귀면 어찌 그렇게. 허가 꼬부라지면서(웃음) (Q. 전통적인 그런 남녀관계가 되는거죠.) 네. 그리고 완전 여태까지 개가 화장이고 이거 없어요. 이제 딱 사귀게 되면 완전 여자애가 종속적인 관계로 연애를 딱 하게 되는 건거고, …(중략)… 근데 이게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 가출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더 가부장적이고 되게 보수적이에요. 성문제에 있어서.(Q. 아 남학생이요?) 아냐, 여학생들이. (Q. 아 그런 가정에서 자라서……) 네. 가부장제 안에서 자기가 폭력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에 길들여져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깨는데 많은 시간이 사실 걸리죠.

이와 함께 여성청소년들의 성 정형화된 진로의를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적 진로의를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안교육관계자, 여성청소년보호시설종사자 등 청소년지원기관의 실무자들의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
- 5) 미국의 ‘The Go Grrrls Program’은 청소년기 여성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소녀 되기, 긍정적인 자아상 확립하기, 독립성 획득하기, 친구를 만들고 친구관계 유지하기, 도움을 요청하는 법과 장래계획 세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 참여한 여성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수용성, 자기효능감, 자기 호감 및 자기역량 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C. W. LeCroy, 2006).

바와 같이, 남성청소년들은 직업에 대해 개방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비해 여성청소년들은 세칭 여성다운 직업으로 인식되어 온 서비스업종과 보조적인 직종에서 사고의 틀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가부장적 가치가 내면화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젠더의식을 고양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차 현장전문가 집담회참여자들) 여성청소년들은 서비스 직종에 집착하고, 겉으로 보기에 있어 보이는 직업 또는 편해 보이는 직업을 선호하는 등 직업 가치관 자체가 건강하지 않은 편이다. 남성청소년들의 경우 남자이기 때문에 안 되는 직업이 있다라는 생각 전혀 안하는 편이다. 미용, 타투 등에 대해서도 남자들이 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다. 그러나 여학생은 직종에 대한 성별 편견 많이 갖고 있어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한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 여학생들은 서비스업 중심으로만 진로를 고민하며, 여학생들은 미용하면 헤어, 음악이면 스타 일리스트 등 보조적 업종, 요리사 등 몇 개의 소수 직종에만 국한되어 있다.

2)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꿈나래(가칭)사업 실시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및 사회·정서적 지원과 진로·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지원 ‘꿈나래’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여성청소년에게는 사례관리와 함께 6개월의 학업 및 자립지원과정, 6개월간의 직업훈련과 기업 인턴십을 제공한다. 6개월간의 진로·직업훈련 과정은 대안학교 또는 여성청소년보호기관에서 학업 및 진로·직업 및 기간 동안 훈련수당을 지급하며, 훈련이 끝난 후에는 기업에 연계하여 3개월간의 인턴과정동안 인턴수당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학업을 중단한 여성청소년에게 학업과 직업훈련, 사회·정서적 지원과 함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청소년에게 더욱 폐쇄적인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조건만남, 키스방 등의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원에 ‘꿈나래 사업지원단’을 설치하고, 동 사업

에 참여할 대안학교와 여성청소년보호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단을 구성·운영한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사례관리에는 대안학교와 여성청소년보호기관에서 담당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며, 기업체에서는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여성청소년의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훈련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대안학교나 쉼터 등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학업지원 및 자립동기화	직업훈련	기업연수
지원기간	6개월	3개월	3개월
담당기관	대안학교/여성청소년보호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기업체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습 지원 · 진로탐색 및 진로계획수립 · 사회·정서지원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 훈련	직업체험

3) 저소득층 학업중단 청소년대상 자활지원 사업 확대 및 여성청소년 지원 기능 강화(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인중심의 자활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저소득층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으로 특화 운영될 수 있도록 청소년 자활지원사업지침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층 자활지원사업을 제도화한다. 특히, 저소득층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경우 남성청소년보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매우 협소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학업을 중단한 대부분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사회·정서적 지원 서비스가 동반되지 않으면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 사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요청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동 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자활지원사업이 추진되어 2010년까지 청소년자활지원관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자활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함과 동시에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빈곤의 세대전승을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

여 왔다. 그러나 2010년 12월 31일자로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지침이 폐지됨으로써 청년인큐베이터 사업이 성인중심의 자활근로사업을 이용하여 시범사업형태로 전국 8개 지역에서 축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자립·자활지원 서비스가 절실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은 그 나머지의 지원마저도 끊긴 채 정책의 사각지대에 남게 되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족은 더 이상 양육과 교육을 제공하는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과 ‘어린 엄마’로서의 역할수행을 강제하는 벗어나고 싶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가출과 학업중단, 생계유지 또는 용돈벌이를 위한 성산업으로의 유입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사업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4) 성매매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내 자활작업장 운영 지원 (여성가족부)

성매매 경험이 있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자활 및 자립지원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자활작업장 운영을 지원한다. 성매매 경험이 있는 여성청소년들의 경우 대안학교 시스템 안에서 일과 교육이 같이 가도록 하는 프로그램 기획이 중요하다. 이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과정을 통해 삶의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한 동기 상의 위기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기술이나 인문학적 소양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직업과 일을 체험할 수 있도록 자활작업장 운영을 지원하여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5)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제도 도입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자립지원은 직업훈련이나 교육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정서적 지지와 돌봄을 제공하면

서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성 기술(social skill)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존감을 회복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애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폭력 등 정신적, 육체적 학대나 방임, 가출 등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안전과 돌봄,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청소년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대일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과 정서적 지지 제공 및 생애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생활가정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1(청소년공동생활가정의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한다.

현장실무자들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여성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적 지원 서비스에 의해 고양된 여성청소년의 자존감이나 의욕을 가족이 와해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사회적 지원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 여성은 대상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정체감을 형성하는 남성청소년과는 다른 발달적 특성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위기상황에 노출된 여성청소년들의 경우 가부장적 가치에 노출되어 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보다는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갖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 자활지원관계자) 여성청소년의 경우 남성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활과 자립에 대한 기회를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통한 기회를 제공한다 하여도 가정환경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예전의 삶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주로 보육원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자립생활관과는 달리,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여성청소년을 위한 일대일 사례관리를 통해 사회·정서적 지원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3명이 최대 10명 이내의 여성청소년을 담당하는 규모로⁶⁾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6) 공동생활가정에서 사회복지사 1명이 3~4명의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제안한 것은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 기관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임.

마.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통한 여성청소년의 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심층면접에 참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 대부분 우울감 및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어 이들의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여성청소년의 일부는 우울증이나 불면증 등으로 통원치료 및 약물복용 중이었는데, 대개 이들은 가족이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어 보호자 역할을 하는 성인의 개입에 의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가족의 지원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사회적 서비스 지원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여성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취약한 정신건강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또한 문제가 있음을 느낀다 하더라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는 정신건강 뿐 아니라 신체건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한다. 잦은 가출과 음주 및 흡연, 불규칙한 일상생활 등은 성장기에 있는 여성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된다. 특히 여성청소년들은 산부인과와 관련한 질환에 대한 염려가 많은데, 이는 성관계에 많이 노출된 이들 일수록 높아진다. 하지만 여성청소년들은 생식기관에 이상증상을 발견해도 성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나 십대라는 연령적 요인으로 인해 이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듯 신체 및 정신건강의 취약성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지지자원이 부재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이 직접 스스로 의료서비스를 찾아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함께 보호자 없이 청소년 혼자 방문하기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높기 때문에, 여성청소년들에게 필수적인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은 더더욱 크다.

따라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이들이 필요 시 산부인과 검진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각 지역사회의 보건소와 정신건강센터와 같은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적극 활

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보건소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주로 저소득 계층, 어르신, 임산부와 같이 성인 중심의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의 사업으로는 대부분 금연교육을 비롯한 건강증진 관련교육이 차지한다. 이마저도 주로 학교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한 여성청소년 개개인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민간의료서비스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이다. 여성청소년이 공공의료서비스를 적극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친 청소년, 친 여성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성청소년이 공공의료기관에 처음 방문할 시 전반적인 건강상황 및 진료가 필요한 특정사안에 대한 사정을 거친 후 의사와 연계시켜줄 수 있는, 일종의 코디네이터로서의 인력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긴장되는 일이며, 특히 학업중단자에 대한 사회의 불편한 시선을 겪을 대로 겪은 여성청소년일수록 위축감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의 심리적인 불편함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 및 진료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여성가족부)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들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자원배분의 효율화 및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한 ‘학업중단 여성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현재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보면, 학업중단 여성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쉼터, 대안학교, 자립학교 등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으며, 학업중단인 경우에도 성매매, 미혼모 등 대상 집단에 따른 운영지원기관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여러 기관들이 어떤 식으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만나고 어떤 지원들을 하는지 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 또는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자원 분배의 비효율이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묶어 구조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각 지원기관 간 연계가 시스템화 되어 있어, 쉼터에서는 보호·상담, 학

교에서는 교육 등 분야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적합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 기관 연계 시스템을 통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여성청소년 지원 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한다거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갖는 게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석영 외(2009). 전국 청소년 위기상황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2012 이명박 정부 교육복지대책.
- 구본용·신현숙·유제민(200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2). 35-57.
- 구본용·유제민(2003). 중퇴에 관한 위험 및 보호요인의 신경망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133-146.
- 국회예산정책처(2010). 청년고용대책평가.
- 금명자 외(2005). 학교밖 청소년 평가도구 개발. 청소년상담원.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299-317.
- 김성경(2003). 여자청소년의 비행경험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4). 487-510.
- 김성기·조동섭·전제상(2009).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분석. 부산광역시교육청.
- 김성이 외(2004). 청소년복지학. 집문당.
- 김은실 외(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대책 연구.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 김준호·김은경(1995). 법의식과 비행의 관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995(1). 11-164.
- 김혜진(2009). 십대여성의 근로환경 실태조사보고 및 지원 프로그램. 서울시 늘푸른여성지원센터.
- 남국희(2002). 학업 중퇴와 개입 방안. 청소년문제와 청소년복지. 인간과 복지. 131-156.
- 문혜진(2002).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복지동향. 8. 56-60.
- 민가영(2007). ‘신빈곤층’ 가족 십대 여성의 가출 재생산 문화에 관한 현장기술지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5(2). 29-44.
- 박래영(2005). 광복 60년 학업중단의 원인, 실태, 정책의 변화양상과 향후과제. 청소년복지연구. 7(2). 5-21.
- 박진규(2000). 청소년 집단 따돌림(왕따)현상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일 고찰. 청소년학연구. 7(2). 39-71.

- 박창남·임성택·전경숙·심성식(2001). 중도탈락 청소년 예방 및 사회적응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배영태(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판별척도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변혜정(2006). 10대여성의 삶 읽기를 위한 성인지적 접근: 10대여성의 가출의 의미를 중심으로, 서울시늘푸른여성지원센터 청소년 성평등 정책 포럼 “십대를 위한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은 가능한가?”. 서울특별시. 5-38.
- 변혜정·민가영(2007). 청소년의 가출의미에 대한 연구-계급정체성에 따른 성역할과 성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3(1). 5-37.
- 서우석 외(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 개선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연구. 26(1). 106-133.
- 서정아·권해수·정찬석(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성윤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과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 백서.
- 유성경(2002). 청소년 비행관련 위험요소 및 보호요소의 남녀별 차이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01-217.
- 윤여각 외(2002). 학업중단 청소년 정책 및 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한국청소년개발원.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2002.5.3). 15-18.
- 윤운영(2004). 집단따돌림 경험 여성에 대한 연구. 가톨릭대 심리학과 석사학위청구논문. 미간행.
- 윤철경 외(2006).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실태와 발전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외(2010). 학업중단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이경상·박창남(2006). 학업중단이후 첫 번째 아르바이트 참여실태 및 지원방안: 기관소속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7(2). 265-289.
- 이봉주 외(2008). 위기청소년개념정립 및 통계화 방안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
- 이성식(2007). 청소년비행 원인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패널 두 연령집단에서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18(2). 265-290.
- 이성식·전신현(2001). 가부장적 가정과 여자청소년의 비행: 대립되는 두 가설의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5). 173-198.

- 이숙영·남상인(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 연구. 청소년대화의 광장.
- 장석민(2002).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지도 대책. 청소년 상담문제 연구보고서-학교를 떠나는 아이들. 한국청소년상담원.
- 전경숙(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가출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전경숙·노재봉(2003). 중퇴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보호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경숙(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가출 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전신현(1999). 여자청소년들의 역할정체성, 역할긴장과 심리적 안정감. 여성연구논총. 14. 53-70.
- 정연순·이민경(2008). 교사들이 지각한 잠재적 학업중단의 유형과 특성. 한국교육. 35(1) 79-102.
- 정익중(2005). 성역할 고정관념과 청소년비행의 성별 차이. 한국청소년연구. 16(1). 35-76.
- 정해숙 외(2010).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조성연·이미리·박은미(2009). 학업중단 청소년. 한국아동학회지. 30(6). 391-403.
- 조아미(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조준(2002). 집단따돌림과 대응 프로그램. 청소년문제와 청소년 복지. 인간과 복지. 103-130.
- 주무현 외(2009).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운영실태 비교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차명호 외(2009). 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최동선·이상준(2009). 학교중단 청소년을 위한 진로개발 지원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추병완(1998). 길리건의 도덕발달 이론에 대한 재조명. 도덕윤리과교육연구. 9. 399-416.
- 황선미·신현숙(2007). 고등학생과 진로적응훈련 중인 중퇴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진로장애 및 진로결정의 관계모형 검증. 상담학연구. 8(1). 229-245.

환경노동위원회. 보도자료(2008). 노동부 '취약계층 청소년 잡 스쿨' 사업, "있으
나 마나"

AAUW(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1991). Shortchanging Girls,
Shortchanging America: Executive Summary. Washington, D. C.: AAUW
Educational Foundation.

Brown, Lyn Mikel and Gilligan, Carol(1997). 교차로에서의 만남. 김아영(역). 이화
여자대학교 출판부.

Chesney-Lind, Meda(1989). Girls' Crime and Woman's Place: Toward a Feminist
Model of Female Delinquency. Crime & Delinquency. 35 : 5-29.

Lecroy, C. W. and Dalay, Jannis(2006). 청소년기 소녀들의 역량 개발: '고걸스'프
로그램. 십대여성의 통합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국제심포지
엄 자료집. 서울특별시.

Sadker, Myra and Sadker, David(1994). Failing at Fairness : How America's Schools
Cheat Girls.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Salomone, Rosemary C.(2002). same, different, equal : Rethinking Single-
Sex Schooling. New haven &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Simmons, Rachel(2002). 소녀들의 전쟁. 권은정(역), 홍익출판사.

부 록

- | | |
|----------------------------------|-----|
| 1. 부표 | 301 |
| 2.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표 | 303 |

〈부표 Ⅲ-1〉 고등학교 학업중단자의 지역·계열별 학업중단 사유

단위 : 명(%)

연도	지 역	고등학 교계열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2006	광 역 시	일반계	257 (12.8)	302 (10.9)	627 (31.2)	873 (31.5)	26 (1.3)	40 (1.4)	471 (23.4)	828 (29.9)	629 (31.3)	727 (26.3)
		전문계	80 (3.4)	89 (2.7)	611 (25.6)	850 (25.5)	123 (5.2)	152 (4.6)	1,257 (52.7)	1,901 (56.9)	315 (13.2)	348 (10.4)
	도	일반계	232 (10.3)	292 (9.3)	607 (27.0)	886 (28.3)	29 (1.3)	43 (1.4)	650 (28.9)	1,003 (32.0)	733 (32.6)	911 (29.1)
		전문계	107 (3.5)	163 (4.0)	1,006 (32.5)	1,315 (32.2)	100 (3.2)	139 (3.4)	1,265 (40.8)	1,664 (40.7)	618 (20.0)	807 (19.7)
2007	광 역 시	일반계	328 (13.6)	367 (10.4)	620 (25.7)	945 (26.8)	42 (1.7)	31 (0.9)	613 (25.4)	1,158 (32.9)	812 (33.6)	1,021 (29.0)
		전문계	78 (3.0)	96 (2.4)	604 (23.4)	995 (24.6)	178 (7.0)	183 (4.5)	1,361 (52.8)	2,317 (57.3)	357 (13.9)	454 (11.2)
	도	일반계	292 (10.8)	363 (9.1)	723 (26.8)	1,000 (25.1)	27 (1.0)	49 (1.2)	759 (28.1)	1,390 (34.9)	896 (33.2)	1,180 (29.6)
		전문계	200 (5.4)	244 (4.9)	1,306 (35.0)	1,864 (37.6)	164 (4.4)	188 (3.8)	1,394 (37.4)	1,977 (39.8)	664 (17.8)	690 (13.9)
2008	광 역 시	일반계	394 (13.2)	434 (9.6)	643 (21.5)	1,196 (26.4)	23 (0.8)	37 (0.8)	917 (30.7)	1,604 (35.4)	1,014 (33.9)	1,260 (27.8)
		전문계	85 (2.8)	118 (2.6)	706 (23.3)	1,214 (26.7)	206 (6.8)	190 (4.2)	1,543 (51.0)	2,435 (53.6)	485 (16.0)	589 (13.0)
	도	일반계	405 (12.2)	357 (7.7)	1,071 (32.7)	1,485 (32.0)	47 (1.4)	93 (2.0)	1,245 (37.5)	2,089 (45.1)	552 (16.6)	611 (13.2)
		전문계	169 (4.1)	212 (3.7)	1,619 (39.4)	2,266 (39.1)	165 (4.0)	273 (4.7)	1,667 (40.6)	2,515 (43.4)	485 (11.8)	524 (9.05)
2009	광 역 시	일반계	374 (13.0)	374 (8.3)	651 (22.7)	1,063 (23.6)	24 (0.8)	40 (0.9)	888 (30.9)	1,858 (41.2)	936 (32.6)	1,178 (26.1)
		전문계	58 (1.9)	96 (2.0)	917 (29.3)	1,125 (23.5)	98 (3.1)	97 (2.0)	1,607 (51.4)	2,904 (60.5)	449 (14.4)	575 (12.0)
	도	일반계	360 (9.9)	398 (7.8)	1,161 (31.9)	1,425 (27.8)	38 (1.1)	63 (1.2)	1,499 (41.2)	2,565 (50.1)	577 (15.9)	673 (13.1)
		전문계	161 (3.8)	151 (2.4)	1,630 (38.9)	2,197 (35.5)	126 (3.0)	186 (3.0)	1,907 (45.5)	3,039 (49.1)	368 (8.8)	614 (9.9)
2010	광 역 시	일반계	398 (12.6)	380 (8.0)	609 (19.2)	1,007 (21.1)	28 (0.9)	38 (0.8)	924 (29.2)	1,937 (40.6)	1,206 (38.1)	1,413 (29.6)
		전문계	85 (3.0)	108 (2.6)	670 (23.6)	930 (22.2)	48 (1.7)	79 (1.9)	1,522 (53.6)	2,432 (58.0)	516 (18.2)	646 (15.4)

연도	지역	고등학교 교계열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도	일반계	357 (9.6)	420 (7.3)	771 (20.6)	1,118 (19.5)	28 (0.8)	88 (1.5)	1,323 (35.4)	2,452 (42.7)	1,258 (33.7)	1,664 (29.0)
		전문계	130 (3.2)	189 (3.2)	1,387 (34.0)	1,871 (31.2)	63 (1.5)	103 (1.7)	1,794 (43.9)	2,884 (48.1)	711 (17.4)	953 (15.9)

〈부표 V-1〉 성역할 태도에서의 성별 차이

	성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
직장에서 직원을 줄일 때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남성	24	1.42	0.65	-0.138
	여성	71	1.45	1.14	
진로 및 취업준비는 아무래도 여성청소년보다는 남성청소년에게 더 우선적이다	남성	24	3.46	0.66	-0.343
	여성	71	3.54	1.03	
집안일은 일차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게 좋다	남성	24	3.17	0.87	-0.852
	여성	71	3.32	0.75	
리더십 훈련은 여성청소년보다 남성청소년에게 더 필요하다	남성	24	3.41	0.78	-1.492
	여성	71	3.71	0.88	
여성에게는 일과 사회적 성공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	남성	24	3.17	0.82	-0.250
	여성	71	3.23	1.04	
청소년들의 직업지도 시에는 남성다운 특성과 여성다운 특성을 고려하는 게 좋다	남성	24	2.50	1.25	-0.968
	여성	71	2.77	1.19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성보다 남성의 학벌이 더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남성	24	3.29	0.75	-0.099
	여성	71	3.31	0.79	
가족의 생계책임은 일차적으로 남편한테 있다	남성	24	2.91	1.02	-0.602
	여성	71	3.04	0.84	
원만한 남녀관계를 위해 여성이 너무 주도적인 것은 좋지 않다	남성	24	3.38	0.65	1.101
	여성	71	3.11	1.10	
부서의 책임자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합하다	남성	24	3.33	0.76	-0.77
	여성	71	3.51	1.01	
혼전 임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다	남성	24	3.92	1.18	0.337
	여성	71	3.85	0.79	
여성보다 남성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	남성	24	3.33	0.76	0.041
	여성	71	3.32	1.03	
남자 아이는 씩씩하고 용감하게 여자아이는 온순하고 차분하게 키우는 게 좋다	남성	24	3.46	0.72	-0.308
	여성	71	3.51	0.65	

주: 척도는 매우그렇다 1점, 대체로그렇다 2점, 대체로아니다 3점, 전혀아니다 4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	--	--	--	--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주관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법 33조에 의해 반드시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응답하기 다소 힘들더라도 모든 문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7월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설문에 대한 모든 응답과 개인적인 사항은 철저히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응답자	사업장명		소속부서		직책	
	응답자명		이 메 일			
	전화번호	() -	핸 드 폰	-	-	

1. 귀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형태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 형태	대안 학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자활 지원관 (또는 프로그램 운영기관)	청소년보호시설										응답
		지역	시도		남성쉼터				여성쉼터				성매매	미혼모	
					장기	중기	단기	혼합	장기	중기	단기	혼합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청소년보호시설 중 남성/여성쉼터의 경우 장기·중기·단기·혼합 중 해당하는 기간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공 통 설 문>

1. 프로그램 현황

문1. 현재 귀 기관에서는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신 프로그램 유형을 모두 체크해주시고,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최대 2개까지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름, 기간을 기입하여 주십시오. **(2010년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1)유형 : 2010년에 운영한 프로그램 유형을 모두 선택해주시고
2)프로그램 이름 : 해당 유형에 속한 대표적인 프로그램 2개를 기입해 주십시오
3)총 운영기간 : 2010년에 운영하신 총 기간
4)프로그램 총 시수 : 2010년 프로그램이 진행된 총 시간

유형1)	모두 체크	프로그램 이름2)	총 운영기간3)	프로그램 총 시수4)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수	정부지원예산 여부			예산규모 (백만원)
						있음	없음	응답칸	
(1)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검정고시, 정규학교 복귀, 상급학교 진학 목적 등)		1)	개월	시간	명	1	2		백만원
		2)	개월	시간	명	1	2		백만원
(2)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진로·직업탐색, 직업연수 프로그램 등)		1)	개월	시간	명	1	2		백만원
		2)	개월	시간	명	1	2		백만원
(3) 사회·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사회성 개발 및 자존감 회복, 인문학강좌, 소통 프로그램 등)		1)	개월	시간	명	1	2		백만원
		2)	개월	시간	명	1	2		백만원
(4)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1)	개월	시간	명	1	2		백만원
		2)	개월	시간	명	1	2		백만원
(5) 기타		1)	개월	시간	명	1	2		백만원
		2)	개월	시간	명	1	2		백만원

문2. 문 1에서 언급한 프로그램 중 정부지원 이외 후원(기업 및 단체 등)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

1) 예 ➡ 문2-1로 갈 것

2) 아니요 ➡ 문3으로 갈 것

문2-1. 있다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출처(정부제외한 기업 및 단체 등)	프로그램 이름
1)	
2)	
3)	
4)	

문3. 지난 1년간(2010년 한 해동안) 귀 기관을 이용한 청소년의 남녀 이용자수와 귀 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남녀의 참여인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남성	여성	총 합계
기관이용 청소년 수 (명)		명	명	명
프로그램의 남녀 참여인원	(1)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명	명	명
	(2)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명	명	명
	(3) 사회·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명	명	명
	(4) 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명	명	명
	(5) 기타	명	명	명

2. 프로그램 제공 절차 및 내용

※ 다음의 질문들은 귀 기관에서 **학업중단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있는 **핵심 프로그램 사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주요 경로는 무엇입니까? 주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1) 다니던 학교의 교사 소개로
- 2) 친구들의 소개로
- 3)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 다른 청소년 관련 기관을 통해서
- 4) 부모의 권유로
- 5) 지자체 공무원의 소개로
- 6) 인터넷 등 사이버 정보에 의해서
- 7) 경찰의 소개로
- 8) 기타 ()

문5. 귀 기관에서는 평소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남녀 청소년들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성별로 분리된 통계를 작성하고 계십니까?

- 1) 예 2) 아니요

문6. 귀 기관은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 1) 예 ➡ 문6-1로 갈 것 2) 아니오 ➡ 문7로 갈 것

문6-1. 귀 기관에서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십시오.(여러 개일 경우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문6-2. **여성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기관 및 담당자 현황

문7. 귀 기관에 종사하는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2010년 기준)

직원	인원 수 (명)
1) 상근직 교사	명
2) 비상근 교사	명
3) 상담인력(정규/비정규 포함)	명
4) 행정인력	명
5) 기타 지원인력(멘토/자원봉사 포함)	명
총 인원수 (1+2+3+4+5)	명

문8. 귀 기관에서는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러 기관을 통해 받는 경우,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 1)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한다 2) 교육청에서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한다
3) 프로그램 관련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 4) 별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지는 않는다
5) 기타 ()

문9.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당 예산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충분합니까?

- 1) 충분하지 않다. ➔ **문9-1로 갈 것** 2) 비교적 충분하다. ➔ **문10으로 갈 것**

문9-1.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가장 주된 이유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1)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 2) 전문강사 인력 초빙 예산 부족
3) 실습비, 프로그램 운영 공간 마련 등의 예산 부족 4) 자원봉사 등 지원인력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
5) 프로그램 참가자 개별 사례관리를 위한 예산 부족 6) 기타 ()

문10. 귀 기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습니까? ()

- 1) 분야 및 내용별로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다.
- 2) 해당 운영교사가 내용 전부를 강의한다.
- 3) 해당 운영교사가 대부분의 내용을 강의하지만 필요 시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초빙한다.
- 4) 기타 ()

문11. 귀 기관은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취업연계와 관련된 구체적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

- 1) 예 ➡ 문11-1로 갈 것 2) 아니오 ➡ 문12로 갈 것

문11-1.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순위에 관계없이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1) 구체적인 취업처 발굴을 한다.
- 2) 가까운 고용센터와 연계한다.
- 3) 청소년들이 직업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연계한다.
- 4) 창업지원을 도와준다.
- 5) 구직활동을 도와준다(이력서쓰기, 면접지원 등).
- 6) 자체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 7) 자립·취업지원을 위한 상담활동을 주로 한다.
- 8) 기타()

문12. 다음은 귀하의 평소 생각을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아래 각 문항을 잘 읽으시고 평상시 귀하의 생각을 기준으로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응답
1) 직장에서 직원을 줄일 때 남성보다 여성을 먼저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1	2	3	4	
2) 진로 및 취업준비는 아무래도 여성 청소년보다는 남성 청소년에게 더 우선적이다	1	2	3	4	
3) 집안일은 일차적으로 여성이 담당하는 게 좋다	1	2	3	4	
4) 리더십 훈련은 여성 청소년보다 남성 청소년에게 더 필요하다	1	2	3	4	
5) 여성에게는 일과 사회적 성공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하다	1	2	3	4	
6) 청소년들의 직업지도 시에는 남성다운 특성과 여성다운 특성을 고려하는 게 좋다	1	2	3	4	
7)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성보다 남성의 학벌이 더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	1	2	3	4	
8) 가족의 생계책임은 일차적으로 남편한테 있다	1	2	3	4	

9) 원만한 남녀관계를 위해 여성이 너무 주도적인 것은 좋지 않다	1	2	3	4	
10) 부서의 책임자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적합하다	1	2	3	4	
11) 혼전 임신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다	1	2	3	4	
12) 여성은 남성보다 과학이나 수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	1	2	3	4	
13) 남자 아이는 씩씩하고 용감하게 여자 아이는 온순하고 차분하게 키우는 게 좋다	1	2	3	4	

<프로그램별 설문>

※ 문1에서 대답한 (1)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지원프로그램 (2)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3) 사회·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4) 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 중 귀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만 작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1.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문13.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사용 되고 있습니까? ()

- 1) 중앙정부(행정부처,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에서 개발한 기본(prototype)프로그램 사용
- 2) 다른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
- 3)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용
- 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 5) 후원기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 6) 기타 ()

문14. 현재 사용하고 계신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불충분하다 ➡ 문14-1로 갈 것
- 2) 불충분하다 ➡ 문14-1로 갈 것
- 3) 충분하다 ➡ 문15로 갈 것
- 4) 매우 충분하다 ➡ 문15로 갈 것

문14-1. 문14에서 1), 2) 번에 응답하셨다면 어떤 점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여부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구분	항목	동의여부		응답
		그렇다	아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	프로그램의 기간이 너무 짧다	1	2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하다	1	2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다	1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다	1	2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1	2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1	2	
참여자의 문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1	2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다	1	2	
	가족 등 주위환경의 지지가 부족하다	1	2	
운영기관의 문제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1	2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관리가 어렵다	1	2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	1	2	

문15.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16.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

- 1)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능하다
- 2)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 3) 1인당 프로그램 참여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 4) 기타 ()

문17.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수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습니까? ()

- 1) 예 ➡ 문17-1로 갈 것 2) 아니요 ➡ 문18로 갈 것

문17-1. 프로그램이 단계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떻게 운영되니까? ()

- 1) 모든 프로그램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간다
- 2)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된다
-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4) 기타 ()

문18. 학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애로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1)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에 대한 부족
- 2) 프로그램 운영 시 장시간 혼자 진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
- 3)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
- 4)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
- 5)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위인력 확보의 어려움

310 ●●●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 6)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프로그램의 외부지원을 받는데 어려움
7) 기타 ()

문19. 귀하는 현재 운영하고 계신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과정**에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예 ➡ **문20으로 갈 것** 2) 아니오 ➡ **문19-1으로 갈 것**

문19-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과정에 청소년의 성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주로 남성청소년들이 흥미있을 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2) 여성청소년들이 관심 있을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3)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 청소년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5) 기타(구체적으로 적을 것:_____)

문20.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에 여성 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

- 1) 예 ➡ **문20-1로 갈 것** 2) 아니오 ➡ **문21로 갈 것**

문20-1. 있으시다면,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1. 귀하가 학업지속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해 본 결과 청소년들의 교육 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예 ➡ **문21-1로 갈 것** 2) 아니오 ➡ **문22로 갈 것**

문21-1.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22.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 1) 예 ➡ **문22-1로 갈 것** 2) 아니오 ➡ **문23로 갈 것**

문22-1.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업지원 프로그램의 어떤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1)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 2)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 3)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환경 개선(교실, 학습도구 등)
- 4) 청소년들이 과목수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 및 지원처 확보
- 5) 청소년 학습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
- 6)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적 사례관리 도입
- 7) 기타()

2.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문23.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사용 되고 있습니까? ()

- 1) 중앙정부(행정부처,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에서 개발한 기본(prototype)프로그램 사용
- 2) 다른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
- 3)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용
- 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 5) 후원기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 6) 기타()

문24.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찾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불충분하다 ➡ 문24-1로 갈 것
- 2) 불충분하다 ➡ 문24-1로 갈 것
- 3) 충분하다 ➡ 문25로 갈 것
- 4) 매우 충분하다 ➡ 문25로 갈 것

문24-1. 문24에서 1), 2)번에 응답하셨다면 어떤 점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여부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항목	동의여부		응답
		그렇다	아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	프로그램의 기간이 너무 짧다	1	2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하다	1	2	
	실습시간과 장소가 부족하다	1	2	
	실습처 등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다	1	2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1	2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1	2	
참여자의 문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1	2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다	1	2	
	가족 등 주위환경의 지지가 부족하다	1	2	
운영기관의 문제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1	2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관리가 어렵다	1	2	
	진로·직업찾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	1	2	

문25.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26. 진로·직업 찾기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능하다
- 2)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 3) 1인당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 4) 기타()

문27.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수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습니까? ()

- 1) 예 ➡ 문27-1로 갈 것
- 2) 아니오 ➡ 문28로 갈 것

문27-1. 프로그램이 단계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떻게 운영됩니까? ()

- 1) 모든 프로그램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간다
- 2) 프로그램 참가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된다
-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4) 기타 ()

문28. 진로·직업찾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애로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	--	-----	--

- 1)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에 대한 부족
- 2) 프로그램 운영 시 장시간 혼자 진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
- 3)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
- 4) 실습장비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
- 5) 본인이 운영해야 할 체계화된 프로그램의 부족
- 6) 현장실습을 위한 실습처 발굴의 어려움
- 7)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프로그램의 외부지원을 받는데 어려움
- 8) 기타 ()

문29. 귀하는 현재 운영하고 계신 진로·직업찾기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과정에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예 ➡ 문30으로 갈 것
- 2) 아니오 ➡ 문29-1로 갈 것

문29-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과정에 청소년의 성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주로 남성청소년들이 흥미있을 실습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 2) 여성청소년들이 관심 있을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 3)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4) 청소년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 5) 기타(구체적으로 적을 것:_____)

문30.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찾기 프로그램에 여성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

- 1) 예 ➡ 문30-1로 갈 것 2) 아니요 ➡ 문31로 갈 것

문30-1. 있으시다면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1. 진로·직업찾기 프로그램을 운영 해 본 결과 청소년들의 교육 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예 ➡ 문31-1로 갈 것 2) 아니오 ➡ 문32로 갈 것

문31-1.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32.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찾기 프로그램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 1) 예 ➡ 문32-1로 갈 것 2) 아니오 ➡ 문33으로 갈 것

문32-1.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찾기 프로그램의 어떤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1)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 2)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 3) 실습도구의 현실성
- 4) 현장실습처의 다양화
- 5) 청소년들에 대한 개별적 사례관리 도입
- 6) 기타()

3. 사회·정서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문33.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사용되고 있습니까? ()

- 1) 중앙정부(행정부처,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에서 개발한 기본(prototype)프로그램 사용
- 2) 다른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
- 3)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용
- 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 5) 후원기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 6) 기타()

문34.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불충분하다 ➡ 문34-1로 갈 것
- 2) 불충분하다 ➡ 문34-1로 갈 것
- 3) 충분하다 ➡ 문35로 갈 것
- 4) 매우 충분하다 ➡ 문35로 갈 것

문34-1. 문34에서 1), 2)번에 응답하셨다면 어떤 점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여부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항목	동의여부		응답
		그렇다	아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	프로그램의 기간이 너무 짧다	1	2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하다	1	2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하다	1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다	1	2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1	2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1	2	
참여자의 문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1	2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다	1	2	
	가족 등 주위환경의 지지가 부족하다	1	2	
운영기관의 문제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1	2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관리가 어렵다	1	2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	1	2	

문35.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36.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 1)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능하다
- 2)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 3) 1인당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4) 기타 ()

문37.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습니까? ()

- 1) 예 ➡ **문37-1로 갈 것** 2) 아니오 ➡ **문38로 갈 것**

문37-1. 프로그램이 단계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떻게 운영됩니까? ()

- 1) 모든 프로그램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간다
2) 프로그램 참가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된다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4) 기타 ()

문38.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프로그램 운영의 애로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1)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 부족
2) 프로그램 운영 시 장시간 혼자 진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
3) 많은 청소년들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
4)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
5)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
6) 기타 ()

문39.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계신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과정에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예 ➡ **문40으로 갈 것** 2) 아니오 ➡ **문39-1로 갈 것**

문39-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과정에 청소년의 성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주로 남성청소년들이 흥미있을 자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2) 여성청소년들이 관심 있을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3)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4) 청소년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5) 기타(구체적으로 적을 것:_____)

문40.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에 여성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

1) 예 ➡ **문40-1로 갈 것**

2) 아니오 ➡ **문41로 갈 것**

문40-1. 있으시다면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1. 귀하가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해 본 결과 청소년들의 교육 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 ➡ **문41-1로 갈 것**

2) 아니오 ➡ **문42로 갈 것**

문41-1.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2.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1) 예 ➡ **문42-1로 갈 것**

2) 아니오 ➡ **문43으로 갈 것**

문42-1.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의 어떤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 1)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 2)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 3)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자료의 다양화
- 4) 전문가 등 외부 전문자원의 연계
- 5) 기타()

4.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문43.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사용 되고 있습니까? ()

- 1) 중앙정부(행정부처, 한국청소년상담원 등)에서 개발한 기본(prototype)프로그램 사용
- 2) 다른 민간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용
- 3) 프로그램 담당자가 자체적으로 개발·사용
- 4)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 5) 후원기업에서 개발한 프로그램 사용
- 6) 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 실시
- 7) 기타()

문44. 현재 사용하고 계신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교육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불충분하다 ➡ **문44-1로 갈 것**
- 2) 불충분하다 ➡ **문44-1로 갈 것**

3) 충분하다 ➡ 문45로 갈 것 4) 매우 충분하다 ➡ 문45로 갈 것

문44-1. 문44에서 1), 2) 번에 응답하셨다면 어떤 점이 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여부에 모두 체크하여 주십시오.

구분	항목	동의여부		응답
		그렇다	아니다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	프로그램의 기간이 너무 짧다	1	2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실하다	1	2	
	프로그램 운영공간이 부족하다	1	2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이 부족하다	1	2	
	강사 등 프로그램 투입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1	2	
	운영예산이 부족하다	1	2	
참여자의 문제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1	2	
	기본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하다	1	2	
	가족 등 주위환경의 지지가 부족하다	1	2	
운영기관의 문제	담당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1	2	
	담당자 부족으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사례관리가 어렵다	1	2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다	1	2	

문45.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46.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기회는 어느 정도입니까? ()

- 1) 청소년이 원하는 만큼 참여가능하다
- 2)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
- 3) 1인당 프로그램의 참여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 4) 기타()

문47. 성 관련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용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개발되어 있습니까? ()

- 1) 예 ➡ 문47-1로 갈 것 2) 아니오 ➡ 문48로 갈 것

문47-1. 프로그램이 단계가 있다면 다음 중 어떻게 운영되니까? ()

- 1) 모든 프로그램참가자들이 동일한 프로그램 경로를 따라간다
- 2) 프로그램 참가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이 재설계되어 운영된다
- 3) 프로그램 참가자의 수준별로 서로 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 4) 기타 ()

문48.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 애로점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선순위로 2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		2순위	
-----	--	-----	--

- 1) 프로그램 운영 전문지식 부족
- 2) 프로그램 운영 시 장시간 혼자 진행해야 하는 체력적 부담
- 3) 많은 청소년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인력의 부족
- 4)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설명의 어려움
- 5) 본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부족
- 6) 기타 ()

문49. 귀하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과정에 청소년의 성별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예 ➡ 문50으로 갈 것 2) 아니오 ➡ 문49-1로 갈 것

문49-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과정에 청소년의 성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주로 남성청소년들이 흥미있을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 2) 여성청소년들이 관심 있을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 3) 청소년의 성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4) 청소년의 성별 차이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 5) 기타(구체적으로 적을 것: _____)

문50.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여성청소년에게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까? ()

- 1) 예 ➡ 문50-1로 갈 것 2) 아니오 ➡ 문51로 갈 것

문50-1. 있으시다면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1. 귀하가 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해 본 결과 청소년들의 교육 후 반응이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예 ➡ 문51-1로 갈 것 2) 아니오 ➡ 문52로 갈 것

문51-1.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점에 차이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52.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1) 예 ➡ 문52-1로 갈 것

2) 아니오 ➡ 문53으로 갈 것

문52-1.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어떤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가지 만 골라주세요.()

- 1)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
- 2) 프로그램 운영자의 전문성
- 3) 교육 프로그램 자료의 다양화
- 4) 전문가 등 외부 전문 자원의 연계
- 5) 기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Current Situation and Political Policy on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Chung, Hae-Sook(Senior Research Fellow, KWDI)

Oh, Eun-Jin(Research Fellow, KWDI)

Choi, Ja-eun(Researcher, Indie Women's Institute)

After 2005, the number of teenager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showed a increase every year and reached 73,434 people in 2008. After the year, the number slowly decreased to 61,910 in 2010. The government have reinforced the support system to improve the problem of teenage girls who maladjust to or drop out school. However, the government's measures of support does not consider gender difference and it is a gender-neutral policy for the general teenage. The only gender sensitive policies for teenage girls remain at the level of protecting them from sexual crimes. Moreover, there is no policy which considers the situations and the conditions of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properly, because the protect policy targets all teenage girls.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actual life condition of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and figures out how to support them. By doing so this research intends to suggest policy direction for them. For the research,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41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at the moment. In addition, attempts were made to understand the actual operating condition of teenage support institutes by carrying out a survey

through out 99 teenage support institutes. Gender analysis was also practiced on the services and programs that are given to teenager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With this, case studies of four institutes that support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up were carried out.

The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 shows that more than half of the subjects of the in-depth interview had grown up in disorganized or reconstructed family surroundings. They were assaulted consistently by their parents or had to do housework or care work because of the disorganization of their family. For this reason the teenage girls repeatedly ran away from home to escape from their family. Because most of the girls go on to school without enough economical or emotional support from their families, they gradually accrued study deficits caused by low interest in school life or frequent absence from school. Deviant and hierarchial characters among the peer group culture worsened the situation. This complied situation caused teenage girl's to leave school.

After leaving school, most of the teenage girls made efforts to get a part time job or to keep studying. However, the teenage girls who made efforts to keep studying were hard put because they were blocked from access to study support resources or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preparing for qualification exams or career exploration. Gender discriminated experiences of the teenage girls were vividly revealed in the process of their seeking part time jobs or the surroundings of their work places. Many teenage girls in-depth interviews answered that they had experienced 'kiss rooms' or 'karaoke' assistant ets. This shows that the general working conditions of teenage girls may introduce them to prostitution at any time. It also portrays that teenage girls are always exposed to confinement, black-mailing,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s the period of dropping out of school becomes elongated, most teenage girls felt shame, depression and suicidal urges.

Some of the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experienced positive change through the social support service offered by teenage support institutes. However, the number of positive experienced girl is small. The majority of the girls had not experienced support by social services or had negative perceptions towards social services by adverse experience.

The result of the research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eenage support institutes show that the institutes run study support program, career support programs, social emotion support programs and sex education. However, lack of government support and people's negative prejudice toward them worsen the fund-raising which could be used for securing human resources for the program and budget. In addition, after the teenagers leave school, specific measures to connect them to the teenage support institute are needed. The employees in the teenage support institutes have not only gender related prejudice but also fail to offer specific services considering the trait of the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Based on the result of the research, policy measures for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are suggested as followed.

- Building school support system for teenage girls in danger of dropping out of the school.
 - Vitalizing school social welfare services.
 - Reinforcing teacher training courses for guidance, reflecting the trait of the teenage girls.
- Reinforcing school counselling services by systemizing school counselling.
- Introducing a mature consideration period system for students who are in the process of dropping out of school and information system of social support service.

- Extending service to early detection of teenage girls who are in danger of dropping out of school.
 - Vitalizing mobile counselling
 - Enlarging Cyber-Out reach work.
- Practicing gender sensitivity education for employees who work at teenage support institute.
- Supporting the education of teenage girl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to start again.
 - Introducing a policy for general certificates of education examination, that recognize alternative school graduates' learning.
 - Modifying the law of commissioned alternative education for unmarried mothers.
 - Securing space for the stable operation of the unauthorized schools.
- Supporting career and self-reliance for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 Developing program considering gender inclusive career sense
 - Launching 'Dream-Wings(assumed name)' work for self-support teenage girl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 Expanding backing system for self-support work for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in low income bracket.
- Supporting self support workshop management for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 Introducing a 'communal family system' to support self-reliance for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 Supporting establishing and managing 'network for the teenage girls who have dropped out of school.

2011 연구보고서- 12

학업중단 여성청소년의 실태와 정책과제

2011년 12월 14일 인쇄

2011년 12월 16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76(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代)

인쇄처 : (주) 서보미디어

전화 / 02-2253-7800

ISBN 978-89-8491-437-7 93330

<정가 14,000 원>